

ISSN 2005-0364

발간등록번호

11-1281880-100001-10

2025년 발간

# 2024 마약류 범죄백서

통계 특별판 | 40년간 통계수록



검찰

PROSECUTION SERVICE

### 발간사

검찰은 1989년 대검찰청 마약과를 창설한 이래 마약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1989년부터 국내 ‘필로폰’ 제조 조직을 집중 단속하여 90년대에는 ‘마약 생산국’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었고, 이제는 UN급 규모의 국제회의로 성장한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1990년부터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마약 퇴치 협력과 이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우리나라 주요 공항만의 마약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긴밀한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전담 수사관을 주요 공항에 배치하여 마약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마약청정국’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중요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무렵부터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인망이 일상화되면서 문명의 이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마약의 유통방식이 기존의 일대일 대면 거래 방식에서 SNS·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방식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단속과 검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 반면, 마약의 유통 속도와 확장력은 종전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89년 1,190명에 불과했던 연간 단속 마약사범 인원이 1999년 처음 1만 명을 넘긴 후 2015년 무렵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수치인 27,611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20~30대 청년들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이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고3 공부방 마약 유통사건(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2023년)’,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2023년)’,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유통 사건(2024년)’ 등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검찰은 반세기 넘게 축적된 마약범죄 수사 및 대응 역량을 토대로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경찰청·관세청·해경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과 함께 범정부적 마약 대응을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여 마약 밀수·유통 범죄를 집중 단속하였고, 전국 4대 권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광역 단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약 유통범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AI형으로 고도화하였고, 태국 등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의 마약 수사기관에 우리 마약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현지에서 마약발송 조직을 검거하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도입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시스템을 개선하여 마약류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 단속된 마약사범은 2023년 27,611명 대비 약 16.6% 감소한 23,022명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 온 증가 추세가 처음으로 꺾이는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단속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1990년부터 매년 국내·외 마약범죄 주요 통계와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발간되는 『2024 마약류 범죄백서』는 백서가 발간된 이후 수집된 통계를 집대성한 **특별판**으로 1985년부터 2024년까지 40년간 전체 마약류 범죄사범 통계,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유형별 마약류 사범 단속·처분·선고 현황, 연도별 대량 마약류 밀수 공조수사 현황 등 다양한 자료들을 수록한 『**통계 종합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특별판을 발간하는 만큼 아무쪼록 이 백서가 마약류 단속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마약과의 전쟁』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검찰총장 

## 목차

### Chapter 01 마약류의 개요

<b>제1절 마약류의 정의</b>	<b>2</b>
1. 마약류의 정의	2
<b>제2절 마약류의 종류</b>	<b>4</b>
1. 일반적인 분류	4
2. 구체적인 분류	4
<b>제3절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b>	<b>32</b>
1. 오·남용(Drug abuse) 현황	32
2. 세계 마약류 공급(Drug supply chain) 현황	35
3. 다크넷(Darknet)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현황	38
4. 신종 향정물질(NPS, New Psychoactive Substances) 현황	42

### Chapter 02 마약류 범죄 단속 규정

<b>제1절 마약류 범죄 연혁</b>	<b>52</b>
1. 해방이전	53
2. 1945년 ~ 1950년대	53
3. 1960년대	53
4. 1970년대	54
5. 1980년대	54
6. 1990년대	55
7. 2000년대	56
8. 2010년 ~ 현재	56

<b>제2절 현행법상 처벌 규정</b>	<b>57</b>
1. 마약류 범죄 처벌 법령	57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9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0

## Chapter 03 국내 동향

<b>제1절 개요</b>	<b>64</b>
1. 대상기간 및 자료 출처	64
2. 범죄유형	64
<b>제2절 2024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분석</b>	<b>65</b>
1. 2024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	65
2. 2024년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66
3. 2024년 국내 마약류 제조현황	67
4.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71
5. 2024년 성별 단속 현황	72
6. 2024년 직업별 단속 현황	72
7. 2024년 성별·직업별 단속 현황	74
8. 2024년 지역별 단속 현황	75
9. 2024년 학력별 단속 현황	76
10. 2024년 범죄원인별 단속 현황	76
11. 2024년 범행장소별 단속 현황	77
12. 2024년 청별 단속 현황	79
13. 2024년 월별 단속 현황	80
14. 2024년 조직폭력배 마약류 개입 단속 현황	81

## 2024 마약류 범죄백서

15. 2024년 국내 공조수사 현황	82
16. 2024년 외국인 단속 현황	87
17. 2024년 검찰 마약류 범죄 대응	89

### 제3절 연도별 마약류 범죄 현황 분석 134

1.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134
2. 연도별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137
3. 연도별 마약류 압수 현황	144
4. 연도별 마약류 밀반입 현황	148
5. 연도별 국내 공조수사 현황	177
6. 연도별 외국인 단속 현황	179
7. 연도별 조직폭력배 단속 현황	190
8. 연도별 연령별 단속 현황	196
9. 연도별 성별 단속 현황	204
10. 연도별 직업별 단속 현황	206
11. 연도별 지역별 단속 현황	218
12. 연도별 마약류 범죄수의 환수 현황	230

### 제4절 마약류 사범 처분 및 선고 현황 234

1. 연도별 검찰 처분현황	234
2. 연도별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	244
3. 연도별 마약류 사범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53
4. 연도별 마약류별 실형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257
5. 연도별 마약류 사범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258
6. 연도별 마약류 사범 실형 기간별 분포	262
7. 연도별 마약류 사범 약식명령 현황	266
8. 연도별 재범 현황	271
9. 연도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감호 현황	275
10. 연도별 마약류 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280

## Chapter 04 국제협력 현황

<b>제1절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b>	<b>284</b>
1. 국제협약	284
2. 국제기구	287
<b>제2절 검찰의 국제협력</b>	<b>292</b>
1. 국제협력 연혁	292
2. 2024년 국제협력 활동	292
<b>제3절 검찰의 국제 공조 수사사례</b>	<b>320</b>
1. 국제 공조 수사사례	320
2. 2024년 국제 공조 수사사례	333

## 2024 마약류 범죄백서

<b>표목차</b>		
	[표 1-1] 마약의 분류	4
	[표 1-2]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14
	[표 1-3] 임시마약류의 분류('25. 4. 7. 기준)	30
	[표 1-4] 임시 마약류 지정절차	30
	[표 1-5] 원료물질 및 최대 거래량	31
	[표 2-1] 마약류 범죄 연혁	52
	[표 2-2] 마약류 범죄 처벌 법령	57
	[표 3-1] 2024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	65
	[표 3-2] 2024년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66
	[표 3-3] 2024년 국내 마약류 제조사례	67
	[표 3-4]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71
	[표 3-5] 2024년 성별 단속 현황	72
	[표 3-6] 2024년 직업별 단속 현황	72
	[표 3-7] 2024년 성별·직업별 단속 현황	74
	[표 3-8] 2024년 지역별 단속 현황	75
	[표 3-9] 2024년 학력별 단속 구성비	76
	[표 3-10] 2024년 범죄원인별 단속 구성비	76
	[표 3-11] 2024년 범행장소별 단속 구성비	77
	[표 3-12] 2024년 청별 단속 현황	79
	[표 3-13] 2024년 월별 단속 현황	80
	[표 3-14] 2024년 조직폭력배 마약류 개입 단속 현황	81
	[표 3-15] 2024년 월별 공조수사 현황(1)	82
	[표 3-16] 2024년 월별 공조수사 현황(2)	83
	[표 3-17] 2024년 발송국가별 공조수사 현황(1)	84
	[표 3-18] 2024년 발송국가별 공조수사 현황(2)	85
	[표 3-19] 2024년 마약류 발송경로별 공조수사 현황	86
	[표 3-20] 2024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87
	[표 3-21]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현황	88

[표 3-22]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1)	134
[표 3-23]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2)	135
[표 3-24] 전체 마약류 사범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137
[표 3-25] 마약사범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138
[표 3-26] 행정사범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140
[표 3-27] 대마사범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141
[표 3-28] 연도별 마약류별 압수 현황('05 ~ '09)	144
[표 3-29] 연도별 마약류별 압수 현황('10 ~ '14)	145
[표 3-30] 연도별 마약류별 압수 현황('15 ~ '19)	146
[표 3-31] 연도별 마약류별 압수 현황('20 ~ '24)	147
[표 3-32] 연도별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	148
[표 3-33] 연도별·국가별 마약류 밀반입 현황('05 ~ '14)	150
[표 3-34] 연도별 국가별 마약류 밀반입 현황('15 ~ '24)	158
[표 3-35] 2024년도 주요 필로폰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	173
[표 3-36] 2024년도 주요 코카인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	174
[표 3-37] 2024년도 주요 대마초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	175
[표 3-38] 2024년도 주요 아바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	175
[표 3-39] 2024년도 주요 MDMA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	176
[표 3-40] 연도별 공조수사청별 공조수사 현황	177
[표 3-41] 연도별 외국인 단속 현황	179
[표 3-42] 연도별·마약류별 외국인 단속 현황	181
[표 3-43] 연도별·범죄유형별 외국인 단속 현황	183
[표 3-44]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순위	185
[표 3-45]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186
[표 3-46]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순위	189
[표 3-47] 연도별 조직폭력배 단속 현황	190
[표 3-48] 연도별 조직폭력배 범죄유형별 현황	193
[표 3-49]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	196

[표 3-50] 연도별 마약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	198
[표 3-51] 연도별 향정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	200
[표 3-52] 연도별 대마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	202
[표 3-53] 연도별 마약류 사범 성별 단속 현황	204
[표 3-54]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206
[표 3-55] 연도별 마약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209
[표 3-56] 연도별 향정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212
[표 3-57] 연도별 대마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215
[표 3-58]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218
[표 3-59] 연도별 마약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222
[표 3-60] 연도별 향정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225
[표 3-61] 연도별 대마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228
[표 3-62] 연도별 마약류 범죄수의 환수 현황	230
[표 3-63] 2024년 검찰 처분현황	234
[표 3-64]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검찰 처분현황	236
[표 3-65] 연도별 마약사범 검찰 처분현황	238
[표 3-66] 연도별 향정사범 검찰 처분현황	240
[표 3-67] 연도별 대마사범 검찰 처분현황	242
[표 3-68] 2024년 1심 재판 결과	244
[표 3-69]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	245
[표 3-70] 연도별 마약사범 1심 재판 결과	247
[표 3-71] 연도별 향정사범 1심 재판 결과	249
[표 3-72] 연도별 대마사범 1심 재판 결과	251
[표 3-73] 2024년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53
[표 3-74] 연도별 마약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54
[표 3-75] 연도별 향정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55
[표 3-76] 연도별 대마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56
[표 3-77] 연도별 마약류별 실형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257

[표 3-78] 2024년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258
[표 3-79] 연도별 마약사범의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259
[표 3-80] 연도별 향정사범의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260
[표 3-81] 연도별 대마사범의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261
[표 3-82] 2024년 실행 기간별 분포	262
[표 3-83] 연도별 마약사범 실행 기간별 분포	263
[표 3-84] 연도별 향정사범 실행 기간별 분포	264
[표 3-85] 연도별 대마사범 실행 기간별 분포	265
[표 3-86] 2024년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66
[표 3-87]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67
[표 3-88] 연도별 마약사범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68
[표 3-89] 연도별 향정사범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69
[표 3-90] 연도별 대마사범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70
[표 3-91] 연도별 재범 현황	271
[표 3-92] 연도별 마약류별 재범률(1)	272
[표 3-93] 연도별 마약류별 재범률(2)	273
[표 3-94] 연도별 재범의 전과내역	274
[표 3-95] 연도별 치료보호 현황	275
[표 3-96] 연도별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기관 현황 및 실적	276
[표 3-97] 연도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280
[표 3-98] 연도별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280
[표 3-99] 연도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280
[표 3-100] 연도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281
[표 4-1] 역대 지원사업 실시 현황	309
[표 4-2] 역대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 현황	312
[표 4-3] 역대 대검찰청 ODA 마약류 퇴치 지원사업 대상 국가	315

<b>그림목차</b>		
	[그림 1-1] 양귀비	5
	[그림 1-2] 아편	6
	[그림 1-3] 모르핀	7
	[그림 1-4] 코데인	8
	[그림 1-5] 헤로인	9
	[그림 1-6] 코카인	10
	[그림 1-7] 크랙	11
	[그림 1-8] 페티딘	12
	[그림 1-9] 메타돈	12
	[그림 1-10] 펜타닐(좌), 펜타닐 치사량(우)	13
	[그림 1-11] 메트암페타민	15
	[그림 1-12] MDMA	16
	[그림 1-13] LSD 스티커(좌), LSD 정제형(우)	17
	[그림 1-14] 날부핀	18
	[그림 1-15] 덱스트로메토르판(좌), 카리소프로돌(우)	18
	[그림 1-16] 펜플루라민	19
	[그림 1-17] 합성대마	20
	[그림 1-18] 크라툼	22
	[그림 1-19] 케타민	22
	[그림 1-20] 야바(좌), 코끼리 목각 속에 은닉된 야바(우)	23
	[그림 1-21] GHB	24
	[그림 1-22] 프로포폴	25
	[그림 1-23] 대마	25
	[그림 1-24] 대마초(좌), 과자봉지에 은닉된 대마초 사진(우)	27
	[그림 1-25] 마커펜에 은닉된 대마카트리지	28
	[그림 1-26] 대마오일(좌), 대마 초콜릿(우)	28
	[그림 1-27] 해시시(좌), 해시시오일(우)	29
	[그림 1-28] 2021년 세계 약물 사용자 수 추정치	33

[그림 1-29] 2012·2017·2022년 세계 마약 남용 및 중독 인구 추이	33
[그림 1-30] 마약류별 남녀 사용자 현황	34
[그림 1-31] 2022년 세계 마약류별 압수량	35
[그림 1-32] 1998~2022년 대마초 압수량 및 밀매 동향	35
[그림 1-33] 1998~2022년 세계 암페타민류(ATS) 압수량	36
[그림 1-34] 압수된 암페타민류(ATS)의 종류별 비율	36
[그림 1-35] 2018~2022년 국가별 주요 암페타민류(ATS) 압수 유형 지도(킬로그램 환산 기준)	37
[그림 1-36] 1998~2022년 전 세계 코카 재배 면적 및 코카인 제조량	37
[그림 1-37] 1998~2022년 전 세계 아편계 약물 압수 및 아편 생산 동향	38
[그림 1-38] 표면웹(Surface Web), 딥웹(Deepweb), 다크넷(Darknet) 개념도	39
[그림 1-39] 2011~2022년 활성 다크넷 마켓 수	40
[그림 1-40] 2011~2022년 주요 다크넷 마켓에서 판매된 마약류 비율	40
[그림 1-41] 2011~2022년, 39개 주요 다크넷 마켓에서 마약류 종류별 최소 판매액	40
[그림 1-42] 2011~2022 다크웹 주요 마약 판매사이트 및 1일 마약 판매량 추이	41
[그림 1-43] 2018~2022년 다크웹을 통한 거래 중 마약류 발송 적발 지역 추이	41
[그림 1-44] 2023년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약물 수 및 전 세계적으로 식별된 신종 향정신성물질(NPS) 수(2005~2023년, 누적 수치)	44
[그림 1-45] 2010~2022년 합성 신종향정물질(NPS) 압수량	44
[그림 1-46] 2010~2022년 신종향정물질(NPS) 압수량(상: 합성 계열, 하: 식물 기반)	45
[그림 1-47] 신종향정물질(NPS)의 그룹별 현황	45
[그림 1-48] 1999~2022년 미국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자 수(상), 2016~2023년 분기별 캐나다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자 수(하)	47
[그림 1-49] 펜타닐 유형(왼쪽) 및 펜타닐 치사량(2mg)	48
[그림 1-50] 중국 펜타닐의 미주지역 유입경로	48
[그림 1-51] 정품(Authentic)과 가짜(Fake) 펜타닐(정제형) 비교	49
[그림 3-1] 2024년 마약류별 단속 구성비	65
[그림 3-2] 2024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66

## 2024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3-3] 수원역 오피스텔 필로폰 제조사건 적발 현장	69
[그림 3-4] 액상 코카인 운반장면(상), 제조를 마친 고체 코카인(하)	70
[그림 3-5]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71
[그림 3-6] 2024년 직업별 단속 현황	73
[그림 3-7] 2024년 성별·직업별 구성비	74
[그림 3-8] 2024년 마약류 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75
[그림 3-9] 2024년 학력별 구성비	76
[그림 3-10] 2024년 범죄원인별 구성비	76
[그림 3-11] 2024년 범행장소별 구성비	78
[그림 3-12] 2024년 청별 마약류 사범 단속 구성비	79
[그림 3-13] 2024년 마약류 사범 월별 단속 현황	80
[그림 3-14] 2024년 월별공조수사 현황	83
[그림 3-15] 2024년 발송국가별 공조수사 현황(1)	84
[그림 3-16] 2024년 발송국가별 공조수사 현황(2)	85
[그림 3-17] 2024년 발송경로별 공조수사 현황	86
[그림 3-18] 2024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87
[그림 3-19]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현황	88
[그림 3-20]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현판	90
[그림 3-21]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중점 수사분야	90
[그림 3-22]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도	91
[그림 3-23]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발표	92
[그림 3-24]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2차 회의	93
[그림 3-25] 대검찰청·경찰청·서울시 MOU 체결	94
[그림 3-26]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차 회의	95
[그림 3-27]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	100
[그림 3-28] 압수물 전체 사진	101
[그림 3-29]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던 여행용 캐리어	101
[그림 3-30] 필로폰 약 1,035.32g 및 은닉 용기	101

[그림 3-31] 케타민 약 1,079.46g 및 은닉 용기	101
[그림 3-32] 엑스터시 1,000정 및 은닉 용기	101
[그림 3-33] LSD 800점	101
[그림 3-34] 대마오일 약 1,124.84g 및 은닉 용기	102
[그림 3-35] 액상대마 흡연용 카트리지 499개	102
[그림 3-36] 액상대마 흡연용 카트리지 498개	102
[그림 3-37] 현금 422달러	102
[그림 3-38] 범행구조도	105
[그림 3-39] 캐리어 은닉 필로폰 사진	105
[그림 3-40] 지게꾼이 플라스틱 박스에 담긴 필로폰을 야산에 묻고, 그 위에 흙을 덮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	106
[그림 3-41] 필로폰이 은닉된 복대(좌) 및 착용 상태 촬영 사진(우)	106
[그림 3-42] 필로폰 소분, 포장 사진	106
[그림 3-43] 대마 및 사일로신이 함유된 과자	108
[그림 3-44] 대마 및 사일로신이 함유된 사탕	108
[그림 3-45] 어린이용 책가방 안에 장난감과 함께 은닉된 마약류 제품	108
[그림 3-46] 불가리아 세관에서 적발한 노트북 패널 안쪽에 은닉되어 있는 엑스터시	108
[그림 3-47] 판매상들이 ☆ 사이트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광고	111
[그림 3-48] E 주거지의 대마초 수확 후 건조되고 있는 모습	112
[그림 3-49] B 주거지에서 재배되고 있던 대마초	112
[그림 3-50] D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대마초	112
[그림 3-51] 태국에서 수입된 합성대마	113
[그림 3-52] M 주거지에서 발견된 각종 대마 흡연도구	113
[그림 3-53] F가 수입한 마약류 사진	113
[그림 3-54] F가 수입한 사일로신 함유 초콜릿	113
[그림 3-55] 범행구조도	115
[그림 3-56] 마약수사 대비 목적의 텔레그램 채널(구독자 약 9천 명)	116
[그림 3-57] 고급호텔에서의 마약투약	116

## 2024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3-58] 놀이공원에서의 마약투약	116
[그림 3-59] 범행 개요도	118
[그림 3-60] OO의원에서 압수한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 박스	120
[그림 3-61] 영업 시간 외 투약 예약	120
[그림 3-62]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투약하기 위해 준비해 둔 프로포폴 수액	121
[그림 3-63] 프로포폴 중독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	121
[그림 3-64]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마약류 유통 구조	123
[그림 3-65]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및 범행 도구	124
[그림 3-66] 텔레그램 마약류 채널에 게시된 마약류 광고사진	124
[그림 3-67] 마약류 '좌표'	125
[그림 3-68] 좌표에 은닉된 마약류	125
[그림 3-69] 필로폰 국내 유통 경로	128
[그림 3-70] 반죽기 전면(좌),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던 반죽기 후면(우)	128
[그림 3-71] 압수된 필로폰 전체(14kg)(좌), 필로폰이 포장되어 있던 포장지(우)	129
[그림 3-72] 범행구조도	131
[그림 3-73] 콜롬비아 국적 제조 기술자들이 강원도 횡성군 소재 창고에서 코카인을 제조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32
[그림 3-74] 제조를 마친 코카인	133
[그림 3-75] 밀수입 액상 코카인	133
[그림 3-76]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1)	134
[그림 3-77]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2)	135
[그림 3-78] 연도별 마약류 압수 현황(1)	144
[그림 3-79] 연도별 마약류 압수 현황(2)	145
[그림 3-80] 연도별 마약류 압수 현황(3)	146
[그림 3-81] 연도별 마약류 압수 현황(4)	147
[그림 3-82] 2024년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	149
[그림 3-83] 연도별 공조수사 현황	178
[그림 3-84]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180

[그림 3-85]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마약류별 단속 현황	182
[그림 3-86]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밀수·투약 현황	184
[그림 3-87] 연도별 조직폭력배 단속 현황	191
[그림 3-88]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10대 단속 현황	197
[그림 3-89] 연도별 마약사범 60대 이상 단속 현황	199
[그림 3-90] 연도별 향정사범 20·30대 단속 현황	201
[그림 3-91] 연도별 대마사범 20·30대 단속 현황	203
[그림 3-92] 연도별 마약류 사범 성별 단속 현황	205
[그림 3-93]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주요 직업 단속 현황	208
[그림 3-94] 연도별 마약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211
[그림 3-95] 연도별 향정사범 ‘학생’ 단속 현황	214
[그림 3-96] 연도별 대마사범 ‘노동’ 단속 현황	217
[그림 3-97] 연도별 마약류 사범 지역별 현황	221
[그림 3-98] 연도별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223
[그림 3-99] 연도별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226
[그림 3-100] 연도별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229
[그림 3-101] 2024년 검찰 처분현황	235
[그림 3-102] 2024년 1심 재판 결과	244
[그림 3-103] 2024년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253
[그림 3-104] 2024년 마약류 사범의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258
[그림 3-105] 2024년 실형 기간별 분포	262
[그림 3-106] 2024년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66
[그림 3-107] 연도별 마약류별 재범률	272
[그림 3-108] 연도별 마약류별 재범률	273
[그림 3-109] 연도별 치료보호 현황	281
[그림 4-1]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286
[그림 4-2] 마약류 범죄 대응 국제기구	287
[그림 4-3] UNODC 로고(좌) 및 세계마약보고서(우)	288

## 2024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4-4] INCB 로고	289
[그림 4-5] CND 로고	290
[그림 4-6] HONLAP 로고	291
[그림 4-7] 제26차 아·태마약단속회의(ADEC)	294
[그림 4-8] 고위급 회의(High-level Segment)에서 발언하고 있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296
[그림 4-9] 대검찰청 마약과장 발언	298
[그림 4-10] 캄보디아 마약청(NACD) 양자회담	299
[그림 4-11] 키르기스스탄 마약청(CNS) 양자회담(좌), 인터폴(ICPO) 양자회담(우)	300
[그림 4-12] UNODC 고위급 인사 양자회의	300
[그림 4-13] 미국 DEA 주관 아·태지역 국제마약 단속 회의(IDEC)	303
[그림 4-14] 제45차 마약류 법집행기관장 회의(HONLEA)	305
[그림 4-15]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307
[그림 4-16] APICC	309
[그림 4-17] NCID 측과 미팅(상) 및 단체사진(하)	310
[그림 4-18] 대검찰청-NCID 단체사진(상), 장비인도식을 하고 있는 NCID 마약수사국장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하)	311
[그림 4-19] APICC 워크숍 참석자 단체사진(상) 및 회의장 전경(하)	313
[그림 4-20] 지원한 최신형 드론을 이용한 대마 단속 장면	316
[그림 4-21] 인도네시아 ODA 사업종료식 - 장비 인도식 장면	317
[그림 4-22] 인천지검 헤로인 적발 사진(좌), 청주지검 피의자 태국 현지 검거당시 사진(우)	318



Chapter 01.

# 마약류의 개요

**제1절** 마약류의 정의  
**제2절** 마약류의 종류  
**제3절**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

# 제1절 마약류의 정의

## 1. 마약류<sup>1)</sup>의 정의

- 마약(Narcotics)은 그리스어 narko(to make numb, 감각을 없애는)에서 유래한 단어로 특정 약리 작용(정신 마비, 진통, 다행감, 탐닉)과 함께, 의존과 남용을 유도하는 성질을 지니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보건·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는 약물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마약류’가 정확한 용어임
- 세계보건기구(WHO)<sup>2)</sup>는 ‘마약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함
  - (1) 약물 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2)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 (3) 사용 중단 시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 (4)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 일반적으로 약리 특성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수면·마취제), 진통제, 환각제 등으로 분류됨
-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이 있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3종류로 분류함

1) 본 책에서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마약류’로 통칭하는 것으로 함

2) WHO(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2절 마약류의 종류

### 1. 일반적인 분류

-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의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말함
- 일반적으로 약리 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 등으로 분류됨

### 2. 구체적인 분류

#### 가. 마약

- 개요
  - (1) 마약은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 추출 알칼로이드, 이를 원료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표 1-1] 마약의 분류

분류	품명	지정 성분수	비고
천연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3	
추출 알칼로이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35	일부 의료용사용
합성마약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	109	일부 의료용사용

- (2) 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대]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sup>이</sup>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대은 제외한다.

## • 종류

### (1) 천연마약 및 추출 알칼로이드<sup>3)</sup>

#### ① 양귀비

- 양귀비는 일명 ‘앵속’(opium poppy, 罌粟)이라 불리는 식물로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식물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종임

[그림 1-1] 양귀비



※ 출처: UNODC

3) 식물염기(植物鹽基, alkaloid)라고 하며,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화합물로서 동물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침. 카페인, 모르핀, 코카인, 니코틴 등이 잘 알려진 알칼로이드임

- 기원전 5,000년경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 돌에 아편 관련 지식을 새겼던 것이 아편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으로,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4세기경 양귀비로부터 추출한 액체를 질병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음
- 양귀비라는 명칭은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견할 정도로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앵속은 1년생 식물(1~1.5m)로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초승달 지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재배됨
- 양귀비 열매에서 즙을 추출하여 이를 정제하여 고체로 만들면 아편(Opium)이 되는데, 국내에서의 양귀비 재배는 아편 추출을 통한 투약 목적보다는 주로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서 가정상비약이나 동물치료 목적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임

## ② 아편

- 아편(阿片, Opium)은 양귀비의 덜 익은 열매에 상처를 내어 흘러내리는 우윳빛 추출액을 60℃ 이하에서 건조 시킨 암갈색의 덩어리로 생아편이라고도 불림

[그림 1-2] 아편



※ 출처: KENSINGTON TV

- 민간에서는 아편의 탁월한 진통 효과 때문에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음. 처음 한두 번 아편을 사용하는 때에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최초의 약효를 얻기 위해 보다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하는 등 심각한 중독증상에 이르게 됨
- 아편을 지속적으로 남용할 때에는 남용자의 낮빛이 창백해지고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질되며, 식욕과 성욕의 상실을 비롯하여 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 등 각종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시간대로 알려짐
- 영국과 아편전쟁(1840년~1842년)까지 치렀던 중국(당시 淸國)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하였음
- 주로 인도·터키·유고슬라비아·파키스탄에서 제조되며, 최근은 아편의 오남용에 의한 문제보다 화학 처리하여 제조하는 헤로인, 크로코딜, 펜타닐이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③ 모르핀

- 모르핀(morphine)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진통성이 강한 알칼로이드(alkaloid)로서 1805년 독일 약사 Sertürner는 아편에서 최초로 모르핀을 분리하였고, 그리스 신화의 Morpheus(꿈의 여신) 이름을 따서 명명

[그림 1-3] 모르핀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아편으로부터 추출한 모르핀은 진통, 진정, 진해 효과가 뛰어나지만, 구토·발한·발열·설사 등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며, 사용을 중단하는 때에는 심각한 금단증상을 일으킴
- 모르핀에 중독된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3회(1회 투약량은 10~20mg) 정도 투약하고,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하루 120mg을 투약하기도 하며, 한 번에 200mg 이상을 투약하는 때에는 호흡 장애를 유발하여 투약자 대부분이 호흡 장애로 사망에 이름

#### ④ 코데인

- 코데인(codeine)은 ‘메틸 모르핀(Methyl Morphine)’이라고도 불리는 알칼로이드(alkaloid)의 일종으로 의학적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하며 통증을 억제하는 진해 및 진정작용이 탁월하고 신체적 의존성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남용하는 때에는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함

[그림 1-4] 코데인



※ 출처: 미국중독센터(American Addiction Centers)

- 코데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증을 치료하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형상은 무취의 백색 결정이나 결정성 분말, 정제, 캡슐 또는 감기약과 같은 용액의 액상을 하고 있음

## ⑤ 헤로인

-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 즉 헤로인(heroin)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후 모르핀 염기에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 처리하여 제조함

[그림 1-5] 헤로인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아세틸화합물인 헤로인은 냄새가 없고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 형태로 나타나며,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임
- 모르핀을 원료로 한 만큼 일반적인 약리 작용은 모르핀과 유사하나,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배에 달함
- 헤로인은 ‘용감한, 강력한’이란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된 말로서 1874년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1898년 독일 바이엘사가 진통제로 시판하였으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미국은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음

## ⑥ 코카인

- 코카인(cocaine)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서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감을 야기하는 천연 마약임

[그림 1-6] 코카인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코카 잎을 씹으면 잎 속의 알카로이드가 구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지각신경 말단을 자극하는데, 고대 잉카제국에서 제사장들은 종교의식 중 최면 효과를 내기 위해, 일반인들은 일상의 배고픔과 피로감을 잊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함
- 코카 잎은 1532년경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공 시 유럽에 전해졌고, 1800년대 중반 코카인 성분이 분리되었으며, 1873년 의료용 진통제로 처음 사용되었음
- 남미 일대에서 재배된 코카 잎은 농부가 직접 잎사귀를 가공하여 코카페이스트(반죽)를 만들고 이를 정제하여 코카인을 제조하지만, 대부분은 정글 내 제조 시설에서 코카인 추출작업이 은밀하게 진행되며, 미국에서는 엄밀한 법률적 규제하에 정식으로 생산하여 국소용 마취제로 사용함
- 남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은 직접 코카 잎을 씹거나 코카페이스트를 흡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남용자들은 수정체 분말을 코로 들이마시거나 주사기로 투약함
-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로서 흡입 또는 투약 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 다니는 느낌의 환각에 빠지고, 과다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열과 경련이 일어남. 심할 때는 호흡곤란으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한편 크랙(Crack)은 코카인염에 탄산나트륨, 베이킹파우더 등을 섞어 가열한 후 냉각시켜 고체 상태로 제조함
- 흡연할 경우 뇌의 도파민 분비량이 급작스럽게 올라가며 자신감과 고양감을 느끼는데 이 과정이 5~10분 정도로 매우 짧아 지속적으로 다른 흡연 수단을 찾게 됨

- 크랙은 물에 녹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체들이 서로 부딪히며 딱딱(crack) 소리를 내는 것에서 이름이 유래됨
- 코카인보다 약효가 몇 배 강하고 중독성이 높으나,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미국 사회 전체에 널리 퍼짐

[그림 1-기] 크랙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2) 합성마약

-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 효과를 내면서도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으로서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있고 그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티딘(pethidine)계, 메타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으로 분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페티딘계와 메타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됨

### ① 페티딘계

- 페티딘(pethidine)은 모르핀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합성마약으로서 1939년 독일 웨스트제약(Hoechst)의 O. Eisleb에 의해 최초로 합성됨
- 최초 'Dolantin'이란 제품명으로 시판되었고 'Demerol', 'Pethadel'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기도 하며, 현재 알려진 종류로는 페티딘, 펜타닐, 디펜녹실레이트 등이 있음

[그림 1-8] 페티딘



※ 출처: drughelpline.com

- 페티딘은 화학적으로는 모르핀과 다르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 효과를 주는 측면에서는 모르핀과 유사함. 진통 효과 외에 진정효과도 있으며 3~6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됨

## ② 메타돈계

- 메타돈(methadone)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모르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웨스트제약(Hoechst)이 개발한 합성마약으로서 현재 메타돈, 아세틸메타돌, 디피파논 등이 알려짐

[그림 1-9] 메타돈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개발 당시 메타돈의 약리 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작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사용되지 않았음. 화학적으로는 모르핀, 헤로인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효과 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 모르핀보다 약효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전후(戰後) 마약 중독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함
- 소위 '메타돈 파동'  
1965년 우리나라의 23개 제약회사들이 합성마약인 메타돈을 일반 약품에 혼합하여 해열진통제, 국소마취제, 비타민 영양제 주사 등으로 속여 판매하다 수만 명의 중독자를 발생시킨 사건임

### ③ 펜타닐

-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암 환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환자, 대형 수술 환자용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임. 그 위력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며 완전치사량(LD100)도 2mg에 불과하여 극미량이라도 잘못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림 1-10] 펜타닐(좌), 펜타닐 치사량(우)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현재 50세 이하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오피오이드(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주로 펜타닐) 오남용이며, 2022년 한 해 동안 약 7만 5천여 명이 펜타닐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미국에서 오남용되는 펜타닐은 FDA 승인 없이 멕시코 카르텔 등에 의해 불법으로 제조되어 강렬한 효과를 내기 위해 정확한 함량을 지키지 않은 알약과 가루 형태의 제품들로 판매되며, 극소량만 투약해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

## 나. 향정신성의약품

### • 개요

- (1)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었으나, 투여 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제 대상 물질을 말함

[표 1-2]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분류	품명	지정 성분 수	비고
가목	엘에스디(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툼(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147	의료용 불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나목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44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다목	바르비탈(Barbital),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등	61	의료용 사용,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라목	디아제팜(Diazepam),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조피클론(Zopiclone), 프로포폴(Propofol) 등	82	의료용 사용,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 '가'목부터 환각효과 등의 약효가 강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2) 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 종류

### ① 메트암페타민(법 제2조 제3호 나목)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흥분제(각성제)로서 속칭 ‘필로폰’으로 더 알려져 있음
- 메트암페타민은 결정체·가루·액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 가루’로도 불림. 불법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또는 ‘총’ 등 은어로 불림
- 미국에서는 결정체는 ‘ice’, 가루 형태는 ‘speed’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빙두’,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 ‘사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불림

[그림 1-11] 메트암페타민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암페타민류에는 메트암페타민을 비롯하여 암페타민, 텍스암페타민, 레브암페타민, 디메틸암페타민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정신적 의존성 또한 매우 강함

- 메트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발견한 물질이며, 1893년 세계최초로 합성에 성공함
- 메트암페타민은 일본의 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영문상품명 Philopon)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하여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 각성 약물로서 판매하였고, 당시 상품명 ‘히로뽕’은 현재까지도 메트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한편 ‘Philopon’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 단순 각성 약물로 판매되던 ‘메트암페타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수용품으로 대량 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의 제고 수단으로 사용되었음

② MDMA(3, 4-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법 제2조 제3호 나목)

- MDMA는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됨. 강력한 환각 성분으로 인한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시중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세계적으로 남용됨

[그림 1-12] MDMA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MDMA의 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MDMA를 복용하면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포옹 마약(hug drug)’으로 불리기도 함
- 복용 후 20~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적인 흥분감을 일으키며, 3~4시간 약효가 지속됨. 과다복용 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 투약자를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도 함

- MDMA는 메트암페타민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환각효과는 3배가량 강하고, 주로 알약 형태로 섭취하며, 투약방법이 간편하여 많은 국가에서 오·남용되고 있음

### ③ LSD(법 제2조 제3호 가목)

-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1938년 스위스 화학자 앨버트 호프만(Albert Hofmann)이 호밀 이삭에서 발생하는 맥각병에서 착안하여 최초 합성한 무미, 무취, 무색의 환각제로서 일반적으로 종이 또는 정제에 LSD 용액을 흡착하여 사용함

[그림 1-13] LSD 스티커(좌), LSD 정제형(우)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1960년대 반문화 운동 시기에 많이 남용되었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이 확산되었으며, 주로 우표 같은 형태의 종이에 인쇄하여 이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알약 형태로 유통되기도 함
- 소량의 경구투여로도 효과가 나타날 만큼 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환각효과는 필로폰의 약 300배에 달하며 8~12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투약 시 오감을 왜곡시키는 환각효과를 경험하게 되고, 공포, 불안, 두려움 등의 환각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투여로 인한 뇌 손상, 혈압상승, 수전증 등의 부작용이 여러 사례 보고된 바 있음

### ④ 날부핀(Nalbuphine)(법 제2조 제3호 라목)

- 날부핀은 일명 '누바인'이라고도 불리며 응급환자의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물이었으나, 환각성이 있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 약물로 남용되기도 하였음

[그림 1-14] 날부핀



※ 출처: vasg.org

- 피하 주사 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에 이르는 진통 효과를 보이고 약효 지속 시간은 3~6시간임.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 두통, 환각, 공상 등 정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 등 부작용을 유발함

⑤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법 제2조 제3호 라목)**

-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진해거담제로서 일명 ‘러미나’라고 불리는 약물로, 필로폰, 날부핀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흥업소 종사자, 가정주부 등이 남용한 바 있음

[그림 1-15] 덱스트로메토르판(좌), 카리소프로돌(우)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좌), antidrug.drugfree.or.kr(우)

- 카리소프로돌은 근육 이완제로서 일명 'S정'이라고 불리는 약물로, 러미나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고 일부 사람들에게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음

### ⑥ 펜플루라민(Fenfluramine)(법 제2조 제3호 라목)

- 중국, 태국 등지로부터 보따리장수, 관광객, 중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수입되는 약물임.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명편, 분미림편, 섬수, 상주청, 철심감미교환, 패씨감비환, 건미소감비요환'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유통되고 있음
- 과다복용 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 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음

[그림 1-16] 펜플루라민



※ 출처: antidrug.drugfree.or.kr

### ⑦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

- 화학물질들을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강력한 환각효과를 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건조된 식물의 잎에 흡착시켜 마치 대마초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연기를 흡연하거나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제작하여 흡연하는 방식 또한 대마초 흡연 방식과 유사하나, 천연 마약류인 대마의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sup>4)</sup>와는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마약류임

4) 대마초에 들어있는 환각성분으로, 화학명칭은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delta-9-tetrahydrocannabinol)이며 약칭으로 'THC'라고 함

[그림 1-17] 합성대마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가격이 저렴하고 환각효과가 강력하며, 투약 방식이 쉬워 젊은 층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
- 2009년 마약류로 최초 지정되어 총 6개의 물질이 관리되고 있으며 화학물질 외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유사체 또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는 크게 JWH계열(JWH-018, JWH-030, JWH-175, JWH-176 및 그 유사체)과 HU-210, CP-47497 등으로,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제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임

▷ JWH-018(법 제2조 제3호 가목)<sup>5)</sup>

- 일명 ‘스핑크’, 또는 ‘스파이스’ 등으로 불리며, 천연 마약류인 대마와 화학 구조적으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임
- 건조된 식물에 합성물질을 흡착시켜 ‘식물성 제품(Herbal Product)’ 형태로 판매되고, 이를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남용됨. 신경 전달을 저해하고 불안, 동요,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며 그 효과가 대마보다 강함

▷ HU-210(법 제2조 제3호 가목)

- 1988년 스위스 대학의 연구팀이 최초 합성한 대마 성분으로서 ‘HU’는 Hebrew University의 약칭임
- 대마초의 천연 THC 성분보다 7~8배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내고 지속기간이 더 장기임

5) JWH-018 및 그 유사체 계열: 5F-UR-144(XLR-11, 신의눈물), 5F-AKB-48, 5F-ADB, 5F-PB-22, JWH-073, ADB-CHMINACA, AB-CHMINACA, FUB-AKB48, FUB-AMB, AMB-FUBINACA, MMB-2201, AM-2201

## ▷ CP-47497(법 제2조 제3호 가목)

- 1980년대 제약회사가 진통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마 성분을 첨가하여 개발함

## ▷ AM-2201(법 제2조 제3호 가목)

- 미국대학연구센터의 교수에 의해 특허 등록된 합성마약류로서 위 교수의 영문 이니셜에 따라 'AM'으로 명명되었다고 함
- 합성마약류를 건조된 식물의 잎에 흡착시킨 후, 비닐봉지에 1~10g씩 소매로 포장, 판매되는데 그 환각효과는 JWH-018 및 THC의 수 배 수준이며, 불소 성분 함유로 불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젖은 빵, 말린 과일 등에 넣고 희석시켜 복용하거나 허브와 섞어 흡연함
- JWH-018 유사체(불소만 추가됨)로서 일반적으로 JWH-122, JWH-250 등과 혼합된 제품 유형이 'SPACE CADET FLIGHT RISK'라는 품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됨

## ⑧ 크라툼(Kratom)(법 제2조 제3호 가목)

-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로서 말레이시아에서는 'Biak-Biak'이라고 칭하며, 다 자라면 높이가 15m에 이름
-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견디기 위한 각성제로 수십 년 전부터 복용하고, 잎을 씹거나 차 형태로 복용하거나 분말을 타서 마시기도 함
- 소량 복용 시 각성효과로 인해 말이 많아지고 사교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한꺼번에 다량을 복용하면 진정과 도취 효과와 함께 구토, 현기증 등 부작용을 일으킴

[그림 1-18] 크라툼



Kratom tree



Leaf of kratom tree



Kratom capsules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⑨ 케타민(Ketamine)(법 제2조 제3호 나목)

-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하는 ‘케타민’은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일으킴.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불림

[그림 1-19] 케타민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정맥이나 근육 주사, 흡연 또는 흡입하면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강력한 환각효과가 나타나고, 남용방식에 따라 1~6시간 정도 환각효과가 지속되며, 맥박과 혈압상승, 호흡 장애, 심장마비의 부작용을 일으킴

## ⑩ 야바(YABA)(법 제2조 제3호 나목)

- 야바는 필로폰(30%), 카페인(60%), 코데인(10%) 등 각종 환각 성분을 혼합하여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임
- 일반적인 필로폰과는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띠어, 정제나 캡슐 형태로 포장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용이함

[그림 1-20] 야바(좌), 코끼리 목각 속에 은닉된 야바(우)



※ 출처: 인천세관

- 야바는 1938년 독일에서 'Temmler Werke GmbH社'가 'Pervitin'이라는 제품명으로 최초 개발하여 시판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 각성효과를 이용한 전투력 증대를 위해 독일군에 보급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에 야바 제조방법이 태국에 알려지게 됨
- 복용 후 수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높은 혈압이 30시간까지 지속되어 신경조직이 파괴됨. 탈수 증세와 함께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 등을 일으키며, 수일간 다량을 복용하면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킴

## ⑪ GHB(Gamma Hydroxy Butyrate)(법 제2조 제3호 라목)

- 속칭 '물뽕',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 등으로 불리며, 클럽 등지에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그림 1-21] GHB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좌), 인천세관(우)

- 1960년에 GABA의 유사화합물을 찾던 프랑스 생화학자 H.M. Laborit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어 이후 유럽에서 발작성 수면을 치료하기 위한 수면 보조제나 수술용 마취제로서 소개되었으나, 마취제로서의 효능 저하 및 예측 불가능한 마취 지속시간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짐
- 미국에서 GHB는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약물로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대체제(체중 조절 등 목적으로 사용)로 굉장히 인기가 높아, MDMA, 술과 함께 파티용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1990년대 후반 미국 FDA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함
- 백색 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을 희석하여 복용하면 10~15분 이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 3~4시간 지속되고, 남용하면 혼수상태나 발작을 일으킴. 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어려움

⑫ 프로포폴(Propofol)(법 제2조 제3호 라목)

- 영국 기업이 최초 개발하여 1977년 임상시험을 거쳤고, 국내에는 1992년부터 사용이 허가됨
- 수면마취제로도 불리는 정맥 투약제로서 수술 시 전신마취의 유도(induction), 유지(maintenance)에 사용되거나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면내시경검사 마취 등에 사용됨

[그림 1-22] 프로포폴



※ 출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과 혈압 저하 현상을 비롯한 두통, 어지러움, 경련, 구토, 흥분, 착란 증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 불면증, 피로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분이 좋게 만드는 환각효과가 있음. 국내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남용됨에 따라 2011년 2월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

## 다. 대마

### • 개요

- (1) 대마는 칸나비스 屬 일년생 식물로서 중국, 인도, 북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세기 전부터 섬유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었음.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왔음

[그림 1-23] 대마



※ 출처: UNODC, 미국 DEA

-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삼(hemp)’이라고도 하며 재배역사가 오래된 식물임.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음
-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그 원산지로서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 전부터 도취를 초래하는 물질로 남용되어 왔음
-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신농(神農) 황제 시대의 기록에 등장하고,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의 치료와 섬유원료로 사용되었음
- 우리나라에는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이후 흡연 형태의 대마초가 널리 전파됨

## (2)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 종류

### ① 대마초(大麻草)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 형태로 만든 것으로 학명은 ‘Cannabis Sativa Linne’이며 북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리화나(Marijuana)’라고 불림

[그림 1-24] 대마초(좌), 과자봉지에 은닉된 대마초 사진(우)



※ 출처: 인천세관

- 씨앗 생성 시기에 비교적 풍부하게 생성되는 ‘THC(tetrahydrocannabinol)’라는 물질 때문에 흡연 시 도취,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됨
- 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 삼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marijuana)’ 또는 ‘브항(bhang)’이라고 함. 한편 마리화나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의 ‘mariguango (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함
- 흥분과 억제 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환각제로 분류됨. 적은 양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꾸는 듯한 느낌, 공복감 등을 일으키고 사고의 형성 및 표현의 예민한 변화와 함께 시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의 감각을 오묘하게 변화시킴
- 남용할 때에는 투약자에게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며, 집중력과 자아의 상실, 환각, 환청 등을 일으킴. 이러한 증상은 제3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함
- 대마 남용의 위험성은, 환각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거나, 대마보다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를 찾게 할 가능성 또한 높이는 데 있음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 등으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대마를 상품화한 제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1-25] 마커펜에 은닉된 대마카트리지



※ 출처: 인천세관

[그림 1-26] 대마오일(좌), 대마 초콜릿(우)



※ 출처: 인천세관

## ② 해시시(Hashish)

-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sup>6)</sup>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갈색, 연갈색, 암갈색, 흑색 등 덩어리의 형태이며 약 10%의 THC를 함유하여 대마초보다 8~10배가량 작용성이 강함

6) 보통 1kg의 해시시를 제조하기 위하여 약 30kg의 대마초가 필요

- 대마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병을 초래하기도 함

[그림 1-27] 해시시(좌), 해시시오일(우)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좌), UNODC(우)

- 해시시 오일(hashish oil)은 증류 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고도로 대마를 농축하여 추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약 20%에 이름

## 라. 임시마약류

### • 개요

- (1)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응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물질을 말함
- (2) 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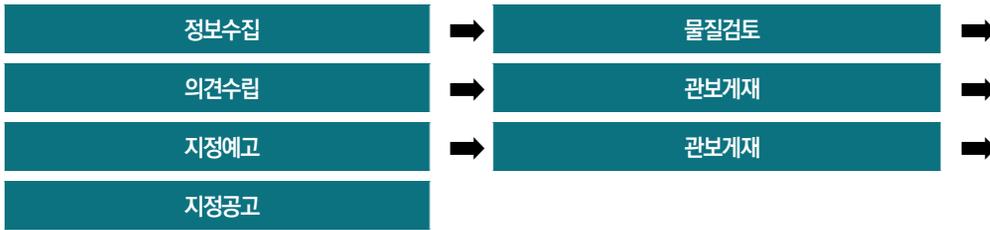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표 1-3] 임시마약류의 분류('25. 4. 7. 기준)<sup>7)</sup>

분 류	물 질 명	지정 성분수	비 고
1군	1V-LSD, LSZ 등	23	주로 오피오이드 계열
2군	CH-PIATA, Cumyl-4CN-B7AICA 등	84	주로 암페타민, 합성대마 계열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관 업무이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아래의 행위가 모두 금지됨
  - ①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②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③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함

[표 1-4] 임시 마약류 지정절차



## 마. 원료물질

### • 개요

- (1)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2)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은 ‘지정 공고한 날부터 3년’이고, 효력 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로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임시마약류는 수시로 지정 예고 및 공고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 최근 공고문 확인 필요

[표 1-5] 원료물질 및 최대 거래량<sup>8)</sup>

분류	물질명	지정 성분수	비고
1군	에페드린, 무주초산 등	48	14종 최대거래량 지정
2군	안트라닐산, 염산 등	7	5종 최대거래량 지정

※ 최대 거래량이 설정된 원료물질은 그 최대 거래량까지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나, 최대 거래량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거래마다 거래량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개정 '25. 2. 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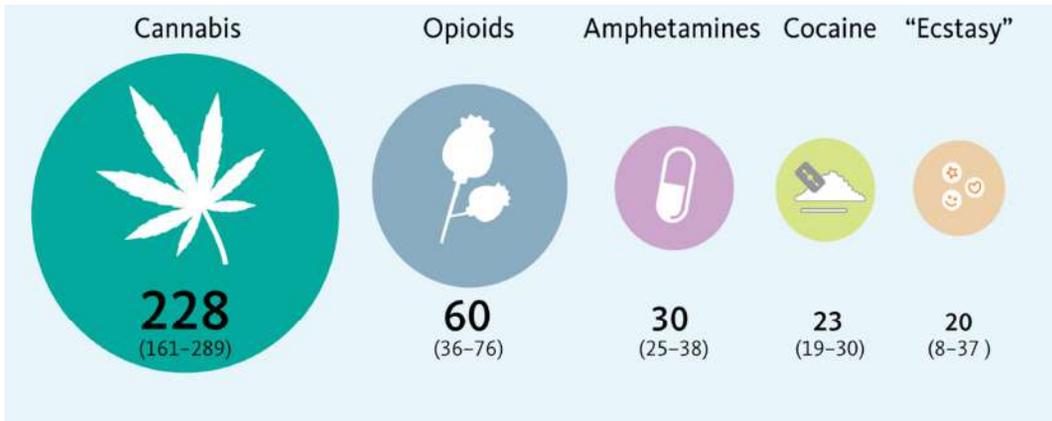
## 제3절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

### 1. 오·남용(Drug abuse) 현황

- 2022년 기준으로 세계 마약 남용 인구는 약 2억 9,200만 명임
  - 지난 10년간 마약 사용자는 20% 증가(인구 증가에 따른 영향 포함)
  - 2022년 기준, 전 세계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중 18명당 1명꼴로 지난 12개월 동안 약물을 사용
- 2022년 기준으로 대마 남용 인구는 약 2억 2,800만 명,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로 남용 인구의 약 76%가 남성임
- 2022년 기준으로 약 3천만 명이 암페타민류(amphetamine)를, 약 2천 300만 명이 코카인(cocaine)을, 약 2천만 명이 엑스터시(ecstasy) 계열 약물을 남용
  - 아편계 약물(opioids)은 여전히 치명적인 약물 관련 피해, 특히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약물군
  - 2022년 기준, 약 6천만 명이 비의료적 목적으로 아편계 약물을 사용했으며, 이 중 3천 만 명은 주로 헤로인 계열의 아편(opiates) 사용
  - 코카인 남용자의 76%가 남성인 반면, 암페타민류 남용자의 45%, 엑스터시 계열 남용자의 38%가 각각 여성임
- 아편계약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며, 특히 펜타닐(fentanyl) 등 합성 오피오이드(synthetic opioids)와 관련된 과다복용 사망이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하였음
  - 2022년 미국 :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 약 82,000명(인구 10만 명당 25명, 2010년 이후 총 24배 증가, 2023년에는 약 81,000명으로 안정세 예상)
  - 2022년 캐나다 :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 7,500명 보고 (인구 10만 명당 19.6명, 2016년 대비 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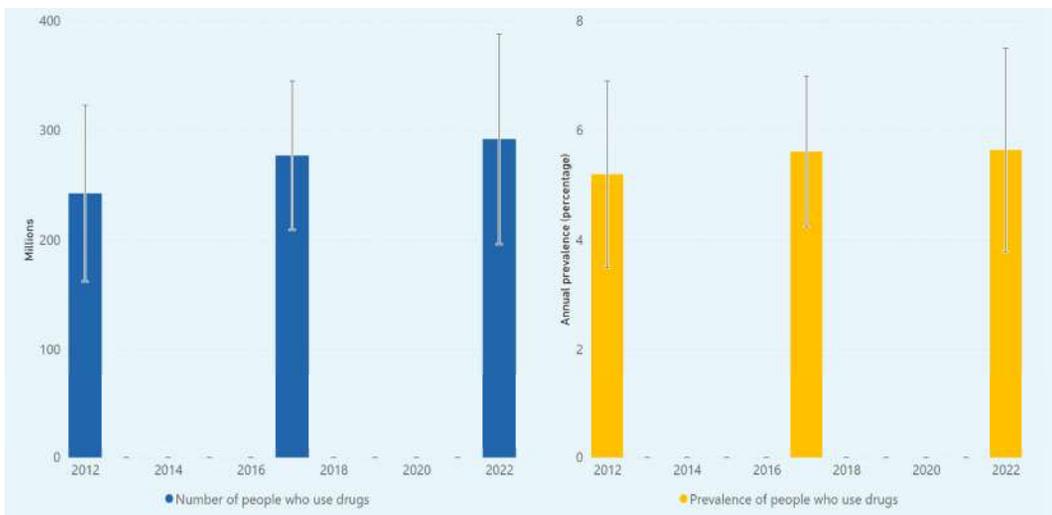
- 북미 내 메트암페타민 과다복용 사망자 증가도 있었으나, 대부분 합성 오피오이드 병용에 기인

[그림 1-28] 2021년 세계 약물 사용자 수 추정치 (단위: 백만 명, 괄호는 신뢰구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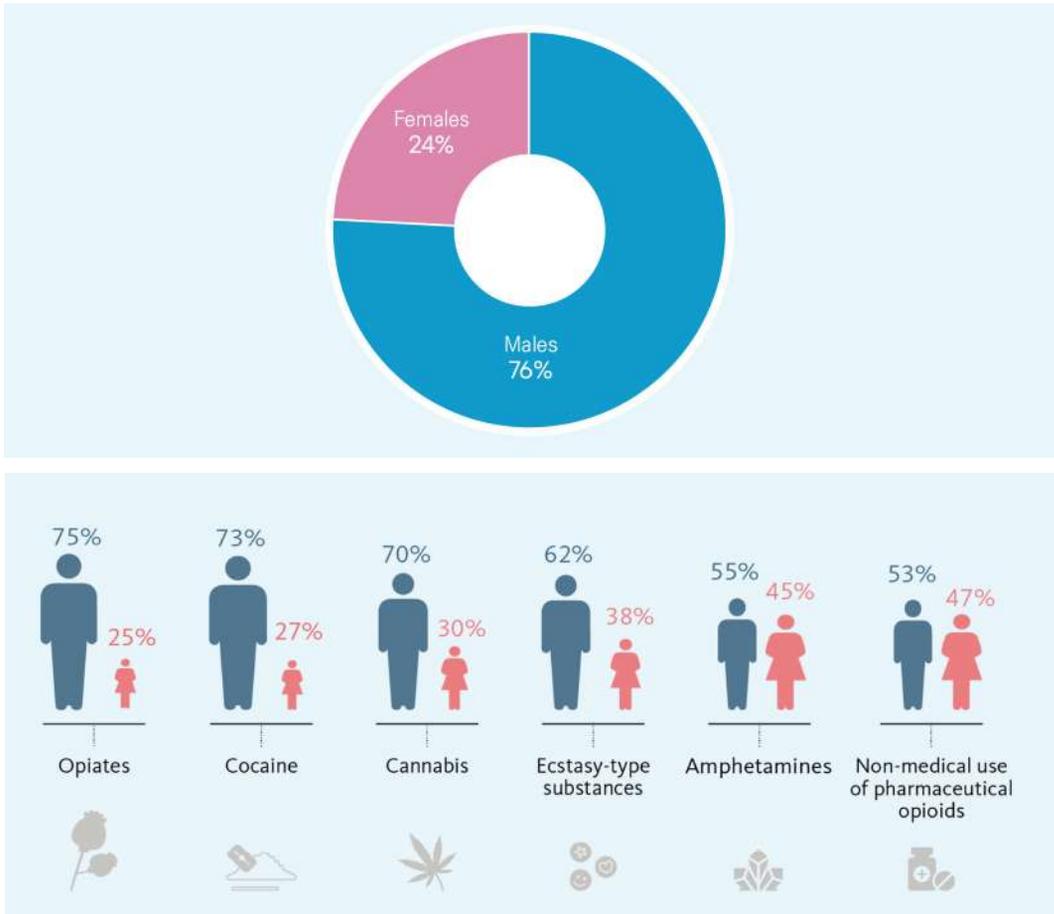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그림 1-29] 2012·2017·2022년 세계 마약 남용 및 중독 인구 추이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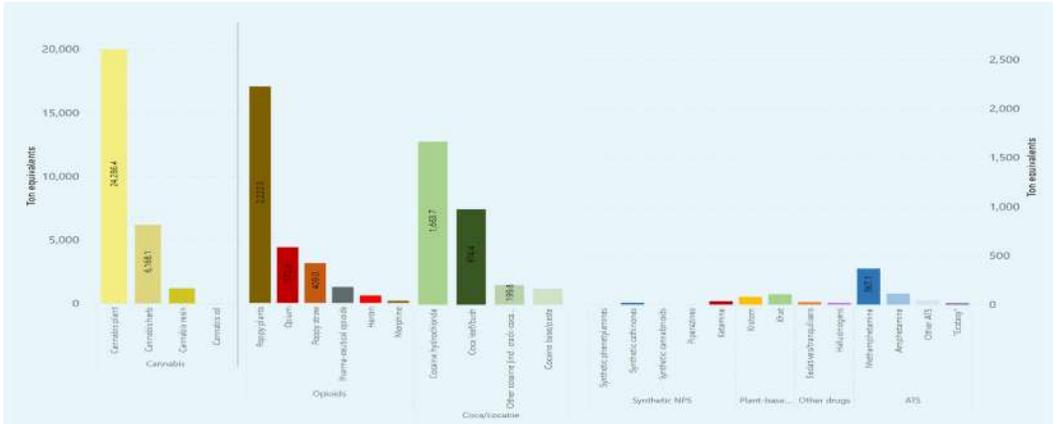
[그림 1-30] 마약류별 남녀 사용자 현황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 2. 세계 마약류 공급(Drug supply chain)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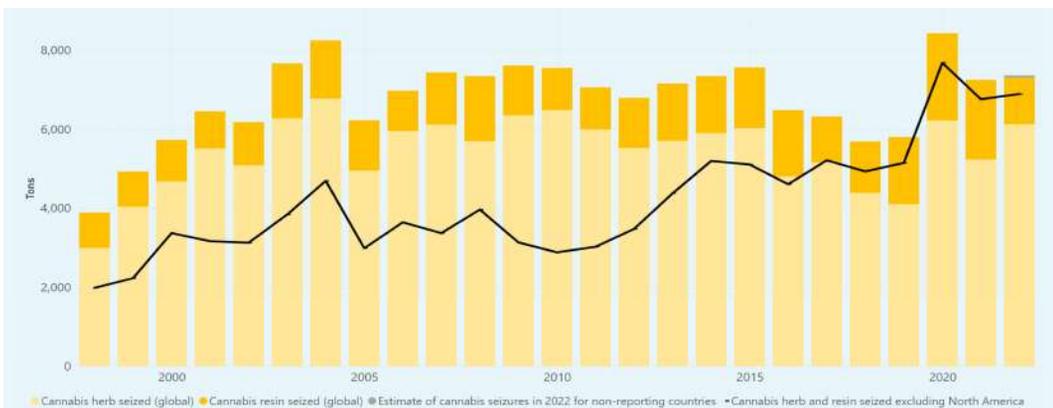
[그림 1-31] 2022년 세계 마약류별 압수량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 2022년 대마초 생산량은 6,168톤, 대마 수지 생산량은 1,194톤으로, 전년도 대비 약 18% 상승 및 41% 감소
  - 대마는 의료 외 목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로, 2020년 이후 CBD(칸나비디올)에서 합성된 신종 물질들이 등장
  - 주로 식용, 전자담배 카트리지, 분무형 형태로 유통되고, 델타-8 THC (delta-8-THC), 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HHC) 등이 대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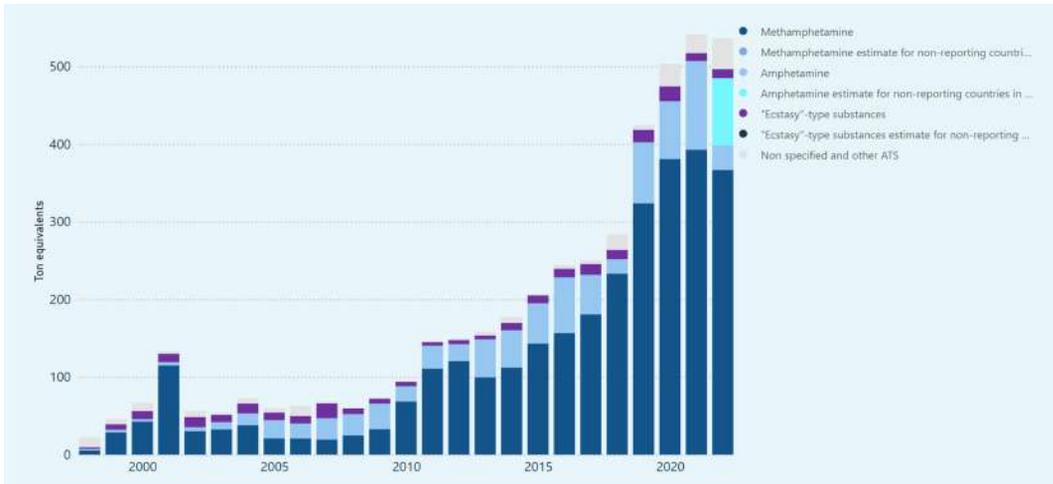
[그림 1-32] 1998~2022년 대마초 압수량 및 밀매 동향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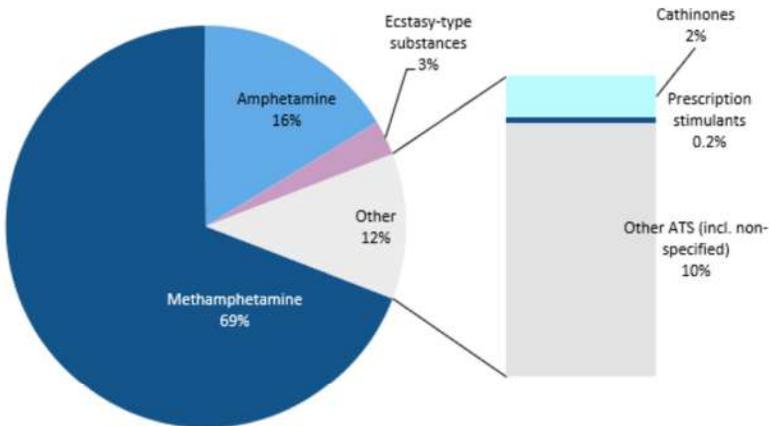
- 암페타민류(ATS)는 2021년 대비 1% 감소한 536톤(암페타민 112톤, 메트암페타민 367톤, 엑스터시 12톤 등)이 압수
  - 메트암페타민의 주요 시장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북미 지역이나, 최근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 급증
  - 서유럽, 중부유럽, 극동·중동 지역은 암페타민 유통이 우세한 반면, 동유럽 지역은 합성 카티논 등이 주로 유통
  - 엑스터시는 유럽, 북미, 호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압수

[그림 1-33] 1998~2022년 세계 암페타민류(ATS) 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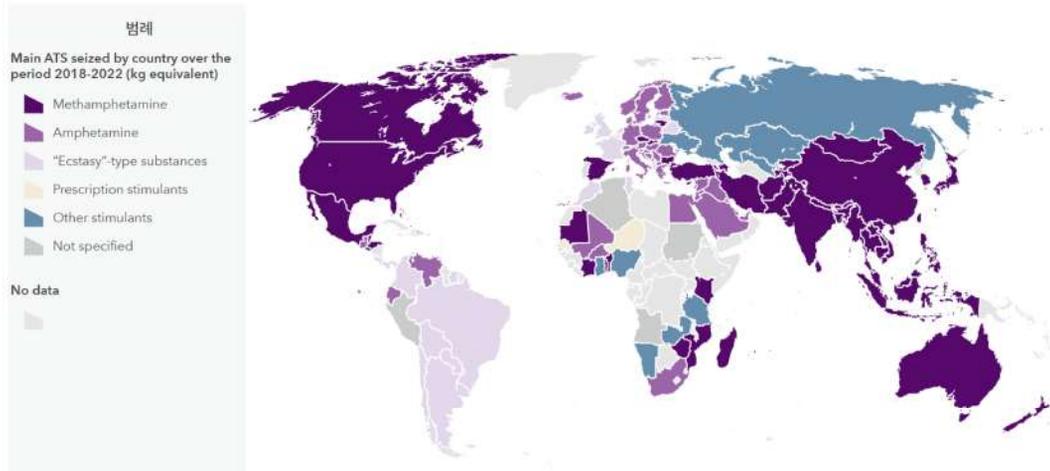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그림 1-34] 압수된 암페타민류(ATS)의 종류별 비율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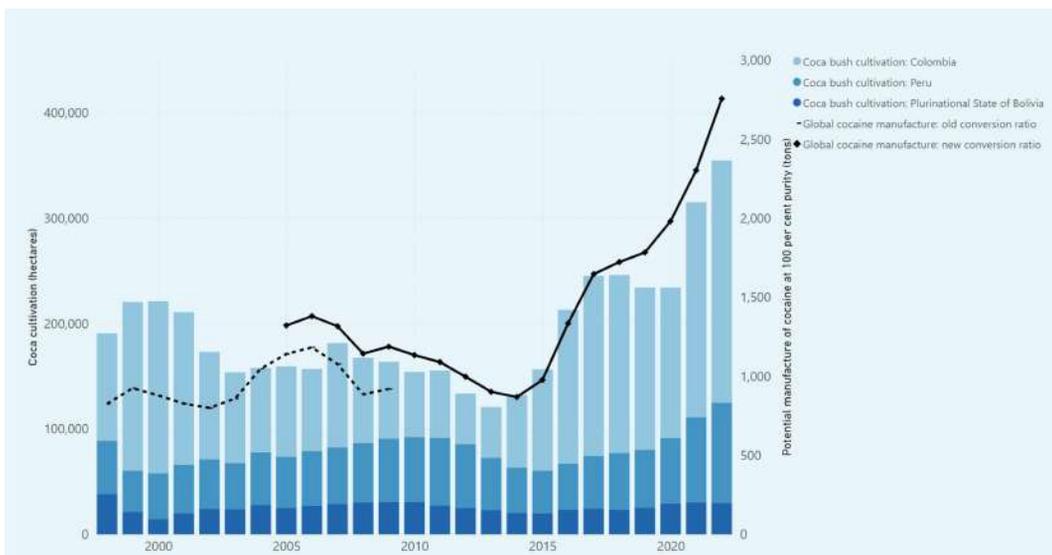
[그림 1-35] 2018~2022년 국가별 주요 암페타민류(ATS) 압수 유형 지도(킬로그램 환산 기준)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 2022년 코카 재배 면적은 약 35만 4,900헥타르, 코카인 생산량은 약 2,757톤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13%, 20% 상승하여 모두 역대 최고치
  - 코카인의 전통적인 주요 시장은 여전히 미주·서유럽·중유럽 중심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동남유럽 등 개발도상국에서 빠른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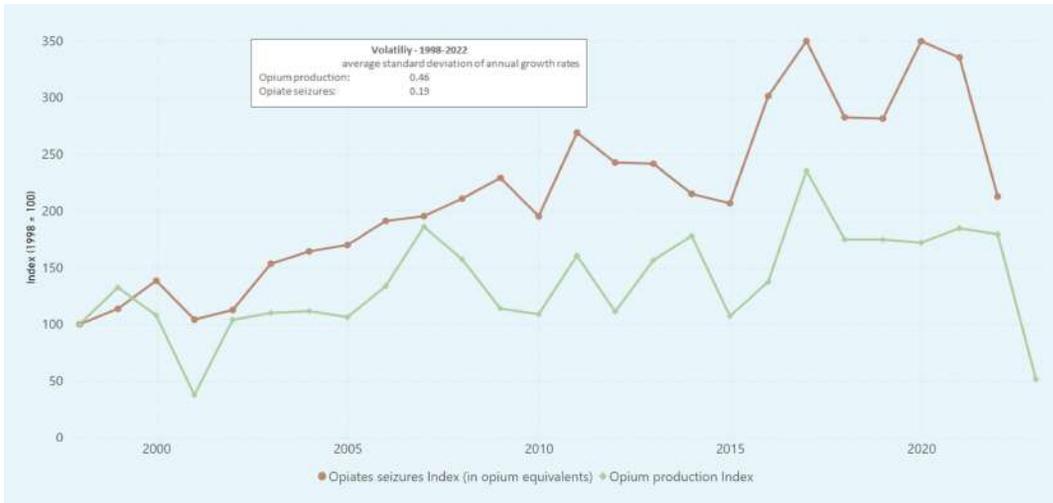
[그림 1-36] 1998~2022년 전 세계 코카 재배 면적 및 코카인 제조량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 2022년 아편(opium) 생산량은 1,990톤으로 전년도 대비 74% 급감하였으며 그중 182~196톤은 헤로인으로 정제
  - 아프가니스탄의 2022년 국가 차원의 마약 금지령으로 인해 양귀비 재배면적이 전년도 대비 70% 감소한 영향으로 보이며 세계 아편계 마약류의 압수량 또한 약 38% 감소
  - 향후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 아편계 마약류의 압수량 감소세 지속 예상

[그림 1-37] 1998~2022년 전 세계 아편계 약물 압수 및 아편 생산 동향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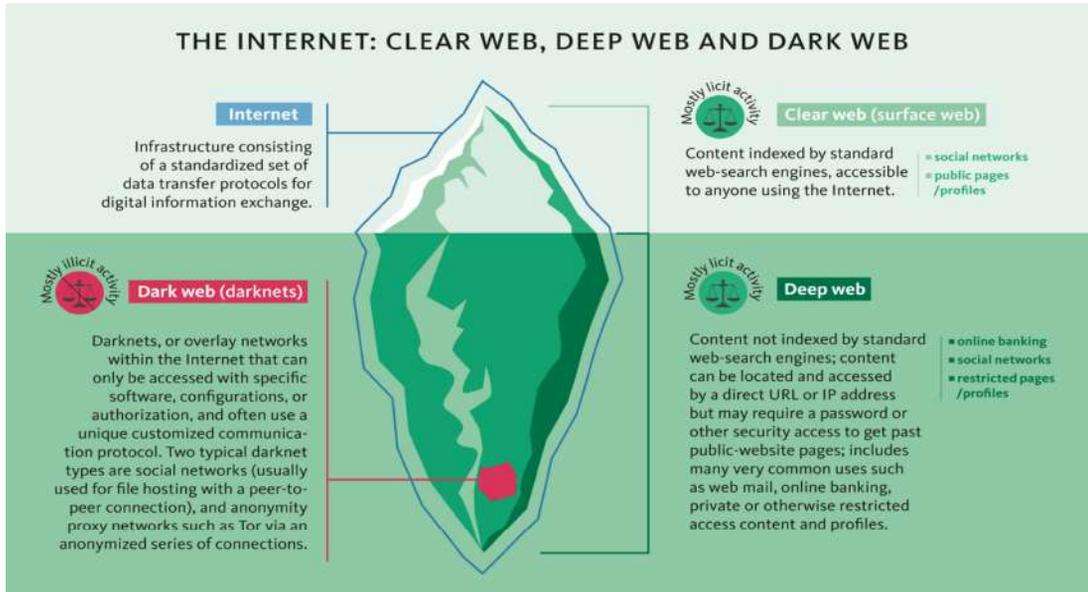
### 3. 다크넷(Darknet)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현황

- 다크넷의 정의(출처: UNODC 및 EMCDDA자료)
  - ‘다크넷’이란 사용자가 익명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접속정보(IP 주소, 데이터흐름 등)를 소프트웨어(Tor 또는 I2P 등)를 통해 암호화한 후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로서, 1990년대 중반 美 군당국(Naval Research Laboratory)이 정보보안을 목적으로 개발한 ‘Tor’ (the Onion Router)프로그램이 시초
  - 이후 인권 운동 및 언론 자유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마약, 총기, 음란물 밀매,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다크넷(darknet market)으로 Tochka, OW Market, The Majestic Gargen, Berlusconi Market, Cannazon,

Rapture Market, Empire Market, Apollon, Serpent Market, Nightmare Market 등이 있음

- 유사한 개념인 '딥웹(Deepweb)'은 비밀번호 보호 기능이 있어 일반 검색엔진을 통해서 검색이 불가능한 웹사이트이며, SNS와 Email 서버 등도 딥웹에 포함

[그림 1-38] 표면웹(Surface Web), 딥웹(Deepweb), 다크넷(Darknet) 개념도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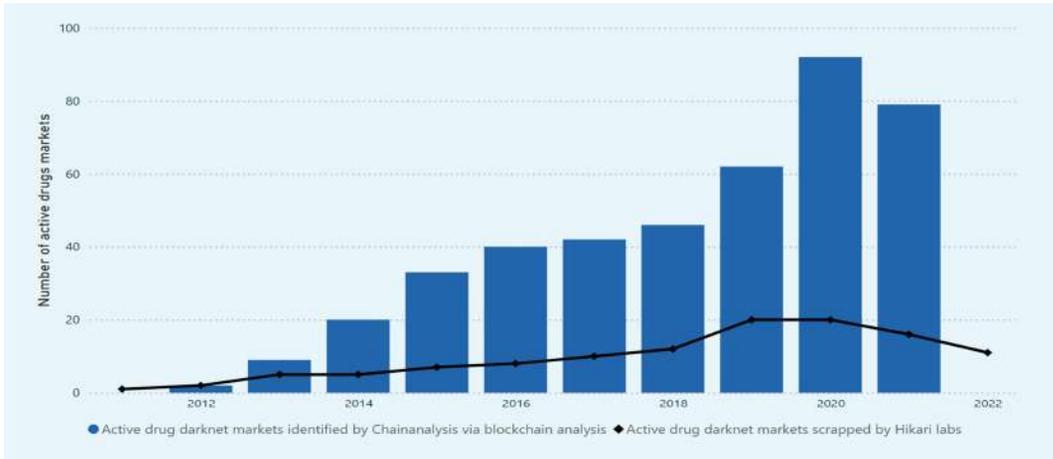
## • 현황

### (1) 다크넷을 통한 거래 중 90% 이상이 마약류 거래

- ① 다크웹 거래 사이트의 수는 2019~2020년까지 매해 상승하다가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로, 이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텔레그램 등 대안 등장에 기인
- ② 주요 다크넷 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2021년도에는 대마가 49%로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최소 거래액 추정치: 약 358만 USD), 2022년도에는 메트암페타민 등 각성제류(ATS) 거래가 26%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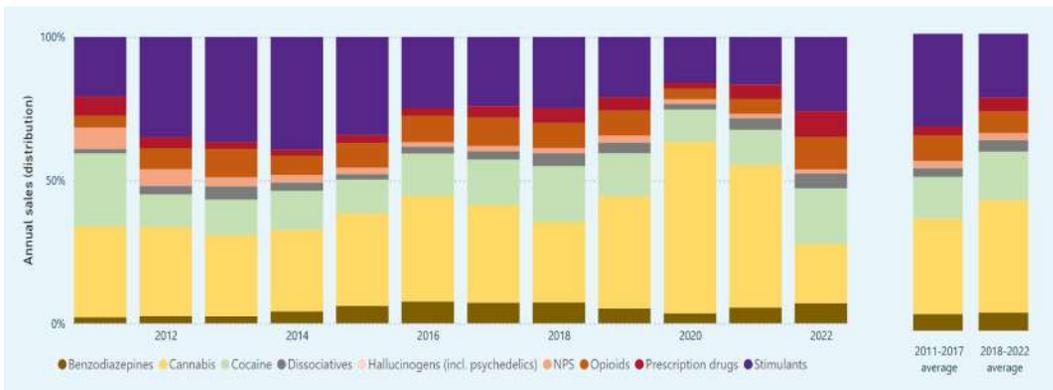
\* 2022년 기준 마약류별 점유율은 각성제류(26%) > 대마(21%) > 코카인(19%) > 아편류(11%) 순임

[그림 1-39] 2011~2022년 활성 다크넷 마켓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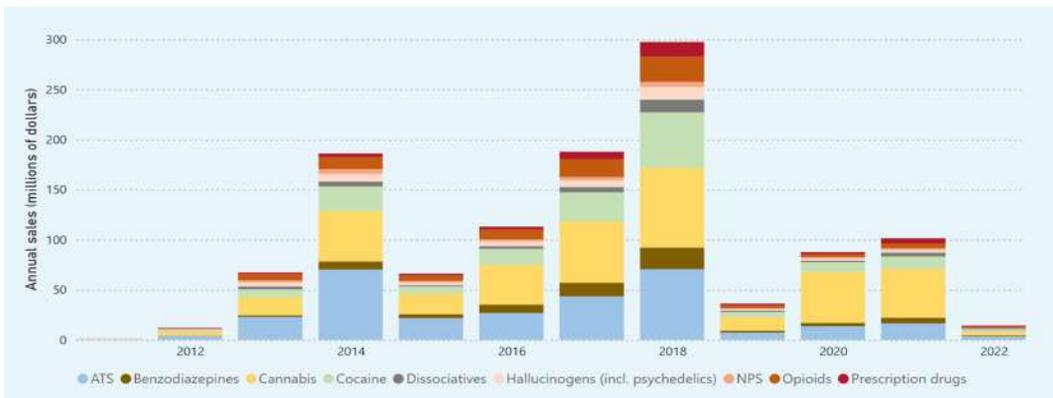
※ 출처: 체이널리시스의 2022년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2022년 2월) 및 Hikari Labs 자료

[그림 1-40] 2011~2022년 주요 다크넷 마켓에서 판매된 마약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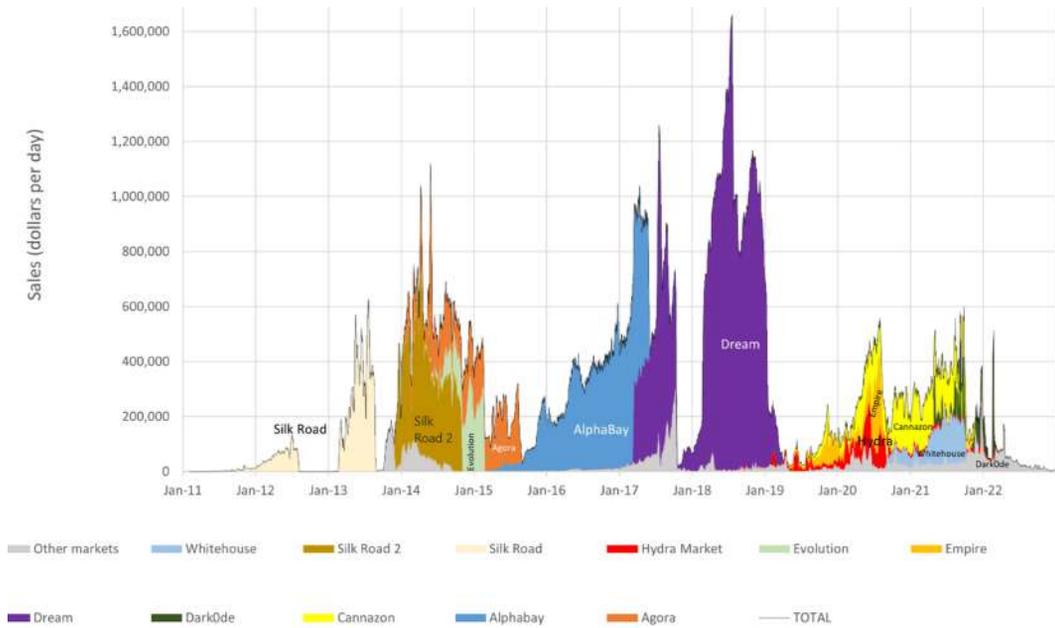
※ 출처: Hikari Labs 기반 UNODC 분석 자료

[그림 1-41] 2011~2022년, 39개 주요 다크넷 마켓에서 마약류 종류별 최소 판매액



※ 출처: Hikari Labs 기반 UNODC 분석 자료

[그림 1-42] 2011~2022 다크웹 주요 마약 판매사이트 및 1일 마약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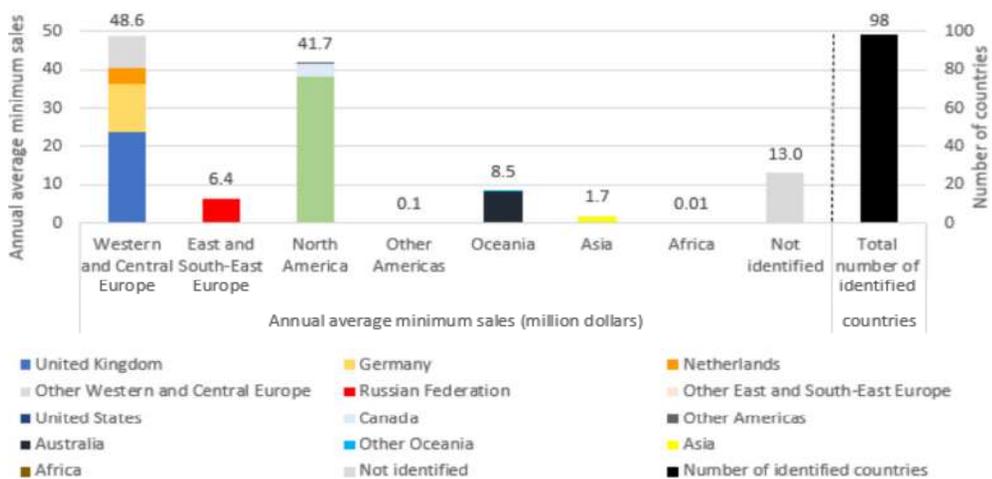


※ 출처: Hikari Labs

## (2) 다크넷 거래 마약류의 주요 공급처는 유럽, 북미

- ① 주요 다크넷 사이트의 2019~2022년 거래 중 마약류 발송국 98개 확인
- ② 유럽 및 북미 이외에도 오세아니아, 아시아 국가가 확인되는 등 마약류 공급 목적으로 다크넷을 이용하는 지역이 다양화되는 추세

[그림 1-43] 2018~2022년 다크웹을 통한 거래 중 마약류 발송 적발 지역 추이



※ 출처: Hikari Labs 기반 UNODC 분석 자료

### (3) 주요 다크넷 마약 판매 사이트 단속

- ① 2013년 10월 미국 FBI는 세계 최초의 대형 다크넷 마켓인 실크로드(Silk Road)를 폐쇄하고 운영자인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를 체포
- ② 2017년 7월 미국, 캐나다, 태국 등 마약단속 기관 및 유로폴 등이 공조수사하여 다크넷 '알파베이(Alphabay)' 폐쇄 및 운영자 검거
- ③ 2019년 4월 독일, 네덜란드, 미국의 사법기관 등이 연합하여 다크넷에서 두 번째 규모의 사이트인 '월스트리트 마켓(Wall Street Market)'을 폐쇄
- ④ 2020년 미국 DEA, FBI, 유럽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한 'Operation DisrupTor'을 통해 170명 이상 다크웹 마약판매상 등 체포
- ⑤ 2022년 5월 유로폴 주도 하에 'Operation SpecTor'을 통해 다크웹 마약 판매상 등 288명 체포, 5,000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 및 현금 압수
- ⑥ 2023년 11월 미국 법무부의 주도로 인카그니토 마켓(Incognito Market) 운영자를 뉴욕 JFK 공항에서 체포하고 사이트 폐쇄

---

## 4. 신종 향정물질(NPS, New Psychoactive Substances)<sup>9)</sup> 현황

### • 개요

- UNODC는 NPS를 '순수한 형태 또는 조제의 형식으로 남용되는 물질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또는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에 의해 통제되는 물질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물질'로 정의
- NPS는 'designer drugs', 'legal highs', 'herbal highs', 'bath salts', 'research chemicals', 'laboratory reagents'로 불리는데, NPS 중에는 이미 40년 전 처음으로 합성된 것도 있으므로, 신종(new)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NPS가 최근에 발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최근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국제마약통제협약에 규제되지 않는 물질'을 의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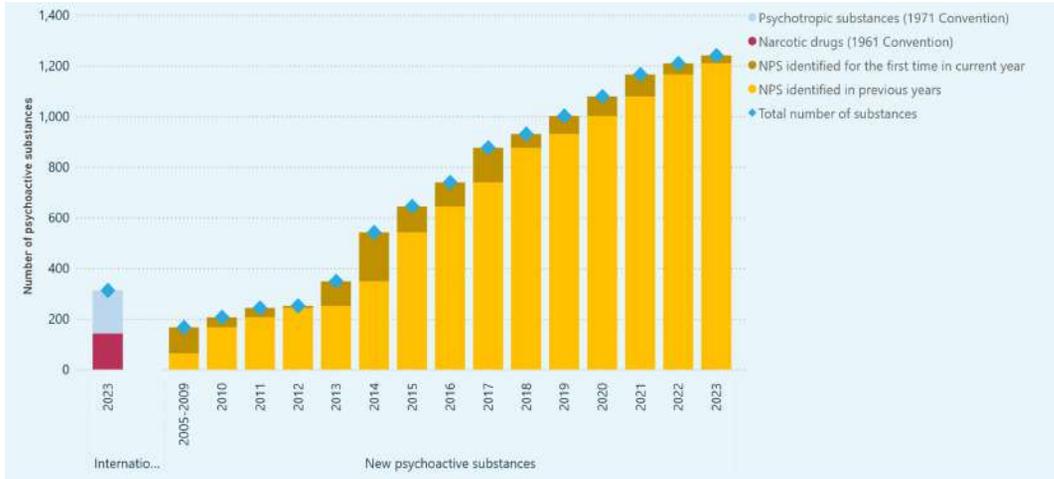
9) "Question and Answers on NPS", <UNODC>, 2013. 3. 12., <[http://www.unodc.org/documents/frontpage/Qs\\_and\\_As\\_on\\_NPS.pdf](http://www.unodc.org/documents/frontpage/Qs_and_As_on_NPS.pdf)>

- NPS는 보건문제와 직결되는데, NPS 남용자들은 심각한 중독 증세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 남용 후 발생한 설명할 수 없는 자살 사건이 다수 있었으며, 메페드론, MDPV와 4-MA 또한 사망 사건과 관련 있는 물질임

## • NPS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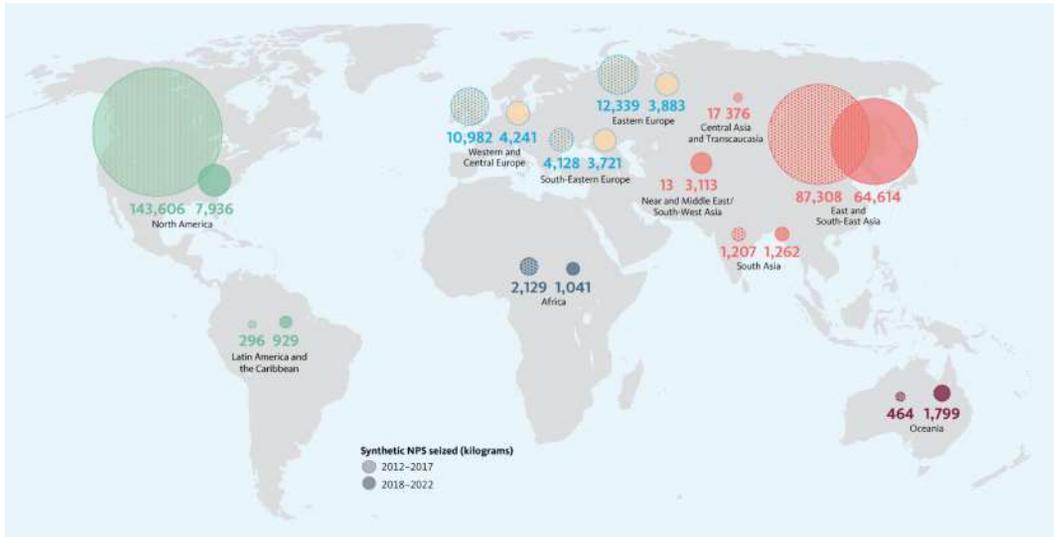
- (1)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 - THC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식물성 제품(herbal products)과 섞어 Spice, K2, Kronic 등의 이름으로 판매됨
- (2) 합성 케치논(Synthetic Cathinones) - 식물 Khat의 유효성분 중 하나인 케치논의 유사체로 메페드론(Mephedrone)과 MDPV가 있음
- (3) 케타민(Ketamine) - 인체 및 동물용 마취제로 저용량 복용 시 각성 효과, 고용량 복용 시 환각효과가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남용되는 NPS 가운데 하나임
- (4) 펜에틸아민(Phenethylamines) - 암페타민과 메트암페타민 관련 물질을 포함하며, 통상 각성제로 생산되나 화합물의 성분 변경을 통해 강력한 환각제가 될 수 있음
- (5) 피페라진(Piperazines) - 각성효과로 인해 종종 '엑스터시'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며, 벤질 피페라진(Benzylpiperazine, BZP)과 mCPP가 가장 유명함
- (6) 식물 기반 물질(Plant-based substances) - 향정신성 물질을 포함한 식물
  - ① 크라툼(Kratom) : 저용량 복용 시 각성효과, 고용량 복용 시 진정효과가 있는 동남아시아 원산지 식물
  - ② 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환각 성분이 있는 멕시코 원산지 식물
  - ③ 카트(Khat) : 케치논(cathinone)과 케친(cathine)이 포함되어 있어 잎을 씹으면 각성 효과가 있는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와 아라비아반도 원산지 식물
- (7) 기타
  - ① 아미노인단(Aminoindanes): 각성제
  - ② 펜사이클리딘 타입 물질(Phencyclidine-type substances)과 트립타민(Tryptamines): 환각제
    - ※ 우리나라에서는 '크라툼, 트립타민,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 등이 '마약류 향정 가목'에 '살비아 디비노럼, 벤질피페라진, 펜사이클리딘' 등이 '마약류 향정 나목'에 각각 지정되어 있음

[그림 1-44] 2023년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약물 수 및 전 세계적으로 식별된 신종 향정신성물질(NPS) 수 (2005~2023년, 누적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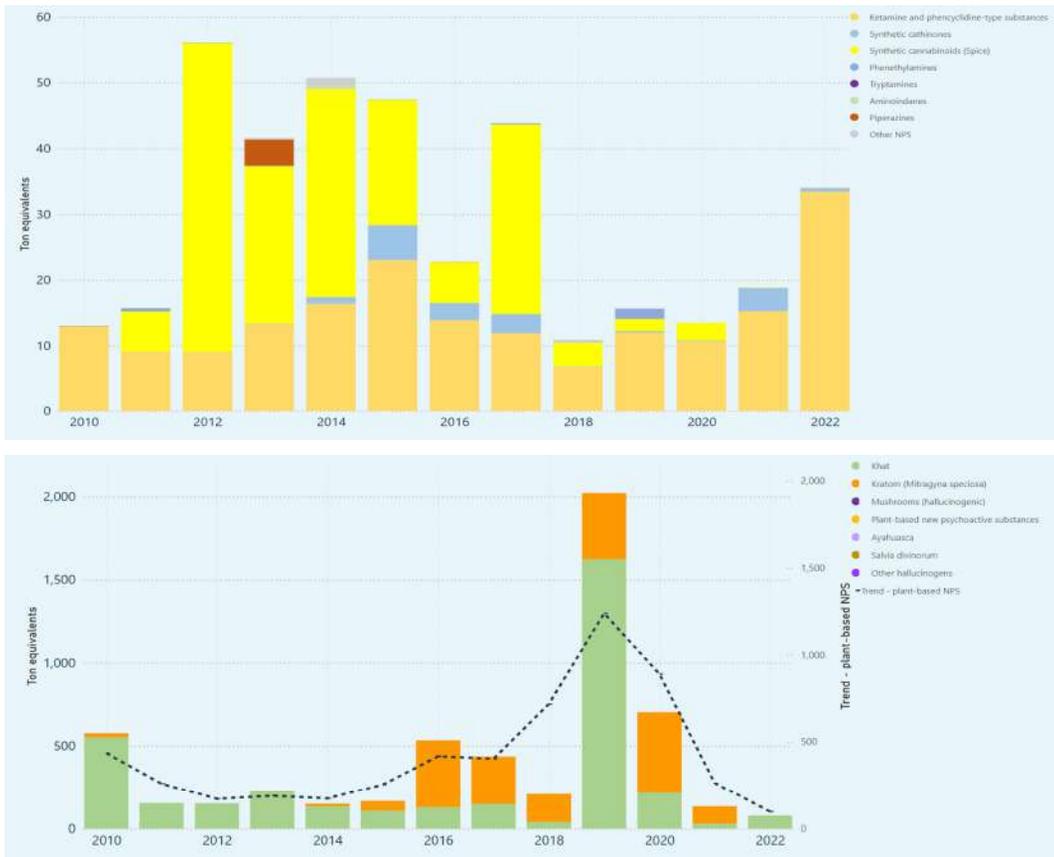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그림 1-45] 2010~2022년 합성 신종향정물질(NPS) 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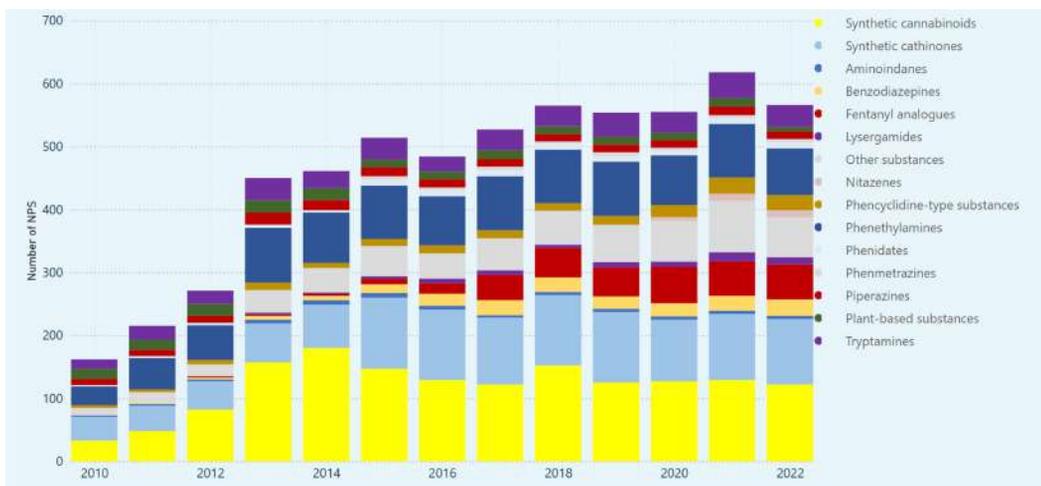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그림 1-46] 2010~2022년 신중항정물질(NPS) 압수량(상: 합성 계열, 하: 식물 기반)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3

[그림 1-47] 신중항정물질(NPS)의 그룹별 현황



※ 출처: UNODC 신중항정물질(NPS) 조기경보 시스템 자료

• 펜타닐(Fentanyl)<sup>10)</sup>

(1) 펜타닐의 정의

- ① 1959년 처음 합성된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UN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해 1964년 통제물질로 지정됨
- ②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모르핀보다 약 100배<sup>11)</sup>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작용이 탁월하여 심한 고통을 느낄 때 마취제로 널리 쓰임

(2) 펜타닐의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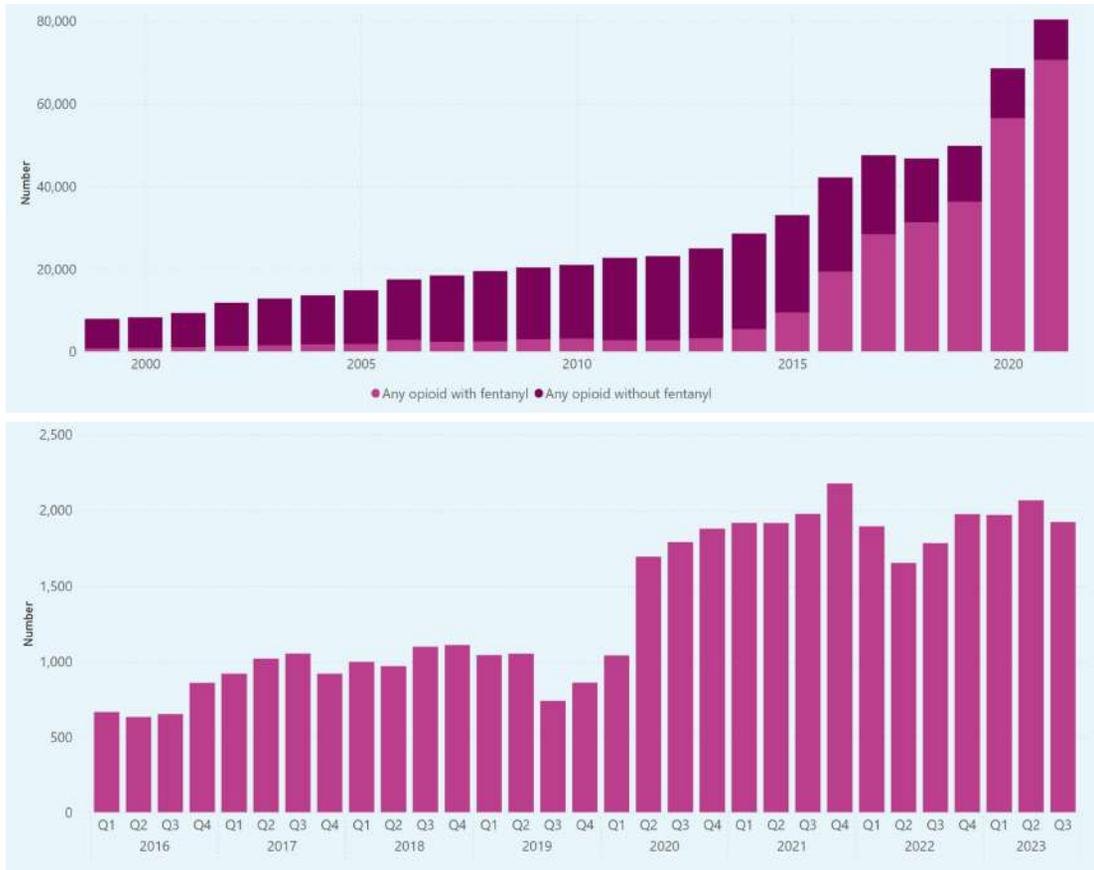
- ① 펜타닐과 그 유사체의 의료 외 사용은 건강에 치명적인데, 내성과 의존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과다복용의 위험과 호흡기능 저하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특히 주사기를 사용한 펜타닐 투약은 같은 방법의 헤로인 투약보다 2배 이상 과다투약 위험성이 높고 다른 아편 유사체보다는 8배 이상 높음
- ② 밀조된 펜타닐과 그 유사체들은 강렬한 효과를 내기 위해 정확한 함량을 지키지 않은 알약과 가루 형태의 제품들로 판매되며, 극소량<sup>12)</sup>만 투약해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
- ③ 미국에서 펜타닐과 그 유사체의 의료 외 사용으로 인해 2020년도에 약 56,000명, 2021년도에 약 70,000명, 2022년도에 약 73,000명 등 매년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
- ④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에서 펜타닐과 그 유사체의 의료 외 사용으로 2012년도에 170명이 사망하여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15년도까지 감소하였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114명이 사망하였고, 스웨덴에서는 2016년도에 헤로인 및 펜타닐과 그 유사체의 의료 외 사용으로 인해 59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

10)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GLOBAL SMART UPDATE 2017, vol.17, “Fentanyl and its analogues – 50 years on”

11) Fentanyl의 (진통)효능은 헤로인보다 최대 50배(“DEA Target fentanyl: A real threat to law enforcement”, DEA 자료)이며, 유사체인 carfentanyl의 경우는 모르핀의 효능보다 최대 10,000배(“A briefing guide for first responders”, DEA 자료)로 추정

12) 2밀리그램(“DEA Target fentanyl: A real threat to law enforcement”, 미국 DEA 자료)

[그림 1-48] 1999~2022년 미국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자 수(상), 2016~2023년 분기별 캐나다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자 수(하)



※ 출처: UNODC World Drug Report 2024

### (3) 펜타닐 관련 범죄 현황

- ①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펜타닐은 제품 자체로 밀수되거나, 밀수된 원료 물질을 이용하여 펜타닐과 그 유사체를 제조함
  - ※ 압수된 펜타닐의 대다수는 불법 제조된 것이지만, 소량은 의료용 펜타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됨
- ②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설비는 값싸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제조 공정이 복잡하지 않아 소규모 조직들이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③ UNODC에 보고<sup>13)</sup>된 바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2011년도에 1개와 2012년도에 2개, 슬로바키아에서 2011년도에 1개, 미국에서 2013년도에 1개와 2015년도에 2개, 독일에서 2015년도에 1개, 러시아에서 2014년도에 1개의 밀조시설이 각각 적발됨

13) UNODC발간, "Fentanyl and its analogues - 50 years on", GLOBAL SMART UPDATE, p.7, 2017. 3. (2011~2015년 단속 현황을 요약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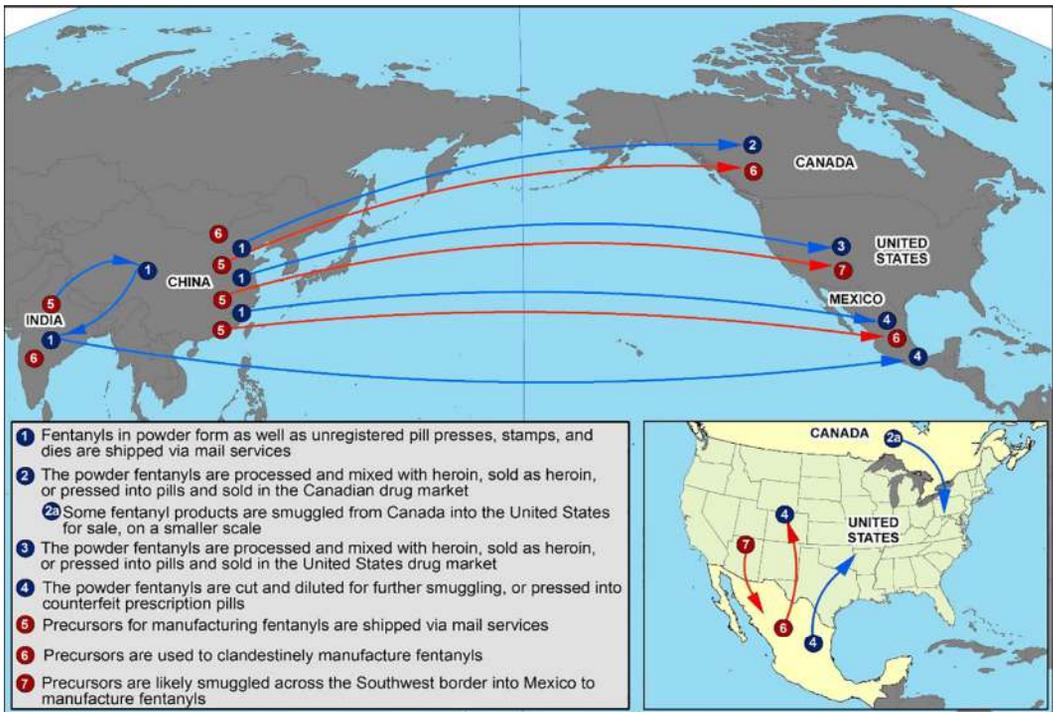
- ④ UNODC에 보고<sup>14)</sup>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펜타닐이 중국의 불법 제조시설로부터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내에서 소규모 제조시설 적발사례도 보고됨

[그림 1-49] 펜타닐 유형(왼쪽) 및 펜타닐 치사량(2mg)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그림 1-50] 중국 펜타닐의 미주지역 유입경로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14)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9, vol.3, "DEPRESSANTS" p.7, 2017. 3. (2011~2015년 단속 현황을 요약한 내용)

#### (4) 미국의 펜타닐 오남용(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① 미국에서는 청소년·젊은 층이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펜타닐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짜 약에는 펜타닐 또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다량 함유(약 40%는 펜타닐 치사량 함유)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
- ② 가짜 펜타닐의 압수량도 급증세
  - DEA 연간 가짜 펜타닐 압수량: 2019년도 2.6백만 정 → 2020년도 6.8백만 정 → 2021년도 9.6백만 정 → 2022년도 5천 60만 정

[그림 1-51] 정품(Authentic)과 가짜(Fake) 펜타닐(정제형) 비교



※ 출처: 미국 마약단속국(DEA)

- ③ 가짜 약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마약류에는 옥시코돈(Oxycotin®, Percocet®), 하이드로코돈(Vicodin®), 알프라졸람(Xanax®), 암페타민류(Adderall®) 등이 포함

#### (5) 국내 펜타닐 관련 규제

- ① 서펜타닐(sufentanil), 알펜타닐(alfentanil), 레미펜타닐(remifentanil)은 마취용 정맥 주사 용도로 한정하여 의학용으로 사용 가능함
- ② 카펜타닐(carfentanil)은 모르핀보다 10,000배 이상 효능이 강해 사람에게 처방할 수 없고 대형 동물을 대상으로만 사용 가능함
- ③ 카펜타닐은 2017년 5월 26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고, 서펜타닐, 알펜타닐, 레미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함

Chapter 02.

# 마약류 범죄 단속 규정

제1절 마약류 범죄 연혁  
제2절 현행법상 처벌 규정

# 제1절 마약류 범죄 연혁

[표 2-1] 마약류 범죄 연혁

시 대	주요 남용 약물	사회 문제	관련 법규
일제점령 이전	아편	아편 중독자 발생	
일제점령기	헤로인, 아편, 모르핀	마약 중독자 증가	「조선아편취체령」
1945년	헤로인, 아편	마약 중독자 증가	「마약취체령」
1950년대	아편	아편 중독자 증가	「마약법」 「형법」(아편에관한죄)
1960년대	아편, 메사돈	메사돈 중독자 발생 및 증가 (메사돈 파동)	「마약법」
1970년대	대마초	젊은 층과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 증가	「습관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1980년대	필로폰, 본드	필로폰 중독자 증가 청소년층 본드흡입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990년대	필로폰, 대마초, 부탄가스, 본드	신종 마약류 출현 및 부탄가스, 본드 중독자 증가 (필로폰 제조근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마약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0년대	필로폰, 아바, 엑스터시	신종 마약류 중독자 증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률통합)
2010년~현재	필로폰, 대마초, 신종마약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사범 증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1. 해방이전

-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입되어 남용된 마약류는 아편으로서 구한말 중국인 ‘양대인’이라는 자가 아편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제점령기에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아편가격이 급등하자 함경도 등 산간지역에서 양귀비 비밀재배가 시작되었고, 조선총독부는 1912~1914년에 걸쳐 아편 단속법령을 공포하면서 아편재배 및 사용자에 대하여 단속을 시작하였음
- 1919년에는 조선아편취체령을 공포하여 양귀비 재배지를 한정하면서 총독부에서 아편을 전량 수거하고, 1925년부터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아편 판매 정책을 감행, 국내 재배지를 확대하면서 국내 소요량의 30배에 달하는 아편을 생산, 이를 대만·만주 등지에 수출하였음

## 2. 1945년~1950년대

- 1945년 해방과 함께 만주 등지에서 귀환한 동포 중에서 아편에 중독된 자가 많았으며, 당시 해방과 한국전쟁 속에서 정치행정기능의 약화와 사회질서의 교란으로 인해 마약 생산 및 유통을 통제하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양귀비 밀경작이 확산되었음
- 아편중독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1957년 4월 23일 「마약법」을 제정, 양귀비 재배자 및 아편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아편중독자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3. 1960년대

- 5.16군사정부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하여 1961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임시법」에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1963년부터 합성마약인 메타돈이 널리 남용되어 마약중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5년에는 마약중독자가 35,000여 명에 달하기도 하였음

- 정부는 마약퇴치를 하지 않으면 국가경제발전이 어렵다고 판단, 1965년부터 대대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하여 1967년에 이르러서는 마약사범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한편으로, 일본정부가 필로폰 제조 단속을 강화하자 1950년대 말 내지 1960년대 초부터 일본 야쿠자조직이 과거 일제 강점기 일본에 징용되어 필로폰 제조에 종사했던 한국인 기술자들을 찾아내서 한국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기 시작했음

---

## 4. 1970년대

- 1960년대 말 주한 미군 사이에서 흡연하던 대마초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기지촌을 중심으로 내국인 흡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점차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용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단속법규가 없어 단속하지 못하다가 1970. 8. 7.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단속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대마초 흡연이 이미 사회 각계각층으로 전파되어 1975년경에는 대학가를 비롯한 연예계에서 대마초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 정부는 1976년 「대마관리법」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분리시켜 대마흡연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대마초 파동)하여 대마흡연자 1,460명을 검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결과, 1980년부터는 대마초사범이 대폭 감소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꾸준히 남용되고 있음

---

## 5. 1980년대

-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약물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남용되는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가 되었음
-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이 필로폰을 제조하여 일본 등지에 수출하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그다지 남용되지 않았지만, 1970년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80년대에 유흥, 향락문화가 퍼지면서 필로폰 중독자가 점차 늘기 시작하였음

- 또한, 1980년대 후반인 제5공화국 말기부터 제6공화국 초기 무렵 일본으로 수출되던 필로폰에 대해 그 제조자, 제조공장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된 필로폰의 일본 수출길이 막히자 이들이 제조한 필로폰이 자연히 국내시장에 유입되면서 필로폰이 더욱 확산되었음

## 6. 1990년대

- 국내 필로폰 중독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1989년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필로폰 밀조조직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간 국내의 거의 모든 필로폰 제조기술자를 검거하여 필로폰 밀조조직을 대부분 와해시킨 결과, 1992년부터 한동안 국내에서 마약을 구하기가 힘들게 되었음
- 그러나 이 기간을 거치면서 필로폰 1회 투약분에 5,000원이던 가격이 20배 이상 폭등하여 1회 투약분이 100,000원 이상에 거래되고, 1993년부터 대만, 중국,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제조된 값싼 필로폰이 국내로 밀수입되면서 과거 필로폰 최대 수출국이던 한국이 필로폰 수입국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국내 필로폰 사범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검찰이 공급조직 위주의 단속을 전개한 결과, 1994년에는 국내 필로폰 사범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검거되었던 필로폰 제조기술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비교적 단속이 허술한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필로폰을 제조하여 이를 한국과 일본으로 대량 밀수출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시 필로폰 중독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경제난과 맞물려 필로폰 중독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1999년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음
- 한편으로 검찰에서 공급조직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면서 필로폰의 가격이 폭등하자 비교적 값이 싸고 구입이 용이한 날부핀, 러미나 등 대용약물을 사용하는 사범이 증가하였음

## 7. 2000년대

- 급격한 개방화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2000년대부터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필로폰에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엑스터시, JWH-018 및 동남아에서 사용되는 야바 등 신종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어 해외 유학생, 외국어 강사, 외국인 근로자 등에서 남용되고 있음
- 한편, 마약류 밀수출의 중간경유지로 한국을 이용하는 국제마약조직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한국을 경유하는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음

## 8. 2010년 ~ 현재

- 인터넷·SNS 등을 이용하여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도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류를 소비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유튜브 등을 통해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한 후 주거지 등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갖추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넷’에서 가상화폐 결제로 대마를 판매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음
- 한편, 인터넷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대마 및 신종 마약 등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제2절 현행법상 처벌 규정

### 1. 마약류 범죄 처벌 법령

[표 2-2] 마약류 범죄 처벌 법령

법규	행위	관련 조항	형량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마약류 및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소지·소유·운반·관리·보관·사용·투약, 금지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제공,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의 광고 등	전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마약류불법 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업으로 마약류 범죄, 마약류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은닉·가장, 불법수익의 수수, 마약류 범죄 목적 물품의 수출입·매매·소지, 마약류 범죄 선동·권유 등	전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 (벌금 병과)
「형 법」 15)	아편 등의 제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아편 흡식 및 동장소제공 등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제206조	10년 이하 징역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대규모 마약류 범죄(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가중처벌	제11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
「화학물질 관리법」	환각물질 섭취·흡입·소지·판매·제공	제59조 6호, 제2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5) 특별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문화됨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 우리나라는 기존에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련 법률을 통합, 2000년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 내용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②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의 제한, ③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④ 마약류의 관리, ⑤ 마약류취급자의 의무, ⑥ 마약류중독자 관리, ⑦ 이를 위반한 자의 처벌이며,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製)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약칭: 마약거래방지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협약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국내 법령정비를 위해 1995년 제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마약류로 인한 불법수익 은닉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몰수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1966년 제정되었으며, 이 중 마약류 범죄는 제11조에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권유·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행위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대량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처벌하며, 대마는 제외함

Chapter **03.**

# 국내 동향

**제1절** 개요

**제2절** 2024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분석

**제3절** 연도별 마약류 범죄 현황 분석

**제4절** 마약류 사범 처분 및 선고 현황

# 제1절 개요

## 1. 대상기간 및 자료 출처

- 기간: 1985년 ~ 2024년
- 자료: 검찰통계시스템상의 마약 사건통계 및 유관기관 통계자료  
※ 구성비(%), 증감율(%)등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 범죄유형

- 마약류 밀조,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밀수·밀매 행위
- 마약류의 투약·소지 및 불법사용 행위
- 마약류 취급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

## 제2절 2024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분석

### 1. 2024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

[표 3-1] 2024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마약류	구분	건수(건)	합계	인원	
				구속	불구속
합계		18,422	23,022 (100.0)	3,058	19,964
마약		1,833	1,954 (8.5)	96	1,858
향정		13,925	17,751 (77.1)	2,665	15,086
대마		2,664	3,317 (14.4)	297	3,020

- 2024년 전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전년(27,611명) 대비 16.6% 감소함
  - 마약사범은 1,954명으로 전년(3,970명) 대비 50.8% 감소
  - 향정사범은 17,751명으로 전년(19,556명) 대비 9.2% 감소
  - 대마사범은 3,317명으로 전년(4,085명) 대비 18.8% 감소

[그림 3-1] 2024년 마약류별 단속 구성비



## 2. 2024년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표 3-2] 2024년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마약류 \ 유형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19 (0.1)	1,126 (4.9)	6,593 (28.6)	1,123 (4.9)	9,528 (41.4)	1,888 (8.2)	2,745 (11.9)	23,022 (100.0)
마약	2	129	170	1,054	202	120	277	1,954
향정	15	804	5,535	0	7,777	1,416	2,204	17,751
대마	2	193	888	69	1,549	352	264	3,317

-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7,738명으로 전년(9,145명) 대비 15.4% 감소하였으나, 공급사범의 비중은 33.6%로 전년(33.1%) 대비 0.5%p 증가, 그 중 밀조 사범은 19명으로 전년(6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하였음
- 투약사범은 9,528명으로 전년(10,899명) 대비 12.6% 감소하였으나, 그 비중은 41.4%를 차지, 전년(39.5%) 대비 1.9%p 증가

[그림 3-2] 2024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 3. 2024년 국내 마약류 제조현황

[표 3-3] 2024년 국내 마약류 제조사례

연번	단속 청	취급 마약류	범죄사실
1	대구지검	메트암페타민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구입하여 급냉기에 넣어 동결시키는 방법으로 끈적한 액체 형태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00g 제조
2	서울중앙지검	JWH-018 유사체	엠디엠비-부티나가 액체를 전자담배 액체와 일정 비율 섞어 JWH-018(일명 '합성대마') 유사체 600ml를 제조 후 10ml 플라스틱 통 60개에 나누어 보관
3	서울서부지검	알킬 니트리트	판매 목적으로 알킬 니트리트류(일명 '러쉬')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은 후,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을 연구하고 제조 도구를 구입한 다음, 아질산염, 식염수, 염산, 이소부틸 알코올 등을 혼합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킬 니트리트 185ml 제조 및 소지
4	서울중앙지검	메트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 액체와 정제수를 일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가열 및 냉각 후, 선풍기를 이용하여 백색 결정을 만드는 등 메트암페타민 5,584g 제조
5	인천지검	MDMA	불상의 주택가에서 고양이 사료 안에 은닉한 2.8kg 상당의 MDMA(일명 '엑스터시') 제조가루를 수거한 후, 알약 타정기를 사용하여 MDMA 363정 제조
6	서울동부지검	JWH-018 유사체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 상선으로부터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원료를 공급받아 공업용 비커에 원료물질과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원액 등을 일정 비율로 맞춘 다음 배합하는 방식으로 990ml 제조
7	청주지검	메트암페타민	실험용 유리비커, 가열시설, 감압여과장치, 황산, 염산, 슈도에페드린염산염 등을 구매한 후, 원료를 배합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제조하고자 하였으나, 별건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메트암페타민 제조 예비에 그침
8	부산지검	메스케치논	컨테이너 창고 등 제조에 필요한 장소를 임대한 후, 방음 부스, 알약 타정기, 혼합기 등을 설치하고,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분말과 색소를 일정 비율로 섞어 혼합한 후, 알약 형태로 된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2,500~3,000정 제조 및 관리
9	서울중앙지검	알킬 니트리트	아질산염을 증류수에 녹인 후 이를 알코올, 염산 등과 일정 비율로 자력 교반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알킬 니트리트(일명 '러쉬')를 3회에 걸쳐 총 280ml 제조
10	서울동부지검	JWH-018 유사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액상대마를 수수하고, 수수한 액상대마를 성분 미상의 마약류 가루 2종 등 다른 배합물과 혼합하여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1L를 제조 및 물병 3개에 소분 및 보관
11	대구지검	JWH-018 유사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JWH-018 유사체인 엠디엠비-부티나가 및 엠디엠비-이나가 성분이 포함된 액상 형태의 원료물질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전자담배 액상과 일정 비율 혼합하여 판매 목적의 액상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를 제조 및 소분하여 보관, 매매

연번	단속 청	취급 마약류	범죄사실
12	인천지검	코카인	제조를 위한 창고를 임차한 후, 매수한 원료 물질인 메틸에틸케톤, 황산, 과망간산칼륨 등 화학 약품을 섞어 고체 코카인 61kg 제조
13	인천지검	메트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제조방법이 게시된 사이트에 가입하여 메트암페타민 제조방법을 습득한 후, 식용유, 불상의 화학 약품, 슈도에페드린 등이 혼합된 액체를 담은 비커를 가열 및 회전시켜 반응을 일으키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폭발이 일어나 미수에 그침
14	인천지검	암페타민	마약류 제조방법이 게시된 사이트에 가입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암페타민 제조방법을 습득한 후, 필로폰 제조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암페타민을 제조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슈도에페드린과 불상의 화학 약품을 혼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암페타민 13.8kg 제조
15	부산지검	JWH-018 유사체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의 관리자 지시에 따라,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판매 목적의 JWH-018 유사체 액상을 13.58L 제조

- 마약류 제조사범은 대부분 단독 범행이 아닌,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며 총책의 지시 아래 철저한 역할 분담을 나누어 범행
- 주로 텔레그램(Telegram), 유튜브(YouTube) 등 SNS·인터넷을 통해 제조기술을 습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국민들이 마약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4년 주요 마약류 제조사건

- ① 수원역 오피스텔 필로폰 제조사건(2024년 10월, 서울남부지검)

-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도심 한복판인 수원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9.4kg을 제조하고, 추가로 약 9.1kg을 제조하던 중 적발된 사안임
    - 제조 완료한 필로폰 9.4kg의 경우, 1회 투약분을 0.03g 기준 약 31만 명이 투약 가능한 매우 방대한 양임

[그림 3-3] 수원역 오피스텔 필로폰 제조사건 적발 현장



## ② 국제 마약조직의 코카인 61kg 제조사건(2024년 12월, 인천지검)

-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벽토 약 80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대량의 액상 코카인을 부산항으로 밀수 후, 이를 호주로 재수출하다가 그 중 일부를 강원 횡성군 소재 창고로 운반하고,
- 국내 입국한 콜롬비아 국적 제조책들, 캐나다 국적 판매책 등이 액상 코카인에 원료물질(염산 등)을 섞어 고체 코카인 61kg을 제조하여 국내 유통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사건
- 제조하여 유통하려 한 코카인 61kg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으로 122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서, 국내 코카인 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

[그림 3-4] 액상 코카인 운반장면(상), 제조를 마친 고체 코카인(하)



## 4.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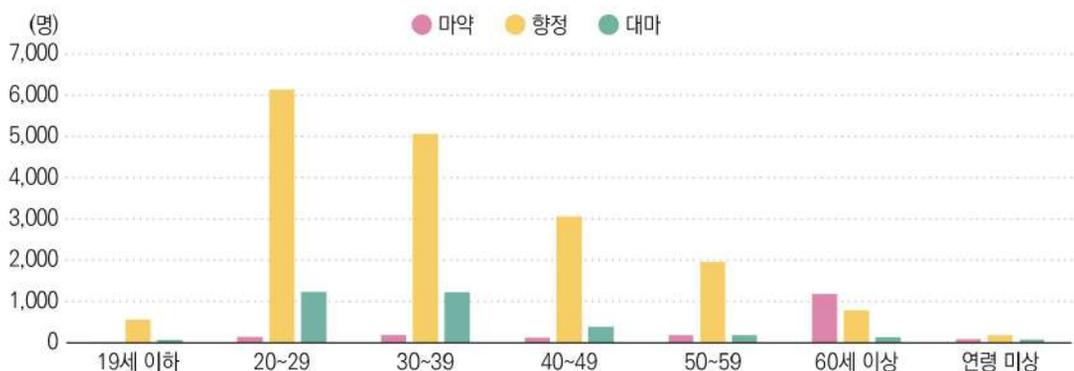
[표 3-4]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마약류 \ 연령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합계	649 (2.8)	7,515 (32.6)	6,481 (28.2)	3,571 (15.5)	2,337 (10.2)	2,110 (9.2)	359 (1.6)	23,022 (100.0)
마약	10 (0.6)	149 (7.6)	197 (10.1)	126 (6.4)	191 (9.8)	1,187 (60.7)	94 (4.8)	1,954 (100.0)
향정	564 (3.2)	6,140 (34.6)	5,065 (28.5)	3,059 (17.2)	1,957 (11.0)	779 (4.4)	187 (1.1)	17,751 (100.0)
대마	75 (2.2)	1,226 (37.0)	1,219 (36.8)	386 (11.6)	189 (5.7)	144 (4.3)	78 (2.4)	3,317 (100.0)

- 2024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가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15,051명) 대비 7.0% 감소
- 2024년 10대 마약류 사범은 649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1,477명) 대비 56.1% 감소
- 마약류별 점유율
  - 마약사범 : 60대(60.7%) > 30대(10.1%) > 50대(9.8%) 순
  - 향정사범 : 20대(34.6%) > 30대(28.5%) > 40대(17.2%) 순
  - 대마사범 : 20대(37.0%) > 30대(36.8%) > 40대(11.6%) 순

[그림 3-5] 2024년 연령별 단속 현황



## 5. 2024년 성별 단속 현황

[표 3-5] 2024년 성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24	978 (50.1)	976 (49.9)	12,776 (72.0)	4,975 (28.0)	2,805 (84.6)	512 (15.4)	16,559 (71.9)	6,463 (28.1)		

- 2024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여성이 6,463명으로 전체 비중의 28.1%를 차지, 전년(8,910명) 대비 27.5% 감소

## 6. 2024년 직업별 단속 현황

[표 3-6] 2024년 직업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직업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합계		1,954	17,751	3,317	23,022 (100.0)
무직		680	5,708	739	7,127 (31.0)
농업		248	36	30	314 (1.4)
도소매업		8	38	10	56 (0.2)
유흥업		0	321	36	357 (1.6)
서비스업		45	297	78	420 (1.8)
금융/증권		3	28	10	41 (0.2)
부동산업		1	27	5	33 (0.1)
노동		52	748	237	1,037 (4.5)
회사원		58	896	300	1,254 (5.4)
공업		3	143	27	173 (0.8)

직업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건설		4	42	8	54 (0.2)
의료		44	357	2	403 (1.8)
운송업		10	74	10	94 (0.4)
가사		72	101	5	178 (0.8)
예술/연예		2	43	27	72 (0.3)
어업		9	21	6	36 (0.2)
교원(교수)		2	13	9	24 (0.1)
학생		20	570	107	697 (3.0)
직업미상		113	1,406	309	1,828 (7.9)
기타		580	6,882	1,362	8,824 (38.3)

[그림 3-6] 2024년 직업별 단속 현황



#### • 마약류별 점유율

- 마약사범: 무직(680명, 34.8%) > 농업(248명, 12.7%) > 가사(72명, 3.7%) 순
- 향정사범: 무직(5,708명, 32.2%) > 회사원(896명, 5.0%) > 노동(748명, 4.2%) 순
- 대마사범: 무직(739명, 22.3%) > 회사원(300명, 9.0%) > 노동(237명, 7.1%) 순

## 7. 2024년 성별·직업별 단속 현황

[표 3-7] 2024년 성별·직업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직업	성별	남		여	
		명	(%)	명	(%)
합계		16,559	(71.9)	6,463	(28.1)
무직		4,830	(67.8)	2,297	(32.2)
농업		197	(62.7)	117	(37.3)
도소매업		53	(94.6)	3	(5.4)
유흥업		95	(26.6)	262	(73.4)
서비스업		354	(84.3)	66	(15.7)
금융/증권		30	(73.2)	11	(26.8)
부동산업		31	(93.9)	2	(6.1)
노동		987	(95.2)	50	(4.8)
회사원		902	(71.9)	352	(28.1)
공업		164	(94.8)	9	(5.2)
건설		53	(98.1)	1	(1.9)
의료		250	(62.0)	153	(38.0)
운송업		94	(100.0)	0	(0.0)
가사		0	(0.0)	178	(100.0)
예술/연예		50	(69.4)	22	(30.6)
어업		35	(97.2)	1	(2.8)
교원(교수)		17	(70.8)	7	(29.2)
학생		285	(40.9)	412	(59.1)
직업미상		1,425	(78.0)	403	(22.0)
기타		6,707	(76.0)	2,117	(24.0)

[그림 3-7] 2024년 성별·직업별 구성비



## 8. 2024년 지역별 단속 현황

[표 3-8] 2024년 지역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지역	마약	향정	대마	합계	( )
합계	1,954	17,751	3,317	23,022	(100.0)
서울	182	4,342	1,099	5,623	(24.4)
경기	474	4,552	845	5,871	(25.5)
인천	48	1,424	194	1,666	(7.2)
부산	48	1,211	168	1,427	(6.2)
울산	22	236	32	290	(1.3)
경남	150	785	88	1,023	(4.4)
대구	56	767	57	880	(3.8)
경북	218	523	95	836	(3.6)
대전	20	243	48	311	(1.4)
충남	139	693	155	987	(4.3)
강원	117	408	75	600	(2.6)
전북	62	237	37	336	(1.5)
광주	40	486	71	597	(2.6)
전남	107	303	38	448	(1.9)
충북	167	387	112	666	(2.9)
제주	13	100	23	136	(0.6)
외국	10	40	26	76	(0.3)
불상	81	1,014	154	1,249	(5.4)

[그림 3-8] 2024년 마약류 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 • 마약류별 점유율

- 마약사범: 경기(24.3%) > 경북(11.2%) > 서울(9.3%) > 충북(8.5%) > 경남(7.7%) 순
- 향정사범: 경기(25.6%) > 서울(24.5%) > 인천(8.0%) > 부산(6.8%) > 경남(4.4%) 순
- 대마사범: 서울(33.1%) > 경기(25.5%) > 인천(5.8%) > 부산(5.1%) > 충남(4.7%) 순

## 9. 2024년 학력별 단속 현황

[표 3-9] 2024년 학력별 단속 구성비

[단위: %]

마약류 \ 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합계
합계	1.6	2.5	7.7	31.7	3.8	14.8	1.1	36.6	100.0
마약	7.2	18.4	8.7	14.7	2.6	7.5	1.0	39.9	100.0
향정	1.1	1.0	8.2	34.4	4.0	14.8	1.1	35.3	100.0
대마	1.3	1.0	4.2	26.7	3.9	19.7	1.4	41.8	100.0

[그림 3-9] 2024년 학력별 구성비



## 10. 2024년 범죄원인별 단속 현황

[표 3-10] 2024년 범죄원인별 단속 구성비

[단위: %]

마약류 \ 원인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합계	11.5	1.4	0.1	21.3	7.5	9.8	0.9	47.5	100.0
마약	9.2	9.8	0.0	3.8	8.6	3.0	1.9	63.8	100.0
향정	11.8	0.7	0.1	23.1	6.4	11.4	0.9	45.6	100.0
대마	11.1	0.6	0.1	21.7	12.9	5.2	0.6	47.9	100.0

[그림 3-10] 2024년 범죄원인별 구성비



## 11. 2024년 범행장소별 단속 현황

[표 3-11] 2024년 범행장소별 단속 구성비

[단위: %]

마약류	장소	마약	향정	대마	전체
합계		100.0	100.0	100.0	100.0
유형업소		1.2	5.0	2.0	4.3
숙박업소		1.9	10.2	4.1	8.6
가정집		42.9	24.8	25.6	26.4
농가및축사		11.3	0.2	0.8	1.2
선박		0.1	0.0	0.0	0.0
자동차		0.5	3.3	5.0	3.3
노상		4.9	15.7	17.4	15.0
야산		0.4	0.3	0.7	0.3
공항		3.9	3.0	5.6	3.4
부두		0.1	0.0	0.1	0.0
항공기		0.4	0.2	0.4	0.2
사무실		1.6	2.4	1.4	2.2
강변		0.0	0.0	0.0	0.0
해변가		0.0	0.0	0.1	0.0
공장		0.3	0.2	0.4	0.2
상가		2.0	2.4	1.6	2.3
농경지		6.7	0.0	0.5	0.6
기타		22.0	32.4	34.3	31.8

- 전체 : 가정집(26.4%) > 노상(15.0%) > 숙박업소(8.6%) 순
- 마약사범 : 가정집(42.9%) > 농가 및 축사(11.3%) > 농경지(6.7%) 순
  -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밀경사범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됨
- 향정사범 : 가정집(24.8%) > 노상(15.7%) > 숙박업소(10.2%) 순
  - 주로 가정집, 숙박업소 등 은밀한 곳에서 투약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 시 도주하기 편리한 노상에서 밀매사범들이 적발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 대마사범 : 가정집(25.8%) > 노상(17.4%) > 공항(5.6%) 순
  - 대마사범은 향정사범과 비슷한 원인으로, 투약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밀매는 노상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해외에서 대마 제품(대마오일, 대마크림 등)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존재

[그림 3-11] 2024년 범행장소별 구성비



## 12. 2024년 청별 단속 현황

[표 3-12] 2024년 청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청명	연도		2024		증감률(%)
	2023	( )	2024	( )	
합계	27,611	(100.0)	23,022	(100.0)	-16.6
서울중앙	3,186	(11.5)	3,002	(13.0)	-5.8
서울동부	620	(2.2)	660	(2.9)	6.5
서울남부	697	(2.5)	725	(3.1)	4.0
서울북부	1,065	(3.9)	876	(3.8)	-17.7
서울서부	704	(2.5)	575	(2.5)	-18.3
의정부	1,833	(6.6)	1,840	(8.0)	0.4
인천지검	3,484	(12.6)	2,667	(11.6)	-23.5
수원지검	4,133	(15.0)	3,503	(15.2)	-15.2
춘천지검	1,045	(3.8)	695	(3.0)	-33.5
대전지검	1,426	(5.2)	1,315	(5.7)	-7.9
청주지검	691	(2.5)	669	(2.9)	-3.2
대구지검	2,255	(8.2)	1,689	(7.3)	-25.1
부산지검	2,143	(7.8)	1,701	(7.4)	-20.6
울산지검	715	(2.6)	572	(2.5)	-20.0
창원지검	1,311	(4.7)	938	(4.1)	-28.5
광주지검	1,633	(5.9)	1,018	(4.4)	-37.7
전주지검	452	(1.6)	421	(1.8)	-6.9
제주지검	218	(0.8)	156	(0.7)	-28.4

※ 관내 지청 및 경찰 송치 실적 포함

### • 청별 단속 점유율

- 재경지검(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25.4% > 수원지검 15.2% > 인천지검 11.6% 순

[그림 3-12] 2024년 청별 마약류 사범 단속 구성비



### 13. 2024년 월별 단속 현황

[표 3-13] 2024년 월별 단속 현황

[단위: 명]

마약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7	1,471	1,552	1,780	2,157	2,081	2,834	2,260	1,401	1,884	1,908	1,677
마약류	마약	72	53	56	75	117	344	569	281	132	111	74	70
	향정	1,532	1,171	1,270	1,486	1,778	1,484	1,859	1,687	1,078	1,492	1,540	1,374
	대마	413	247	226	219	262	253	406	292	191	281	294	233

- 마약사범은 주로 양귀비 적발 사건이 대부분이며, 국내에서 양귀비 재배는 아편 추출 목적보다는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서 가정상비약, 동물치료 목적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음
- 양귀비 개화시기인 5월~6월을 전후로 마약사범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3-13] 2024년 마약류 사범 월별 단속 현황



## 14. 2024년 조직폭력배 마약류 개입 단속 현황

[표 3-14] 2024년 조직폭력배 마약류 개입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번	조직명(활동지역)	합계	구속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1	간석식구파(인천)	5	1		1	3	1	
2	광안칠성파(부산)	2				1	1	
3	그랜드파(군산)	1			1			
4	꼴망파(인천)	1				1		
5	동성로파(대구)	1	1				1	
6	방어진파(경남)	1	1			1		
7	부대식구파(부산)	1						1
8	신르네상스파(충남)	1			1			
9	신림동이글스파(서울)	2	1			2		
10	연산동로타리파(광주)	1	1				1	
11	연산동파(부산)	1					1	
12	영도파(부산)	1					1	
13	재건기장파(부산)	1						1
14	재건서동파(부산)	1				1		
15	주안식구파(인천)	1				1		
16	청주파라다이스파(청주)	1	1			1		
17	칠성파(부산)	1	1				1	
18	통합20세기파(부산)	1						1
19	하단파(부산)	2	1			1	1	
합계		26	8	0	3	12	8	3

### • 2024년 조직폭력배 마약류 개입 주요 사례

- 신르네상스파 조직원 한OO은 문OO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g이 은닉된 태국 궤 국제우편물을 밀반입 (2024년 2월, 인천지검)
- 그랜드파 조직원 허OO은 텔레그램 성명불상자에게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 2명을 소개해주고, 이들이 필로폰 약 1.2kg 및 1kg가 은닉된 복대를 허리에 감은 채로 캄보디아에서 출발하여 국내로 입국하자, 공항에서 만나 차량에 태운 후 텔레그램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필로폰 밀수 범행을 방조(2024년 4월, 인천지검)
- 간석식구파 조직원 황OO은 태국 궤 필로폰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OO에게 타인명의로 휴대전화번호를 개통시켜줌으로써 밀수 범행을 방조, 지인 공OO에게 필로폰을 제공 및 투약(2024년 1월, 대구지검)

## 15. 2024년 국내 공조수사 현황

- 국제우편물·특송화물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대량의 마약류가 세관 통관검사 절차에서 적발될 경우, 수취지 등을 분석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과 세관·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 진행
- 2024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세관 적발 마약류 중에는 아바가 235.7kg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트암페타민이 63.5kg, 케타민이 59.4kg, MDMA가 23.0kg 순으로 많은 압수량을 차지함
- 2024년 기간 동안 7월에 압수된 마약류가 96.7kg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11월(61.6kg), 10월(57.7kg), 6월(41.9kg)을 차지함

### 가. 2024년 월별 공조수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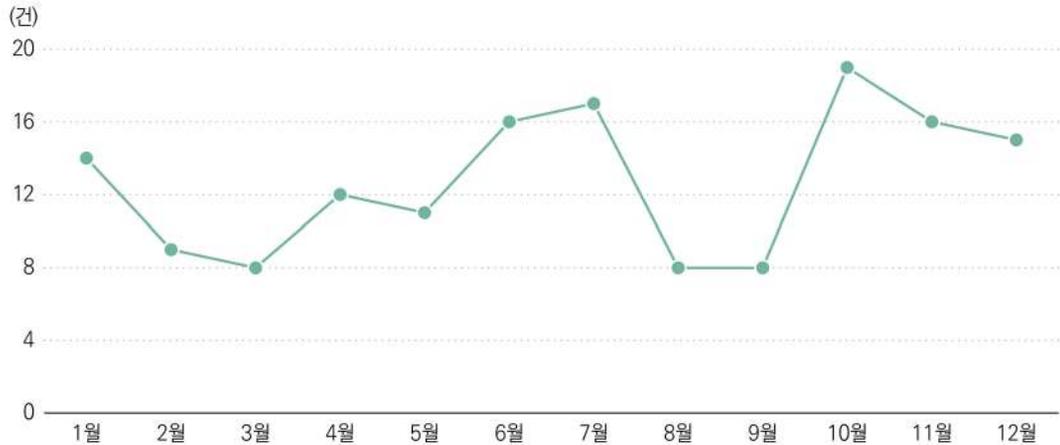
[표 3-15] 2024년 월별 공조수사 현황(1)

[단위: g, 그 외 별도 표기]

월별	적발 건수	마약류							
		메트암페타민		MDMA		아바		JWH-018 및 그 유사체	
		건수	압수량	건수	압수량	건수	압수량	건수	압수량
1월	14	2	1,030.9	7	7,690정	1	854정, 0.6	-	-
2월	9	5	6,966.1	1	944정	1	2100정	-	-
3월	8	3	24,818.6	1	3,011.5정	3	14,079정	-	-
4월	12	5	5,844.3	2	4,301정, 14.5	1	1,470정	-	-
5월	11	2	682.0	2	2,613정	1	3,961정	-	-
6월	16	5	1,516.0	6	5,578정	1	100,923정	-	-
7월	17	2	3,856.7	7	9,236정, 0.5	3	242,399정	3	4,178.1
8월	8	1	995.1	3	4,929정, 18.6	2	104,571정, 26.7	-	-
9월	8	5	4,416.4	-	-	3	5,801정, 4,746.5	-	-
10월	19	4	1,519.2	6	9,174정, 1,198.4	4	81,143정, 24.2	1	1,084.6
11월	16	3	3,532.2	1	4990.0	3	122,078정, 732.0	1	2,105.9
12월	15	8	8,273.1	3	3,212정, 10.5	3	18,010정	-	-
합계	153	45	63,450.7	39	22,959.7	26	235,668.3	5	7,368.5

※ 마약류가 함께 들어온 경우가 있어 전체 적발건수(153건)와 각 마약류별 적발건수가 상이할 수 있음

[그림 3-14] 2024년 월별공조수사 현황



[표 3-16] 2024년 월별 공조수사 현황(2)

[단위: g, 그 외 별도 표기]

월별	마약류										압수량 (합계)
	케타민		대마(초)		LSD		암페타민		2C-B		
	건수	압수량	건수	압수량	건수	압수량	건수	압수량	건수	압수량	
1월	4	945.5	1	120.7	1	100장	-	-	-	-	4,918.2
2월	1	4,999.3	-	-	-	-	1	360정	-	-	13,088.8
3월	1	5,009.5	-	-	-	-	-	-	-	-	35,468.0
4월	3	2,152.3	-	-	2	3400장	-	-	-	-	9,949.5
5월	7	1,393.5	-	-	-	-	-	-	-	-	4,244.9
6월	5	5,191.6	-	-	-	-	-	-	-	-	41,853.0
7월	3	5,250.2	-	-	-	-	-	-	1	1,050정	96,671.5
8월	2	510.1	-	-	-	-	-	-	-	-	37,685.6
9월	-	-	-	-	-	-	-	-	-	-	11,077.2
10월	4	24,072.5	-	-	-	-	-	-	-	-	57,703.4
11월	5	2,861.8	2	2,184	-	-	1	4,875.9	-	-	61,567.4
12월	7	6,993.6	-	-	-	-	-	-	-	-	22,280.5
합계	42	59,379.8	3	2,304.7	3	35.0	2	4,994.7	1	346.5	396,508.0

## 나. 2024년 발송국가별 공조수사 현황

[표 3-17] 2024년 발송국가별 공조수사 현황(1)

[단위: g, 그 외 별도 표기]

국가	메트암페타민		MDMA		아바		JWH-018 및 그 유사체	
	건수	입수량	건수	입수량	건수	입수량	건수	입수량
네덜란드	-	-	7	6,332정, 249.3	-	-	-	-
독일	2	475.1	21	40,306.5정, 903.0	-	-	-	-
라오스	3	8,876.6	-	-	1	854정, 0.6	-	-
러시아	1	152.9	-	-	-	-	-	-
말레이시아	2	1,133.8	-	-	-	-	-	-
미국	12	17,721.5	-	-	-	-	-	-
베트남	2	1,498.1	3	892정	-	-	5	7,368.5
스위스	-	-	-	-	-	-	-	-
영국	1	2,999.0	3	1,678정, 4,990.0	-	-	-	-
캄보디아	2	250.1	-	-	-	-	-	-
캐나다	5	994.0	-	-	-	-	-	-
태국	11	28,379.3	1	3정	25	696,535정, 5,529.3	-	-
파키스탄	1	463.5	-	-	-	-	-	-
폴란드	-	-	1	944정	-	-	-	-
프랑스	-	-	2	533정	-	-	-	-
필리핀	1	35.7	1	90.3	-	-	-	-
헝가리	2	471.3	-	-	-	-	-	-
호주	-	-	-	-	-	-	-	-
합계	45	63,450.7	39	22,959.7	26	235,668.3	5	7,368.5

※ 마약류가 함께 들어온 경우가 있어 전체 적발건수(153건)와 각 마약류별 적발건수가 상이할 수 있음

[그림 3-15] 2024년 발송국가별 공조수사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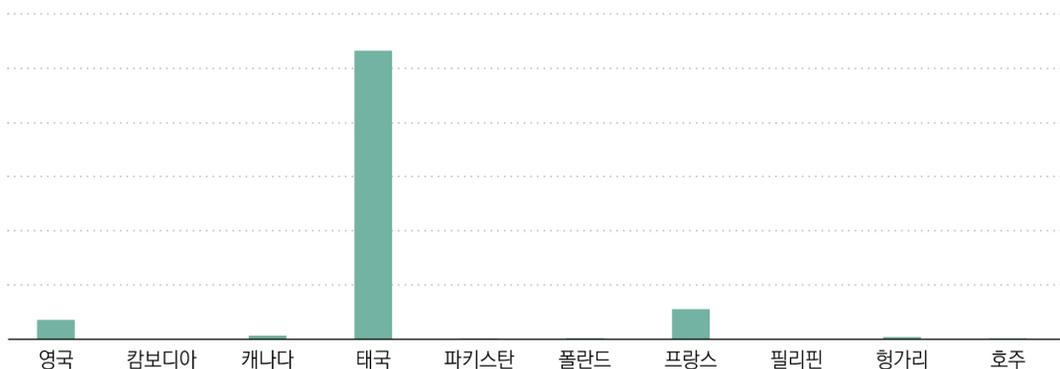
- 2024년 태국이 266.1kg으로 가장 많은 양의 마약류를 발송한 국가로 확인되며, 그다음 독일(31.6kg), 프랑스(27.5kg), 미국(17.8kg)을 차지함

[표 3-18] 2024년 발송국가별 공조수사 현황(2)

[단위: g, 그 외 별도 표기]

국가	케타민		대마(초)		LSD		암페타민		2C-B		합수량 (합계)
	건수	압수량	건수	압수량	건수	압수량	건수	압수량	건수	압수량	
네덜란드	4	3,326.1	-	-	1	100장	-	-	1	1,050정	6,012.4
독일	10	16,953.0	-	-	-	-	-	-	-	-	31,632.2
라오스	-	-	-	-	-	-	-	-	-	-	9,159.0
러시아	-	-	-	-	-	-	-	-	-	-	152.9
말레이시아	-	-	-	-	-	-	-	-	-	-	1,133.8
미국	-	-	-	-	-	-	1	360정	-	-	17,840.3
베트남	3	502.2	1	120.7	-	-	-	-	-	-	9,783.9
스위스	1	1,994.5	-	-	-	-	-	-	-	-	1,994.5
영국	5	4,205.8	-	-	2	3,400장	1	4,875.9	-	-	17,658.4
캄보디아	-	-	-	-	-	-	-	-	-	-	250.1
캐나다	-	-	2	2,184	-	-	-	-	-	-	3,178.0
태국	6	2,379.2	-	-	-	-	-	-	-	-	266,145.3
파키스탄			-	-	-	-	-	-	-	-	463.5
폴란드	1	565.5	-	-	-	-	-	-	-	-	877.0
프랑스	5	27,351.2	-	-	-	-	-	-	-	-	27,527.0
필리핀			-	-	-	-	-	-	-	-	125.9
헝가리	2	1,314.1	-	-	-	-	-	-	-	-	1,785.3
호주	5	788.4	-	-	-	-	-	-	-	-	788.4
합계	42	59,379.8	3	2,304.7	3	35.0	2	4994.7	1	346.5	396,508.0

[그림 3-16] 2024년 발송국가별 공조수사 현황(2)



## 다. 2024년 마약류 발송경로별 공조수사 현황

[표 3-19] 2024년 마약류 발송경로별 공조수사 현황

[단위: 건]

우편종류 국가	국제등기우편	국제통상우편	국제소포우편	국제특급우편	항공특송화물	적발건수
네덜란드	MDMA(4)	LSD(1), 2C-B(1)	케타민(4), MDMA(3)	-	-	13
독일	MDMA(2)	메트암페타민(1), MDMA(1)	케타민(8), MDMA(16)	-	메트암페타민(1), 케타민(2), MDMA(2)	30
라오스	-	-	-	메트암페타민(2), 아바(1)	메트암페타민(1)	4
러시아	-	-	-	메트암페타민(1)	-	1
말레이시아	-	-	-	메트암페타민(2)	-	2
미국	암페타민(1)	-	메트암페타민(4)	메트암페타민(1)	메트암페타민(7)	13
베트남	-	-	-	-	메트암페타민(2), 케타민(3), MDMA(3), JVH-018 유사체(5), 대마초(1)	12
스위스	-	-	케타민(1)	-	-	1
영국	메트암페타민(1), LSD(2)	케타민(1)	-	케타민(1)	케타민(3), MDMA(3), 암페타민(1)	12
캄보디아	-	-	-	메트암페타민(2)	-	2
캐나다	메트암페타민(3)	-	-	-	메트암페타민(2), 대마(2)	7
태국	아바(1)	아바(3)	아바(2)	메트암페타민(4), 케타민(3), 아바(9), MDMA(1)	메트암페타민(7), 아바(10), 케타민(3)	36
파키스탄	-	-	-	-	메트암페타민(1)	1
폴란드	케타민(1), MDMA(1)	-	-	-	-	2
프랑스	케타민(1), MDMA(2)	-	-	-	케타민(4)	6
필리핀	-	-	-	-	메트암페타민(1), MDMA(1)	2
헝가리	-	-	-	메트암페타민(2), 케타민(1)	케타민(1)	4
호주	-	-	-	케타민(5)	-	5
<b>적발건수</b>	<b>17</b>	<b>8</b>	<b>37</b>	<b>33</b>	<b>58</b>	<b>153</b>

※ 마약류가 함께 들어온 경우가 있어 전체 적발건수(153건)와 각 마약류별 적발건수가 상이할 수 있음

[그림 3-17] 2024년 발송경로별 공조수사 현황



## 16. 2024년 외국인 단속 현황

### 가. 2024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표 3-20] 2024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마약류 \ 유형	합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합계	3,232 (100.0)	3 (0.1)	762 (23.6)	365 (11.3)	1,177 (36.4)	168 (5.2)	757 (23.4)
마약	147 (4.5)	0	11	43	15	7	71
향정	2,540 (78.6)	2	659	243	941	136	559
대마	545 (16.9)	1	92	79	221	25	127

[그림 3-18] 2024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 외국인 향정 사범이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태국 국적 등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야바 위주의 마약류 사용이 주된 원인으로 보임

## 나. 2024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현황

[표 3-21]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국적	단속
합계	3,232
베트남	836
중국	771
태국	705
러시아	203
우즈베키스탄	149
미국	138
카자흐스탄	93
스리랑카	53
말레이시아	42
몽골	21
키르기스스탄	19
대만	18
우크라이나	17
캐나다	15
캄보디아	14
이집트	14
인도네시아	11
라오스	10
일본	8
나이지리아	8
타지키스탄	7
필리핀	6
싱가포르	6
영국	6
독일	5
방글라데시	4
프랑스	4
페루	4
미얀마	3
가나	3
리비아	3
남아공	3
오스트레일리아	2
볼리비아	2
홍콩	2
모로코	2
네덜란드	2
니카라과	2
스페인	2
알제리	1
오스트리아	1
브라질	1
카메룬	1
콜롬비아	1
덴마크	1
도미니카 공화국	1
핀란드	1
인도	1
라트비아	1
리투아니아	1
네팔	1
뉴질랜드	1
노퍽섬	1
포르투갈	1
사우디아라비아	1
세네갈	1
스웨덴	1
스위스	1

[그림 3-19]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현황



## 17. 2024년 검찰 마약류 범죄 대응

### 가. 국내 유관기관 협력 강화 노력

####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 (1) 배경

-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4년 전체 단속 사범은 2023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만 명을 상회하고 있음
- 검찰은 국내 마약류 범죄 확산 원인을 ① 해외직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활성화, ② 국제 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해외 마약류의 국내유입 증가, ③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마약류 범죄 대응을 추진하였음

##### (2) 추진 경과

- 2022년 10월,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 검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및 운영 계획 발표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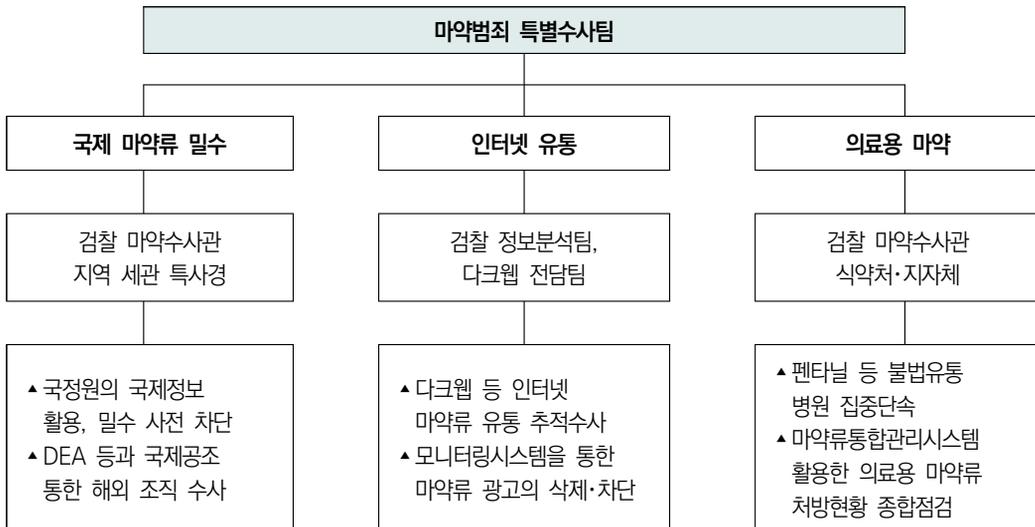
- 2022년 11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에 마약밀수 및 다크웹 추적 수사 분야의 전문 마약수사직 수사관 11명을 추가 배치하여 수사 인력을 보강함
- 2023년 2월, 검찰 69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지자체(서울·인천·부산·광주) 각 1명씩 총 4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명 등 총 84명 4개 팀 규모로 출범함

[그림 3-20]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현판



- 각 검찰청 마약수사 전담부서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 검사 및 검찰 마약수사관과, ① 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국제 마약밀수 분야), ②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인력(의료용 마약 유통분야), ③ KISA의 마약류 판매 광고 사이트 등 차단 및 삭제 전문인력(인터넷 마약유통 분야)로 수사팀 인력 구성함
- 2024년,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 97명, 식약처·지자체 등 유관기관 5명 총 102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①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② 다크웹·SNS 등 인터넷 마약유통, ③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점수사 중임

[그림 3-21]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중점 수사분야



##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 (1) 배경

- 2023년 4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입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류가 함유된 음료를 제공, 이를 복용한 학생의 부모에게 금품 갈취를 시도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발생
- 기존 검찰 내부의 마약범죄 직접수사 부서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외 검찰 및 경찰·관세청·교육부·식약처·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의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 공동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마약류 범죄에 공동 대응

### (2) 추진 경과

#### ①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년 4월 10일, 대검찰청
- 참석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그림 3-22]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도



#### - 주요 내용

-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으로,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53명으로 구성함
- ▷ 유관기관과 신속 정보 공유 및 적시 공동 대응 추진함

추진내용



-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① 범죄단체 의율, ② 구속수사, ③ 중형 구형 및 상소권 행사, ④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 등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
- 마약류 투약사범도 동종전과, 투약횟수 등을 고려,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
- 마약류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부동산, 동산, 예금, 가상화폐 등 철저히 추적하고, 특별법(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완전 박탈하여 범죄 유인의 원천 차단
- 대법원 양형위원회 안건상정을 통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양형 강화 추진
- 청소년 등에 대한 적극적 치료·재활 병행과 치료·재활 시설 및 예산 확보 추진

▷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적극 대응 및 예방

추진내용



청소년 상대 공급사범은 가중처벌<sup>16)</sup> 적극 의율하고 구속수사 원칙

-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적용하여 피해사례 접수 시 적극 지원
- 학교 및 학원가 주변 CCTV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및 '신종유형 발생경보 시스템'을 가동하여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
- 미성년자 눈높이에 맞는 마약류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그림 3-23]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발표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 8호: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매매·조제·수수·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②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년 6월 14일, 대검찰청
- 참석자: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본부장 등
- 주요 내용
  - ▷ 대검찰청 공동본부장 보직을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
  - ▷ 기존 검찰·경찰·관세청에서 국방부·해경·국정원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134명 추가 투입으로 974명으로 확대
  - ▷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① 투약사범 처분 기준 정립 및 공유, ② 단약의지·상습투약 여부·출처 합구 등 양형자료에 대한 적극적 수사, ③ 마약수요 억제를 위한 중형 구형 및 적극적 상소권 행사
  - ▷ 군(軍) 마약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141명의 군검찰 및 군경사경찰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그림 3-24]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2차 회의



## ③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년 12월 6일, 대검찰청
- 참석자: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본부장,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등

- 주요 내용

- ▷ 영리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및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구속수사
- ▷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일 합동단속 협의
- ▷ 대검찰청·경찰청·서울시는 「유홍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
- ▷ 특수본 산하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 협력 강화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 ▷ 기관별 국제공조 강화하여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
- ▷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그림 3-25] 대검찰청·경찰청·서울시 MOU 체결



④ 4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4년 5월 9일, 대검찰청
- 참석자: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국방부 조사본부장·검찰단장,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국정원 국제범죄정보부센터장 등

## - 주요 내용

- ▷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단속을 위해 ① 합동단속 및 공조수사 확대, ② 여행자 검사강화 및 항공화물검사 개편, ③ 해양 상시집중단속
- ▷ 해외도피 마약류 사범 집중 검거를 위해 신속·수시 정보 공유, 미국 마약단속국(DEA), 태국 마약청(ONCB) 등 국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체류정보를 파악한 후 검거 및 강제송환
- ▷ 국내 유통사범 엄단을 위해 다크웹, SNS 등에 대한 전문 수사팀 신설 및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마약 관련 데이터를 검색·수집·분석하여 유통범죄에 대한 수시 감시 체계 강화<sup>17)</sup>
- ▷ 식약처, 검찰, 경찰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①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 패치 등 과다 처방, ②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③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등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단속 강화
- ▷ 단순 투약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시행

[그림 3-26]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차 회의



17) 경찰은 '누리캡스(사이버 명예경찰)', 식약처는 'e-로봇'을 활용하여 마약불법유통정보를 차단

## 나. 인터넷 마약류 범죄 대응 노력

### • 가상자산 추적 교육

#### (1) 배경

- 최근 마약류 사범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불법 환전상 또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거쳐 마약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주고 받고 있는 실정임
-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추적하여 검거하는 기법의 필요성 증대

#### (2) 주요 내용

-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스(Chainalysis)의 분석 전문 수사관 및 매니저 등을 초빙하여 전국 마약전담 검사 및 마약전담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도구 계정 사용법을 교육
- 2023년 ~ 2024년 5차에 걸쳐 100여 명의 마약전담 검사 및 마약전담 수사관을 교육
- 2024년 5월 가상자산 전문 추적요원 양성을 위해 마약전담 수사관 10여명이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 전문 교육(CRC, Chainalysis Reactor Certification) 수료

### •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 배경

-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유통범죄를 단속하기 위하여 기존 '인터넷 마약류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재정비 및 고도화함

#### (2) 주요 내용

- 2024년 1월, 텔레그램 등의 SNS·다크웹 정보 수집체계 구축, 키워드 자동탐지 등 AI 기능을 기반으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위 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를 대검찰청 마약과 정보분석팀이 상세 분석하여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다크웹 전문 수사팀」, 수원지방검찰청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sup>18)</sup> 등에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 지시

## 다. 마약류 국내 유입·공급 원천 차단 노력

### •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 구축

#### (1) 배경

-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동남아시아)에서 유입되므로,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마약류 유입의 선제적 차단이 필수
- 국내 마약류 유통책을 검거하더라도 주요 마약류 발송국 현지 총책이 운반책, 수령책을 소모품처럼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밀수 반복

#### (2) 주요 내용

-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Striking Origin Point)이란 주요 마약류 발송국가의 마약수사기관에 우리 마약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국내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검거로 밝혀진 현지 마약류 발송조직을 실시간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 및 증거 수집하는, 마약류 밀반입 원점(Origin Point) 타격 국제공조시스템
- 태국 사례<sup>19)</sup>를 모델로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내 주요 마약류 발송국<sup>20)</sup>을 대상으로 현지 파견수사관의 정보수집·공조범위 확대, 상시 파견 체계 등 시스템화된 공조망을 구축 추진 중

### •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 운영

#### (1) 배경

-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찰에서 범죄전력 등을 분석하여 마약류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고 세관에서 선별된 대상자를 집중 검사하는 실효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18) '24. 하반기 수원지방검찰청 내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 신설

19) '24. 10. 태국 마약청(ONCB)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시킨 한국인 마약발송책을 현지에서 검거·강제 송환 (대구지검)

20) '24. 태국, '25.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확대 예정

## (2) 주요 내용

- 마약류 범죄 전력자에 대한 출입국시 우선적·집중적 검사
- 여행자정보분석(APIS) 활용을 통한 바디패커(Bodypacker) 선별 단속
- 마약류 범죄 전력자의 국제 우편물 집중 검색

## 라. 마약류 사범 엄정처벌 및 재활 노력

### • 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 강화

#### (1) 배경

- 마약류 범죄의 대량화·조직화·지능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의 선고형이 점차 경미해지고,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미한 형 등으로 재범에 이르는 악순환 반복되는 상황임
-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유통뿐만 아니라 투약 등 마약류 범죄 전반의 안건상정을 추진함

#### (2) 주요 내용

-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에서 마약류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하였음('24. 7. 시행)

#### 의결 내용

-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판매 및 제공범죄에 대하여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 대규모 마약류 밀수 및 판매범죄에 대하여 가액 10억 원 이상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 대마 단순 소지 및 흡연범죄에 대한 형량범위를 상향
- 마약류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실행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한 경우를 특별인자로 포함시켜 형량 가중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신설

### (1) 배경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해 단순히 처벌·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중독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재활을 통해 단약 유지 및 재범 방지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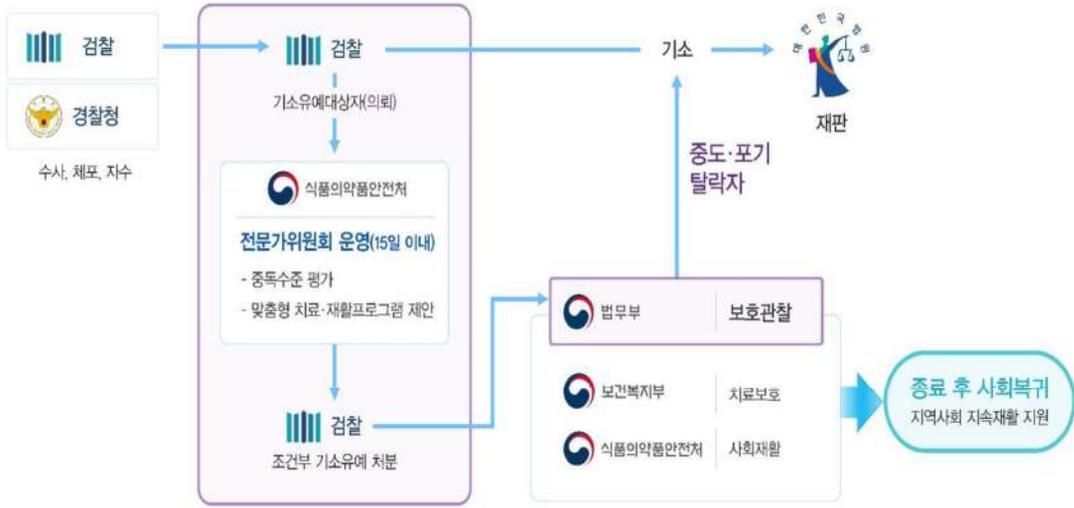
### (2) 추진 경과

- 2023년 11월 ~ 2024년 4월 대검찰청은 법무부 보호관찰과·식약처·보건복지부 등과 3차례의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개최함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참여자 22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으며 참여자 개별 심층인터뷰에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제도의 효과성 입증함

### (3) 주요 내용

- 식약처 주관,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
- 검찰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
- 부처별 역할
  - ▷ 식약처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운영 관리 총괄,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마퇴본부),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 검찰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운영, 기소유예자 판단, 중독평가 의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
  - ▷ 법무부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자 보호관찰, 유예자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행여부 모니터링, 수사 약물검사 실시
  - ▷ 복지부 : 치료보호제도 운영·관리(치료보호심사위원회 포함), 치료연계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그림 3-27]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



## 마. 2024년 검찰의 주요 수사활동

### • 미국 發 필로폰·케타민·LSD 등 마약류 5종 대량 밀수 사건(인천지검)

#### (1) 피의자 및 범죄사실

- A(남, 49세)
- 2024년 5월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35.32g, 케타민 1,079.46g, 엑스터시 1,000정, LSD 400장, 대마오일 1,124.84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아 소지한 채 같은 달 15일 16:03경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2) 수사경과

- '24. 5. 15. 인천공항본부세관, A의 여행용 캐리어 내 마약류 적발
- '24. 5. 15. 인천지검, A 긴급체포, 필로폰 등 마약류 및 현금(422달러) 압수

• A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5. 10.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 현지 발송책이 호텔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닉해 둔 현금 500달러(체류비 명목), 주차장 구석에 놓아둔 여행용 캐리어를 수거한 후 그 안에 은닉되어 있던 마약류 일부를 자신의 백팩에 옮겨 담아 국내로 운반함

- '24. 5. 30. 구속 기소

- 수사결과, 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이전부터 국내에서 필로폰을 소분하여 은닉하는 드라퍼<sup>21)</sup>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하고, 여행용 캐리어를 이용해 마약을 운반한 사실 확인

### (3) 압수물 사진

[그림 3-28] 압수물 전체 사진



[그림 3-29]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던 여행용 캐리어



[그림 3-30] 필로폰 약 1,035.32g 및 은닉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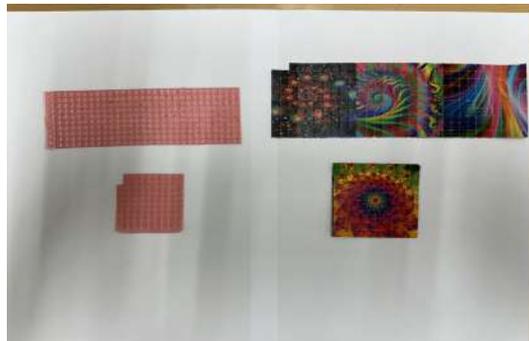
[그림 3-31] 케타민 약 1,079.46g 및 은닉 용기



[그림 3-32] 엑스터시 1,000정 및 은닉 용기



[그림 3-33] LSD 800점



21)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한 후 마약류 구매자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소량으로 소분하여 재차 분산 은닉하는 역할

[그림 3-34] 대마오일 약 1,124.84g 및 은닉 용기



[그림 3-35] 액상대마 흡연용 카트리지 499개



[그림 3-36] 액상대마 흡연용 카트리지 498개



[그림 3-37] 현금 422달러



•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1,035.32g, 케타민 1,079.46g, 엑스터시 1,000정, LSD 800장, 대마오일 1,124.84g 등 약 7만명 동시 투약분이고, 소매가 합계 약 8억원 상당에 이르는 양으로, 세라믹 용기, 플라스틱 영양제통, 삼푸통 등에 담아 위장한 후 여행용 캐리어 및 백팩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

#### (4) 수사 의의

-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총 5가지 종류의 마약류 대량을 국내로 들여온 밀수 사범을 조기에 검거하고, 밀수입 마약류를 전량 압수하여 마약류의 대량 유통 위험을 사전에 차단

- 최근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한국, 일본, 미국 등 국가에서 소위 ‘지계꾼’을 고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도록 이용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바 마약류 밀수 범행은 갈수록 전문화·조직화되어, 국제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음
- 본 사건은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증가하는 국제적·조직적 마약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한 사례

## • ‘지계꾼’, ‘드라퍼’ 등 해외 마약밀반입 조직 엄단 사건(인천지검)

### (1) 피의자 및 범죄사실

#### - 총 16명

순번	피의자	역할	범죄사실 요지
1	A(남, 23세)	총책(범행 지시)	'23. 7. ~'24. 1. B, C, D, E, F와 각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10kg 밀수
2	B(남, 43세)	지계꾼(밀수 운반)	'23. 12. 14.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045g 밀수
3	C(남, 19세)	지계꾼(밀수 운반)	'23. 12. 23.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977g 밀수
4	D(남, 34세)	지계꾼(밀수 운반)	'24. 1. 13.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996g 밀수
5	E(남, 34세)	지계꾼(밀수 운반)	'23. 12. 8.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kg 밀수
			'24. 1. 26.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996g 밀수
6	F(남, 32세)	지계꾼(밀수 운반)	'23. 12. 15.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kg 밀수
			'24. 2. 8.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kg 밀수
7	G(남, 29세)	드라퍼(국내 유통)	'23. 12. 18. B가 밀수한 필로폰 1,045g을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침
8	H(남, 19세)	지계꾼(밀수 운반)	'24. 1. 27. J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합성대마 2.3kg 밀수
			'24. 2. 10. I, J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202g, 케타민 1,482g 밀수
9	I(남, 19세)	지계꾼(밀수 운반)	'24. 2. 10. H, J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202g, 케타민 1,482g 밀수
10	J(남, 19세)	지계꾼(밀수 운반)	'23. 12. 28. K, L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2kg 밀수
			'24. 1. 27. H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합성대마 2.3kg 밀수
			'24. 2. 10. H, I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202g, 케타민 1,482g 밀수
11	K(남, 38세)	지계꾼(밀수 운반)	'23. 12. 28. J, L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2kg 밀수
12	L(남, 31세)	지계꾼(밀수 운반)	'23. 12. 28. J, K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2kg 밀수
13	M(남, 29세)	지계꾼(밀수 운반)	'24. 2. 25.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995g 밀수
14	N(남, 34세, 조선족)	지계꾼(밀수 운반)	'24. 1. 12.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3,728g 밀수

순번	피의자	역할	범죄사실 요지
15	O(남, 26세, 말레이시아 국적)	지계꾼(밀수 운반)	'23. 12. 25.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3,857g 밀수
16	P(남, 37세, 조선족)	지계꾼(밀수 운반)	'24. 4. 8.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366g 밀수

## (2) 수사 경과

- '23. 12. 15. 인천지검, 관련 첩보 입수하여 B, G 검거
- '23. 12. ~ 2. 인천공항본부세관, 캄보디아 發 필로폰 적발, 인천지검 C, D, E, F, N, O 각 검거

• B~F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밀수 조직의 범행인 정황 확인, 디지털포렌식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리책 A의 신원을 특정하여 인터폴 적색수배

- '24. 2. 10. 인천공항본부세관, 캄보디아 發 필로폰 약 1,202g, 케타민 약 1,482g 적발, 인천지검, H, I 각 검거
- '24. 3. 28. 인천지검, J 검거

• '24. 3. 14. ~ 21. 검찰 수사관들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하였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H, I의 공범인 J 특정하여 검거

- '24. 2. ~ 4. 인천공항본부세관, 캄보디아 發 필로폰 적발, 인천지검, M, P 각 검거
- '24. 5. 9. 인천지검, A 검거 및 송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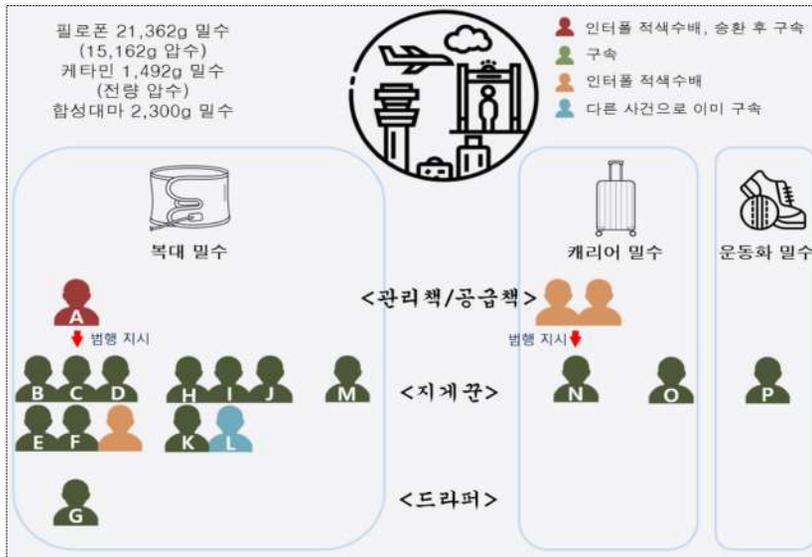
• A는 '23. 10.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도주 중인 상황에서 경찰, 국정원과 협업하여 소재지 파악하고 인천지검 수사관들이 베트남 현지 이민국의 협조를 받아 체포영장 집행 후 송환

- '24. 6. 27. 인천지검, K 구속 기소

• H, I, J에 대한 수사 경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공범 K, L을 특정하여 체포영장 통해 검거

- '24. 7. 2. 인천지검, L 기소(다른 사건으로 구속)

[그림 3-38] 범행구조도



### (3) 수사 의의

- 인천지검·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마약 밀수 동향, 범행 수법, 우범자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캄보디아 發 필로폰 밀수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
- 그 결과 4개월 만에 캄보디아 發 마약 밀수 지계꾼 10명을 입국장에서 순차 검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 약 15kg(1회 투약분 0.03g 기준 약 50만 명 투약분), 케타민 약 1.5kg(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3만 명 투약분)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압수하였음

### (4) 관련 사진

[그림 3-39] 캐리어 은닉 필로폰 사진



[그림 3-40] 지게꾼이 플라스틱 박스에 담긴 필로폰을 야산에 묻고, 그 위에 흙을 덮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



[그림 3-41] 필로폰이 은닉된 복대(좌) 및 착용 상태 촬영 사진(우)



[그림 3-42] 필로폰 소분, 포장 사진



- 환각버섯(Magic Mushroom) 추출 환각물질 등 밀수 사건(대구지검)

## (1) 피의자 및 범죄사실

- A(남, 34세), B(남, 31세)
- 필리핀에 있는 마약 공급책 C와 공모하여, ① 2023년 5월 15일 미국에서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kg,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② 2023년 6월 16일 불가리아에서 시가 1,995만 원 상당 엑스터시 665정을 국제특송화물로 밀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

## (2) 수사 경과

- '23. 5. 19. 인천세관, 사일로신·대마 과자류 1.5kg 적발 후 이송
- ~'24. 2. 대구세관, 관련자들 조사 및 증거 수집

• 휴대전화 포렌식분석 등을 통해 공범 C가 불가리아에서 엑스터시를 발송하고 피의자들이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한 여죄 발견(반출과정에서 불가리아 세관에 의해 적발된 사실을 파악, 국제공조를 통해 관련자료 입수)

- '24. 3. 13. 대구세관, A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검사 청구)/A 도주
- '24. 4. 2. 대구세관, 불구속 송치
- '24. 6. A 끈질기게 추적하여 체포 및 직구속
- '24. 7. 공범 B 특정한 후 체포 및 직구속/ A, B 각 구속 기소

• 마약류발송책 C는 현재 필리핀에서 국내 송환절차 진행 중

## (3) 수사 의의

- 대구세관과의 긴밀한 공조수사 및 불가리아 세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밀수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마약류의 국내유입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
-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A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B의 가담사실을 밝혀내어 각 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하는 공범에 대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여 밀수범행의 주범을 엄벌하고, 추가 범행을 방지함

#### (4) 압수물 사진

[그림 3-43] 대마 및 사일로신이 함유된 과자



[그림 3-44] 대마 및 사일로신이 함유된 사탕



[그림 3-45] 어린이용 책가방 안에 장난감과 함께 은닉된 마약류 제품



[그림 3-46] 불가리아 세관에서 적발한 노트북 패널 안쪽에 은닉되어 있는 엑스터시



• 다크웹 마약 전문사이트의 대규모 온라인 마약유통 적발 사건(서울중앙지검)

(1) 피의자 및 범죄사실

- 총 16명

순번	판매그룹	피의자	신분	범죄사실 요지
1	다크웹 판매상 ID "AA" 그룹	A (남, 32세)	마약류 판매상 (활동명 AA)	'23. 4.~10. 단독 또는 G·H와 공모, 총 82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대마 390g, 합성대마* 208mℓ 등 판매
				'23. 9. H와 공모, 6,0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500mℓ 수입
				'23. 10. 대마 418g, 합성대마 2,352mℓ 소지 등
2		G (남, 31세)	대마 공급책	'23. 4. A에게 액상대마 30mℓ를 400만 원에 공급
				'23. 8.~10 A와 공모,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45만 원 상당의 대마 390g 판매
3		H (남, 39세)	합성대마 공급책	'23. 8.~10. A와 공모, 총 47회에 걸쳐 합계 5,017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208mℓ 판매
				'23. 9. 단독 또는 A와 공모,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 상당의 합성대마 2,500mℓ 수입
				'23. 11. I·J와 공모, 3억원 상당의 합성대마 2,500mℓ 수입, '24. 2. 합성대마 2,325mℓ 소지 등
4		I (남, 37세)	드랍퍼 관리책	'23. 11. H와 공모, 3억원 상당의 합성대마 2,500mℓ 수입, '24. 2. 합성대마 2,325mℓ 소지 등
5		J (남, 32세)	드랍퍼	
6		다크웹 판매상 ID "BB" 그룹	B (남, 28세)	마약류 판매상 (활동명 BB)
7	K (남, 51세)		대마 재배	'23. 3.~11. 총 47회에 걸쳐 합계 4,360만 원 상당의 대마 383g 판매
8	L (여, 56세)		대마 재배	'23. 10. 액상대마 0.7mℓ 제조, 대마 175g 소지 등
9	다크웹 판매상 ID "CC"	C (남, 23세)	마약류 판매상 (활동명 CC)	'22. 6.~'24. 4.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억 9,600만 원 상당의 대마 1,904g 판매
				'24. 2.~3. 총 2회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대마 300g 수입, '24. 4. 대마 591g 소지 등
10	다크웹 판매상 ID "DD"	D (남, 29세)	마약류 판매상 (활동명 DD)	'22. 6.~'24. 5. 총 314회에 걸쳐 합계 2억 6,700만 원 상당의 대마 2,540g을 판매
				'24. 5. 대마 828g 소지 등
11	다크웹 판매상 ID "EE"	E (남, 23세)	마약류 판매상 (활동명 EE) 대마 재배	'22. 8.~'23. 10. 매매 목적으로 대마 9주 재배
				'23. 4.~3. 총 51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대마 296g 판매
				'23. 12. 액상대마 40mℓ 제조, '24. 6. 대마 764g 소지

순번	판매그룹	피의자	신분	범죄사실 요지
12	다크웹 판매상 ID "FF" 그룹	F (남, 37세)	마약류 판매상 (활동명 FF)	- '22. 7.~'24. 4. 총 130회에 걸쳐 함께 1억 6,200만 원 상당의 대마 2,250g, MDMA 11정, 코카인 5g 판매
13		M (남, 29세)	드러퍼	- '23. 10.~11. 총 3회에 걸쳐 대마 203g 수수
14		N (남, 30세)	드러퍼	- (F) '23. 10.~'24. 5. 총 3회에 걸쳐 도매가 함께 1억 2,370만 원(소매가 합계 3억 441만 원) 상당의 대마 1,793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코카인 43g, MDMA 47정, 사일로신 <sup>22)</sup> 초콜렛 2,100g(사일로신 함량 약 70g) 수입
15		O (남, 35세)	드러퍼	
16		P (남, 29세)	드러퍼	- '24. 5. (O) 대마 570g, MDMA 12정, 코카인 2.7g, (M) '24. 5. 대마 83g, 케타민 10g 각 소지

## (2) 수사 경과

- ~'23. 10. 다크웹의 “한국어” 마약 매매 전문사이트 ☆에 대한 수사 착수
- ~'24. 1. 판매상 인적사항 특정, 추적·검거하여 각 구속
- ~'24. 3. 판매상 A에게 대마와 합성대마 공급한 G, H 각 구속
- ~'24. 5. 판매상 C, D, F 등 추적·검거하여 각 구속
- ~'24. 6. 판매상 E 구속, AA~EE 판매그룹별 판매내역 등 특정하여 병합기소

• 가상자산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판매그룹별 최근 2년간 마약류 판매내역을 특정하고, 해당 마약류의 출처인 수입내역 등도 확인하여 대규모 마약류 유통을 규명

- '24. 7. FF 판매그룹의 수입내역 등 추가 특정하여 병합기소

## (3) 수사 의의

- 검찰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 한국어로 마약류 판매 광고하는 다크웹 상 마약 전문 암거래 사이트 ☆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회원 3,962명이 가입된 국내 유일 다크웹 마약류 매매 전문사이트임을 확인함

22) 사일로신(항정 가.목)은 중남미와 미국 아열대 지역 등에서 나는 환각버섯에 포함된 마약류성분, 건조 버섯을 분쇄하여 섭취, 30~40분 내 중추신경계 작용, LSD 유사 환각효과가 4~6시간 지속

[그림 3-47] 판매상들이 ☆ 사이트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광고

대마엑상 CANDY 사티바 아이스

**MOCHI / WHITE GUMMY 50G**  
₩ 3,500,000 | 0.039619 BTC  
Sold By [redacted]  
장바구니

**COCAIN 1g- 75**  
₩ 4,000,000 ₩ 750,000 | 0.008490 BTC  
Sold By [redacted]  
장바구니

**[BTC] [XMR] 북미산 아이스 50g (쿠폰불가)**  
₩ 35,000,000 ₩ 12,000,000 | 0.211024 BTC  
Sold By [redacted]  
장바구니

-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마약류 거래에 대한 추적 및 검거에 성공하였으며, 마약류 조달을 위한 '해외 마약류 밀수, 대마 재배 등'도 적발하였음
- 「다크웹 전문수사팀」의 노하우로 ① 판매상들이 '22. 6. ~ '24. 4. 총 759회에 걸쳐 합계 8억 6,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거래한 내역을 특정, ②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합계 약 10억 5,8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유통을 저지
- 판매 그룹 절반이 검찰 수사로 검거되자, '24. 7. 기준 일일 방문자 수가 35명 내외로 급감됨으로써 다크웹 마약류 유통 플랫폼 형해화

#### (4) 압수물 사진

[그림 3-48] E 주거지의 대마초 수확 후 건조되고 있는 모습



[그림 3-49] B 주거지에서 재배되고 있던 대마초 [그림 3-50] D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대마초



[그림 3-51] 태국에서 수입된 합성대마



[그림 3-52] M 주거지에서 발견된 각종 대마 흡연도구



[그림 3-53] F가 수입한 마약류 사진



[그림 3-54] F가 수입한 사일로신 함유 초콜렛



제1장 마약류의 개요

제2장 마약류 범죄의 신속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적발 사건(서울남부지검)

(1) 피의자 및 범죄사실

- 총 19명<sup>23)</sup>

순번	피의자	지위	범죄사실 요지
1	A (31세, 무직)	회장	마약류(향정, 대마) 매수·매도, 수수, 투약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 등
			자동차운전면허증 변조
			코인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
2	B (여, 25세, 대학생)	임원	마약류(향정, 대마) 수수·투약 등
3	C (여, 22세, 대학생)	회원	마약류(향정, 대마) 매수·수수, 투약 등
4	D (34세, 의사)	회원	마약류(향정, 대마) 매수·보관, 투약(3회)
5	E (46세, 상장사 임원)	회원	마약류(향정) 투약
6	F (여, 22세, 대학생)	회원	마약류(향정) 매수·투약
7	G (여, 28세, 대학생)	회원	마약류(향정) 투약
8	H (26세, 대학생)	임원	마약류(향정) 매수·투약
9	I (26세, 대학생)	회원	마약류(향정) 매도
10	J (여, 22세, 대학생)	회원	마약류(향정) 매수, 수수, 투약, 보관

회사원 1명과 대학생 8명은 단순 투약

(2) 수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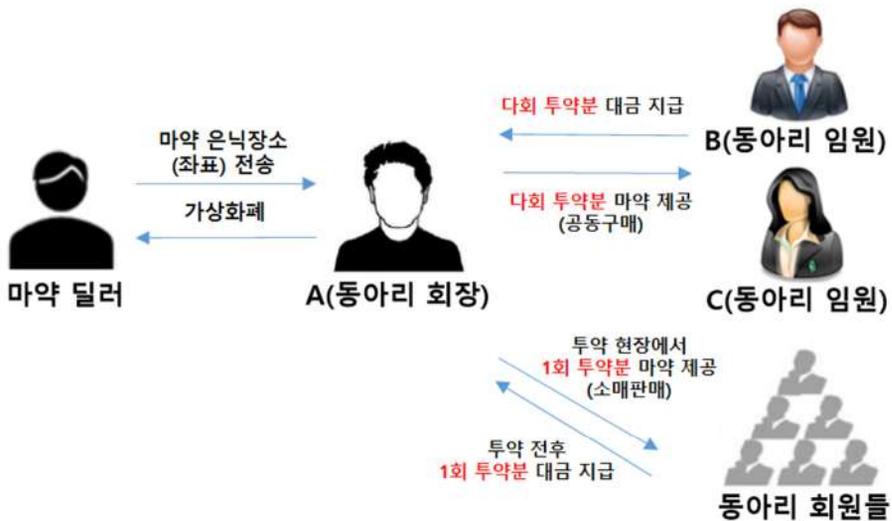
- '24. 1. 18. 마약류 매매·투약 혐의로 A 구속 기소

- A에 대한 마약사건 공판 과정에서, A의 계좌에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수회 입금된 거래내역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함
- 이후, 휴대전화 압수, 계좌·코인거래·통신분석 등을 통해 동아리 임원→동아리 회원 순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범행의 전말을 밝혀냄

23) 피의자들은 서울·수도권 주요 명문대 13개 대학교 재학 중

- '24. 3~7.     검찰 수사 진행(주거지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코인·통화 내역 분석, 코인 동결 등)
- '24. 4. 17.    A에 대한 선행사건 1심 선고(징역 3년 등)
- '24. 6. 13.    B·C 각 구속
- '24. 7. 1.     구속 기소(B·C), 불구속 기소(A), 조건부 기소유예(4명)
- '24. 7. 25.   D 구속
- '24. 8. 5.     구속 기소(D), 불구속 기소(E·F), 조건부 기소유예(4명)

[그림 3-55] 범행구조도



### (3) 수사 의의

- 이 사건은 전국 2위 규모(약 300명)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유통<sup>24)</sup>한 범행 전말을 확인한 사안임
- 수사 과정에서 구독자 약 9천 명의 마약류 범죄 수사 대비 텔레그램 채널을 확보한바, 대검찰청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추적 수사 중

24) A는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고용, 마약 은닉장소(좌표)를 전달받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하고, 매수자금을 분담하면서 '공동구매'라고 자칭하는 등 수익사업으로 확장시켰음

[그림 3-56] 마약수사 대비 목적의 텔레그램 채널(구독자 약 9천 명)



- 해당 사건은 A에 대한 별건 마약류 투약 등 사건 재판 담당 공판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하여 주거지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코인·통화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여, 암장될 뻔한 대학가 마약류 유통범죄의 실체를 밝혀낸 사안

[그림 3-57] 고급호텔에서의 마약투약



[그림 3-58] 놀이공원에서의 마약투약



• 프로포폴 등 불법 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사건(서울중앙지검)

(1) 피의자 및 범죄사실

- 총 32명(의사 등 병원관계자 8명, 프로포폴<sup>25)</sup> 중독자 25명 등)

순번	피의자	지위, 역할
1	A (남, 64세)	○○의원 前 의사
2	B (남, 73세)	○○의원 개설자
3	C (남, 57세)	△△병원 사무장
4	D (여, 28세)	○○의원 상담실장 (㉠의원 근무경력)
5	E (남, 38세)	○○의원 자금관리책 (당진식구파 폭력조직원)
6	F (여, 40세)	○○의원 간호조무사 (㉡의원 근무경력)
7	G (여, 37세)	○○의원 간호조무사 (㉢의원 근무경력)
8	H (남, 47세)	범행 총책 (자금조달, 병원 및 의사 등 섭외)
9	I (남, 30세)	프로포폴 중독자
10	J (여, 32세)	프로포폴 중독자
11	K (남, 28세)	프로포폴 중독자
12	L (여, 34세) 외 7명	프로포폴 중독자
13	M (남, 30세) 외 12명	프로포폴 중독자

- 프로포폴 등 불법판매·투약(A~H) : '23. 11.~'24. 6. ○○의원에서 수면·환각 목적으로 총 417회에 걸쳐 합계 약 14억 5,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sup>26)</sup>를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

• 단, A는 '23. 11.~'24. 4. 총 9억 8,134만 원, C는 '23. 11.~'24. 1. 총 4억 1,85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불법판매투약

-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A~H) : '23. 11.~'24. 6. ○○의원에서 상담실장 D가 프로포폴 중독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에 따라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 F·G가 A의 구체적 관리·감독 없이 위와 같이 총 417회에 걸쳐 수면마취

25)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11년 지정, 마약류로 관리)

- 수술용 전신마취,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등에 사용하는 정맥주사제, 일명 '우유주사'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통증 억제, 진정 효과도 있으나, 호흡억제로 인한 무호흡, 혈압저하,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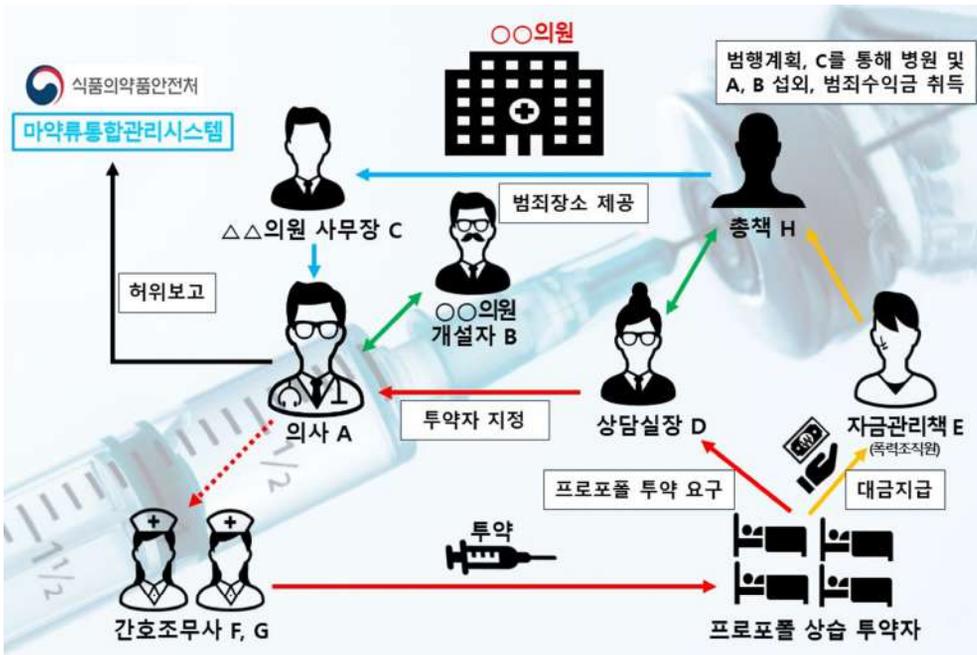
26) 속칭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유통이 엄격하게 통제되자, 프로포폴 대신 병·의원에서 수면유도제로 오남용

- '25. 2.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보고(A, D, E, F, H) : '23. 11.~'24. 4. ○○의원에서 위 프로포폴 불법판매 사실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 명의로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허위 보고
- 프로포폴 등 불법매수·투약(I, J, K, L) : '23. 11.~'24. 6. 각각 수면 등 목적으로 총 20~50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 원에서 약 2억원 상당에 이르는 프로포폴과 프로포폴로 인식한 에토미데이트를 매수하여 투약
- 프로포폴 등 불법매수·투약(M 등 20명) : '23. 11.~'24. 6. 각각 수면 등 목적으로 총 1~35회에 걸쳐, 약 180만 원에서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프로포폴과 프로포폴로 인식한 에토미데이트를 매수하여 투약

[그림 3-59] 범행 개요도



**(2) 수사 경과**

- '24. 2.~5.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 구성 및 운영

- 식약처 합동, 서울 소재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 분석
- ㉠의원 압수수색, 프로포폴 중독자 조사 과정에서 본건 범죄정보 확보

- '24. 6. 18. 범행 장소를 ○○의원으로 확인

- '24. 6. 24. 인근 도로 CCTV 분석,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의원 관계자 4명을 D~G로 특정

- '24. 6. 27. ○○의원 압수수색, D~G 4명 검거(체포영장)

- '24. 6. 30. 상담실장 D, 폭력조직원 E, 간호조무사 F 구속

- 범행총책 H의 실체 확인(도주, 체포영장 발부)

- '24. 7. 16. D, E, F 구속기소, F 불구속기소

- ~'24. 8. 15. B 구속(8. 6. 구속기소)

- 의사 A, 사무장 C 검거(체포영장)
- C 구속(8. 29. 구속기소) / A 구속영장 판사 기각

- ~'24. 9. 20. 프로포폴·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내역 등 추가 특정  
(합계 14억 5,800만 원 상당)

- ~'24. 10. 2. 프로포폴 중독자 I, J, K 검거 → I 구속(10. 16. 구속기소) /  
J, K 구속영장 판사 기각

- ~'24. 10. 18. 의사 A 구속영장 재청구, A 구속

- ~'24. 11. 20. 프로포폴 중독자 23명 각 불구속기소

**(3) 수사 의의**

- 서울중앙지검의 상설 전문수사팀인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해 병·의원별 처방내역 및 해당 병·의원의 처방환자에 대한 개인별 처방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무제한 전신마취제 투약과 7개월간 약 15억 상당 판매사실을 적발함으로써 프로포폴 불법판매·투약 전문병원을 엄단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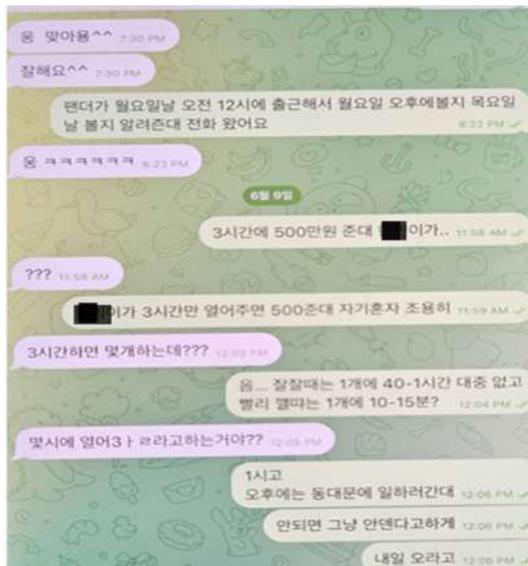
- 향정신성의약품 미지정으로 NIMS 취급보고 의무가 없고 효능은 프로포폴과 유사한 에토미데이트를 다른 마취제 등과 섞어, 마치 프로포폴인 것처럼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함으로써, 식약처와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회피하고 중독자들에게 대량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병원관계자 등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였음

(4) 압수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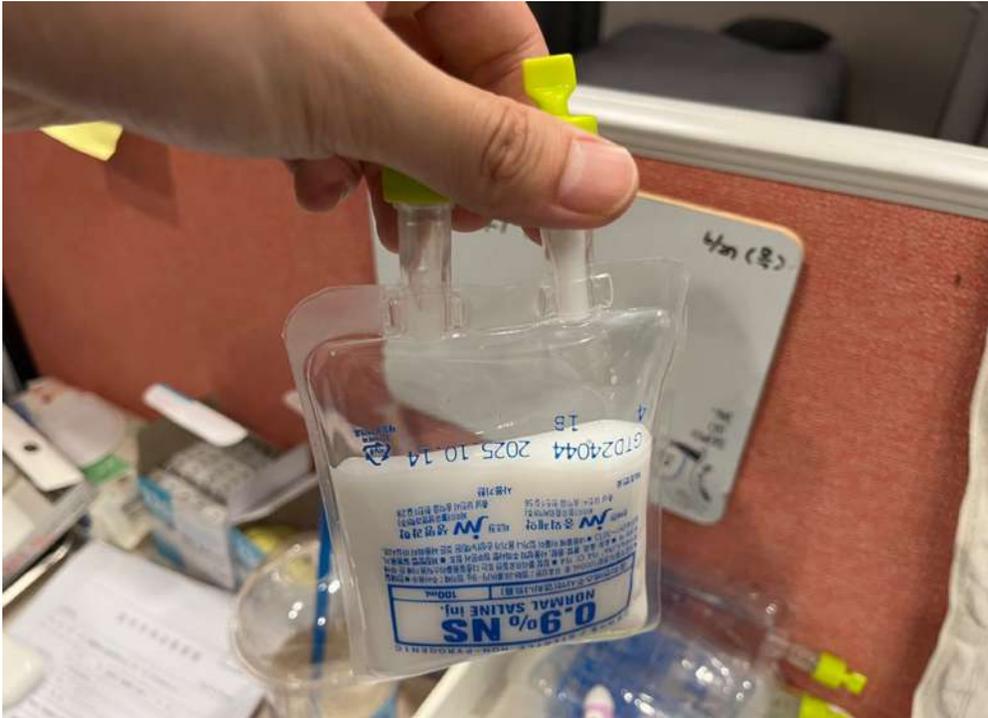
[그림 3-60] OO의원에서 압수한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 박스



[그림 3-61] 영업 시간 외 투약 예약



[그림 3-62]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투약하기 위해 준비해 둔 프로포폴 수액



[그림 3-63] 프로포폴 중독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



제1장 마약류의 개요

제2장 마약류 범죄 및 단속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 텔레그램 채널 이용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조직 적발 사건(서울중앙지검)

(1) 피의자 및 범죄사실

- 총 6명

순번	피고인	역할	범죄사실 요지
1	A (남, 43세)	총책	A, B는, - C와 공모하여 '23. 11.~'24. 1. 사이 MDMA 약 2,000정 및 필로폰 10.54g 수입
2	B (남, 32세)	부총책	- D와 공모하여 '24. 1.~2.경 2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380mℓ를 수수하고, 그 중 140mℓ를 서울, 인천 등지에 은닉 - '24. 2. 합성대마 3mℓ를 주거지에 보관
3	C (남, 30세)	1차 드랍퍼	A, B와 공모하여 '24. 1. 1. 독일궤 MDMA 526정을 국제통상우편으로 수입 '24. 1. 12. MDMA 222정, LSD 62장 소지
4	D (남, 29세)	2차 드랍퍼	A, B와 공모하여 '24. 1.~2.경 2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380mℓ를 수수하고, 그 중 140mℓ를 서울, 인천 등지에 은닉 '24. 6.경 합성대마 240mℓ를 주거지에 보관
5	E (남, 28세)	마약류 매수자	'24. 1.경 텔레그램 마약류 채널을 통해 LSD 2장, 합성대마 5mℓ를 60만 원에 매수
6	F (남, 58세)	대포폰, 대포통장 제공자	'23. 6.~8.경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은행 통장을 A에게 양도

(2) 수사 경과

- '24. 1. 인천공항세관, MDMA 526정 밀수 적발

- 마약류 은닉 우편물 수령하는 1차 드랍퍼 C 검거 및 구속(1. 31. 구속 기소)
- C 검거 과정에서 MDMA 222정, LSD 62장, 합성대마 40mℓ 등 마약류와 전문 드랍퍼들이 사용하는 미세 전자저울 등 마약류 소분·은닉 장비 압수

- '24. 2. C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통화내역 등 분석하여 텔레그램 채널 총책 A·B 특정

-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A와 B 검거 및 구속(3. 11. 각 구속기소)

- ~'24. 6. 총책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 분석을 통해 2차 드랍퍼 D 특정 후 체포영장 발부받아 신병 추적 및 검거, 구속(7. 1. 구속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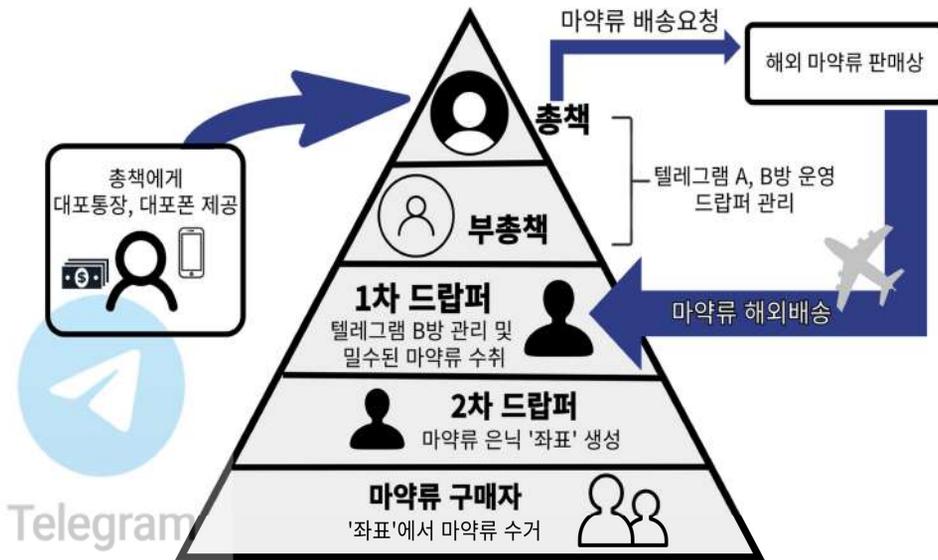
- D 검거 과정에서 합성대마 240mℓ 등 마약류 압수

- '24. 7.~8. 텔레그램 채널 대화내용 분석, 각종 최신 수사기법 동원하여 매수자 E 특정 후 검거(구속영장 기각)
- '24. 8.~10. 유사 사건 분석을 통해 A·B의 추가 마약류 범행 규명

- A에게 마약류 유통에 사용할 대포폰 및 대포계좌를 제공한 F 특정

- '24. 11. A·B 추가기소, E 불구속기소 / F 약식기소

[그림 3-64]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마약류 유통 구조



### (3) 수사 의의

- 최초 적발된 '24. 1. 독일 發 MDMA 526정 수입 사건뿐만 아니라, 약 10개월 간의 추적 수사로 MDMA 1,221정, 합성대마 283ml, LSD 62장, 필로폰 10.54g 등 시가 합계 1억 4,814만 원 상당(약 1만 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함
- 투약자와 범행수단 제공자까지 '마약류 수입→유통→투약' 연계 범행을 규명하여 엄단함
- 손쉽게 '드랍퍼' 등 하위 공범을 구하여 범행을 지속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텔레그램 상의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하여 본건 텔레그램 마약류 밀수·유통 채널의 운영자를 검거하여 위 채널 자체를 폐쇄함으로써 마약류 수입·유통 원천 차단

제1장 마약류의 개요

제2장 마약류 범죄 단속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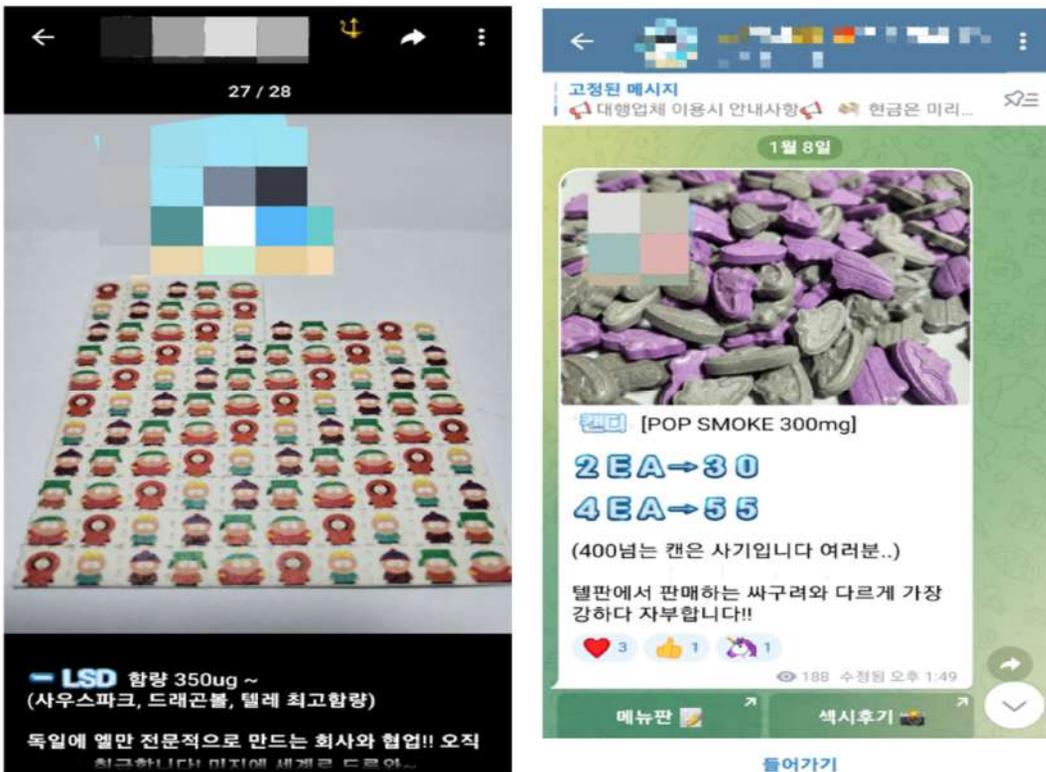
제4장 국제협력 현황

(4) 압수물 사진

[그림 3-65]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및 범행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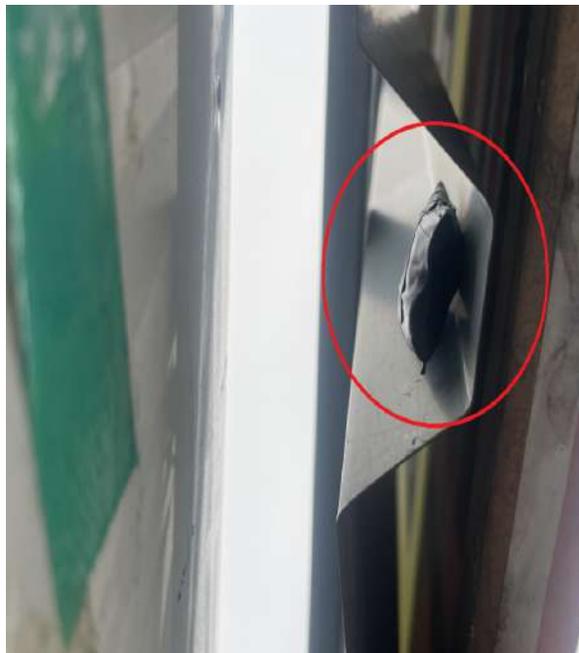
[그림 3-66] 텔레그램 마약류 채널에 게시된 마약류 광고사진



[그림 3-67] 마약류 '좌표'



[그림 3-68] 좌표에 은닉된 마약류



제1장 마약류의 개요

제2장 마약류 범죄 및 대응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 동남아 마약조직과 결탁한 마약 밀수·유통 조직 엄단 사건(안양지청)

(1) 피의자 및 범죄사실

- 총 7명<sup>27)</sup>

순번	피의자	역할	범죄사실 요지
1	A (남, 47세)	밀수 및 국내유통 총책	'24. 4. 21. H, I, 성명불상 라오스 거점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19kg을 밀가루 반죽기에 은닉하여 밀수입
			'24. 6.~'24. 7. H로부터 필로폰 3kg 수수
			'24. 7. 3. E의 알선으로 G 등에게 필로폰 2kg 판매
			'24. 7. C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해외 송금인 것처럼 꾸며 필로폰 판매 대금을 해외 송금하여 범죄수익 은닉
2	B (남, 29세, 태국 국적)	필로폰 보관책	'24. 6. 10. H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19kg 수령 후 운행하던 차량 등에 보관 (16kg→19kg 검찰 추가 수사로 규명)
			'24. 6.~'24. 7. H의 지시를 받고 5회에 걸쳐 필로폰 5kg 운반 (2kg→5kg 검찰 추가 수사로 규명)
			'24. 7. 3. 운반하고 남은 필로폰 14kg을 주거지에 보관
3	C (남, 40세)	A 지시를 받은 밀수 공범	'24. 4. 21.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19kg을 밀가루 반죽기에 은닉하여 밀수입
4	D (남, 42세)	A 지시를 받은 밀수 공범	'24. 4. 21.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19kg을 밀가루 반죽기에 은닉하여 밀수입
5	E (남, 54세)	국내유통책	'24. 6.경 A로부터 필로폰 1kg 수령 후 직접 인천지역 유통
			'24. 7. 3. A와 부산 필로폰 소매상들 간 필로폰 2kg 매매 알선
6	F (남, 46세)	국내유통책	'24. 7. 3. A로부터 필로폰 1kg 수령 후 E에게 전달하여 운반
7	G (남, 52세)	국내유통책	'24. 7. 3. J와 공모하여 A로부터 필로폰 1kg 매수

(2) 수사 경과

- '24. 7. 3. 안양동안서, 첩보 받아 필로폰 보관 중인 B 구속
- '24. 7. 3. 안양지청, B 구속 기소
- '24. 7. 12. 안양동안서, B로부터 필로폰 수수한 A 구속
- '24. 7. 28. 안양동안서, A의 필로폰 매매를 증개한 E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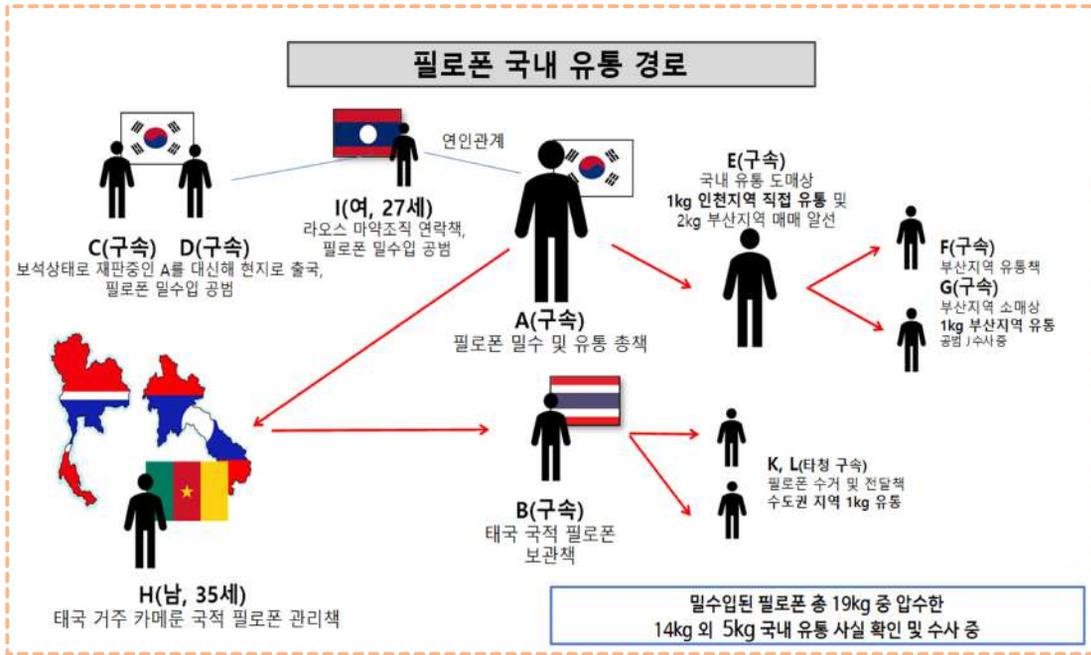
27) H(태국 마약 관리책), I(라오스 조직 연락책), J(국내유통책)은 계속 수사 중

- '24. 8. 6. 안양지청, A 구속 기소 / 8. 19. E 구속 기소
  - '24. 8.~ 안양지청, 관세법인·운송주선 업체 등 압수수색, 자금추적 등
  - '24. 8. 21. 안양동안서, 필로폰 유통책 F 구속
  - '24. 8. 28. 안양지청, F 구속 기소
  - '24. 9. 28. 안양동안서, 필로폰 소매상 G 구속
  - '24. 10. 2. 안양동안서, 필로폰 밀수입 공범 C 구속
  - '24. 10. 22. 안양지청, G 구속 기소 / 10. 29. C 구속 기소
- '24. 11. 7.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출한 총책 H에 대해 형사사법공조 요청
- '24. 11. 22. 안양지청, A 밀수입·B 필로폰 19kg 보관 등 인지
  - '24. 11. 27. 안양지청, 필로폰 밀수입 공범 D 불구속 기소
  - '24. 11. 29. 안양지청, B 추가 기소 / 12. 2. A 추가 기소

### (3) 수사 의의

- 안양지청과 안양동안경찰서는 수사 초기부터 수시로 수사 상황과 자료를 공유하여, 경찰은 마약 유통과정 추적 및 관련자 검거에 집중하고, 검찰은 마약 밀수 과정 확인,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범죄수익 환수 등 역할을 분담한 뒤, 4개월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제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
- 마약 밀수 범죄는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동남아 등 해외 마약 조직과 결탁하여 이루어지므로 해외정보 입수와 국제공조를 통한 검거가 반드시 필요함
- 이 사건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일부가 마약 밀수 사실을 진술하여 검찰이 곧바로 마약 밀수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고, 경찰수사를 보완하여 추가 수사를 통해 밀수입 범죄의 전말을 밝힐 수 있었음
- 또한, 태국 마약관리책(H) 등에 대하여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 범죄인 인도청구하는 등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가 효율적임을 드러냄

[그림 3-69] 필로폰 국내 유통 경로



(4) 압수물 사진

[그림 3-70] 반죽기 전면(좌),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던 반죽기 후면(우)



[그림 3-71] 압수된 필로폰 전체(14kg)(좌), 필로폰이 포장되어 있던 포장지(우)



- 국제 마약 조직의 코카인 약 61kg 제조 사건(인천지검)

## (1) 피의자 및 범죄사실

- 총 7명

순번	피의자	역할	범죄사실 요지
1	A (남, 55세, 캐나다 국적)	국내 판매 총책	D,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등과 공모하여, '24. 6.~7.경 코카인 약 61kg 제조 B, C와 공모하여, '24. 8. 10.경 코카인 약 2kg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침 '24. 8. 10.경 코카인 약 58kg 보관
2	B (남, 27세)	판매책	A, C와 공모하여, '24. 8. 10.경 코카인 약 2kg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침
3	C (남, 27세)	판매책	A, B와 공모하여, '24. 8. 10.경 코카인 약 2kg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침
4	D (남, 34세)	국내 제조 총책	A,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등과 공모하여, '24. 6.~7.경 코카인 약 61kg 제조 E와 공모하여, '24. 7.~9.경 코카인 성분이 함유된 부산물 약 450kg 보관
5	E (여, 28세)	D의 여자친구, 창고 명의 등 제공	A, D 등이 코카인 약 61kg을 제조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 D와 공모하여, '24. 7.~9.경 코카인 성분이 함유된 부산물 약 450kg 보관
6	F (남, 41세)	액상 코카인 보관, 관리	A, D 등이 코카인 약 61kg을 제조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
7	G (남, 41세)	액상 코카인 밀수, 보관	'20. 7.~'21. 5.경 건축용 벽토를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액상 코카인 불상량이 은닉된 건축 자재 80톤 수입 '23. 12.경까지 밀수입 액상 코카인 중 일부(고체 코카인 최소 61kg 제조 가능한 양)를 보관하면서 관리

(2) 수사 경과

- '24. 8. 9. 서울시경, D 긴급체포 및 코카인 약 1kg 압수

- D, 코카인 1kg 판매하려다 검거

- '24. 8. 10. 중부지방해경, A, B, C 긴급체포 및 코카인 약 60kg 압수

- A·B·C, 코카인 2kg 판매하려다 검거, 주거지에 58kg 보관

- '24. 8. 10. 서울중앙지검, D 구속 기소

- '24. 9. 5. 인천지검, A, B, C 구속 기소

- '24. 9. 27. 중부지방해경, 코카인 성분 함유 부산물<sup>28)</sup> 약 450kg 압수

- '24. 10. 15. 인천지검, A, D의 코카인 제조, F의 제조 방조 입건

- 중부지방해경 수사 및 인천지검 보완수사를 통해, ① D가 강원 횡성군 소재 창고를 임차한 사실, ② A가 D와 함께 여러 차례 횡성군 창고에 방문한 사실, ③ D가 코카인 제조에 필요한 화학 약품을 구매한 사실 등을 확인

- '24. 11. 15. 인천지검, G의 액상 코카인 밀수 입건

- 코카인 이동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콜롬비아에서 건축자재로 위장한 액상 코카인을 밀반입한 경위를 밝히고 F의 인적사항 특정

- '24. 11. 21. 인천지검, F 구속 기소, A, D 불구속(별건 구속) 기소

- '24. 12. 20. 인천지검, G 구속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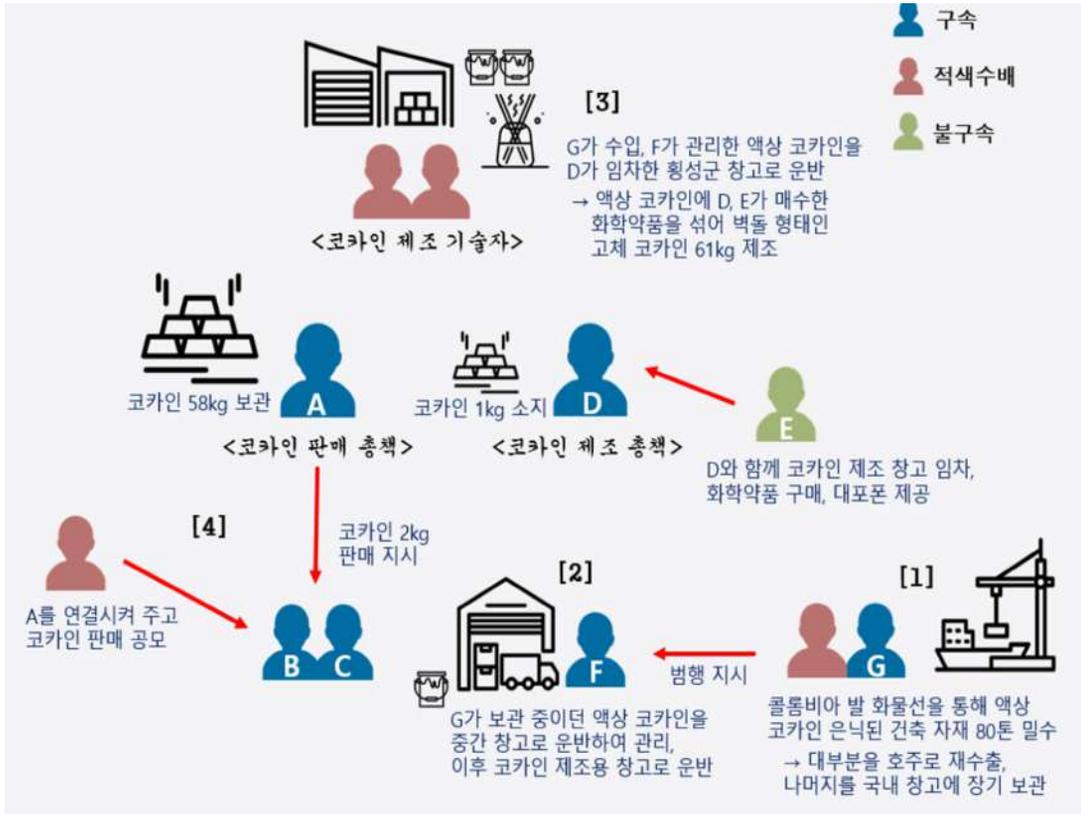
- '24. 12. 30. 인천지검, E의 코카인 제조 방조 입건

- E는 코카인 제조 핵심 공범인 D의 여자친구로, D를 위하여 창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범행용 대포폰을 제공하였으며 D와 함께 코카인 제조에 필요한 화공약품을 매수하였음

- '25. 1. 22. 인천지검, E 불구속 기소

28) 코카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액체로 코카인 양성 검출, 구체적인 코카인 함유량은 불상

[그림 3-72] 범행구조도



### (3) 수사 의의

- 내국인이 연계된 국제 마약 조직의 역대 최대 규모 코카인 제조 및 유통 시도 범행의 전말을 밝힘
- 대한민국이 국제 마약 밀수의 중간 거점으로 악용되었으며,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유통 목적으로 대량의 코카인을 불법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기에 검거 되어 국내 유통을 차단하였음

#### (4) 관련 사진

[그림 3-73] 콜롬비아 국적 제조 기술자들이 강원도 황성군 소재 창고에서 코카인을 제조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그림 3-74] 제조를 마친 코카인



[그림 3-75] 밀수입 액상 코카인



제1장 마약류의 개요

제2장 마약류 범죄 및 단속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 제3절 연도별 마약류 범죄 현황 분석

## 1.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표 3-22]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1)

[단위: 명]

마약류 \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합계	1,190	1,629	2,016	3,939	3,876	4,222	3,133	2,968	6,773	4,555
마약	361	375	239	268	857	1,215	838	949	3,364	1,314
향정	501	862	1,459	3,320	1,994	1,557	1,157	965	1,900	1,742
대마	328	392	318	351	1,025	1,450	1,138	1,054	1,509	1,499

마약류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7,154	7,709	10,649	9,898	11,875	9,732	9,174	9,255	9,764	9,984
마약	768	868	958	1,396	2,198	1,124	759	582	685	676
향정	5,354	6,006	8,521	7,457	7,965	6,771	7,226	7,631	7,902	8,121
대마	1,032	835	1,170	1,045	1,712	1,837	1,189	1,042	1,177	1,187

[그림 3-76]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1)



[표 3-23]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2)

[단위: 명]

연도 마약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5,418	6,189	6,947	8,350	10,589	10,304	10,102	10,673	7,546	7,747
마약	1,135	1,235	1,201	892	923	954	661	790	1,211	1,203
향정	2,767	3,682	4,445	5,852	7,479	7,066	7,959	7,918	4,727	5,313
대마	1,516	1,272	1,301	1,606	2,187	2,284	1,482	1,965	1,608	1,231

연도 마약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1,916	14,214	14,123	12,613	16,044	18,050	16,153	18,395	27,611	23,022
마약	1,153	1,383	1,475	1,467	1,804	2,198	1,745	2,551	3,970	1,954
향정	9,624	11,396	10,921	9,613	11,611	12,640	10,631	12,035	19,556	17,751
대마	1,139	1,435	1,727	1,533	2,629	3,212	3,777	3,809	4,085	3,317

[그림 3-77]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2)



- 2000년 이전
  - 1993년 양귀비 밀경작 사범 집중단속으로 마약사범이 3,364명으로 전년(949명) 대비 254.5% 증가함
  - 1985년 1,190명이었던 마약류 사범은 불과 1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여 1995년 5,418명이 되었으며, 1999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함
- 2000년 이후
  - 2002년도 마약류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구속162명)이 단속되면서 마약류 공급선 차단의 효과가 발생하였음. 이후 2003년도에 마약류 사범이 급감하고 그 여파가 2006년까지 지속됨
  - 이후 2015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최근 인터넷(다크웹)·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의 연락이 용이해지면서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됨
- 현재
  - 2023년 국내 역대 최초로 2만 명대를 돌파한 후, 2024년은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2만 명을 상회하고 있음

## 2. 연도별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 가. 전체 마약류 사범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표 3-24] 전체 마약류 사범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유형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2005		0 (0.0)	161 (2.3)	1,270 (17.8)	608 (8.5)	3,872 (54.1)	687 (9.6)	556 (7.8)	7,154 (100.0)
2006		4 (0.1)	210 (2.7)	1,477 (19.2)	695 (9.0)	4,229 (54.9)	330 (4.3)	764 (9.9)	7,709 (100.0)
2007		4 (0.0)	265 (2.5)	1,817 (17.1)	758 (7.1)	6,013 (56.5)	456 (4.3)	1,336 (12.5)	10,649 (100.0)
2008		0 (0.0)	169 (1.7)	1,637 (16.5)	1,199 (12.1)	5,719 (57.8)	404 (4.1)	770 (7.8)	9,898 (100.0)
2009		0 (0.0)	281 (2.4)	1,971 (16.6)	2,036 (17.1)	6,103 (51.4)	390 (3.3)	1,094 (9.2)	11,875 (100.0)
2010		4 (0.0)	236 (2.4)	1,788 (18.4)	576 (5.9)	5,994 (61.6)	458 (4.7)	676 (6.9)	9,732 (100.0)
2011		2 (0.0)	273 (3.0)	1,904 (20.8)	561 (6.1)	5,365 (58.5)	455 (5.0)	614 (6.7)	9,174 (100.0)
2012		3 (0.0)	332 (3.6)	2,465 (26.6)	412 (4.5)	5,082 (54.9)	443 (4.8)	518 (5.6)	9,255 (100.0)
2013		14 (0.1)	447 (4.6)	2,340 (24.0)	507 (5.2)	5,427 (55.6)	383 (3.9)	646 (6.6)	9,764 (100.0)
2014		0 (0.0)	389 (3.9)	2,538 (25.4)	489 (4.9)	5,224 (52.3)	554 (5.5)	790 (7.9)	9,984 (100.0)
2015		10 (0.1)	339 (2.8)	2,888 (24.2)	903 (7.6)	6,353 (53.3)	668 (5.6)	755 (6.4)	11,916 (100.0)
2016		2 (0.0)	383 (2.7)	3,651 (25.7)	1,076 (7.6)	7,329 (51.6)	771 (5.4)	1,002 (7.0)	14,214 (100.0)
2017		3 (0.0)	481 (3.4)	3,471 (24.6)	1,030 (7.3)	7,346 (52.0)	1,002 (7.1)	790 (5.6)	14,123 (100.0)
2018		8 (0.1)	521 (4.1)	2,763 (21.9)	1,026 (8.1)	6,177 (49.0)	1,081 (8.6)	1,037 (8.2)	12,613 (100.0)
2019		5 (0.0)	783 (4.9)	3,437 (21.4)	1,161 (7.2)	8,210 (51.2)	1,185 (7.4)	1,263 (7.9)	16,044 (100.0)

연도 \ 유형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2020	9 (0.0)	837 (4.6)	3,947 (21.9)	1,805 (10.0)	9,044 (50.1)	1,115 (6.2)	1,293 (7.2)	18,050 (100.0)
2021	9 (0.1)	807 (5.0)	3,229 (20.0)	1,151 (7.1)	8,522 (52.8)	1,214 (7.5)	1,221 (7.6)	16,153 (100.0)
2022	4 (0.0)	1,392 (7.6)	3,492 (19.0)	1,714 (9.3)	8,489 (46.1)	1,032 (5.6)	2,272 (12.4)	18,395 (100.0)
2023	6 (0.0)	1,235 (4.5)	7,904 (28.6)	3,081 (11.2)	10,899 (39.5)	1,859 (6.7)	2,627 (9.5)	27,611 (100.0)
2024	19 (0.1)	1,126 (4.9)	6,593 (28.6)	1,123 (4.9)	9,528 (41.4)	1,888 (8.2)	2,745 (11.9)	23,022 (100.0)

• 공급사범

- 매년 20% 전후의 점유율을 차지해 오던 공급(밀조·밀수·밀매)사범은 2012년 점유율이 30.2%로 급증하였으며, 2023년에는 9,145명으로 전체의 33.1%를, 2024년에는 7,738명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함
- 특히 2024년 밀조 사범은 1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투약사범

- 매년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 오던 투약사범은 2010년 점유율 61.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24년 41.4%로 감소하였음

나. 마약사범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표 3-25] 마약사범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 유형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2005	0 (0.0)	24 (3.1)	12 (1.6)	544 (70.8)	62 (8.1)	60 (7.8)	66 (8.6)	768 (100.0)
2006	0 (0.0)	13 (1.5)	9 (1.0)	611 (70.4)	111 (12.8)	27 (3.1)	97 (11.2)	868 (100.0)
2007	0 (0.0)	4 (0.4)	21 (2.2)	707 (73.8)	51 (5.3)	22 (2.3)	153 (16.0)	958 (100.0)

연도	유형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2008		0 (0.0)	5 (0.4)	5 (0.4)	1,136 (81.4)	105 (7.5)	14 (1.0)	131 (9.4)	1,396 (100.0)
2009		0 (0.0)	33 (1.5)	12 (0.5)	1,915 (87.1)	112 (5.1)	14 (0.6)	112 (5.1)	2,198 (100.0)
2010		0 (0.0)	10 (0.9)	208 (18.5)	542 (48.2)	212 (18.9)	53 (4.7)	99 (8.8)	1,124 (100.0)
2011		0 (0.0)	13 (1.7)	24 (3.2)	495 (65.2)	117 (15.4)	27 (3.6)	83 (10.9)	759 (100.0)
2012		0 (0.0)	13 (2.2)	16 (2.7)	352 (60.5)	121 (20.8)	14 (2.4)	66 (11.3)	582 (100.0)
2013		0 (0.0)	12 (1.8)	38 (5.5)	447 (65.3)	109 (15.9)	18 (2.6)	61 (8.9)	685 (100.0)
2014		0 (0.0)	12 (1.8)	21 (3.1)	426 (63.0)	129 (19.1)	35 (5.2)	53 (7.8)	676 (100.0)
2015		0 (0.0)	12 (1.0)	33 (2.9)	853 (74.0)	143 (12.4)	44 (3.8)	68 (5.9)	1,153 (100.0)
2016		0 (0.0)	10 (0.7)	48 (3.5)	991 (71.7)	201 (14.5)	37 (2.7)	96 (6.9)	1,383 (100.0)
2017		0 (0.0)	17 (1.2)	39 (2.6)	930 (63.0)	275 (18.6)	58 (3.9)	156 (10.6)	1,475 (100.0)
2018		0 (0.0)	24 (1.6)	64 (4.4)	939 (64.0)	229 (15.6)	50 (3.4)	161 (11.0)	1,467 (100.0)
2019		0 (0.0)	26 (1.0)	74 (4.0)	1,098 (61.0)	328 (18.0)	65 (4.0)	213 (12.0)	1,804 (100.0)
2020		0 (0.0)	21 (1.0)	82 (3.7)	1,718 (78.2)	222 (10.1)	40 (1.8)	115 (5.2)	2,198 (100.0)
2021		0 (0.0)	26 (1.5)	161 (9.2)	1,033 (59.2)	338 (19.4)	50 (2.9)	137 (7.9)	1,745 (100.0)
2022		0 (0.0)	51 (2.0)	162 (6.4)	1,613 (63.2)	293 (11.5)	63 (2.5)	369 (14.5)	2,551 (100.0)
2023		0 (0.0)	74 (1.9)	250 (6.3)	2,952 (74.4)	335 (8.4)	141 (3.6)	218 (5.5)	3,970 (100.0)
2024		2 (0.1)	129 (6.6)	170 (8.7)	1,054 (53.9)	202 (10.3)	120 (6.1)	277 (14.1)	1,954 (100.0)

• 밀경사범

- 2010년 이전에는 농촌, 도서 및 산간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마약사범 중 밀경사범이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진통제 또는 기침 억제제 등으로 쓰이는 옥시코돈, 코데인 등에 대한 밀매 또는 투약 등에 대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다. 향정사범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표 3-26] 향정사범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유형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2005		0 (0.0)	104 (1.9)	1,208 (22.6)	0 (0.0)	3,085 (57.6)	503 (9.4)	454 (8.5)	5,354 (100.0)
2006		4 (0.1)	172 (2.9)	1,424 (23.7)	0 (0.0)	3,530 (58.8)	264 (4.4)	612 (10.2)	6,006 (100.0)
2007		4 (0.0)	207 (2.4)	1,741 (20.4)	0 (0.0)	5,132 (60.2)	381 (4.5)	1,056 (12.4)	8,521 (100.0)
2008		0 (0.0)	133 (1.8)	1,551 (20.8)	0 (0.0)	4,849 (65.0)	331 (4.4)	593 (8.0)	7,457 (100.0)
2009		0 (0.0)	209 (2.6)	1,826 (23.0)	0 (0.0)	4,722 (59.4)	286 (3.6)	922 (11.6)	7,965 (100.0)
2010		4 (0.1)	193 (2.9)	1,488 (22.0)	0 (0.0)	4,273 (63.1)	305 (4.5)	508 (7.5)	6,771 (100.0)
2011		2 (0.0)	234 (3.2)	1,780 (24.6)	0 (0.0)	4,399 (60.9)	327 (4.5)	484 (6.7)	7,226 (100.0)
2012		3 (0.0)	292 (3.8)	2,301 (30.2)	0 (0.0)	4,258 (55.8)	361 (4.7)	416 (5.5)	7,631 (100.0)
2013		14 (0.2)	363 (4.6)	2,122 (26.9)	0 (0.0)	4,577 (57.9)	281 (3.6)	545 (6.9)	7,902 (100.0)
2014		0 (0.0)	314 (3.9)	2,372 (29.2)	0 (0.0)	4,339 (53.4)	416 (5.1)	680 (8.4)	8,121 (100.0)
2015		10 (0.1)	286 (3.0)	2,690 (28.0)	0 (0.0)	5,459 (56.7)	521 (5.4)	658 (6.8)	9,624 (100.0)
2016		2 (0.0)	324 (2.8)	3,309 (29.0)	0 (0.0)	6,281 (55.1)	634 (5.6)	846 (7.4)	11,396 (100.0)

연도 \ 유형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2017	3 (0.0)	354 (3.2)	3,201 (29.3)	0 (0.0)	5,965 (54.6)	829 (7.6)	569 (5.2)	10,921 (100.0)
2018	8 (0.1)	386 (4.0)	2,433 (25.3)	0 (0.0)	5,108 (53.1)	888 (9.2)	790 (8.2)	9,613 (100.0)
2019	5 (0.0)	569 (4.9)	2,931 (25.2)	0 (0.0)	6,272 (54.0)	920 (7.9)	914 (7.9)	11,611 (100.0)
2020	9 (0.1)	683 (5.4)	3,314 (26.2)	0 (0.0)	6,697 (53.0)	879 (7.0)	1,058 (8.4)	12,640 (100.0)
2021	8 (0.1)	543 (5.1)	2,544 (23.9)	0 (0.0)	5,726 (53.9)	923 (8.7)	887 (8.3)	10,631 (100.0)
2022	4 (0.0)	924 (7.7)	2,735 (22.7)	0 (0.0)	6,208 (51.6)	787 (6.5)	1,377 (11.4)	12,035 (100.0)
2023	6 (0.0)	925 (4.7)	6,597 (33.7)	0 (0.0)	8,628 (44.1)	1,376 (7.0)	2,024 (10.3)	19,556 (100.0)
2024	15 (0.1)	804 (4.5)	5,535 (31.2)	0 (0.0)	7,777 (43.8)	1,416 (8.0)	2,204 (12.4)	17,751 (100.0)

• 밀매·투약사범

- 젊은층 사이에서 다양한 JWH-018 및 그 유사체(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은밀한 곳에서 소비되고 있어 매년 향정사범 중 밀매 및 투약 사범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라. 대마사범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표 3-27] 대마사범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 유형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2005	0 (0.0)	33 (3.2)	50 (4.8)	64 (6.2)	725 (70.3)	124 (12.0)	36 (3.5)	1,032 (100.0)
2006	0 (0.0)	25 (3.0)	44 (5.3)	84 (10.1)	588 (70.4)	39 (4.7)	55 (6.6)	835 (100.0)
2007	0 (0.0)	54 (4.6)	55 (4.7)	51 (4.4)	830 (70.9)	53 (4.5)	127 (10.9)	1,170 (100.0)

연도	유형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2008		0 (0.0)	31 (3.0)	81 (7.8)	63 (6.0)	765 (73.2)	59 (5.6)	46 (4.4)	1,045 (100.0)
2009		0 (0.0)	39 (2.3)	133 (7.8)	121 (7.1)	1,269 (74.1)	90 (5.3)	60 (3.5)	1,712 (100.0)
2010		0 (0.0)	33 (1.8)	92 (5.1)	34 (1.9)	1,509 (82.1)	100 (5.4)	69 (3.8)	1,837 (100.0)
2011		0 (0.0)	26 (2.2)	100 (8.4)	66 (5.6)	849 (71.4)	101 (8.5)	47 (4.0)	1,189 (100.0)
2012		0 (0.0)	27 (2.6)	148 (14.3)	60 (5.8)	703 (67.5)	68 (6.5)	36 (3.5)	1,042 (100.0)
2013		0 (0.0)	72 (6.1)	180 (15.3)	60 (5.1)	741 (63.0)	84 (7.1)	40 (3.4)	1,177 (100.0)
2014		0 (0.0)	63 (5.3)	145 (12.2)	63 (5.3)	756 (63.7)	103 (8.7)	57 (4.8)	1,187 (100.0)
2015		0 (0.0)	41 (3.6)	165 (14.5)	50 (4.4)	751 (65.9)	103 (9.0)	29 (2.5)	1,139 (100.0)
2016		0 (0.0)	49 (3.4)	294 (20.5)	85 (5.9)	847 (59.0)	100 (7.0)	60 (4.2)	1,435 (100.0)
2017		0 (0.0)	110 (6.4)	231 (13.4)	100 (5.8)	1,106 (64.0)	115 (6.7)	65 (3.8)	1,727 (100.0)
2018		0 (0.0)	111 (7.2)	266 (17.4)	87 (5.7)	840 (54.8)	143 (9.3)	86 (5.6)	1,533 (100.0)
2019		0 (0.0)	188 (7.2)	432 (16.4)	63 (2.4)	1,610 (61.2)	200 (7.6)	136 (5.2)	2,629 (100.0)
2020		0 (0.0)	133 (4.1)	551 (17.2)	87 (2.7)	2,125 (66.2)	196 (6.1)	120 (3.7)	3,212 (100.0)
2021		1 (0.0)	238 (6.3)	524 (13.9)	118 (3.1)	2,458 (65.1)	241 (6.4)	197 (5.2)	3,777 (100.0)
2022		0 (0.0)	417 (10.9)	595 (15.6)	101 (2.7)	1,988 (52.2)	182 (4.8)	526 (13.8)	3,809 (100.0)
2023		0 (0.0)	236 (5.8)	1,057 (25.9)	129 (3.2)	1,936 (47.4)	342 (8.4)	385 (9.4)	4,085 (100.0)
2024		2 (0.1)	193 (5.8)	888 (26.8)	69 (2.1)	1,549 (46.7)	352 (10.6)	264 (8.0)	3,317 (100.0)

- 투약사범
  - 매년 투약사범은 60~70%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밀경·밀매사범
  - 대마사범 중 밀경사범은 2006년까지 밀매사범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밀매사범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3. 연도별 마약류 압수 현황

[표 3-28] 연도별 마약류별 압수 현황('05 ~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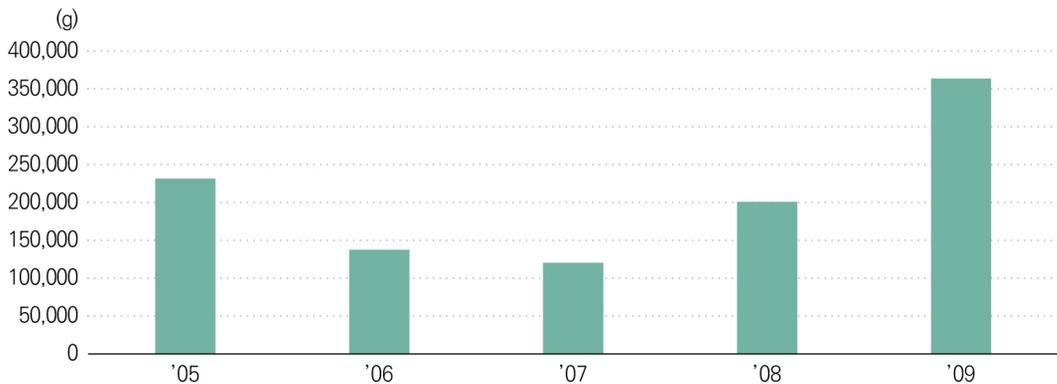
[단위: g]

마약류	품명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231,569.57	137,437.49	120,427.3	200,762.45	363,586.3
마 약	양귀비	주	35,303	32,081	37,275	35,488	113,422
	생아편	g	11	98	137	195	166
	헤로인	g	9	18	0	0	1,914
	코카인	g	0	4,772	79	8,869	298
	기타 <sup>29)</sup>	g	-	-	-	-	-
향 정	메트암페타민	g	19,289	21,543	23,739	25,572	15,189
	MDMA	g	3,545.52	117.48	6,046.59	235.62	295
	YABA	g	5.94	0	64.68	49.83	0.33
	LSD	g	0	0	0	0	0
	JWH-018 및 그 유사체	g	-	-	-	-	63
	프로포폴	앰플(ml)	-	-	-	-	-
	케타민	g	-	-	-	-	-
	기타 <sup>30)</sup>	g	167,992.11	27,686.01	56,714	9,932	4,449
대 마	대마	주	3,464	3,890	4,251	3,385	12,690
	대마초	g	18,436	20,859	22,202	92,692	122,539
	대마종자	g	20,770	62,186	10,684	61,196	218,156
	대마수지(해시시)	g	1,511	158	761	2,021	517
	기타	g	-	-	-	-	-

※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해에는 '-'으로 표시

※ 합계에는 양귀비(주), 대마(주) 제외

[그림 3-78] 연도별 마약류 압수 현황(1)



29) 양귀비종자,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등

30) GHB, 졸피뎀, 알프라졸람, 프로포폴, 페노바르비탈, 케타민(Ketamine), 사일로신(Psilocyn), 암페타민, 임시 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류 (isobutyl nitrite 등) 등

[표 3-29] 연도별 마약류별 압수 현황('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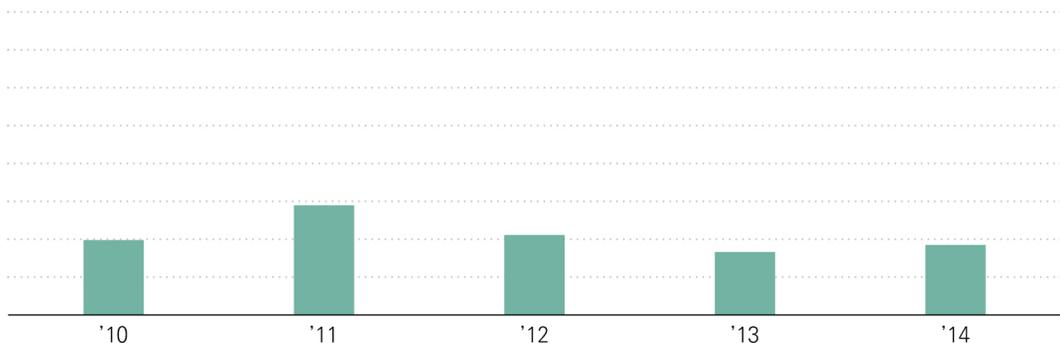
[단위: g]

마약류	품명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98,733.7	144,680.7	105,549	82,745	92,381
마 약	양귀비	주	38,554	37,443	22,753	25,369	65,023
	생아편	g	50	0	0	0	110
	헤로인	g	81	0	4	0	1
	코카인	g	0	2,153	64	1,215	11
	기타 <sup>31)</sup>	g	-	-	-	-	-
향 정	메트암페타민	g	11,888	23,466	20,716	37,689	47,680
	MDMA	g	160	185	774	407	216
	YABA	g	1.7	1.7	133	1,319	930
	LSD	g	0	0	11	0	8
	JWH-018 및 그 유사체	g	194	1,183	4,454	1,107	49
	프로포폴	앰플(ml)	0	2,004	20,202	159	319
	케타민	g	-	-	-	-	-
	기타 <sup>32)</sup>	g	4,789	3,840	9,264	10,172	15,017
대 마	대마	주	3,244	70,916	5,195	8,072	5,088
	대마초	g	44,484	83,559	21,722	24,396	23,315
	대마종자	g	37,048	28,229	27,871	6,215	4,391
	대마수지(해시시)	g	38	60	334	66	334
	기타	g	-	-	-	-	-

※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해에는 '-'으로 표시

※ 합계에는 양귀비(주), 대마(주) 제외

[그림 3-79] 연도별 마약류 압수 현황(2)



31) 양귀비종자,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등

32) GHB, 졸피뎀, 알프라졸람, 프로포폴, 페노바르비탈, 케타민(Ketamine), 시일로신(Psilocyn), 암페타민, 임시 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류(isobutyl nitrite 등) 등

**[표 3-30] 연도별 마약류별 압수 현황('15~'19)**

[단위: g]

마약류	품명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97,797	125,474	154,599.7	414,993.9	362,034
마 약	양귀비	주	80,131	97,708	100,399	97,282	178,387
	생아편	g	235	0	537	190	44
	헤로인	g	5	0.03	3.73	1.92	0
	코카인	g	10	10,943	131	88,321	106,932
	기타	g	11	1,757	58,450	13,601	248
향 정	메트암페타민	g	56,580	28,687	30,463	187,947	87,340
	MDMA	g	191	1,017	688	2,818	3,139
	YABA	g	984	703	2,583	8,538	17,373
	LSD	g	10	22	20	14	35
	JWH-018 및 그 유사체	g	432	191	184	478	1,729
	프로포폴	앰플(ml)	-	-	-	-	-
	케타민	g	-	-	-	-	-
	기타	g	11,094	4,425	9,480	13,160	38,464
대 마	대마	주	7,609	21,280	3,920	4,970	3,175
	대마초	g	24,005	75,525	40,125	89,145	81,899
	대마종자	g	2,912	1,853	1,183	1,155	411
	대마수지(해시시)	g	324	153	1,267	75	2,686
	기타	g	1,004	198	9,485	9,550	21,734

※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해에는 '-'으로 표시

※ 합계에는 양귀비(주), 대마(주) 제외

- 2021년도 2건<sup>33)</sup>의 단발성 압수실적을 제외하면, 마약류 압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3-80] 연도별 마약류 압수 현황(3)**



33) 2021. 7. 필로폰 404.23kg 및 2021. 10. 코카인 400.418kg 적발건

[표 3-31] 연도별 마약류별 압수 현황('20 ~ '24)

[단위: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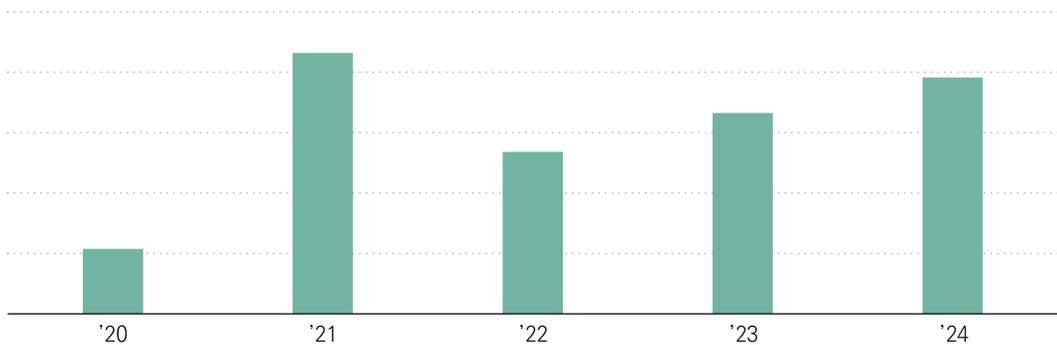
마약류	품명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321,405.8	1,295,552.7	804,516.3	998,014.9	1,173,204.7
마 약	양귀비	주	174,250	114,667	118,420	163,999	87,581.08
	생아편	g	187	8.25	0	0	0
	헤로인	g	8.81	1,213.29	35.79	1,362.07	805.45
	코카인	g	47,948	435,741	261.22	11,671.79	106,572.88
	기타	g	126.00	2,267.18	2,267.18	3,119.35	2,786.60
향 정	메트암페타민	g	64,114	569,866	175,351.32	405,001.67	300,913.93
	MDMA	g	11,914	11,894	42,179.97	42,179.04	33,686.64
	YABA	g	22,786	50,137	167,602.22	210,811.93	250,747.14
	LSD	g	23	52	47.54	2,333.03	1,803.67
	JWH-018 및 그 유사체	g	3,166	18,747	55,693.48	40,987.16	113,819.56
	프로포폴	앰플(ml)	-	-	-	-	-
	케타민	g	-	13,306	30,794	42,579.33	88,897.68
기타	g	74,859	63,069	144,513	79,469.48	117,128.17	
대 마	대마	주	1,326	3,429	1,078	11,957	3,124.91
	대마초	g	37,333	91,240	79,300	114,154.70	98,975.64
	대마종자	g	5,923	922	1,556.9	620.07	1,163.06
	대마수지(해시시)	g	3,086	145	1,412.5	3,183.59	5,121.58
	기타	g	49,932	36,945	103,501.18	40,541.72	50,782.65

※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해에는 '-'으로 표시

※ 합계에는 양귀비(주), 대마(주) 제외

- 2024년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1,173.2kg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년(998.0kg) 대비 17.6% 증가(양귀비(주), 대마(주)는 제외)

[그림 3-81] 연도별 마약류 압수 현황(4)



## 4. 연도별 마약류 밀반입 현황

### 가. 연도별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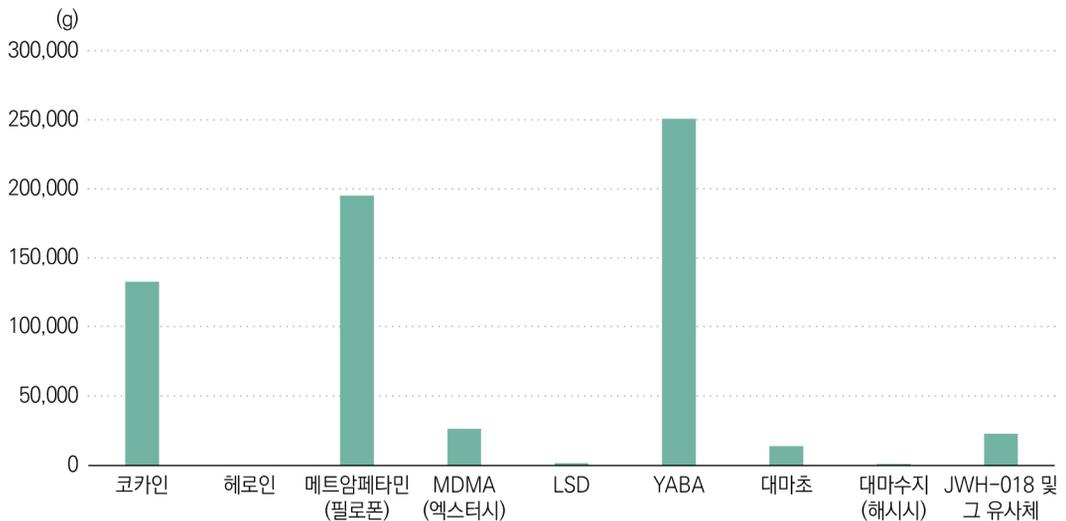
[표 3-32] 연도별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

[단위: g]

마약류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건	압수량	건	압수량	건	압수량	건	압수량	건	압수량
코카인		·	·	7	4,753	1	3	5	8,885	2	58
헤로인		·	·	1	18	·	·	·	·	5	1,897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55	13,040	89	13,540	80	17,113	68	22,404	55	10,204
MDMA (엑스터시)		11	323.73	2	23.76	9	5,064.18	7	48.84	3	103
LSD		·	·	·	·	·	·	·	·	·	·
YABA		1	5.94	·	·	·	·	1	4.95	·	·
대마초		40	13,333	24	5,570	39	8,942	27	14,572	19	21,792
대마수지 (해시시)		5	1,442	4	158	10	708	8	619	5	53
JWH-018 및 그 유사체		·	·	·	·	·	·	·	·	3	54
마약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	압수량	건	압수량	건	압수량	건	압수량	건	압수량
코카인		·	·	1	2,100	2	3	4	1,202	3	11
헤로인		2	31	·	·	1	3	·	·	·	·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73	8,201	50	18,417	94	19,032	66	29,075	37	42,055
MDMA (엑스터시)		5	14.3	1	0.3	8	774	9	47	9	120
LSD		·	·	·	·	1	11	·	·	1	8
YABA		1	1.6	·	·	1	132.6	3	1,267	2	127
대마초		22	275.3	12	617	28	2,726	61	7,347	45	2,419
대마수지 (해시시)		3	4.5	2	27.5	2	22	7	26	5	87
JWH-018 및 그 유사체		9	185	16	367	23	4,455.1	16	1,589	8	91
마약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건	압수량	건	압수량	건	압수량	건	압수량	건	압수량
코카인		4	7	6	10,899	11	119	16	88,301	11	105,803
헤로인		2	3	1	0.03	1	3.73	1	1.93	0	0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80	46,142	75	21,177	79	16,761	62	171,165	81	70,626
MDMA (엑스터시)		5	44	34	445	51	686	68	1,752.7	63	2,623.3
LSD		2	10	7	8	28	17	26	10.9	51	27.1
YABA		9	984	10	704	9	847	17	7,934	36	13,330

구분 마약류	2020		2021		2022		2023		2024	
	건	압수량	건	압수량	건	압수량	건	압수량	건	압수량
대마초	17	6,990	26	2,183	51	7,496	55	30,924	57	39,131
대마수지 (해시시)	7	138	12	153	11	244	2	26	11	2,673.2
JWH-018 및 그 유사체	5	47	8	191	6	57	4	440	2	115
코카인	18	47,438	9	435,600	3	55.39	11	9,871.17	8	132,192.32
헤로인	2	4.54	·	·	·	·	2	1,362.07	·	·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95	45,148	84	502,084	66	133,410	124	270,237.99	89	194,967.19
MDMA (엑스터시)	52	6,755	36	5,383	61	34,799.2	78	30,646.33	52	26,449.27
LSD	26	20	33	41	28	17.8	16	1,442.38	11	1,709.03
YABA	28	13,776	25	49,469	34	140,827.63	64	195,708.78	34	250,747.14
대마초	45	13,241	35	11,998	46	12,933.67	56	76,051.43	35	13,892.34
대마수지 (해시시)	11	3,056	4	5.4	5	2,212.1	4	826.33	6	1,071.03
JWH-018 및 그 유사체	3	1,100	17	8,082	29	36,681.37	36	17,471.61	24	22,860.11

[그림 3-82] 2024년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



-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대부분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으로 추정되며, 본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수록된 마약류 밀반입 현황은 발송국가 및 발송방법 등 구체적인 밀반입 경로가 확인된 마약류로, 실제 압수된 마약류만을 파악함
- 2024년 가장 많이 밀반입된 마약류는 야바(250.7kg)와 메트암페타민(195.0kg)으로, 해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나. 연도별·국가별 마약류 밀반입 현황

[표 3-33] 연도별·국가별 마약류 밀반입 현황('05 ~ '14)

[단위: g]

마약류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											
생아편	이란		·	·	·	·	24	·	·	·	·	·
	중국		·	·	·	·	·	2	·	·	·	·
	소계		·	·	·	·	24	2	·	·	·	·
코데인	미국		·	·	·	·	·	·	·	·	10.5	·
	소계		·	·	·	·	·	·	·	·	10.5	·
코카인	미국		·	752	3	·	58	·	·	3	1,192	9
	네덜란드		·	·	·	·	·	·	·	·	10	·
	브라질		·	·	·	8,800	·	·	·	·	·	·
	룩셈부르크		·	4,000	·	·	·	·	·	·	·	·
	호주		·	1	·	·	·	·	·	·	·	·
	홍콩		·	·	·	34	·	·	·	·	·	2
	프랑스		·	·	·	1	·	·	·	·	·	·
	태국		·	·	·	50	·	·	·	·	·	·
	파나마		·	·	·	·	·	·	2,100	·	·	·
	콜롬비아		·	·	·	·	·	·	·	·	·	·
	소계		·	4,753	3	8,885	58	·	2,100	3	1,202	11
헤로인	베트남		·	·	·	·	3	·	·	3	·	·
	중국		·	18	·	·	·	·	·	·	·	·
	캄보디아		·	·	·	·	1,559	·	·	·	·	·
	인도		·	·	·	·	335	·	·	·	·	·
	미국		·	·	·	·	·	1	·	·	·	·
	키르기스스탄		·	·	·	·	·	30	·	·	·	·
소계		·	18	·	·	1,897	31	·	3	·	·	
복방 감초편	중국		·	·	1,419	·	·	·	·	30	34.65	·
	소계		·	·	1,419	·	·	·	·	30	34.65	·
대마종자	영국		·	·	·	·	·	·	2.4	87	55	2
	중국		·	·	·	·	·	·	·	257	·	·
	싱가포르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55	·
	말레이시아		·	·	·	·	·	·	·	·	11	·
	리투아니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24	·
	스위스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1
	벨기에		·	·	·	·	·	·	·	·	·	·
	스페인		·	·	·	·	·	·	·	·	19	·
	캐나다		·	·	·	·	·	·	·	·	5	·
소계		·	·	·	·	·	·	2.4	344	169	3	

마약류	국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마초	미국	12,970	229	521	293	218	199	378	2,630	1,544	1,361
	캐나다	336	306	1,901	360	8	9	98	19	859	30
	독일	.	.	.	.	.	.	.	.	39	45
	네덜란드	.	.	.	.	949	42	.	5	857	761
	태국	9	.	.	2	7	.	.	40	50	5
	대만	.	.	.	.	.	.	.	.	2	.
	중국	.	4	.	.	.	.	92	.	.	.
	일본	.	.	.	.	11	.	.	.	.	.
	이집트	.	.	.	.	.	.	.	.	.	.
	멕시코	.	.	.	.	.	.	.	18	.	.
	호주	.	11	12	5	.	.	.	5	.	.
	필리핀	.	.	.	6	.	10	.	.	6	.
	스리랑카	.	.	7	5	.	2	.	5	.	.
	베트남	.	.	.	.	.	1	.	.	.	.
	말레이시아	.	.	12	.	.	.	.	.	.	.
	벨기에	.	.	.	.	.	.	.	.	5	5
	아일랜드	.	.	.	.	.	.	.	4	.	.
	영국	.	.	6	1	2	.	6	.	21	2
	프랑스	18	.	.	.	.	.	.	.	10	.
	스페인	.	.	.	.	.	.	2	.	.	.
	뉴질랜드	.	.	.	.	.	0.3	41	.	.	.
	덴마크	.	.	.	.	.	.	.	.	.	5
	러시아	.	60	.	.	.	.	.	.	999	9
	남아프리카 공화국	.	4,960	.	13,900	16,334	2	.	.	.	21
	체코	.	.	.	.	.	10	.	.	.	110
	몽골	.	.	30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3	.	.	.	.	.	.	.
	나이지리아	.	.	6,450	.	4,263	.	.	.	2,954	.
	카메룬	.	.	.	.	.	.	.	.	.	64
그리스	.	.	.	.	.	.	.	.	1	1	
라오스	.	.	.	.	.	.	.	.	.	.	
소계	13,333	5,570	8,942	14,572	21,792	275.3	617	2,726	7,347	2,419	
대마수지 (해시시)	미국	.	.	2	24	.	4	.	.	6	4
	캐나다	14	31	.	.	.	.	.	.	.	5
	러시아	.	100	54	87	.	.	.	.	.	.
	인도	1,386	.	243	.	.	.	.	.	.	67
	아일랜드	.	10	.	.	.	.	.	.	.	.
	홍콩	10	.	12	.	.	.	.	.	.	.
	영국	9	.	.	.	.	.	.	.	.	.
	프랑스	23	17	.	.	.	.	.	.	.	11

마약류	국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멕시코		·	·	·	·	·	·	·	·	·	·
	프랑스		·	·	2	·	6	·	·	·	·	·
	캐나다		·	·	·	47	·	·	27	·	·	·
	영국		·	·	·	18	·	·	·	·	·	·
	독일		·	·	·	·	·	·	·	·	13	·
	아일랜드		·	·	·	3	·	·	·	·	7	·
	네덜란드		·	·	·	·	13	0.5	·	5	·	·
	스리랑카		·	·	8	·	·	·	·	·	·	·
	스페인		·	·	0	·	5	·	·	17	·	·
	덴마크		·	·	6	·	·	·	·	·	·	·
	베트남		·	·	·	·	·	·	0.5	·	·	·
	브라질		·	·	381	·	·	·	·	·	·	·
	이집트		·	·	·	·	·	·	·	·	·	·
	이란		·	·	·	404	5	·	·	·	·	·
	리비아		·	·	·	·	24	·	·	·	·	·
태국		·	·	·	36	·	·	·	·	·	·	
소계		1,442	158	708	619	53	4.5	27.5	22	26	87	
대마 오일	미국		·	·	·	·	·	·	·	·	·	41
	캐나다		·	·	·	·	·	·	·	·	·	0
	소계		·	·	·	·	·	·	·	·	·	41
메트암페 타민 (필로폰)	중국		10,773	13,381	17,045	12,283	5,873	4,662	5,254	9,836	13,640	20,828
	마카오		·	·	·	·	·	·	·	·	6,240	·
	필리핀		166	96	68	17	12	130	2,082	1,427	15	83
	베트남		·	·	·	·	·	36	18	14	·	·
	태국		8	1	·	6	61	·	·	4	28	1
	미국		69	62	·	·	4	0.4	8	212	1,855	26
	홍콩		·	·	·	316	·	·	1	·	18	5,998
	남아프리카 공화국		·	·	·	3,140	4,175	·	3,571	·	·	1
	네덜란드		·	·	·	·	·	·	·	·	·	·
	멕시코		·	·	·	·	·	225	·	·	·	15,118
	대만		24	·	·	·	79	998	·	2,660	·	·
	일본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12	·	·
	말레이시아		·	·	·	2,986	·	0.4	·	·	·	·
	캄보디아		·	·	·	·	·	·	·	616	·	·
	캐나다		2,000	·	·	·	·	171	3,245	·	·	·
	호주		·	·	·	·	·	·	·	·	·	·
	체코		·	·	·	·	·	·	·	·	1	·
	터키		·	·	·	3,656	·	·	·	·	·	·
	말리		·	·	·	·	·	·	4,238	·	4,092	·
피지		·	·	·	·	·	·	·	2,491	·	·	

마약류	국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케냐		·	·	·	·	·	·	·	1,760	3,186	·
	가나		·	·	·	·	·	1,978	·	·	·	·
	소계		13,040	13,540	17,113	22,404	10,204	8,201	18,417	19,032	29,075	42,055
MDMA (엑스터시)	캐나다		21.78	·	121.44	13.86	·	2	·	·	·	12
	미국		26.73	17.82	55.77	3.3	·	6	0.3	63	22	21
	독일		·	·	4,806.12	·	·	·	·	·	20	36
	프랑스		·	·	·	·	·	·	·	·	·	5
	베트남		·	·	·	·	5	0.3	·	·	·	·
	중국		227.04	·	80.85	·	98	·	·	700	·	·
	대만		·	·	·	·	·	6	·	·	·	·
	태국		1.98	·	·	23.76	·	·	·	·	·	·
	호주		·	5.94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3	46
	아일랜드		·	·	·	·	·	·	·	1	·	·
	일본		·	·	·	2.97	·	·	·	·	2	·
	홍콩		46.2	·	·	4.95	·	·	·	·	·	·
	영국		·	·	·	·	·	·	·	10	·	·
	소계		323.73	23.76	5,064.18	48.84	103	14.3	0.3	774	47	120
LSD	네덜란드		·	·	·	·	·	·	·	11	·	8
	캐나다		·	·	·	·	·	·	·	·	·	·
	영국		·	·	·	·	·	·	·	·	·	·
	소계		·	·	·	·	·	·	·	11	·	8
JWH-018 및 그 유사체	중국		·	·	·	·	·	24	·	·	197	·
	영국		·	·	·	·	30	2	12	3	102	16
	네덜란드		·	·	·	·	24	·	·	·	47	7
	미국		·	·	·	·	·	119	137	3,587	875	68
	뉴질랜드		·	·	·	·	·	40	65	6	·	·
	헝가리		·	·	·	·	·	·	68	804	·	·
	대만		·	·	·	·	·	·	65	·	·	·
	호주		·	·	·	·	·	·	10	·	·	·
	일본		·	·	·	·	·	·	10	·	84	·
	베트남		·	·	·	·	·	·	·	0.1	·	·
	스페인		·	·	·	·	·	·	·	52	264	·
	포르투갈		·	·	·	·	·	·	·	·	20	·
	말레이시아		·	·	·	·	·	·	·	3	·	·
	소계		·	·	·	·	54	185	367	4,455.1	1,589	91
YABA (아바)	태국		5.94	·	·	4.95	·	·	·	0	1,267	127
	중국		·	·	·	·	·	1.6	·	0.6	·	·
	라오스		·	·	·	·	·	·	·	132	·	·
	캄보디아		·	·	·	·	·	·	·	·	·	·
	소계		5.94	·	·	4.95	·	1.6	·	132.6	1,267	127

마약류	국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덱스트로 메토르판 (러미나, 러미널)	필리핀	·	·	·	·	·	·	·	·	·	·	594
	미국	·	·	·	·	·	·	1.4	·	·	·	
	소계	·	·	·	·	·	·	1.4	·	·	594	
케타민	캄보디아	·	·	·	·	·	·	·	·	·	·	
	중국	125	·	83	·	126	·	·	5	·	·	
	미국	·	·	·	1	·	·	·	·	5	6	
	태국	·	·	·	48	·	·	·	·	·	·	
	대만	·	·	·	·	16	36	·	1	·	·	
	홍콩	·	·	·	34	·	·	·	·	·	·	
	캐나다	·	·	·	·	·	·	2.8	·	·	·	
	소계	125	·	83	83	142	36	2.8	6	5	6	
크라툼	미국	·	·	·	117	·	·	16	36	301	113	
	영국	·	·	·	·	5	·	·	·	6	·	
	캐나다	·	·	·	·	·	72	·	·	·	·	
	네덜란드	·	·	·	·	·	10	·	3	8	·	
	소계	·	·	·	117	5	82	16	39	315	113	
졸피뎴	일본	·	·	·	·	·	·	·	·	20	9	
	미국	·	·	·	·	30	·	·	·	·	·	
	루마니아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13	
	필리핀	·	·	·	·	·	·	·	·	·	3	
	인도	·	·	·	·	·	·	·	·	·	10	
	홍콩	·	·	·	·	·	·	·	26	·	·	
소계	·	·	·	·	30	·	·	26	20	35		
GHB	중국	·	·	·	·	·	·	·	·	1,244	·	
	네덜란드	·	·	·	·	·	·	·	·	93	·	
	캐나다	·	·	·	·	·	·	·	·	21	·	
	소계	·	·	·	·	·	·	·	·	1,358	·	
메스케치 논 및 그 유사체	헝가리	·	·	·	·	·	·	0.8	·	·	·	
	스페인	·	·	·	·	·	·	·	74	·	·	
	미국	·	·	·	·	·	·	0.8	·	5.9	·	
	소계	·	·	·	·	·	·	1.6	74	5.9	·	
디메틸트 립타민 (DMT)	네덜란드	·	·	·	·	·	·	·	·	1,598	·	
	소계	·	·	·	·	·	·	·	·	1,593	·	
디메틸펜 에틸아민	·	·	·	·	·	·	·	·	·	·	·	
	소계	·	·	·	·	·	·	·	·	·	·	
메틸페니 데이트	파키스탄	·	·	·	·	·	·	·	·	90	·	
	필리핀	·	·	·	·	·	·	·	·	32.7	·	
	미국	·	·	·	·	·	·	·	·	1.9	·	
	소계	·	·	·	·	·	·	·	·	124.6	·	

마약류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											
암페타민 및 이성체	미국		·				·	68	·	·	·	25
	나이지리아		·	988.35			·		·	·	·	·
	소계		·	988.35			·	68	·	·	·	25
텍스 암페타민	태국		·	·	·	·	·		·	·	·	8
	미국		·	·	·	·	·		·	·	·	31
	소계		·				·		·	·	·	39
바르비탈	중국		·	·	·	·	·	4	4	·	909	·
	태국		·	·	·	·	·		·	·	172	·
	소계		·	·	·	·	·	4	4	·	1,081	·
페노/펜토 바르비탈 (거통편)	중국		·	·	·	·	1,570.8	·	3	124	909	·
	태국		·	·	·	·	·	·	·	·	·	·
	소계		·	·	·	·	1,570.8	·	3	124	909	·
펜터민	캐나다		·	·	·	·	·	·	·	·	·	13
	태국		22	·	·	·	·	·	·	·	·	9
	미국		·	·	·	·	·	·	·	·	·	16
	소계		22	·	·	·	·	·	·	·	·	38
놀라제팜	미국		·	·	·	·	42.9	·	·	·	·	·
	소계		·	·	·	·	42.9	·	·	·	·	·
디아제팜	태국		2,856	·	·	·	·	·	14	·	119	9
	중국		·	·	·	·	·	·	·	115	40	·
	소계		2,856	·	·	·	·	·	14	115	159	9
로라제팜	미국		·	·	·	·	43	·	·	·	·	7
	중국		·	·	·	·	·	·	·	40	333	·
	소계		·	·	·	·	43	·	·	40	333	7
에티졸람	영국		·	·	·	·	·	·	·	·	·	20
	일본		·	·	·	·	·	·	·	·	·	10
	소계		·	·	·	·	·	·	·	·	·	30
클로나제 팜	미국		·	·	174.57	·	·	·	·	·	30	28
	태국		·	·		·	·	·	·	·	59	·
	방글라데시		·	·		·	·	·	·	·	66	49
	네팔		·	·		·	·	·	·	·	·	14
	소계		·	·	174.57	·	·	·	40	·	155	91
테마제팜	미국		·	·	·	·	·	·	·	18	·	·
	소계		·	·	·	·	·	·	·	18	·	·
트리아졸 람	미국		·	·	·	·	·	·	·	·	·	10
	소계		·	·	·	·	·	·	·	·	·	10
조피클론	중국		·	·	·	·	·	·	·	66	·	·
	소계		·	·	·	·	·	·	·	66	·	·
알프라 졸람	미국		·	·	·	1.32	·	·	·	·	124	·
	인도		·	·	·		·	·	40	·	36	·
	중국		·	·	·		·	·	·	40	120	98

마약류	국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독일		·	·	·		·	·	·	·	40	·
	일본		·	·	·		·	·	·	·	·	16
	루마니아		·	·	·		·	·	·	·	·	30
	소계		·	·	·	1.32	·	·	40	40	320	144
사일로시 빈	캐나다		·	·	·	15	·	·	·	·	·	·
	네덜란드		·	·	·	·	·	20	·	103	685	·
	미국		·	·	·	·	·	·	·	7	·	·
	독일		·	·	·	·	·	·	·	58	·	·
소계		·	·	·	15	·	20	·	168	685	·	
사일로신	네덜란드		·	·	·	·	·	·	·	·	·	55
	캐나다		22	·	·	·	·	·	·	·	·	·
	소계		22	·	·	·	·	·	·	·	·	55
리저직산 아미드	미국		·	·	·	·	·	·	113	23	·	·
	소계		·	·	·	·	·	·	113	23	·	·
메타과론	미국		·	3.63	·	·	·	·	·	·	·	·
	중국		·	46.2	·	·	·	·	·	·	·	·
	소계		·	49.83	·	·	·	·	·	·	·	·
벤질피페라진	영국		·	·	·	24.42	24	·	·	·	·	·
	태국		·	·	·	·	7	·	·	·	·	·
	소계		·	·	·	24.42	31	·	·	·	·	·
마진들	중국		·	·	·	3,907	·	·	·	·	·	·
	소계		·	·	·	3,907	·	·	·	·	·	·
MDPV	스페인		·	·	·	·	·	·	·	6	·	·
	소계		·	·	·	·	·	·	·	6	·	·
Pfp, MeOPP	중국		·	·	·	·	·	·	·	3	·	·
	소계		·	·	·	·	·	·	·	3	·	·
살비아 디비노럼	미국		·	·	·	·	2	·	·	·	·	·
	네덜란드		·	·	·	·	·	1	·	·	8	·
	영국		·	·	·	·	2	27	·	·	2	2
	소계		·	·	·	·	4	28	·	·	10	2
TFMPP	미국		·	·	·	·	2	·	·	·	·	·
	소계		·	·	·	·	2	·	·	·	·	·
2C-C-NBOMe	네덜란드		·	·	·	·	·	·	·	·	·	101
	소계		·	·	·	·	·	·	·	·	·	101
2C-B	중국		293	·	·	·	·	·	·	·	·	·
	소계		293	·	·	·	·	·	·	·	·	·
5F-AKB-48	미국		·	·	·	·	·	·	·	·	·	39
	영국		·	·	·	·	·	·	·	·	·	16
	소계		·	·	·	·	·	·	·	·	·	55
5F-PB-22	일본		·	·	·	·	·	·	·	·	·	7,006
	영국		·	·	·	·	·	·	·	·	·	·
	중국		·	·	·	·	·	·	·	·	·	·

마약류	국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F-UR-144	소계		·	·	·	·	·	·	·	·	·	7,006
	미국		·	·	·	·	·	·	·	·	·	15
	호주		·	·	·	·	·	·	·	·	·	·
	소계		·	·	·	·	·	·	·	·	·	15
5-MeO-DALT	네덜란드		·	·	·	·	·	·	·	·	·	3
	중국		·	·	·	·	·	·	·	·	·	·
	소계											3
AB-FUBI-NACA	미국											5
	소계											5
AM-2201	네덜란드		·	·	·	·	·	·	·	·	·	7
	미국		·	·	·	·	·	·	·	·	·	4
	호주		·	·	·	·	·	·	·	·	·	·
	소계		·	·	·	·	·	·	·	·	·	11
α-PVT	일본		·	·	·	·	·	·	·	·	·	32
	소계		·	·	·	·	·	·	·	·	·	32
BK-MBD B	헝가리								·	3	·	·
	소계								·	3	·	·
알킬니트리트, 이소부틸니트리트류 (일명 '러시')	홍콩		·	·	·	·	·	·	·	·	·	908
	몰타공화국		·	·	·	·	·	·	·	·	·	644
	캐나다		·	·	·	·	·	·	·	·	·	134
	중국		·	·	·	·	·	·	·	·	·	831
	영국		·	·	·	·	·	·	·	·	·	470
	호주		·	·	·	·	·	·	·	·	·	53
	체코		·	·	·	·	·	·	·	·	·	271
	미국		·	·	·	·	·	·	·	·	·	216
	일본		·	·	·	·	·	·	·	·	·	216
	슬로베니아		·	·	·	·	·	·	·	·	·	45
	대만		·	·	·	·	·	·	·	·	·	290
	싱가포르		·	·	·	·	·	·	·	·	·	371
	스웨덴		·	·	·	·	·	·	·	·	·	27
	소계		·	·	·	·	·	·	·	·	·	4,476
슈도 에페드린	중국				17,523	7,982	·	·	·	9,943	·	·
	소계				17,523	7,982	·	·	·	9,943	·	·
합계(kg)			31.5	25.1	51.0	58.6	36.1	9.0	21.8	38.2	47.8	57.9

제1장 마약류의 개요

제2장 마약류 범죄 단속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표 3-34] 연도별 국가별 마약류 밀반입 현황('15 ~ '24)

[단위: g]

마약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											
모르핀	뉴질랜드		·	·	·	·	·	·	·	·	·	58.8
	베트남		·	·	·	1.8	·	·	·	·	·	·
	미국		·	·	·	·	·	·	·	20	·	·
	소계		·	·	·	1.8	·	·	·	20	·	58.8
양귀비 종자	호주		·	·	·	·	·	·	2,150	·	·	·
	네덜란드		·	·	·	10	·	·	·	·	·	·
	미국		·	37	23,600	7,138	·	·	·	·	·	·
	캐나다		1	·	·	·	·	·	·	·	·	·
	일본		·	·	10,000	·	·	·	·	·	·	·
	프랑스		·	·	40	·	·	·	·	·	·	·
	소계		1	37	33,640	7,148	·	·	2,150	·	·	·
옥시코돈	미국		10	·	·	·	21	1	10	32.67	·	87.0
	캐나다		·	·	·	·	·	·	·	6.93	·	·
	영국		·	·	·	4.3	·	·	·	·	·	·
	독일		·	·	2	·	·	·	·	·	·	·
	호주		·	·	·	·	·	·	·	1.98	·	·
	스페인		·	·	·	·	·	·	·	36.96	·	·
	소계		10	·	2	4.3	21	1	10	78.54	·	87.0
코데인	중국		·	·	·	·	·	·	·	·	·	12
	베트남		·	·	·	·	·	·	·	·	·	354
	필리핀		·	·	·	26.7	·	·	·	·	·	·
	스리랑카		·	·	·	·	·	·	·	·	·	206.1
	태국		·	·	·	·	·	·	·	·	·	12.15
	미국		·	·	·	·	·	·	·	40	·	·
	카타르		·	·	·	·	·	·	·	44.55	·	·
	프랑스		·	·	·	·	·	·	·	·	·	9.6
소계		·	·	·	26.7	·	·	·	84.55	·	593.85	
코카인	일본		·	·	·	·	·	·	·	·	·	0.34
	캐나다		·	·	·	1	·	·	·	·	·	1.83
	멕시코		·	·	·	·	·	·	·	·	·	28,430
	페루		·	·	·	·	·	·	400,418	·	·	·
	콜롬비아		·	10,877	·	·	100,764	·	35,000	·	·	60,244
	스페인		·	·	·	·	2	·	·	·	·	·
	미국		5	22	38	9	23	380	142	47.98	27.27	30,000
	베트남		·	·	·	·	·	·	·	·	4,284.62	·
	브라질		·	·	·	21,395	4,999	47,000	·	·	5,551.58	7,716.15
	에콰도르		·	·	·	63,880	·	·	·	·	·	·
	이탈리아		·	·	·	·	·	·	·	·	·	5800.0
	프랑스		·	·	·	3	·	·	·	·	·	·
	호주		·	·	·	·	·	5	·	·	7.70	·

마약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											
	태국		·	·	·	·	·	4	·	·	·	·
	네덜란드		1	·	22	11	8	24	40	4.93	·	·
	파나마		·	·	·	3,000	·	·	·	·	·	·
	스위스		·	·	·	1.5	·	·	·	·	·	·
	홍콩		1	·	59	0	·	·	·	·	·	·
	영국		·	·	·	0.5	7	25	·	2.48	·	·
	소계		7	10,899	119	88,301	105,803	47,438	435,600	55.39	9,871.17	132,192.32
헤로인	미국		3	0.03	3.73	1.93	·	·	·	·	·	·
	독일		·	·	·	·	·	·	·	·	1.03	·
	네덜란드		·	·	·	·	·	4.54	·	·	·	·
	말레이시아		·	·	·	·	·	·	·	·	1361.04	·
	소계		3	0.03	3.73	1.93	·	4.54	·	·	1,362.07	·
히드로 코돈	미국		·	·	·	·	·	·	·	·	·	0.9
	소계		·	·	·	·	·	·	·	·	·	0.9
복방 감초편	중국		100	·	·	·	·	·	·	396	·	·
	소계		100	·	·	·	·	·	·	396	·	·
양귀비 제품 (샐러드 드레싱, 쿠키 등)	미국		·	1,720	18,795	2,578	·	·	·	·	355.00	·
	호주		·	·	5,640	·	·	·	·	·	·	·
	독일		·	·	375	·	·	·	·	·	·	·
	소계		·	1,720	24,810	2,578	·	·	·	·	355.00	·
기타마약 34)	홍콩		·	·	·	·	·	·	·	·	1,094.20	·
	독일		·	·	·	·	·	·	·	·	3.90	·
	미국		·	·	·	·	·	·	·	·	1,818	·
	소계		·	·	·	·	·	·	·	·	2,916.1	·
대마종자	베트남		·	·	·	·	·	·	205	·	·	·
	말레이시아		·	1	·	·	·	·	·	·	·	·
	미국		·	·	1,150	3.4	97.5	·	·	·	·	·
	중국		·	165	·	·	·	·	·	·	·	·
	스위스		·	1	·	6.2	·	1	·	·	·	·
	일본		·	·	·	·	·	1	·	·	·	·
	영국		5	8	4	58	·	·	·	·	·	·
	싱가포르		1	·	·	·	·	·	·	·	·	·
	네덜란드		2	1	2	2	10	·	·	·	·	·
	벨기에		1	·	·	·	·	·	·	·	·	·
	리투아니아		·	44	27	·	·	·	·	·	·	·
	캐나다		·	·	·	·	1.3	·	·	·	·	·
	스페인		·	·	·	0.4	·	·	·	·	·	·
소계		9	220	1,183	70	108.8	2	205	·	·	·	
대마초	베트남		·	·	1,755	·	338	539	200	295.14	1,497.09	676.05
	라오스		·	4	·	·	·	·	·	·	·	·

34) 2023년 일반입 규모가 적은 기타 마약(옥시코돈, 모르핀 등)

제1장 마약류의 개요

제2장 마약류 범죄 대응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마약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											
	말레이시아		·	·	58	123	139	90	·	·	·	·
	태국		240	·	155	133	3,837	598	2	2,111.97	10,282.07	1,421.41
	남아프리카 공화국		·	·	·	18,282	19,840	7	·	·	9,928.20	·
	인도		·	·	·	·	·	·	·	140.05	·	·
	사우디 아라비아		·	·	·	·	·	·	·	·	·	28.14
	도미니카 공화국		·	·	·	·	·	·	·	128.61	·	·
	모로코		·	·	·	·	·	·	12	·	·	·
	스리랑카		·	·	·	·	370	·	·	·	·	249.18
	필리핀		·	61	·	7	·	3,838		1		884.39
	중국		11	·	17	·	·	·	2	·	·	·
	일본		·	·	3	·	·	·	·	·	·	·
	대만		·	·	1	·	·	·	·	·	·	·
	홍콩		·	·	·	63	·	·	1	27	·	·
	호주		·	·	7	4	·	·	·	·	3,691.62	·
	부르키나파소		·	·	·	·	·	·	·	·	18,692.28	·
	가나		·	·	·	·	·	·	1,000	·	·	·
	나이지리아		·	·	·	·	6,368	·	·	·	400.02	·
	이집트		16	·	·	·	·	·	145	·	·	·
	우크라이나		·	·	·	·	·	103	·	·	·	·
	슬로바키아		5	·	·	·	·	·	·	·	·	·
	미국		36	1,359	1,970	10,760	4,878	7,561	9,052	9,030.12	29,156.08	6,436.43
	캐나다		6,537	648	1,187	925	2,685	231	166	312.7	28.05	3,733.99
	영국		124	32	767	226	176	145	36	671.18	983.19	1.91
	독일		9	·	902	50	·	·	·	10.45	3.06	·
	스페인		·	1	521	3	·	21		31.73	·	·
	프랑스		·	·	·	7	·	·	539	13.72	264.79	4.52
	네덜란드		12	59	31	81	·	13	·	160	145.80	0.04
	오스트리아		·	·	117	·	·	·	·	·	·	·
	벨기에		·	19	·	260	·	·	·	·	·	·
	스위스		·	·	·	·	·	95	·	·	979.18	·
폴란드		·	·	·	·	·	·	843	·	·	·	
체코		·	·	5	·	500	·	·	·	·	456.28	
소계		6,990	2,183	7,496	30,924	39,131	13,241	11,998	12,933.67	76,051.43	13,892.34	
대마 카트리지	미국		·	·	683	128	782	880	441	329.36	3,144.52	41.18
	캐나다		·	·	·	5	28	3	·	6	·	·
	호주		·	·	·	·	·	·	·	·	·	5.0
	독일		·	·	·	·	·	·	35	·	·	·
	프랑스		·	·	·	·	·	·	·	2	·	·
	스페인		·	·	·	·	·	·	2	·	·	·

마약류	연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네덜란드	·	·	·	·	1	·	·	4	·
영국	·	·	·	·	·	·	5	10	9	·	·
미얀마	·	·	·	·	·	·	·	·	·	8.00	·
러시아	·	·	·	·	·	3	·	·	·	·	·
우크라이나	·	·	·	·	·	·	·	5	·	·	·
필리핀	·	·	·	·	·	14	·	·	1	·	·
말레이시아	·	·	·	·	·	·	1	3	·	·	·
일본	·	·	·	·	·	4	19	4	16	·	5.0
중국	·	·	·	·	·	·	·	·	6	·	·
베트남	·	·	·	·	·	10	1	51	·	·	10.0
태국	·	·	·	·	·	·	·	·	3	150.00	·
소계	·	·	683	133	842	909	551	376.36	3,302.52	61.18	·
대마수지 (해시시)	스리랑카	·	·	·	·	·	·	·	·	282.04	90.50
	인도	·	·	·	·	7	·	·	·	·	·
	네덜란드	·	·	14	10	0.2	2,283	3.15	·	·	·
	덴마크	·	·	·	·	1	·	·	·	·	·
	미국	41	26	153	·	532	·	2.25	2,040	544.29	255.34
	캐나다	·	93	14	·	·	526	·	3.5	·	·
	우크라이나	·	·	·	·	·	200	·	·	·	·
	스페인	·	·	·	·	·	·	·	·	·	578.86
	이집트	·	·	·	·	2,000	·	·	·	·	138.93
	영국	23	30	60	16	100	32	·	35.07	·	7.4
	베트남	·	·	·	·	24	1	·	·	·	·
	스페인	·	·	3	·	·	·	·	·	·	·
	이탈리아	·	·	·	·	9	·	·	·	·	·
	프랑스	·	·	·	·	·	11	·	60	·	·
	독일	·	·	·	·	·	·	·	73.53	·	·
	스위스	·	·	·	·	·	3	·	·	·	·
	멕시코	·	4	·	·	·	·	·	·	·	·
	이집트	74	·	·	·	·	·	·	·	·	·
	소계	138	153	244	26	2,673.2	3,056	5.4	2,212.1	826.33	1,071.03
	액상대마	베트남	·	·	·	·	·	·	·	·	·
미국		·	·	·	·	·	·	·	·	·	14.53
소계		·	·	·	·	·	·	·	·	·	714.53
대마 오일	태국	·	·	·	·	·	120	90	·	·	403.58
	미국	45	20	6,825	8,123	7,920	32,782	114,125	18,276.6	·	2,218.93
	캐나다	150	·	·	·	60	50	·	·	·	1,846.05
	중국	·	·	·	·	705	2,224	·	·	·	·
	베트남	·	·	·	·	1,440	120	·	·	·	·
	독일	·	·	50	10	·	1,108	·	·	·	·
	네덜란드	·	2	38	·	150	537	·	·	·	·
대만	·	·	·	·	·	640	·	·	·	·	

제1장 마약류의 개요

제2장 마약류 범죄 및 대응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마약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											
	홍콩		·	·	60	·	220	120	·	·	·	·
	영국		·	40	500	·	·	310	·	360	·	·
	싱가포르		·	·	·	·	20	·	·	·	·	·
	리투아니아		·	·	10	·	·	·	·	·	·	·
	우크라이나		·	·	·	·	·	·	200	·	·	·
	일본		·	·	·	·	·	150	·	74.38	·	·
	필리핀		·	·	·	·	·	120	·	·	·	·
	말레이시아		·	·	·	·	·	105	·	·	·	·
	스페인		·	·	56	60	20	30	·	·	·	·
	이탈리아		·	·	·	·	955	·	·	·	·	·
	뉴질랜드		·	·	·	·	·	·	30	·	·	·
	인도네시아		·	·	·	·	·	·	30	·	·	·
	러시아		·	·	·	·	300	·	·	·	·	·
소계		195	62	7,539	8,193	11,790	38,416	114,475	18,710.98	·	4,468.56	
기타 대마제품 35)	미국		137	·	1,263	1,160	4,604	3,749	4,212	8,321.18	25,122.35	425.31
	캐나다		·	·	·	·	17	12	·	·	·	·
	러시아		·	·	·	·	1,099	·	676	·	·	·
	호주		·	·	·	·	·	·	·	42.62	·	·
	영국		·	·	·	·	245	470	161	4,440.46	·	·
	중국		·	·	·	·	·	100	5	·	47.44	·
	홍콩		·	·	·	·	·	150	·	1,183.19	·	·
	일본		·	·	·	·	·	20	·	·	·	·
	네덜란드		·	·	·	·	·	5	·	·	1,362.58	·
	스웨덴		·	·	·	225	0	·	·	·	·	·
	프랑스		·	·	·	·	·	·	·	·	233.94	·
	스페인		·	·	·	9	1	·	·	·	·	·
	베트남		·	·	·	·	·	·	·	·	6,410.00	·
	태국		·	·	·	·	·	36	·	·	1,025.00	·
독일		·	·	·	·	·	·	·	602.2	·	27.00	
소계		137	·	0	0	0	4,542	5,054	14,589.65	34,201.31	0	
부탄허니 오일	미국		·	·	·	6.9	6	·	·	·	·	·
	캐나다		·	·	·	·	11	·	·	·	·	·
	스페인		·	·	·	·	120	·	·	·	·	·
	소계		·	·	·	6.9	137	·	·	·	·	·
메트암페 타민 (필로폰)	캄보디아		2,447	2,394	1,206	2,342	3,555	4,523	2,485	215.84	6,222.11	12,180.65
	필리핀		89	999	1,706	194	48	104	553	1,336.56	10,515.59	8,307.61
	태국		709	974	711	1,708	5,670	10,805	29,462	15,643.75	90,344.3	34,107.93
	대만		·	2,079	10,646	152,298	6,964	44	·	·	·	·
	일본		9,982	·	·	·	·	·	·	·	·	·
파키스탄		·	·	·	·	·	·	1,100	·	·	463.45	

35) 대마짚, 젤리, 초콜린, 차, 사탕, 캡슐, 쿠키, 크림 등

마약류	연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베트남	·	11	197	·	486	88	3,929	2,393.25	2,476.2
중국	26,546	9,206	1,968	504	45	1	44	·	135.04	·	
말레이시아	·	·	8	11,229	29,708	3,616	12,440	2,979.82	59,058.46	14,617.02	
인도네시아	·	·	·	·	7	·	·	9.79	·	·	
라오스	·	·	·	1,273	5,893	3,168	3,432	45,614.79	8,411.89	14,780.33	
미국	87	5,364	114	1,403	13,822	18,155	44,336	38,703.65	39,868.77	30,880.01	
홍콩	6,249	·	3	105	·	·	·	·	·	·	
캐나다	4	31	·	70	304	2	·	·	14,377.32	57,094.17	
영국	·	·	1	·	2,271	10	·	·	·	2,999.03	
독일	·	·	·	·	·	4,113	·	·	312.60	485.67	
헝가리	·	·	·	·	·	·	·	·	·	471.26	
벨기에	·	·	·	·	·	·	·	·	970.75	·	
네덜란드	1	·	4	40	3	3	73	1,001.21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	·	·	502	·	3,707.49	10,404.37	8,903.5	
호주	·	17	·	·	·	14	·	·	10.50	788.41	
멕시코	28	102	197	·	·	·	404,230	8,284.45	12,103.45	174.14	
파푸아뉴기니	·	·	·	·	·	·	·	·	1538.29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	·	·	·	1,850	·	·	·	9500.00	·	
우간다	·	·	·	·	·	·	·	3,525.87	·	·	
콩고	·	·	·	·	·	·	·	·	3988.35	·	
카타르	·	·	·	·	·	·	·	9,993.53	·	·	
소계	46,142	21,177	16,761	171,166	70,626	45,148	502,084	133,410	270,237.99	194,967.19	
MDMA (엑스터시)	베트남	·	·	7	3	461	268	1,336	2,483.26	1,586.73	1,003.44
라오스	·	·	·	·	·	·	·	685.08	·	·	
말레이시아	·	·	·	385	·	42	·	·	·	·	
태국	·	33	10	7	64	·	6	293.04	248.29	0.9	
대만	·	·	59	99	0	·	·	·	·	·	
홍콩	·	·	·	·	1.3	·	·	·	·	·	
중국	4	11	·	·	·	·	·	·	·	87.0	
일본	·	·	·	0.7	·	3	·	·	·	·	
독일	·	35	·	·	·	·	·	·	·	·	
미국	23	95	74	125	799	1,238	295	1,149.91	1,631.3	313.15	
캐나다	·	6	6	·	30	1	168	·	114.62	·	
호주	·	45	·	·	·	101	·	27.11	·	·	
네덜란드	·	103	463	681	746	·	·	·	·	·	
프랑스	·	·	·	31	·	3	31	12,899.96	479.94	166.3	
영국	·	9	13	268	214	94	·	1,396.56	3,944.07	9,512.47	
독일	·	·	38	153	190	4,143	1,658	8,781.02	14,001.24	12,778.86	
벨기에	·	17	16	·	·	195	·	165.66	2,249.10	·	
스페인	·	·	·	·	35	·	·	2.97	·	·	

마약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										
	네덜란드	17	·	·	·	·	667	873	6,914.63	6,048.79	2,450.06
	폴란드	·	·	·	·	·	·	1,003	·	300.00	46.84
	핀란드	·	22	·	·	·	·	·	·	·	·
	싱가포르	·	·	·	·	·	·	13	·	·	·
	필리핀	·	·	·	·	·	·	·	·	·	90.25
	튀르키예	·	·	·	·	·	·	·	·	42.25	·
	슬로바키아	·	69	·	·	83	·	·	·	·	·
	소계	44	445	686	1,752.7	2,623.3	6,755	5,383	34,799.2	30,646.33	26,449.27
LSD	태국	·	·	·	·	·	1	1	·	·	33.00
	베트남	·	·	·	·	0.2	·	·	0.04	·	·
	홍콩	·	·	·	·	0.3	·	·	·	·	·
	미국	·	·	1	1	6.2	1	·	1.14	1.48	240.03
	캐나다	·	·	1	3	·	·	·	·	·	75.75
	네덜란드	10	4	15	6	15.3	16	14	8.86	909.9	331.00
	영국	·	4	·	0.7	3.9	·	1	4.06	3.00	1,020.00
	프랑스	·	·	·	·	·	·	17	0.5	165.00	·
	독일	·	·	·	0.1	1.2	1	·	1	360.00	9.25
	폴란드	·	·	·	·	·	1	8	·	·	·
	벨기에	·	·	·	0.1	·	·	·	2	·	·
	호주	·	·	·	·	·	·	·	0.2	·	·
	튀르키예	·	·	·	·	·	·	·	·	3.00	·
소계	10	8	17	10.9	27.1	20	41	17.8	1,442.38	1,709.03	
JWH-018 및 그 유사체	베트남	·	·	18	·	100	645	7,490	18,939.72	16,958.47	16,469.93
	중국	·	129	·	14	15	·	·	·	·	·
	일본	·	·	·	372	·	·	·	·	·	·
	말레이시아	·	·	·	·	·	·	85	760.75	313.14	276.46
	미국	10	62	34	50	·	·	·	983.83	·	1113.71
	영국	28	·	·	·	·	·	·	·	·	·
	캐나다	·	·	·	·	·	·	·	·	200.00	29.30
	영국	·	·	·	·	·	455	·	7,964.46	·	4,597.66
	싱가포르	·	·	·	·	·	·	199	·	·	·
	필리핀	·	·	·	·	·	·	160	·	·	·
	폴란드	·	·	·	4	·	·	·	·	·	·
	네덜란드	9	·	5	·	·	·	148	8,032.61	·	·
	그리스	·	·	·	·	·	·	·	·	·	373.05
소계	47	191	57	440	115	1,100	8,082	36,681.37	17,471.61	22,860.11	
YABA (야바)	라오스	·	·	66	2,484	·	·	14,801	66,015.69	22,090.5	256.2
	태국	885	704	522	5,450	13,250	13,189	34,552	74,811.94	173,618.28	250,490.94
	말레이시아	·	·	·	·	·	323	·	·	·	·
	베트남	·	·	259	·	13	·	·	·	·	·
	중국	·	·	·	·	·	198	·	·	·	·
	캄보디아	99	·	·	·	67	66	·	·	·	·

마약류	연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미국	·	·	·	·	·	·	116	·	·	·
	소계	984	704	847	7,934	13,330	13,776	49,469	140,827.63	195,708.78	250,747.14	
덱스트로 메토르판 (러미나, 러미널)	중국	·	·	·	·	·	·	·	·	·	6.0	
	인도네시아	·	·	·	·	·	302	·	·	·	3,841.2	
	카타르	·	·	·	·	·	·	·	32.67	·	·	
	베트남	·	·	·	·	·	·	·	·	·	147	
	태국	·	·	·	·	·	·	·	·	·	549	
	캄보디아	·	·	·	·	·	·	·	·	·	15.00	
	영국	·	·	·	2.5	·	·	·	·	·	·	
	미국	·	·	·	4,752.7	·	·	·	·	·	·	5,206.76
	캐나다	·	·	·	·	·	·	·	·	·	·	45.6
		소계	·	·	·	4,755.2	·	302	·	32.67	·	9,810.56
케타민	베트남	·	·	·	·	·	268	·	2,709.55	3,563.08	1,113.35	
	말레이시아	·	·	·	·	·	255	·	·	·	·	
	태국	·	·	·	7	348	·	494	1,054.21	9,117.98	6,625.34	
	대만	396	·	·	·	127	·	·	·	·	·	
	중국	·	·	·	·	·	·	·	·	·	102.67	
	캄보디아	·	198	·	·	·	·	·	·	3.24	1,482.91	
	필리핀	·	·	·	·	·	·	·	·	·	3,018.77	
	미국	·	·	9	989	115	606	788	6,275.59	6,775.00	1,079.46	
	캐나다	·	·	·	·	1.3	10	·	497.42	137.44	·	
	프랑스	·	·	·	·	·	·	106	4,967.31	435.92	27,423.59	
	싱가포르	·	·	·	·	·	·	69	·	·	·	
	헝가리	·	·	·	·	·	·	·	·	·	1,314.08	
	독일	·	·	·	·	·	124	2,292	3,425.97	10,560.66	16,907.07	
	네덜란드	·	·	5	11	7	10	128	2,370.53	1,362.33	3,451.63	
	영국	·	·	14	·	·	·	111	560.65	3,005.97	4,205.77	
	스위스	·	·	·	·	·	·	·	·	·	1,994.51	
	폴란드	·	·	·	·	·	·	·	·	·	565.47	
	룩셈부르크	·	·	·	·	·	·	·	1,483.49	·	·	
	튀르키예	·	·	·	·	·	·	·	·	124.63	·	
		소계	396	198	28	1,007	598.3	1,273	3,988	23,344.72	35,086.25	69,284.62
크라톤	미국	300	·	·	7.4	·	15	180	396	250.00	147.35	
	태국	·	·	·	·	·	·	·	·	80.00	·	
	소계	300	·	·	7.4	·	15	180	396	330	147.35	
졸피뎀	일본	10	·	9	·	50	216	26	·	·	90.0	
	미국	51	10	10	·	5	10	83	189.09	·	1.5	
	프랑스	·	·	·	4.6	·	66	·	·	·	·	
	루마니아	10	·	·	·	·	·	·	·	·	·	
	이스라엘	·	·	66	·	·	·	·	·	·	·	
	캄보디아	·	·	·	·	·	·	·	8.91	·	92.1	
	대만	·	·	·	·	·	9	10	·	·	·	

마약류	연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캐나다	·	·	·	·	·	4		·	·
네덜란드	·	·	·	9.9	·	2		·	·	·	
스페인	·	·	·	·	40	·	·	·	·	·	
중국	·	·	·	·	29	·	·	·	·	2.4	
홍콩	·	185	·	·	·	·	·	·	·	·	
인도	79	60	·	·	·	·	·	·	·	·	
소계	150	255	85	14.5	124	307	119	198		186	
GHB	중국	·	540	·	·	1,217	28,800	·	·	·	
	네덜란드	·	·	163	·	·	·	·	·	·	
	벨기에	·	·	145	·	374	·	·	·	·	
	미국	·	·	70	178	799	388	·	·	·	
	소계	·	540	378	178	2,390	29,188	·	·	·	
메스케치 논 및 그 유사체	미국	10	3	·	·	·	·	4.95	·	·	
	우크라이나	·	·	·	·	·	23	·	·	61.5	
	홍콩	·	·	·	·	·	·	·	4,749.49	·	
	대만	71		175	·	·	·	·	·	·	
	중국	·	11	·	30	31	·	·	·	·	
	네덜란드	·	·	·	15	·	·	·	·	·	
	소계	81	14	175	45	31	23	·	4.95	4,749.49	61.5
3,4-메틸 렌디옥시 암페타민	네덜란드	·	·	·	·	·	·	8.25	·	·	
	캐나다	1	·	·	·	·	·	·	·	·	
	소계	1	·	·	·	·	·	8.25	·	·	
디메틸트 립타민 (DMT)	미국	·	·	·	·	·	54	·	·	·	
	네덜란드	·	·	·	1.6	·	4	·	·	·	
	스페인	·	·	·	·	·	1	·	·	·	
	독일	·	5	·	·	·	·	·	·	·	
	멕시코	·	·	601	·	·	·	·	·	·	
	캐나다	·	·	·	2	·	·	·	·	·	
	영국	·	·	·	·	2	·	·	·	·	
	소계	·	5	601	3.6	2	59	·	·	·	
디메틸펜 에틸아민	미국	·	·	·	·	·	·	·	·	108.60	
	소계	·	·	·	·	·	·	·	·	108.60	
메틸페니 데이트	홍콩	·	·	·	·	·	·	·	·	63.15	
	필리핀	32	·	·	·	·	·	·	·	·	
	호주	·	·	·	·	·	·	·	90.00	·	
	네덜란드	·	·	·	·	·	3	17.82	244.20	·	
	뉴질랜드	·	·	·	30	·	·	·	·	·	
	프랑스	·	·	·	·	·	·	·	31.50	·	
	미국	·	·	·	·	·	·	3.96	72.00	25.37	
	소계	32	·	·	30	·	3	21.78	437.7	88.52	
암페타민 및 이성체	미국	·	74	194	7.6	21	30	·	45.54	31.05	108.9
	네덜란드	·	5	33	·	17	2	10	·	·	

마약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											
	스페인		·	·	·	·	·	·	·	11.09	·	·
	베트남		·	·	·	·	·	·	·		·	30.9
	영국		·	6	·	·	·	·	6	45.21	·	6,962.07
	프랑스		·		·	·	·	·	7	10.79	213.61	·
	독일		·		·	·	10	·	·	54.57	26.7	·
	소계			85	227	7.6	48	32	23	167.2	271.36	7,101.87
리스틱스 암페타민	캐나다		·	·	·	·	·	66	·	·	·	·
	미국		·	·	·	·	·	30	·	·	·	·
	호주		·	·	·	·	·	·	·	20.79	·	·
	소계		·	·	·	·	·	96	·	20.79	·	·
페노/펜토 바르비탈 (거품편)	중국		76	·	·	·	·	6,070	34,812	70,097.28	·	612.0
	영국		·	·	·	·	·	·	·	660	·	·
	베트남		·	·	·	·	·	264	·	·	·	·
	소계		76	·	·	·	·	6,334	34,812	70,757.28	·	612.0
지해보편	중국		·	·	·	·	·	·	·	·	·	54.0
	소계		·	·	·	·	·	·	·	·	·	54.0
페이오트	네덜란드		·	·	·	0.6	·	·	·	·	·	·
	태국		·	·	·	73.3	·	·	·	·	·	·
	헝가리		·	·	·	10.5	·	·	·	·	·	·
	중국		·	·	·	·	127	·	·	·	·	·
	소계		·	·	·	84.4	127	·	·	·	·	·
펜사이클 리딘	홍콩		·	·	·	·	·	·	·	·	·	794.37
	소계		·	·	·	·	·	·	·	·	·	794.37
펜타닐 패치	독일		·	·	·	·	20	·	·	·	·	·
	네덜란드		·	·	·	·	8	·	·	·	·	·
	소계		·	·	·	·	28	·	·	·	·	·
디아제팜	캄보디아		·	·	·	·	·	·	·	·	·	20.5
	영국		·	·	·	·	7	·	·	·	·	·
	태국		·	·	·	·	332	92	·	·	156.60	·
	독일		·	·	3	·	·	·	·	·	·	·
	중국		·	·	·	·	157	50	·	·	·	·
	홍콩		·	·	·	·	·	·	69	·	·	·
	스리랑카		·	33	·	·	·	·	·	·	·	·
	호주		·	·	·	·	·	·	·	·	14.40	·
	미국		·	5	·	·	·	·	·	·	0.26	·
	소계		·	38	3	·	496	142	69	·	171.26	20.5
디클라제 팜	중국		·	·	·	12.35	·	·	·	·	·	·
	소계		·	·	·	12.35	·	·	·	·	·	·
로라제팜	태국		·	·	·	·	20	79	528	·	·	54.0
	중국		·	·	·	·	14	100	·	112.20	·	8.4
	대만		·	·	·	·	·	·	112	·	·	·
	베트남		·	·	·	·	·	19	88	·	·	·

마약류	연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본	·	·	·	·	1.5	20	59	·	·	·
	미국	·	6				20	·	5.28	·	·
	캐나다	·	·				9	·		·	·
	독일	·	·	·	8	·	·	·	·	·	·
	스페인	·	·	·	·	82	·	·	·	·	·
	네팔	·	·	·			7	·	·	·	·
	소계	·	6	·	8	117.5	254	787	117.48	·	62.4
브로마제 팜	캄보디아	·	·	·	·	·	·	·	·	·	7.2
	방글라데시	20	·	·	·	·	·	·	·	·	·
	스페인	·	·	·	·	40	·	·	·	·	·
	일본	·	·	·	·	·	·	19	·	·	·
	영국	·	·	·	·	·	·	·	33	·	·
	소계	20	0			40	·	19	33	·	7.2
브로티졸 람	일본	·	·	·	·	·	173	89	·	·	·
	소계	·	·	·	·	·	173	89	·	·	·
에스타졸 람	중국	·	·	·	·	33	·	183	·	·	3.0
	소계					33	·	183	·	·	3.0
에티졸람	일본	·	132	10	·	96	463	339	·	·	90.0
	태국	·	·	·	·	·	·	109	·	·	·
	미국	·	·	·	·	·	·	20	63.86	·	·
	리투아니아	·	·	3	·	·	·	·	·	·	·
	소계	·	132	13	·	96	463	468	63.86	·	90.0
클로나 제팜	중국	·	·	·	·	55	·	·	·	·	4.2
	두바이	·	·	·	·	·	·	·	·	·	45
	방글라데시	17	·	·	·	·	·	·	·	·	·
	멕시코	·	·	20	·	·	·	·	·	·	·
	미국	·	·	·	·	89	·	·	·	·	30.0
	캐나다	·	·	·	·	20	·	·	·	·	·
	네팔	·	·	·	·	119	·	·	·	·	·
	뉴질랜드	·	·	·	·	·	·	·	·	·	70.35
소계	17	·	20	·	283					149.55	
클로르디 아제폭시 드	네팔	·	·	·	·	·	·	·	·	·	57.9
	소계	·	·	·	·	·	·	·	·	·	57.9
클로티아 제팜	일본	·	·	·	·	·	134	59	·	·	·
	소계	·	·	·	·	·	134	59	·	·	·
클로나제 팜	네팔	·	·	·	·	·	·	167	·	·	·
	일본	·	·	·	·	·	7	237	·	·	·
	캐나다	·	·	·	·	·	·	158	·	·	·
	미국	·	·	·	·	·	·	85	40	·	·
	대만	·	·	·	·	·	·	59	·	·	·
	카타르	·	·	·	·	·	·	·	295.35	·	·

마약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											
	태국		·	·	·	·	·	20	16	·	·	·
	이탈리아		·	·	·	·	·	33	·	·	·	·
	인도네시아		·	·	·	·	·	33	·	·	·	·
	소계		·	·	·	·	·	93	722	335.35	·	·
테마제팜	미국		·	·	·	5.0	·	·	·	·	·	·
	소계		·	·	·	5.0	·	·	·	·	·	·
트리아졸람	중국		·	·	·		·			·	·	8.4
	일본		·	·	·			64		·	·	90.0
	미국		·	·	·				12	·	·	
	소계		·	·	·	·	·	64	12	·	·	98.4
플루니트라제팜	베트남		·	·	·	·	·	·	·	·	·	6.9
	중국		·	·	·	·	·	·	·	·	·	8.4
	일본		·	·	·	·	·	138	86	·	·	
	네덜란드		·	·	·	·	·	1		·	·	
소계					·	·	139	86	·	·	15.3	
조피클론	중국		·	·	·	·	557	·	27	·	·	246.3
	미국		·	·	·	6.6	·	·	·	·	·	·
	스페인		50	·	·	·	·	·	·	·	·	·
	홍콩		·	·	·	·	·	52	·	·	·	·
	대만		·	·	·	·	·		10	·	·	·
	일본		·	·	·	·	·	5	·	·	·	·
	인도		·	·	·	·	·		·	·	·	210
	소계		50	·	·	6.6	557	57	37	·	·	456.3
에스조피클론	일본		·	·	·	·	·	·	·	·	·	54
	소계				·			·	·	·	·	54
알프라졸람	중국		·	·	·	46	414	374	·	·	·	58.8
	일본		·	·	·	·	·	99	59	·	·	·
	캐나다		·	·	·	·	·	5	129	·	·	·
	태국		·	17	·	9	·	17	93	·	·	·
	카타르		·	·	·	·	·	·	·	205.26	·	·
	대만		·	·	·	·	·	38	·	·	·	·
	베트남		·	·	·	·	·	29	·	·	·	41.4
	미국		·	20	·	·	·	·	1	146.19	·	0.9
	카타르		·	·	·	·	·	·	·	·	·	·
	벨기에		·	·	·	·	40	·	·	·	·	·
	루마니아		·	26	·	·	·	·	·	·	·	·
	영국		·	1	·	·	19	·	·	·	·	·
	소계			64	·	55	473	562	282	351.45		101.1
사일로신	미국		·	·	8	·	5	5	·	7.15	276.83	42.87
	캐나다		·	·	5	·	0.3	1	3	·	87.96	·
	스위스		·	·	·	·	·	·	225	·	·	·
	네덜란드		56	14	85	77	142	·	·	5.32	·	·

마약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											
	영국		·	·	·	·	·	33	·	·	·	·
	베트남		·	·	·	·	13	·	·	·	·	·
	독일		·	·	·	·	1.2	·	·	39.82	·	·
	소계		56	14	98	77	161.5	39	228	52.29	364.79	42.87
에틸로플라제 페이트	일본		·	·	·	·	·	58	39	·	·	·
	소계		·	·	·	·	·	58	39	·	·	·
리저직산 아미드	영국		·	·	·	34	·	·	·	·	·	·
	소계		·	·	·	34	·	·	·	·	·	·
메티오프로파민	미국		·	·	·	3.3	·	·	·	·	·	·
	소계		·	·	·	3.3	·	·	·	·	·	·
N-메틸페네틸아민	미국		·	·	·	29.7	·	·	·	·	·	·
	소계		·	·	·	29.7	·	·	·	·	·	·
살비아 디비노럼	네덜란드		·	·	·	·	·	·	·	·	·	·
	소계		·	·	·	·	·	·	·	·	·	·
실비노린 에이	네덜란드		·	·	·	·	3	3	·	·	·	·
	소계		·	·	·	·	3	3	·	·	·	·
카타논	케냐		3,169(kg)	·	·	·	·	·	·	·	·	·
	소계		3,169(kg)	·	·	·	·	·	·	·	·	·
1P-LSD	네덜란드		·	·	0.5	0.1	·	4	·	·	·	·
	캐나다		·	2	0.1	0	·	·	·	·	·	·
	벨기에		·	·	·	·	·	·	1	·	·	·
	소계		·	2	0.6	0.1	·	4	1	·	·	·
2C-D, 2C-B, 4-OH-DIT, 3-HO-PCP	프랑스		·	·	·	·	·	·	325	·	·	·
	네덜란드		·	·	·	0.9 (2C-D, 2C-B)	2.5 (2C-D, 2C-B)	121	51	47.52	·	315.00 (2C-B)
	독일		·	·	·	·	·	·	20	·	·	·
	미국		·	·	·	·	·	·	5	·	·	·
	소계		·	·	·	0.9	2.5	121	401	47.52	·	315.00
2C-I-NB OMe	캐나다		607	·	·	·	·	·	·	·	·	·
	소계		607	·	·	·	·	·	·	·	·	·
25B-NB OME	네덜란드		·	·	·	·	0.11	·	·	·	·	·
	소계		·	·	·	·	0.11	·	·	·	·	·
3-플로로펜메트라진	네덜란드		·	·	·	4.9	·	·	·	·	·	·
	소계		·	·	·	4.9	·	·	·	·	·	·
4-플루오르 암페타민	중국		2	·	·	·	·	·	·	·	·	·
	대만		·	105	·	·	·	·	·	·	·	·
	네덜란드		·	156	·	·	·	·	·	·	·	·
	소계		2	261	·	·	·	·	·	·	·	·
2-플루오로메탐페타민	네덜란드		·	·	·	6.1	·	3	·	33	·	·
	소계		·	·	·	6.1	·	3	·	33	·	·

마약류	국가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5F-PB-22	일본		0	·	·	·	·	·	·	·	·	·
	영국		41	·	·	·	·	·	·	·	·	·
	중국		1,003	·	·	·	·	·	·	·	·	·
	소계		1,044	·	·	·	·	·	·	·	·	·
5F-UR-144	미국		9	·	·	·	·	·	·	·	·	·
	호주		1	·	·	·	·	·	·	·	·	·
	소계		10	·	·	·	·	·	·	·	·	·
5-MeO-DALT	중국		1	·	·	·	·	·	·	·	·	·
	소계		1	·	·	·	·	·	·	·	·	·
5-MEO-MIPT	캐나다		·	·	1	·	·	·	·	·	·	·
	소계				1	·	·	·	·	·	·	·
AB-CHMI-NACA	미국		·	3	·	·	·	·	·	·	·	·
	소계		·	3	·	·	·	·	·	·	·	·
AM-2201	호주		6	·	·	·	·	·	·	·	·	·
	소계		6	·	·	·	·	·	·	·	·	·
필로폰, 케타민 합성물	베트남		·	·	·	·	·	·	·	·	·	296.7
	소계		·	·	·	·	·	·	·	·	·	296.7
MDMA, 케타민 합성물	베트남		·	·	·	·	·	·	·	·	·	158.92
	미국		·	·	·	·	·	·	·	·	·	1.17
	소계		·	·	·	·	·	·	·	·	·	160.09
기타 향정신성 의약품 <sup>36)</sup>	베트남		·	·	·	·	·	·	·	·	611.10	·
	캄보디아		·	·	·	·	·	·	·	·	60.00	·
	인도		·	·	·	·	·	·	·	·	597.50	·
	태국		·	·	·	·	·	·	·	·	433.50	·
	네팔		·	·	·	·	·	·	·	·	990.00	·
	미국		·	·	·	·	·	·	·	·	1,582.32	·
	캐나다		·	·	·	·	·	·	·	·	17.40	·
	영국		·	·	·	·	·	·	·	·	144.00	·
	독일		·	·	·	·	·	·	·	·	153.00	·
	스페인		·	·	·	·	·	·	·	·	54.00	·
	네덜란드		·	·	·	·	·	·	·	·	140.07	·
	노르웨이		·	·	·	·	·	·	·	·	30.00	·
	우크라이나		·	·	·	·	·	·	·	·	150.00	·
	호주		·	·	·	·	·	·	·	·	3.90	·
	뉴질랜드		·	·	·	·	·	·	·	·	9.30	·
	일본		·	·	·	·	·	·	·	·	341.80	·
	중국		·	·	·	·	·	·	·	·	4,074.00	·
	대만		·	·	·	·	·	·	·	·	112.90	·
	홍콩		·	·	·	·	·	·	·	·	201.60	·
	말레이시아		·	·	·	·	·	·	·	·	1,062.00	·
나이지리아		·	·	·	·	·	·	·	·	104.95	·	
소계											10,873.34	

제1장 마약류의 개요

제2장 마약류 범죄 대응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마약류	연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알킬니트 리트, 이소부틸 니트리트 류(일명 '러시')	베트남	·	·	·	·	760	500	20	1,338.1
캄보디아	·		50	·	·	·	1,585	·	2,280	·	·
태국	1,077		·	·	·	966	1,807	·	·	·	501.11
중국	374		307	6,308	25	8,974	10,430	4,238	16,370	180.52	1,459.47
대만	·		·	·	·	190	5,696	2,640	·	·	·
말레이시아	27		·	·	·	190	4,888	375	390	·	·
미국	150		165	418	·	400	576	136	140	240.00	·
캐나다	·		·	·	·	·	·	·	·	40.00	·
네덜란드	·		·	·	·	409	384	·	·	·	·
프랑스	·		27	444	10	688	1,689	·	·	·	·
오스트리아	·		·	·	·	394	197	·	·	·	·
싱가포르	100		162	·	·	70	240	·	·	·	·
슬로바키아	·		62	40	·	30	267	·	·	·	·
체코	·		·	·	·	160	96	·	·	·	·
키르기스스탄	·		·	·	·	20	187	·	·	·	·
일본	·		·	·	·	20	60	·	·	·	·
영국	66		379	435	·	740	·	·	·	·	·
홍콩	87		·	80	·	50	·	·	·	·	·
스웨덴	·		·	·	30	20	·	·	·	·	·
호주	·		·	125	·	·	·	·	·	·	·
미얀마	·		·	·	·	150	·	·	·	·	·
폴란드	·		·	·	·	·	·	·	·	·	·
벨기에	·		·	·	·	40	·	·	·	·	·
뉴질랜드	·		·	·	·	30	·	·	·	·	·
러시아	·	·	·	·	160	·	·	·	·	·	
독일	18	27	·	·	·	20	·	180	·	·	
소계	1,899	1,179	7,850	65	14,461	28,622	7,409	20,698.1	3,670.52	6,160.58	
에페드린	캐나다	·	·	·	·	·	6	·	·	·	·
	소계	·	·	·	·	·	6	·	·	·	·
합계(kg)		59.6 <sup>37)</sup>	40.6	104.8	326.6	273.3	243.0	1,185.1	511.9	700.3	746.7

36) '23년 일반입 규모가 적은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메스케치논, 프로포폴, 2C-B, 펜터민, 디에타민 등)

37) '15년 케냐 췌 카티논 3,169kg은 단발성 대량 압수량으로 합계에서 제외함

## 다. 주요 마약류 밀반입 적발 사례

### 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 2024년 밀반입된 메트암페타민의 압수량은 총 195.0kg으로 전년(270.2kg) 대비 27.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밀반입되는 주된 마약류 중 하나임
- 국가별 필로폰 밀반입 순위
  - 캐나다 發(57.1kg) > 태국 發(34.1kg) > 미국 發(30.9kg) > 라오스 發(14.8kg) > 말레이시아 發(14.6kg) > 캄보디아 發(12.2kg) 순
- 2024년도 필로폰 대량 밀수입 주요 적발 사례

[표 3-35] 2024년도 주요 필로폰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

월별	발송국가	수량	밀수방법	적발청
2월	미국	2,971.67g	국제소포우편	수원지검
2월	미국	2,988.21g	국제소포우편	수원지검
3월	미국	5,000.74g	항공특송화물	인천지검
3월	태국	19,768.93g	항공특송화물	인천지검
4월	라오스	4,886.18g	국제특급우편	부산지검
6월	태국	1,105.67g	국제특급우편	수원지검
7월	태국	1,951.54g	항공특송화물	대구지검
7월	미국	1,905.11g	항공특송화물	서울중앙지검
9월	라오스	1,956.35g	국제특급우편	인천지검
11월	라오스	2,034.06g	항공특송화물	인천지검
12월	태국	1,117.53g	항공특송화물	서울북부지검
12월	태국	1,979.17g	항공특송화물	서울북부지검
12월	영국	2,999.03g	등기우편	인천지검

## ② 코카인

- 2024년 밀반입된 코카인의 압수량은 총 132.2kg으로 전년(9.9kg) 대비 1,235.4% 증가함
- 국가별 코카인 밀반입 순위
  - 콜롬비아 發(60.2kg) > 미국 發(30.0kg) > 멕시코 發(28.4kg) > 브라질 發(7.7kg) > 이탈리아 發(5.8kg) 순
- 2024년도 코카인 대량 밀수입 주요 적발 사례

[표 3-36] 2024년도 주요 코카인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

월별	발송국가	수량	밀수방법	적발청
8월	콜롬비아	60,244g	선박화물	인천지검

- 역대 코카인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
  - 2021년 1월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약 35kg을 선적한 후, 파나마 운하·부산신항·중국·미국을 경유하여 콜롬비아로 밀반입하려다가 부산신항에서 적발된 사건
  - 2021년 10월 페루 카야오항에서 출발하여 에콰도르·과테말라·멕시코·일본을 경유하여 부산신항에 도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코카인 400kg을 밀반입 하려한 사건
  - 2024년 12월 콜롬비아 發 액상 코카인 및 원료물질 메틸에틸케톤 등을 혼합하여 고체 코카인 약 61kg을 제조한 사건

## ③ 대마초

- 2024년 밀반입된 대마초의 압수량은 총 13.9kg으로 전년 대비(76.1kg) 81.7% 감소함
- 국가별 대마초 밀반입 순위
  - 미국 發(6.4kg) > 캐나다 發(3.7kg) > 태국 發(1.4kg) > 필리핀 發(0.9kg) 순

- 2024년도 대마초 대량 밀수입 주요 적발 사례

[표 3-37] 2024년도 주요 대마초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

월별	발송국가	수량	밀수방법	적발청
1월	베트남	120.72g	항공특송화물	의정부지검
11월	캐나다	1,006.08g	항공특송화물	서울중앙지검
11월	캐나다	1,177.92g	항공특송화물	서울중앙지검

#### ④ 야바

- 야바는 신종 마약류의 일종으로 주로 태국인 사이에서 유통되어 대부분의 야바 밀수 및 투약 사범은 태국 국적자들이고 최근 국내 체류 태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공장 기숙사, 외국인 클럽 등지에서 유통 및 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2024년 밀반입된 야바의 압수량은 총 250.7kg으로 전년 대비(195.7kg) 28.1% 증가함
- 국가별 야바 밀반입 순위
  - 태국 發 (250.5kg) > 라오스 發 (0.3kg) 순
- 2024년도 야바 대량 밀수입 주요 적발 사례

[표 3-38] 2024년도 주요 야바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

월별	발송국가	수량	밀수방법	적발청
6월	태국	100,923정	항공특송화물	광주지검
7월	태국	161,559정	항공특송화물	인천지검
8월	태국	80,503정 및 파손분 16.35g	항공특송화물	인천지검
8월	태국	24,068정 및 10.34g	국제특급우편	대전지검
9월	태국	4,744.92g	항공특송화물	대구지검
10월	태국	79,482정 및 파손분 24.19g	항공특송화물	청주지검
11월	태국	116,458정 및 파손분 150.7g	항공특송화물	의정부지검
12월	태국	10,017정	항공특송화물	광주지검

⑤ MDMA(엑스터시)

- 2024년 밀반입된 MDMA의 압수량은 총 26.4kg으로 전년 대비(30.6kg) 13.7% 감소였으나, 2024년도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는 꾸준히 존재함
- 국가별 MDMA 밀반입 순위
  - 독일 發 (12.8kg) > 영국 發 (9.5kg) > 네덜란드 發(2.5kg) > 베트남 發(1.0kg) 순
- 2024년도 MDMA 대량 밀수입 주요 적발 사례

[표 3-39] 2024년도 주요 MDMA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

월별	발송국가	수량	밀수방법	적발청
1월	독일	3,007정	국제소포우편	대전지검
1월	독일	3,023정	국제소포우편	청주지검
3월	독일	3,011.5정	국제소포우편	인천지검
4월	독일	4,044정	국제소포우편	청주지검
5월	독일	2,004정	국제소포우편	청주지검
6월	네덜란드	1,999정	국제소포우편	창원지검
6월	영국	1,069정	항공특송화물	인천지검
6월	네덜란드	1,003정	국제소포우편	서울중앙지검
6월	독일	1,003정	국제소포우편	청주지검
7월	독일	2,006정 및 0.54g	국제소포우편	부산지검
7월	독일	2,024정	국제소포우편	부산지검
7월	독일	2,002정	국제소포우편	대구지검
7월	독일	1,007정	국제소포우편	부산지검
7월	네덜란드	1,155정	국제소포우편	수원지검
8월	독일	1157정 및 9.93g	국제소포우편	대전지검
8월	독일	2,923정 및 8.71g	국제소포우편	광주지검
10월	독일	2,650정 및 836.6g	국제소포우편	대전지검
10월	독일	5,191정 및 파손분 22.24g	국제소포우편	부산지검
12월	독일	1,057정	항공특송화물	부산지검
12월	독일	1,865정 및 파손분 10.5g	등기우편	인천지검

## 5. 연도별 국내 공조수사 현황

### • 연도별 공조수사청별 공조수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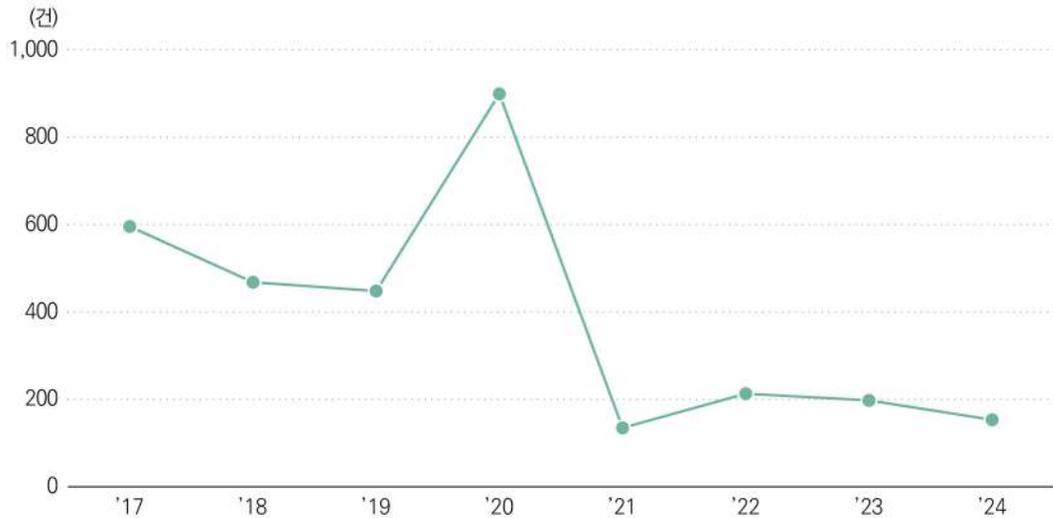
[표 3-40] 연도별 공조수사청별 공조수사 현황

[단위: 건]

청명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중앙	118	108	71	133	9	14	26	23
서울동부	37	12	34	39	6	3	3	·
서울남부	18	10	27	55	4	2	3	·
서울북부	25	12	13	57	3	9	3	2
서울서부	49	28	37	82	·	·	·	·
의정부	14	14	19	25	10	7	6	9
고양	15	12	9	28	1	·	4	·
인천	29	47	39	61	30	31	32	36
부천	16	8	5	3	·	·	·	·
수원	40	35	40	66	14	31	37	28
성남	21	32	10	36	1	1	·	·
평택	11	12	14	16	·	·	·	·
안산	11	5	15	31	4	7	·	·
안양	22	9	3	·	·	·	·	·
춘천	9	6	10	12	·	2	4	·
강릉	1	5	·	·	·	·	·	·
대전	32	30	24	43	15	21	17	12
서산	2	·	·	·	·	·	·	·
천안	9	·	·	·	·	·	·	·
청주	18	·	6	10	6	13	23	8
대구	26	26	26	54	15	25	12	8
대구서부	3	·	·	·	·	·	·	·
김천	2	·	·	·	·	·	·	·
창원	11	19	9	19	5	17	6	2
진주	1	·	·	·	·	·	·	·
부산	8	8	8	43	3	5	5	13

청명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부산동부	10	·	·	·	·	·	·	·
부산서부	1	·	·	·	·	·	·	·
울산	12	5	7	27	2	3	3	2
광주	5	19	11	29	3	15	14	10
목포	1	·	·	·	·	·	·	·
순천	2	·	·	·	·	·	·	·
전주	3	3	8	16	4	7	·	·
군산	6	·	·	·	·	·	·	·
제주	8	3	3	14	·	·	·	·
합계	596	468	448	899	135	213	198	153

[그림 3-83] 연도별 공조수사 현황



- 2024년 공조수사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 대비(198건) 22.7% 감소함
- 검찰의 마약류 범죄 수사 범위 제한 전(~2020년)까지는 지방검찰청뿐만 아니라 지청도 활발하게 수사를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수사 범위 제한 시기(2021년 ~ 2022년 8월)에는 수사 건수가 급감하였고, 수사 범위 일부 회복 후(2022년 9월~) 다시 증가함

## 6. 연도별 외국인 단속 현황

### 가. 연도별 외국인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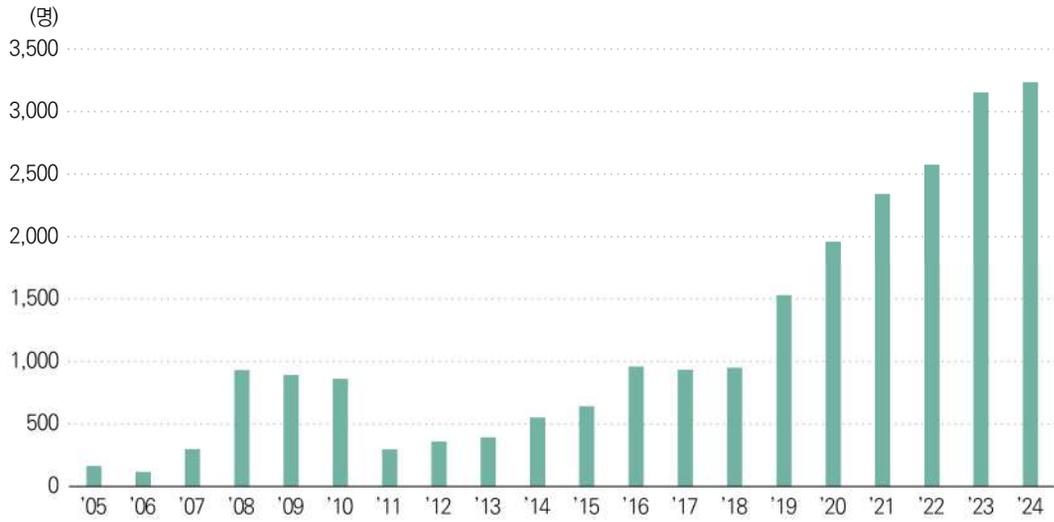
[표 3-41] 연도별 외국인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단속(명)	162	116	298	928	890	858	295	359	393	551
증감률(%)	-20.2	-28.4	156.9	211.4	-4.1	-3.6	-65.6	21.7	9.5	40.2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단속(명)	640	957	932	948	1,529	1,958	2,339	2,573	3,151	3,232
증감률(%)	16.2	49.5	-2.6	1.7	61.3	28.1	19.5	10.0	22.5	2.6

- 2000년대
  - 2000년 이후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 등에 따른 입국 및 통관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 중심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대폭 증가하다가, 2005년도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인해 감소 추세
- 2010년대
  - 영어권 국가 출신 외국인 강사의 국내 체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2008년 92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2011년 295명으로 전년 대비 65.6% 감소함
  - 2015년 640명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도 1,529명으로 처음 1천 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현재
  - 2021년 2천 명 및 2023년 3천 명 돌파 이후, 2024년은 감소한 국내 전체 마약류 사범(23,022명)과는 달리 외국인 전체 마약류 사범은 작년 대비(3,151명) 2.6%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3-84]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 나. 연도별·마약류별 외국인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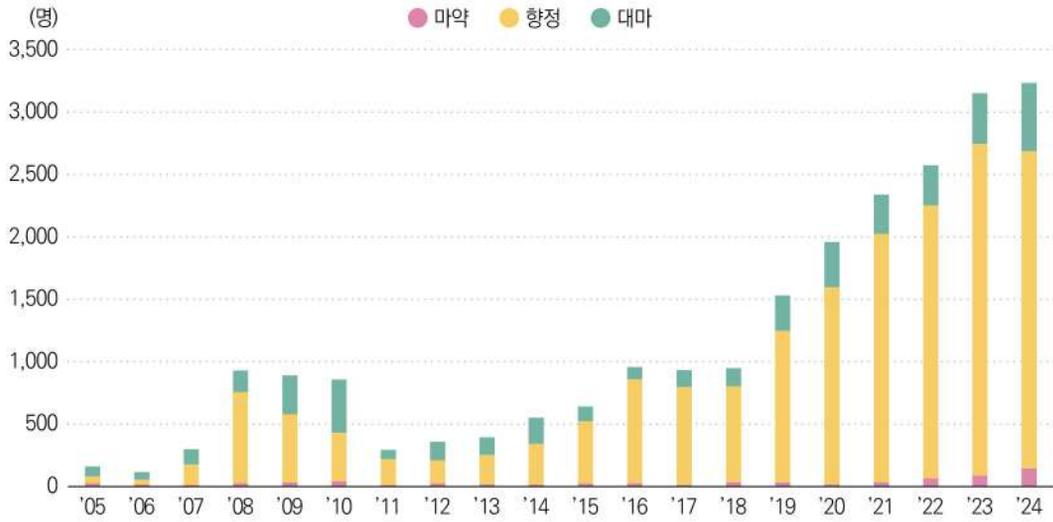
[표 3-42] 연도별·마약류별 외국인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마약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62 (100.0)	116 (100.0)	298 (100.0)	928 (100.0)	890 (100.0)	858 (100.0)	295 (100.0)	359 (100.0)	393 (100.0)	551 (100.0)
마약	27 (16.7)	16 (13.8)	13 (4.4)	29 (3.1)	32 (3.6)	43 (5.0)	12 (4.1)	26 (7.3)	19 (4.8)	17 (3.1)
향정	56 (34.6)	41 (35.3)	165 (55.4)	727 (78.3)	547 (61.5)	390 (45.5)	208 (70.5)	185 (51.5)	235 (59.8)	328 (59.5)
대마	79 (48.7)	59 (50.9)	120 (40.3)	172 (18.5)	311 (34.9)	425 (49.5)	75 (25.4)	148 (41.2)	139 (35.4)	206 (37.4)
연도 마약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640 (100.0)	957 (100.0)	932 (100.0)	948 (100.0)	1,529 (100.0)	1,958 (100.0)	2,339 (100.0)	2,573 (100.0)	3,151 (100.0)	3,232 (100.0)
마약	26 (4.1)	25 (2.6)	14 (1.5)	36 (3.8)	32 (2.1)	18 (0.9)	35 (1.5)	65 (2.5)	87 (2.8)	147 (4.5)
향정	499 (78.0)	834 (87.1)	784 (84.1)	770 (81.2)	1,215 (79.5)	1,582 (80.8)	1,990 (85.1)	2,187 (85.0)	2,660 (84.4)	2,540 (78.6)
대마	115 (17.9)	98 (10.2)	134 (14.4)	142 (15.0)	282 (18.4)	358 (18.3)	314 (13.4)	321 (12.5)	404 (12.8)	545 (16.9)

- 2000년대
  - 1999년 이전에는 외국인 사범이 주로 대마사범을 이루었으나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이후 향정사범이 대마사범을 추월함
  -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높은 주된 원인으로 태국인 등 동남아시아인의 야바 밀반입 및 투약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10년대
  - 향정사범의 비중이 점차 증가, 그 비중이 2015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70% 이상을 차지함
- 현재
  - 2024년도 향정사범이 78.6%, 대마사범이 16.9%, 마약사범이 4.5% 차지함

[그림 3-85]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마약류별 단속 현황



## 다. 연도별·범죄유형별 외국인 단속 현황

[표 3-43] 연도별·범죄유형별 외국인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유형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62 (100.0)	116 (100.0)	298 (100.0)	928 (100.0)	890 (100.0)	858 (100.0)	295 (100.0)	359 (100.0)	393 (100.0)
밀조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2 (0.7)	0 (0.0)	0 (0.0)	0 (0.0)
밀수		17 (10.5)	5 (4.3)	21 (7.0)	51 (5.5)	34 (3.8)	25 (2.9)	18 (6.1)	21 (5.8)	60 (15.3)	76 (13.8)
밀매		31 (19.1)	34 (29.3)	48 (16.1)	63 (6.8)	61 (6.9)	37 (4.3)	55 (18.6)	80 (22.2)	91 (23.2)	86 (15.6)
투약		114 (70.4)	77 (66.4)	229 (76.8)	814 (87.7)	795 (89.3)	704 (82.1)	186 (63.1)	222 (61.8)	177 (45.0)	290 (52.6)
소지		-	-	-	-	-	-	-	-	15 (3.8)	38 (6.9)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91 (10.6)	34 (11.5)	36 (10.2)	50 (12.7)	61 (11.1)
유형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640 (100.0)	957 (100.0)	932 (100.0)	948 (100.0)	1,529 (100.0)	1,958 (100.0)	2,339 (100.0)	2,573 (100.0)	3,151 (100.0)	3,232 (100.0)
밀조		1 (0.2)	0 (0.0)	0 (0.0)	3 (0.3)	2 (0.1)	1 (0.1)	5 (0.2)	2 (0.1)	1 (0.1)	3 (0.1)
밀수		91 (14.2)	176 (18.4)	186 (20.0)	196 (20.7)	323 (21.1)	370 (18.9)	480 (20.5)	551 (21.4)	590 (18.7)	762 (23.6)
밀매		101 (15.8)	125 (13.1)	115 (12.3)	165 (17.4)	235 (15.4)	273 (13.9)	280 (12.0)	449 (17.4)	325 (10.3)	365 (11.3)
투약		336 (52.5)	522 (54.5)	504 (54.1)	417 (44.0)	643 (42.1)	942 (48.1)	1,046 (44.7)	1,095 (42.6)	1,447 (45.9)	1,177 (36.4)
소지		36 (5.6)	30 (3.1)	38 (4.1)	54 (5.7)	65 (4.3)	94 (4.8)	119 (5.1)	119 (4.6)	172 (5.5)	168 (5.2)
기타		75 (11.7)	104 (10.9)	89 (9.5)	113 (11.9)	261 (17.1)	278 (14.2)	409 (17.5)	357 (13.9)	616 (19.5)	757 (23.4)

※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해에는 '-' 표시

### • 2010년 이전

- 대다수의 외국인 사범들이 투약사범으로 그 비중이 70~80% 이상을 차지함

• 2010년 이후

- 밀매사범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투약으로 국한되어 있던 범죄유형이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의 범죄유형으로 확산되기 시작
- 10% 미만이었던 밀수사범의 비중이 2013년도 이후로 점차 10%대로 올라갔으며, 2017년에는 처음으로 20% 돌파하였음

• 현재

- 2024년 투약사범은 1,177명으로 전년(1,447명) 대비 18.7% 감소하였으며, 밀수사범의 비중은 증가하여 이제는 투약사범과 밀수사범 비중의 격차가 줄어들었음
- 우리나라로 귀화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범죄유형 또한 다양화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원료물질을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해외 제조기술자를 입국시켜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사례<sup>38)</sup>, 도심 한복판인 수원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사례<sup>39)</sup>, 인천소재 베트남 노래클럽에서 마약류를 집단 투약한 사례<sup>40)</sup> 등이 확인됨

[그림 3-86]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밀수·투약 현황



38) 국제 마약조직의 코카인 61kg 제조사건('24. 12. 인천지검)

39) 수원역 오피스텔 필로폰 제조사건('24. 10. 서울남부지검)

40) 인천 소재 베트남 노래클럽 마약류 집단 투약사건('24. 1. 인천지검)

## 라.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순위

[표 3-44]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순위

연도 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이란	미국	중국	태국	태국	태국	중국	미국	미국	중국
2	미국	중국	태국	미국	미국	스리랑카	미국	중국	중국	미국
3	중국	캐나다	미국	중국	중국	미국	베트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연도 순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	중국	중국	중국	중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베트남
2	태국	태국	태국	태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3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우즈베키 스탄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태국

-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에는 베트남·중국·태국이 거의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베트남·중국·태국인이 유학, 노동, 불법체류 등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줌

## 마.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표 3-45]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국적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합계	17	(100)	5	(100)	21	(100)	51	(100)	34	(100)	25	(100)	18	(100)	21	(100)	60	(100)	76	(100)		
태국							33	(64.7)	10	(29.4)	8	(32.0)			1	(4.7)					8	(10.5)
이란	2	(11.8)			1	(4.8)	3	(5.9)	2	(5.9)			2	(11.1)								
중국	5	(29.4)			6	(28.6)	3	(5.9)	4	(11.8)	7	(28.0)	8	(44.4)	3	(14.3)	21	(35.0)	43	(56.6)		
베트남											1	(4.0)			2	(9.6)	4	(6.6)	2	(2.6)		
우즈베키스탄															3	(14.3)						
러시아					1	(4.8)	2	(3.9)	4	(11.8)					1	(4.7)	3	(5.0)				
미국	5	(29.4)			1	(4.8)	1	(2.0)	3	(8.8)	5	(20.0)	4	(22.2)	8	(38.1)	23	(38.3)	21	(27.6)		
카자흐스탄																						
캐나다	2	(11.8)	1	(20.0)	2	(9.5)			3	(8.8)			3	(16.7)	2	(9.6)	1	(1.7)				
대만			1	(20.0)																		
나이지리아			2	(40.0)			2	(3.9)	1	(2.9)	2	(8.0)	1	(5.6)								
일본							2	(3.9)	1	(2.9)												
스리랑카	1	(5.9)																				
모로코																					1	(1.3)
독일																		1	(1.7)			
영국																		1	(1.7)			
가나			1	(20.0)	3	(14.3)	3	(5.9)	1	(2.9)												
방글라데시									1	(2.9)	1	(4.0)										
인도네시아					1	(4.8)												1	(1.7)			
파키스탄											1	(4.0)										
몰도바															1	(4.7)						
호주					1	(4.8)			1	(2.9)												
뉴질랜드	1	(5.9)					1	(2.0)	2	(5.9)												
필리핀	1	(5.9)			5	(23.8)			1	(2.9)							5	(8.3)				
싱가포르																					1	(1.3)
앙골라							1	(2.0)														

국적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합계	91	(100)	176	(100)	186	(100)	196	(100)	323	(100)	370	(100)	480	(100)	551	(100)	590	(100)	762	(100)		
태국	13	(14.3)	37	(21.1)	75	(40.4)	70	(35.7)	145	(44.9)	192	(51.9)	210	(43.8)	301	(54.6)	236	(40.0)	206	(27.0)		
중국	61	(67.0)	116	(65.9)	89	(47.9)	90	(45.9)	74	(22.9)	80	(21.6)	89	(18.5)	110	(20.0)	152	(25.8)	187	(24.5)		
베트남			3	(1.7)			3	(1.5)	14	(4.3)	41	(11.1)	73	(15.2)	85	(15.4)	141	(23.9)	222	(29.1)		
우즈베키스탄	1	(1.1)	1	(0.6)			3	(1.5)	33	(10.2)	17	(4.6)	28	(5.8)	5	(0.9)	11	(1.9)	26	(3.4)		
러시아	2	(2.2)	2	(1.1)	1	(0.5)			16	(5.0)	18	(4.9)	40	(8.3)	10	(1.8)	9	(1.5)	38	(5.0)		
미국	11	(12.1)	10	(5.7)	7	(3.8)	17	(8.7)	5	(1.5)	6	(1.6)	6	(1.3)	11	(1.9)	9	(1.5)	10	(1.3)		
카자흐스탄							1	(0.5)	7	(2.2)	3	(0.8)	1	(0.2)	3	(0.5)	9	(1.5)	18	(2.4)		
캐나다	1	(1.1)					3	(1.5)	3	(0.9)	1	(0.3)	5	(1.0)	3	(0.5)	6	(1.0)	1	(0.1)		
대만					6	(3.2)	2	(1.0)	4	(1.2)					2	(0.3)	3	(0.5)	3	(0.4)		
캄보디아							2	(1.0)			2	(0.5)	8	(1.7)	1	(0.2)	1	(0.2)	4	(0.5)		
나이지리아					3	(1.7)	1	(0.5)	2	(0.6)	1	(0.3)	4	(0.8)	1	(0.2)	1	(0.2)	2	(0.3)		
일본					1	(0.5)	2	(1.0)	3	(0.9)					1	(0.2)	1	(0.2)				
이집트			2	(1.1)	1	(0.5)			1	(0.3)			2	(0.4)	1	(0.2)			2	(0.3)		
말레이시아					1	(0.5)			2	(0.6)			1	(0.2)	1	(0.2)			4	(0.5)		
콜롬비아									3	(0.9)	1	(0.3)										
키르기스스탄									2	(0.6)			1	(0.2)	2	(0.3)	2	(0.2)	6	(0.8)		
스리랑카			1	(0.6)					2	(0.6)	1	(0.3)			2	(0.3)			2	(0.3)		
브라질							1	(0.5)	1	(0.3)	1	(0.3)										
모로코													3	(0.6)	1	(0.2)						
영국					1	(0.5)			1	(0.3)					3	(0.5)						
이탈리아												1	(0.3)	1	(0.2)							
가나							1	(0.5)					1	(0.2)								
카메룬												2	(0.5)									
에콰도르													2	(0.4)								
우간다													2	(0.4)								
우크라이나											1	(0.3)					1	(0.2)	8	(1.0)		
몽골													1	(0.3)			1	(0.2)	4	(0.5)		
감비아											1	(0.3)										
방글라데시	1	(1.1)											1	(0.2)					1	(0.1)		
앙골라													1	(0.3)								
인도													1	(0.3)					1	(0.1)		

국적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도	연도										
예멘					1 (0.5)							
남아공							1 (0.3)			1 (0.2)		
스페인							1 (0.3)			1 (0.2)		
인도네시아							1 (0.3)			2 (0.3)	1 (0.2)	1 (0.1)
파키스탄									1 (0.2)	1 (0.2)		
니제르									1 (0.2)			
몰도바										1 (0.2)	1 (0.2)	
호주										1 (0.2)		
뉴질랜드										1 (0.2)		
콩고											1 (0.2)	
라오스												5 (0.7)
타지키스탄											1 (0.2)	3 (0.4)
필리핀	1 (1.1)	2 (1.1)									1 (0.2)	1 (0.1)
탄자니아											1 (0.2)	
필란드											1 (0.2)	
싱가포르												2 (0.3)
프랑스												1 (0.1)
페루												2 (0.3)
미얀마												1 (0.1)
노퍽섬												1 (0.1)
사우디아라비아		2 (1.1)										

[표 3-46]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순위

연도 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미국 중국	나이지리아	중국	태국	태국	태국	중국	미국	미국	중국
2	이란 캐나다	가나 대만 캐나다	필리핀	중국 이란 가나	중국 러시아	중국	미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중국	미국
3	필리핀 뉴질랜드 스리랑카	-	가나	나이지리아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	캐나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연도 순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	중국	중국	중국	중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베트남
2	태국	태국	태국	태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태국
3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중국

- 외국인 사범의 수가 1천 명 미만이었던 2018년 이전에는 밀수 사범의 국적이 다양한 편이었으나, 2020년 이후에는 베트남·태국·중국의 국적이 줄곧 상위권을 차지함

## 7. 연도별 조직폭력배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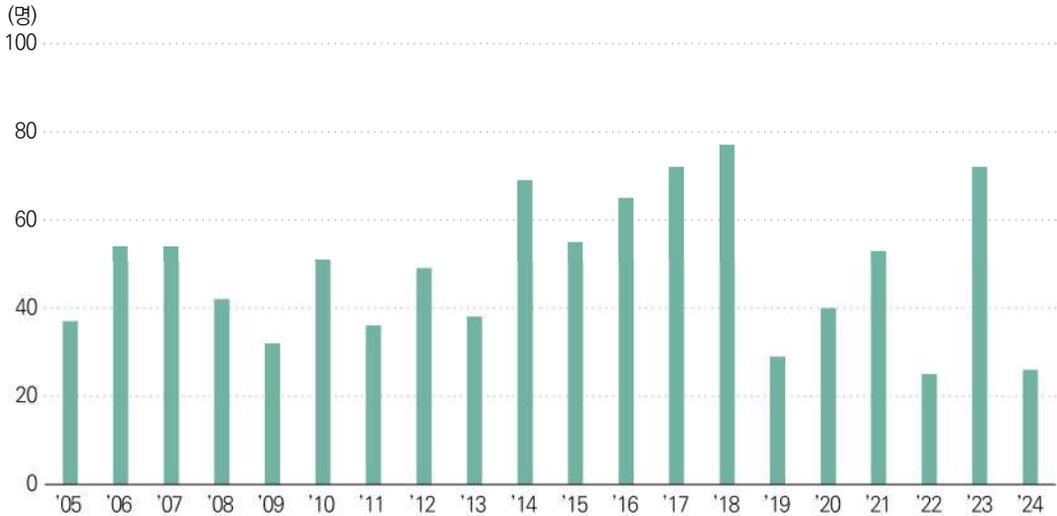
### 가. 연도별 조직폭력배 단속 현황

[표 3-47] 연도별 조직폭력배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전체 마약류 사범	조직폭력배 마약류 사범		조직계파(개)
			단속	점유율(%)	
2005		7,154	37	0.5	29
2006		7,709	54	0.7	38
2007		10,649	54	0.5	44
2008		9,898	42	0.4	34
2009		11,875	32	0.3	27
2010		9,732	51	0.5	37
2011		9,174	36	0.4	29
2012		9,255	49	0.5	27
2013		9,764	38	0.4	25
2014		9,984	69	0.7	48
2015		11,916	55	0.5	38
2016		14,214	65	0.5	48
2017		14,123	72	0.5	44
2018		12,613	77	0.6	35
2019		16,044	29	0.2	21
2020		18,050	40	0.2	29
2021		16,153	53	0.3	29
2022		18,395	25	0.1	18
2023		27,611	72	0.3	35
2024		23,022	26	0.1	19

[그림 3-87] 연도별 조직폭력배 단속 현황



- 2005년 이전

- 국내 폭력조직은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 해외 기업형 국제범죄조직과 달리 소규모로 금품갈취 등 전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었음
- 그러나 폭력조직의 전통적 조직운영 자금 출처였던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실, 사채업, 도박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조직폭력배 자금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자 새로운 조직운영자금 확보 수단으로 마약류 밀수·밀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직폭력배들이 출몰하기 시작함
- 1999년도부터 서울지역의 장안동파·이글스파, 부산지역의 칠성파·당감동파·유태파·서면파, 대구지역의 동성로파·칠성동파·대신동파, 인천지역의 꼴망파·부평식구파, 천안지역의 송익파, 청주지역의 파라다이스파, 수원지역의 AP(4월의불사조)파, 서산지역의 태양회파, 의정부지역의 신세븐파, 광주지역의 수기동파, 전주지역의 월드컵파 등 지역적 폭력조직의 일부가 마약류 밀수·밀매 행위에 가담한 바 있으며,
- 특히 부산·대구지역 폭력조직인 칠성파·당감동파·유태파·서면파·20세기파·대신동파·동성로파 등 폭력조직은 일본의 야쿠자 등 국제범죄 조직 및 국내 메트암페타민 밀수·밀매조직 등과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매트암페타민 밀수·밀거래에 직접 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정보제공자를 살해하는 등 보복범죄도 서슴지 않은 행태를 보임

- 2005년 이후
  - 조직 유지 및 영리 등의 목적으로 마약류 밀수·밀매에 적극 개입하거나, 개인적 일탈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현재
  - 2024년 19개의 조직계파 34명의 마약류 사범이 단속되었으며, 전년 대비(72명) 52.8% 감소하였음
  - 인터넷의 발달로 마약류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마약류 범 죄는 점차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직폭력배 고유의 범 죄라는 인식이 줄어들고 있음

## 나. 연도별 조직폭력배 범죄유형별 현황

[표 3-48] 연도별 조직폭력배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유형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등	합계
2005		0 (0.0)	4 (10.8)	7 (18.9)	22 (59.5)	4 (10.8)	37 (100.0)
2006		0 (0.0)	0 (0.0)	11 (20.4)	37 (68.5)	6 (11.1)	54 (100.0)
2007		0 (0.0)	1 (1.9)	15 (27.8)	32 (59.3)	6 (11.1)	54 (100.0)
2008		0 (0.0)	0 (0.0)	9 (21.4)	28 (66.7)	5 (11.9)	42 (100.0)
2009		0 (0.0)	2 (6.3)	8 (25.0)	19 (59.4)	3 (9.4)	32 (100.0)
2010		0 (0.0)	7 (13.7)	19 (37.3)	17 (33.3)	8 (15.7)	51 (100.0)
2011		0 (0.0)	4 (11.1)	12 (33.3)	16 (44.4)	4 (11.1)	36 (100.0)
2012		0 (0.0)	5 (10.2)	8 (16.3)	29 (59.2)	7 (14.3)	49 (100.0)
2013		0 (0.0)	3 (7.9)	11 (28.9)	15 (39.5)	9 (23.7)	38 (100.0)
2014		0 (0.0)	0 (0.0)	15 (22.7)	34 (48.8)	20 (28.5)	69 (100.0)
2015		1 (1.8)	2 (3.6)	18 (32.8)	28 (50.9)	6 (10.9)	55 (100.0)
2016		1 (1.5)	2 (3.1)	24 (36.9)	25 (38.5)	13 (20.0)	65 (100.0)
2017		0 (0.0)	2 (2.8)	19 (26.4)	28 (38.9)	23 (31.9)	72 (100.0)
2018		0 (0.0)	1 (1.3)	20 (26.0)	39 (50.6)	17 (22.1)	77 (100.0)
2019		0 (0.0)	0 (0.0)	8 (27.6)	15 (51.7)	6 (20.7)	29 (100.0)
2020		0 (0.0)	0 (0.0)	12 (30.0)	15 (37.5)	13 (32.5)	40 (100.0)
2021		0 (0.0)	0 (0.0)	17 (32.1)	26 (49.1)	10 (18.9)	53 (100.0)
2022		0 (0.0)	2 (8.0)	8 (32.0)	8 (32.0)	7 (28.0)	25 (100.0)
2023		0 (0.0)	6 (8.3)	17 (23.6)	31 (43.1)	18 (25.0)	72 (100.0)
2024		0 (0.0)	3 (11.5)	12 (46.2)	8 (30.8)	3 (11.5)	26 (100.0)

- 주요 조직폭력배 마약류 개입 범죄

- 대구지역 폭력조직 「대신동파」 조직원 2명이 판매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 9kg을 제조한 후 대구·부산지역에 밀매(1999년)
-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면파」 행동대장 송○○ 등이 메트암페타민 약 10kg 상당을 제조한 후 부산·대구지역에 밀매(2001년)
- 홍콩 최대 폭력조직 「삼합회」 조직원 황○○(중국인, 35세)과 대만 폭력조직 「죽련방」 간부 탕○○은 공모하여 북한과 중국 국경 부근에 위치한 벽돌공장에서 대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후, 이 중 91kg을 당면으로 위장, 선적 후 부산항을 경유하여 밀반출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2001년)
- 홍콩 삼합회 조직원 중국계 미국인 프○○ ○○(밀수총책)은 필로폰 약 66g을 홍콩에서 항공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2002년)
- 일본 폭력조직 「스미요시파」 조직원 오○○(한국인, 64세)는 일본 나리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500g을 복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침(2002년)
- LA 한인 갱단 「LGKK」 두목 신○○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1999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후 미국 내에 있는 LGKK 조직과 연계하여 현지에서 제조된 메트암페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재미교포 출신 판매책을 통해 이를 판매(2003년)
- 일본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 「마쓰바 카이파」 부두목 후지 타다요시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한 필로폰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국내에 메트암페타민 반제품 140ml를 화장품 통속에 위장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후 국내 제조기술자와 접촉을 시도하려다 적발(2003년)
- 조치원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두목 설○○은 1999년 11월경 피해자 심○○가 청주지검에서 마약류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공범 최○○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목적으로 6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협박 (2003년)
- 대만 폭력조직 「죽련방」의 조직원 왕○○(대만인)이 대만 장개석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9.6g을 콘돔에 감싸 향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2004년)

-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이○○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혐의로 검거될 당시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 수사관에게 칼을 휘둘러 무릎에 상해를 가함(2004년)
- 국제 폭력조직 「삼합회」 캐나다 지부 소속 제○○로부터 메트암페타민 2kg을 일본을 경유하여 국내에서 전달받고 먼저 1kg을 7,500만 원에 공범 장○○에게 판매한 후 나머지 1kg을 7,000만 원에 판매하려다 적발(2005년)
- 성남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 김○○이 중국에서 메트암페타민 11.9g 밀반입 및 투약(2007년)
- 일본 최대 폭력조직 「야마구치구미」의 중간 보스 이○○○○○ 등 피의자들은 중국산 메트암페타민을 홍콩에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재차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여, 홍콩발 김해공항행 항공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615g을 소지한 채 국내로 들어와 이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2007년)
- LA 한인 갱단 「LGKK」 조직원 ○○○은 특수강도죄 등 혐의로 강제 추방되어 멕시코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48.2g을 국제특송화물로 송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2010년)
- 부산지역 「유태파」 조직원이 중국 「흑사회」와 연계하여 중국 옌타이항(연태)에서 부산항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5.95kg을 밀수하여 유통(2011년)
- 일본 야쿠자 「쿄쿠토카이(極東會)」 조직원이 일본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 약 10kg을 밀수하여 유통시도(2015년)
- 대구지역 「대구월배파」 조직원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제조(2015년)
- 대만 마약조직과 일본 야쿠자 「이나가와카이파」와 국내 유통조직이 연계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 약 26kg을 밀수하여 국내 유통 및 일본 수출 시도(2017년)
- 대만 마약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연계하여 대만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 약 150kg 이상을 밀수하여 국내 유통 및 일본 수출 시도(2018년)

## 8. 연도별 연령별 단속 현황

### 가.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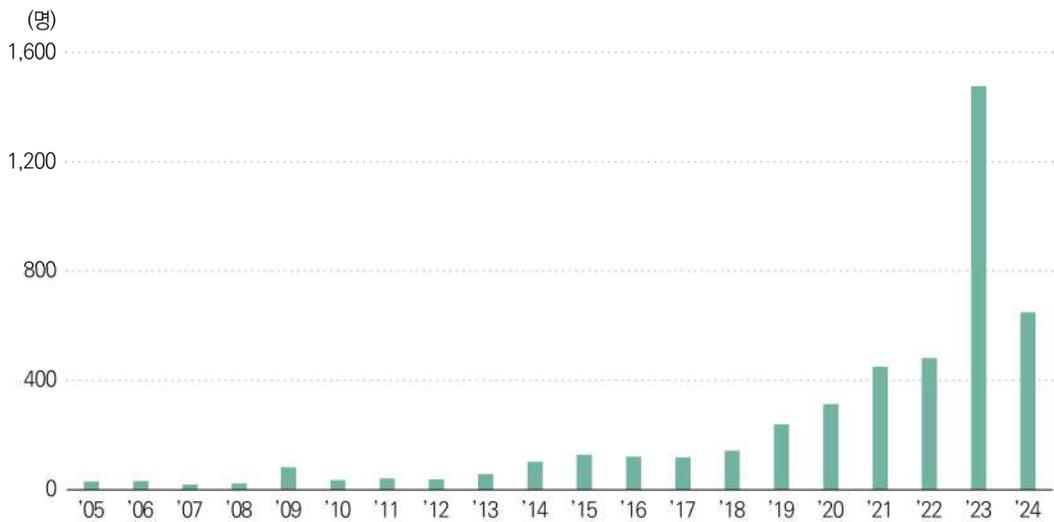
[표 3-49]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 연령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5	30 (0.4)	784 (11.0)	2,435 (34.0)	2,383 (33.3)	622 (8.7)	495 (6.9)	405 (5.7)	7,154 (100.0)
2006	32 (0.4)	697 (9.0)	2,570 (33.3)	2,714 (35.2)	832 (10.8)	618 (8.0)	246 (3.2)	7,709 (100.0)
2007	19 (0.2)	1,013 (9.5)	3,460 (32.5)	3,939 (37.0)	1,173 (11.0)	709 (6.7)	336 (3.2)	10,649 (100.0)
2008	23 (0.2)	1,109 (11.2)	3,002 (30.3)	3,311 (33.5)	1,167 (11.8)	983 (9.9)	303 (3.1)	9,898 (100.0)
2009	82 (0.7)	1,608 (13.5)	3,371 (28.4)	3,297 (27.8)	1,502 (12.6)	1,643 (13.8)	372 (3.1)	11,875 (100.0)
2010	35 (0.4)	1,111 (11.4)	2,924 (30.0)	3,185 (32.7)	1,427 (14.7)	752 (7.7)	298 (3.1)	9,732 (100.0)
2011	41 (0.4)	750 (8.2)	2,552 (27.8)	3,392 (37.0)	1,523 (16.6)	693 (7.6)	223 (2.4)	9,174 (100.0)
2012	38 (0.4)	758 (8.2)	2,493 (26.9)	3,516 (38.0)	1,717 (18.6)	566 (6.1)	167 (1.8)	9,255 (100.0)
2013	58 (0.6)	1,010 (10.3)	2,500 (25.6)	3,539 (36.2)	1,833 (18.8)	642 (6.6)	182 (1.9)	9,764 (100.0)
2014	102 (1.0)	1,174 (11.8)	2,640 (26.4)	3,542 (35.5)	1,768 (17.7)	603 (6.0)	155 (1.6)	9,984 (100.0)
2015	128 (1.1)	1,305 (10.9)	2,878 (24.2)	4,099 (34.4)	2,190 (18.4)	1,124 (9.4)	192 (1.6)	11,916 (100.0)
2016	121 (0.9)	1,842 (13.0)	3,526 (24.8)	4,496 (31.6)	2,659 (18.7)	1,378 (9.7)	192 (1.3)	14,214 (100.0)
2017	119 (0.8)	2,112 (15.0)	3,676 (26.0)	3,919 (27.8)	2,589 (18.3)	1,491 (10.6)	217 (1.5)	14,123 (100.0)
2018	143 (1.1)	2,118 (16.8)	2,996 (23.8)	3,305 (26.2)	2,352 (18.6)	1,457 (11.6)	242 (1.9)	12,613 (100.0)
2019	239 (1.5)	3,521 (21.9)	4,126 (25.7)	3,487 (21.7)	2,554 (15.9)	1,598 (10.0)	519 (3.2)	16,044 (100.0)

연도	연령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20		313 (1.7)	4,493 (24.9)	4,516 (25.0)	3,599 (19.9)	2,423 (13.4)	2,232 (12.4)	474 (2.6)	18,050 (100.0)
2021		450 (2.8)	5,077 (31.4)	4,096 (25.4)	2,670 (16.5)	1,992 (12.3)	1,550 (9.6)	318 (2.0)	16,153 (100.0)
2022		481 (2.6)	5,804 (31.6)	4,703 (25.6)	2,815 (15.3)	1,976 (10.7)	2,166 (11.8)	450 (2.4)	18,395 (100.0)
2023		1,477 (5.3)	8,368 (30.3)	6,683 (24.2)	3,934 (14.2)	2,845 (10.3)	3,862 (14.0)	442 (1.6)	27,611 (100.0)
2024		649 (2.8)	7,515 (32.6)	6,481 (28.2)	3,571 (15.5)	2,337 (10.2)	2,110 (9.2)	359 (1.6)	23,022 (100.0)

[그림 3-88]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10대 단속 현황



- 매년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10대 마약류 사범은 점차 그 비중이 커지면서 2023년 5.3%의 비중을 차지함
  - 2023년 10대 마약류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481명) 대비 207.1% 급증하였으나, 2024년 649명으로 56.1%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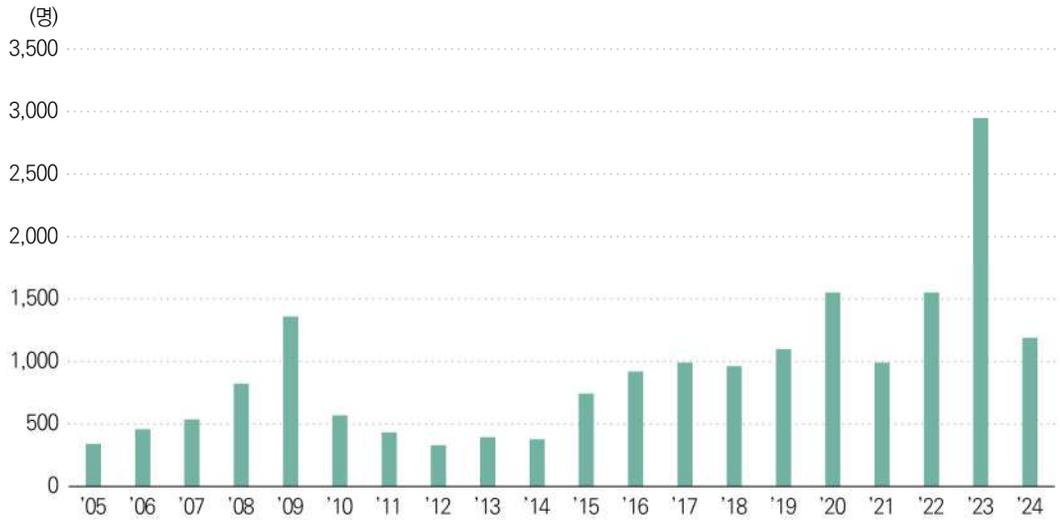
## 나. 연도별 마약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

[표 3-50] 연도별 마약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 \ 연령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5	0	30	87	132	137	341	41	768
2006	0	29	58	123	183	458	17	868
2007	0	20	41	136	199	536	26	958
2008	0	18	59	161	308	821	29	1,396
2009	2	41	79	243	449	1,357	27	2,198
2010	0	25	57	133	327	567	15	1,124
2011	0	14	37	82	169	433	24	759
2012	0	19	20	69	138	330	6	582
2013	2	23	52	66	118	393	31	685
2014	0	33	57	67	119	377	23	676
2015	0	24	53	77	231	743	25	1,153
2016	2	37	57	114	230	918	25	1,383
2017	0	42	85	112	223	990	23	1,475
2018	2	65	71	103	236	961	29	1,467
2019	3	99	139	107	237	1,098	121	1,804
2020	39	116	84	101	247	1,550	61	2,198
2021	196	150	88	78	176	990	67	1,745
2022	108	231	122	128	218	1,550	194	2,551
2023	10	184	173	166	347	2,948	142	3,970
2024	10	149	197	126	191	1,187	94	1,954

[그림 3-89] 연도별 마약사범 60대 이상 단속 현황



- 매년 60세 이상의 마약사범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이 양귀비를 밀경작하다 적발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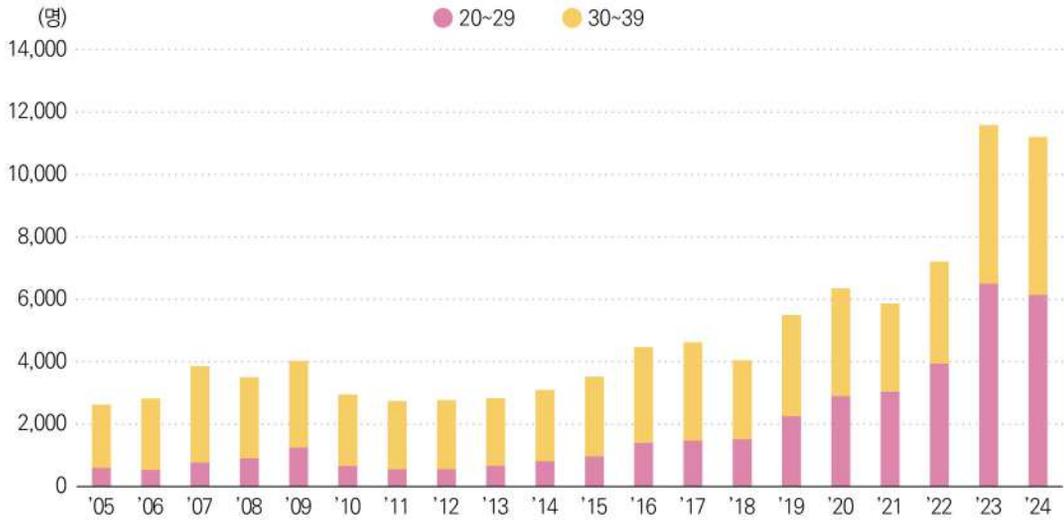
## 다. 연도별 향정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

[표 3-51] 연도별 향정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	연령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5		12	604	2,016	1,940	397	90	295	5,354
2006		24	534	2,287	2,315	552	89	205	6,006
2007		13	778	3,080	3,431	831	125	263	8,521
2008		16	913	2,591	2,847	747	101	242	7,457
2009		55	1,257	2,767	2,610	836	138	302	7,965
2010		16	666	2,283	2,555	886	126	239	6,771
2011		34	554	2,185	2,957	1,146	190	160	7,226
2012		26	570	2,201	3,152	1,377	170	135	7,631
2013		39	674	2,154	3,202	1,531	181	121	7,902
2014		48	819	2,279	3,196	1,480	183	116	8,121
2015		78	970	2,548	3,786	1,786	318	138	9,624
2016		91	1,401	3,060	4,094	2,228	373	149	11,396
2017		70	1,480	3,136	3,499	2,205	372	159	10,921
2018		105	1,522	2,522	2,979	1,924	389	172	9,613
2019		167	2,255	3,239	3,123	2,092	403	332	11,611
2020		196	2,896	3,449	3,204	1,996	562	337	12,640
2021		192	3,044	2,819	2,287	1,632	455	202	10,631
2022		332	3,945	3,259	2,285	1,569	463	182	12,035
2023		1,383	6,506	5,077	3,336	2,288	749	217	19,556
2024		564	6,140	5,065	3,059	1,957	779	187	17,751

[그림 3-90] 연도별 향정사범 20·30대 단속 현황



- 향정사범의 경우 매년 30대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2021년부터 20대 향정사범이 그 수치를 추월하였으며, 2023년 20대 향정사범이 6,506명으로 급증, 2024년 6,140명으로 여전히 6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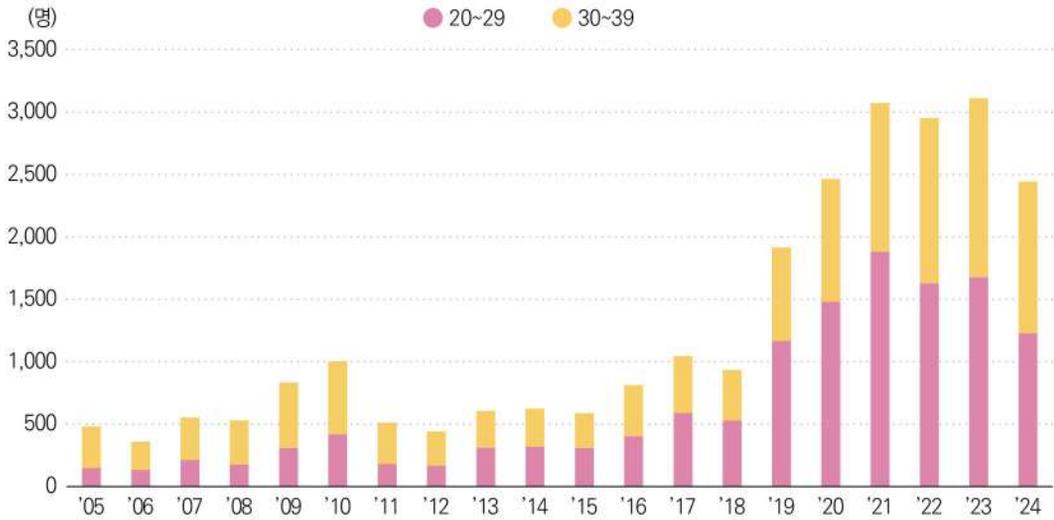
## 라. 연도별 대마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

[표 3-52] 연도별 대마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 \ 연령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5	18	150	332	311	88	64	69	1,032
2006	8	134	225	276	97	71	24	835
2007	6	215	339	372	143	48	47	1,170
2008	7	178	352	303	112	61	32	1,045
2009	25	310	525	444	217	148	43	1,712
2010	19	420	584	497	214	59	44	1,837
2011	7	182	330	353	208	70	39	1,189
2012	12	169	272	295	202	66	26	1,042
2013	17	313	294	271	184	68	30	1,177
2014	56	320	304	279	169	43	16	1,187
2015	50	311	277	236	173	63	29	1,139
2016	28	404	409	288	201	87	18	1,435
2017	49	590	455	308	161	129	35	1,727
2018	36	531	403	223	192	107	41	1,533
2019	69	1,167	748	257	225	97	66	2,629
2020	78	1,481	983	294	180	120	76	3,212
2021	62	1,883	1,189	305	184	105	49	3,777
2022	41	1,628	1,322	402	189	153	74	3,809
2023	84	1,678	1,433	432	210	165	83	4,085
2024	75	1,226	1,219	386	189	144	78	3,317

[그림 3-91] 연도별 대마사범 20·30대 단속 현황



- 2012년까지 30대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점차 20대 대마사범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그 수치를 추월하였음. 2019년 20대 대마사범이 최초로 1천명대 돌파하며 현재까지도 1천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9. 연도별 성별 단속 현황

### 가. 연도별 마약류 사범 성별 단속 현황

[표 3-53] 연도별 마약류 사범 성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5		442 (57.6)	326 (42.4)	4,800 (89.7)	554 (10.3)	959 (92.9)	73 (7.1)	6,201 (86.7)	953 (13.3)
2006		443 (51.0)	425 (49.0)	5,356 (89.2)	650 (10.8)	754 (90.3)	81 (9.7)	6,553 (85.0)	1,156 (15.0)
2007		444 (46.3)	514 (53.7)	7,578 (88.9)	943 (11.1)	1,040 (88.9)	130 (11.1)	9,062 (85.1)	1,587 (14.9)
2008		644 (46.1)	752 (53.9)	6,730 (90.3)	727 (9.7)	980 (93.8)	65 (6.2)	8,354 (84.4)	1,544 (15.6)
2009		923 (42.0)	1,275 (58.0)	6,626 (83.2)	1,339 (16.8)	1,536 (89.7)	176 (10.3)	9,085 (76.5)	2,790 (23.5)
2010		720 (64.1)	404 (35.9)	5,900 (87.1)	871 (12.9)	1,717 (93.5)	120 (6.5)	8,337 (85.7)	1,395 (14.3)
2011		388 (51.1)	371 (48.9)	6,294 (87.1)	932 (12.9)	1,102 (92.7)	87 (7.3)	7,784 (84.8)	1,390 (15.2)
2012		285 (49.0)	297 (51.0)	6,721 (88.1)	910 (11.9)	940 (90.2)	102 (9.8)	7,946 (85.9)	1,309 (14.1)
2013		350 (51.1)	335 (48.9)	6,951 (88.0)	951 (12.0)	1,056 (89.7)	121 (10.3)	8,357 (85.6)	1,407 (14.4)
2014		367 (54.3)	309 (45.7)	7,167 (88.3)	954 (11.7)	1,072 (90.3)	115 (9.7)	8,606 (86.2)	1,378 (13.8)
2015		541 (46.9)	612 (53.1)	8,086 (84.0)	1,538 (16.0)	1,017 (89.3)	122 (10.7)	9,644 (80.9)	2,272 (19.1)
2016		642 (46.4)	741 (53.6)	9,397 (82.5)	1,999 (17.5)	1,276 (88.9)	159 (11.1)	11,315 (79.6)	2,899 (20.4)
2017		714 (48.4)	761 (51.6)	8,895 (81.4)	2,026 (18.6)	1,493 (86.5)	234 (13.5)	11,102 (78.6)	3,021 (21.4)
2018		715 (48.7)	752 (51.3)	7,812 (81.3)	1,801 (18.7)	1,367 (89.2)	166 (10.8)	9,894 (78.4)	2,719 (21.6)
2019		926 (51.3)	878 (48.7)	9,258 (79.7)	2,353 (20.3)	2,283 (86.8)	346 (13.2)	12,467 (77.7)	3,577 (22.3)
2020		1,045 (47.5)	1,153 (52.5)	9,615 (76.1)	3,025 (23.9)	2,833 (88.2)	379 (11.8)	13,493 (74.8)	4,557 (25.2)

연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21		993 (56.9)	752 (43.1)	8,020 (75.4)	2,611 (24.6)	3,322 (88.0)	455 (12.0)	12,335 (76.4)	3,818 (23.6)
2022		1,323 (51.9)	1,228 (48.1)	8,890 (73.9)	3,145 (26.1)	3,216 (84.4)	593 (15.6)	13,429 (73.0)	4,966 (27.0)
2023		1,825 (46.0)	2,145 (54.0)	13,501 (69.0)	6,055 (31.0)	3,375 (82.6)	710 (17.4)	18,701 (67.7)	8,910 (32.3)
2024		978 (50.1)	976 (49.9)	12,776 (72.0)	4,975 (28.0)	2,805 (84.6)	512 (15.4)	16,559 (71.9)	6,463 (28.1)

[그림 3-92] 연도별 마약류 사범 성별 단속 현황



- 수년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남성의 비중이 감소하고, 여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13.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여성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였고, 2023년 32.3%로 최대치를 기록, 2024년 28.1%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향후 여성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위와 같은 현상은 과거 남성 중심의 대마·필로폰 사용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반면, 최근 여성 중심의 체중 감량을 위한 향정신성의약품<sup>41)</sup> 등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41) 펜터민 등 식욕억제 기능이 있는 디에타민 정(일명 '나비약'), 성형수술 등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일명 '우유주사') 등

## 10. 연도별 직업별 단속 현황

### 가.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표 3-54]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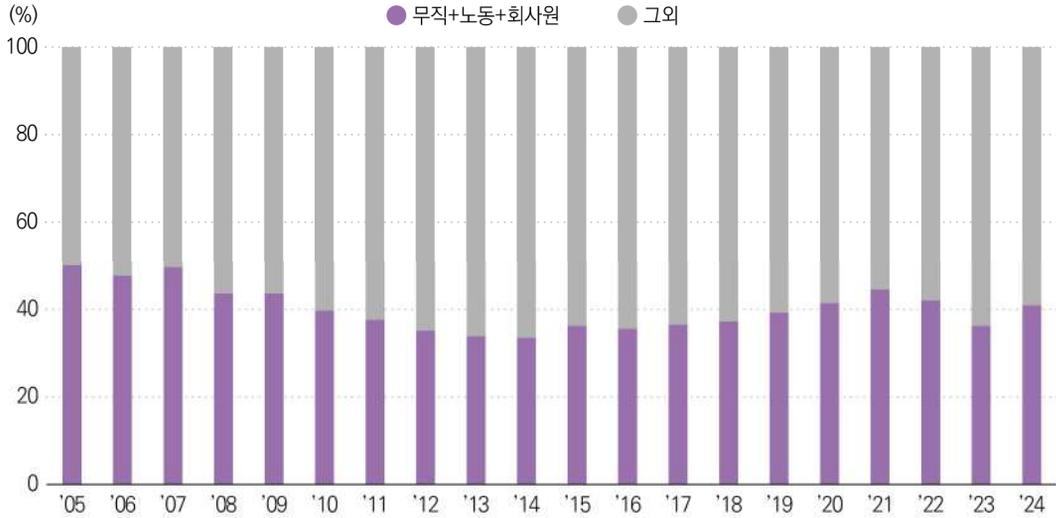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직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7,154 (100.0)	7,709 (100.0)	10,649 (100.0)	9,898 (100.0)	11,875 (100.0)	9,732 (100.0)	9,174 (100.0)	9,255 (100.0)	9,764 (100.0)	9,984 (100.0)
무직	2,534 (37.4)	2,860 (37.1)	3,979 (37.4)	3,124 (31.6)	3,551 (29.9)	2,992 (30.7)	2,978 (32.5)	2,885 (31.2)	2,693 (27.6)	2,626 (26.3)
농업	304 (4.2)	441 (5.7)	433 (4.1)	611 (6.2)	944 (7.9)	701 (7.2)	369 (4.0)	245 (2.6)	288 (2.9)	249 (2.5)
도소매업	383 (5.4)	346 (4.5)	422 (4.0)	367 (3.7)	330 (2.8)	237 (2.4)	170 (1.9)	150 (1.6)	77 (0.8)	90 (0.9)
유흥업	97 (1.4)	103 (1.3)	144 (1.4)	122 (1.2)	131 (1.1)	214 (2.2)	234 (2.6)	171 (1.8)	75 (0.8)	63 (0.6)
서비스업	343 (4.8)	334 (4.3)	430 (4.0)	370 (3.7)	355 (3.0)	221 (2.3)	269 (2.9)	198 (2.1)	127 (1.3)	134 (1.3)
금융/증권	14 (0.2)	24 (0.3)	27 (0.3)	16 (0.2)	35 (0.3)	12 (0.1)	4 (0.0)	6 (0.1)	17 (0.2)	6 (0.1)
부동산업	24 (0.3)	34 (0.4)	37 (0.3)	49 (0.5)	28 (0.2)	51 (0.5)	32 (0.3)	45 (0.5)	23 (0.2)	23 (0.2)
노동	416 (5.8)	287 (3.7)	447 (4.2)	423 (4.3)	468 (3.9)	429 (4.4)	347 (3.8)	287 (3.1)	270 (2.8)	293 (2.9)
회사원	495 (6.9)	525 (6.8)	850 (8.0)	765 (7.7)	1,160 (9.8)	437 (4.5)	115 (1.3)	78 (0.8)	335 (3.4)	427 (4.3)
공업	98 (1.4)	80 (1.0)	163 (1.5)	702 (7.1)	651 (5.5)	593 (6.1)	79 (0.9)	73 (0.8)	68 (0.7)	80 (0.8)
건설	96 (1.3)	110 (1.4)	123 (1.2)	107 (1.1)	111 (0.9)	93 (1.0)	101 (1.1)	75 (0.8)	52 (0.5)	60 (0.6)
의료	173 (2.4)	166 (2.2)	206 (1.9)	218 (2.2)	223 (1.9)	130 (1.3)	143 (1.6)	94 (1.0)	114 (1.2)	40 (0.4)
운송업	146 (2.0)	139 (1.8)	170 (1.6)	150 (1.5)	122 (1.0)	137 (1.4)	156 (1.7)	122 (1.3)	87 (0.9)	74 (0.7)
가사	44 (0.6)	87 (1.1)	80 (0.8)	124 (1.3)	185 (1.6)	92 (0.9)	117 (1.3)	99 (1.1)	106 (1.1)	95 (1.0)
예술/연예	18 (0.3)	20 (0.3)	24 (0.2)	18 (0.2)	43 (0.4)	42 (0.4)	33 (0.4)	19 (0.2)	17 (0.2)	23 (0.2)
어업	24 (0.3)	35 (0.5)	43 (0.4)	43 (0.4)	74 (0.6)	63 (0.6)	41 (0.4)	28 (0.3)	40 (0.4)	37 (0.4)
학생	52 (0.7)	57 (0.7)	65 (0.6)	43 (0.4)	203 (1.7)	113 (1.2)	92 (1.0)	48 (0.5)	83 (0.9)	104 (1.1)
교원(교수)	-	-	-	-	-	-	-	-	-	-
직업미상	843 (11.8)	904 (11.7)	1,391 (13.1)	1,185 (12.0)	1,399 (11.8)	1,238 (12.7)	779 (8.5)	711 (7.7)	1,025 (10.5)	1,109 (11.1)
기타	1,050 (14.7)	1,157 (15.0)	1,615 (15.2)	1,461 (14.8)	1,862 (15.7)	1,937 (19.9)	3,115 (34.0)	3,921 (42.4)	4,267 (43.7)	4,451 (44.6)

연도 직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1,916 (100.0)	14,214 (100.0)	14,123 (100.0)	12,613 (100.0)	16,044 (100.0)	18,050 (100.0)	16,153 (100.0)	18,395 (100.0)	27,611 (100.0)	23,022 (100.0)
무직	3,442 (28.9)	4,105 (28.9)	4,073 (28.8)	3,753 (29.8)	4,972 (31.0)	5,826 (32.3)	5,492 (34.0)	5,792 (31.5)	7,421 (26.9)	7,127 (31.0)
농업	478 (4.0)	476 (3.3)	487 (3.5)	426 (3.4)	406 (2.5)	553 (3.1)	287 (1.8)	461 (2.5)	567 (2.1)	314 (1.4)
도소매업	99 (0.8)	110 (0.8)	96 (0.7)	63 (0.5)	93 (0.6)	56 (0.3)	83 (0.5)	80 (0.4)	75 (0.3)	56 (0.2)
유흥업	62 (0.5)	81 (0.6)	131 (0.9)	104 (0.8)	151 (0.9)	126 (0.7)	94 (0.6)	202 (1.1)	359 (1.3)	357 (1.6)
서비스업	150 (1.3)	159 (1.1)	184 (1.3)	175 (1.4)	225 (1.4)	231 (1.3)	238 (1.5)	245 (1.3)	383 (1.4)	420 (1.8)
금융/증권	18 (0.2)	18 (0.1)	15 (0.1)	21 (0.2)	13 (0.1)	34 (0.2)	20 (0.1)	23 (0.1)	40 (0.1)	41 (0.2)
부동산업	35 (0.3)	38 (0.3)	37 (0.3)	32 (0.3)	19 (0.1)	25 (0.1)	38 (0.2)	46 (0.3)	41 (0.1)	33 (0.1)
노동	359 (3.0)	446 (3.1)	534 (3.8)	407 (3.2)	588 (3.7)	691 (3.8)	693 (4.3)	790 (4.3)	1,060 (3.8)	1,037 (4.5)
회사원	514 (4.3)	492 (3.5)	522 (3.7)	534 (4.2)	723 (4.5)	962 (5.3)	1,010 (6.3)	1,137 (6.2)	1,528 (5.5)	1,254 (5.4)
공업	88 (0.7)	142 (1.0)	233 (1.7)	126 (1.0)	206 (1.3)	278 (1.5)	246 (1.5)	174 (0.9)	335 (1.2)	173 (0.8)
건설	68 (0.6)	72 (0.5)	118 (0.8)	80 (0.6)	130 (0.8)	127 (0.7)	76 (0.5)	62 (0.3)	96 (0.3)	54 (0.2)
의료	51 (0.4)	86 (0.6)	42 (0.3)	98 (0.8)	130 (0.8)	222 (1.2)	156 (1.0)	165 (0.9)	313 (1.1)	403 (1.8)
운송업	86 (0.7)	98 (0.7)	116 (0.8)	98 (0.8)	109 (0.7)	88 (0.5)	75 (0.5)	84 (0.5)	159 (0.6)	94 (0.4)
가사	138 (1.2)	153 (1.1)	152 (1.1)	168 (1.3)	180 (1.1)	270 (1.5)	195 (1.2)	187 (1.0)	269 (1.0)	178 (0.8)
예술/연예	18 (0.2)	32 (0.2)	46 (0.3)	43 (0.3)	49 (0.3)	62 (0.3)	72 (0.4)	66 (0.4)	97 (0.4)	72 (0.3)
어업	38 (0.3)	39 (0.3)	45 (0.3)	29 (0.2)	38 (0.2)	34 (0.2)	50 (0.3)	28 (0.2)	46 (0.2)	36 (0.2)
학생	139 (1.1)	80 (0.6)	105 (0.7)	123 (1.0)	241 (1.5)	368 (2.0)	494 (3.1)	543 (3.0)	1,347 (4.9)	697 (0.1)
교원(교수)	-	-	-	-	-	-	-	13 (0.1)	67 (0.2)	24 (3.0)
직업미상	1,165 (9.8)	1,241 (8.7)	1,190 (8.4)	1,382 (11.0)	1,695 (10.6)	1,805 (10.0)	1,487 (9.2)	1,854 (10.1)	2,347 (8.5)	1,828 (7.9)
기타	4,968 (41.7)	6,346 (44.6)	5,997 (42.5)	4,951 (39.3)	6,076 (37.9)	6,292 (34.9)	5,347 (33.1)	6,443 (35.0)	11,061 (40.1)	8,824 (38.3)

※ 2022년도부터 '교원(교수)' 항목 추가

[그림 3-93]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주요 직업 단속 현황



- 전체 마약류 사범의 경우, 매년 무직·회사원·노동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05년 농업(4.2%)·도소매업(5.4%)·서비스업(4.8%)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고르게 분포하는 편이었으나, 2024년 현재 농업(1.4%), 도소매업(0.2%), 서비스업(1.8%) 비중이 줄어들고 무직(31.0%)·회사원(5.4%) 등 일부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음

## 나. 연도별 마약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표 3-55] 연도별 마약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 직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768	868	958	1,396	2,198	1,124	759	582	685	676
무직	210	256	336	401	764	238	174	183	191	154
농업	212	320	310	497	780	593	243	154	200	168
도소매업	15	19	14	32	19	3	6	4	5	2
유흥업	0	1	2	1	5	0	4	1	2	2
서비스업	21	7	30	48	44	20	24	20	5	6
금융/증권	0	0	2	2	1	1	0	0	1	0
부동산업	0	0	2	5	2	0	1	2	2	0
노동	44	11	25	21	51	18	19	18	11	5
회사원	29	37	33	64	70	17	3	2	15	8
공업	17	3	10	7	15	3	6	2	2	2
건설	1	2	2	3	9	2	1	1	1	2
의료	58	46	33	56	61	44	28	17	12	7
운송업	5	7	9	17	24	8	4	5	2	1
가사	23	52	45	82	139	44	51	45	32	43
예술/연예	0	0	0	1	1	0	0	0	0	0
어업	5	7	11	8	11	8	8	2	6	4
학생	2	4	0	0	1	1	0	0	0	6
교원(교수)	-	-	-	-	-	-	-	-	-	-
직업미상	32	20	26	50	69	23	16	4	25	39
기타	94	76	68	101	132	101	171	122	173	227

연도 직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153	1,383	1,475	1,467	1,804	2,198	1,745	2,551	3,970	1,954
무직	358	423	460	438	595	788	648	922	1,517	680
농업	391	384	406	351	336	465	244	397	506	248
도소매업	1	5	3	2	8	4	4	9	5	8
유흥업	1	1	1	0	10	0	2	3	2	0
서비스업	7	7	27	17	12	18	13	17	37	45
금융/증권	0	1	0	0	0	0	0	1	3	3
부동산업	0	2	1	2	1	0	5	3	2	1
노동	21	18	27	27	21	24	26	38	45	52
회사원	23	27	34	36	46	28	51	64	94	58
공업	2	2	4	3	6	1	6	5	2	3
건설	2	1	10	2	4	11	6	9	12	4
의료	6	30	12	22	32	22	22	26	43	44
운송업	6	4	9	10	6	8	14	17	32	10
가사	47	61	60	63	71	111	60	104	163	72
예술/연예	0	0	0	2	4	0	11	6	6	2
어업	7	4	3	3	2	12	8	3	4	9
학생	0	3	2	1	4	35	117	58	20	20
교원(교수)	-	-	-	-	-	-	-	0	38	2
직업미상	62	50	63	61	153	124	61	157	239	113
기타	219	360	353	427	493	547	447	712	1,200	580

[그림 3-94] 연도별 마약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 마약사범은 주로 양귀비 재배 사범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2015년 이전에는 농업에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 '무직'이 '농업'의 수치를 넘어섰으며, 점차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다. 연도별 향정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표 3-56] 연도별 향정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 직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5,354	6,006	8,521	7,457	7,965	6,771	7,226	7,631	7,902	8,121
무직	2,043	2,400	3,372	2,494	2,462	2,379	2,562	2,493	2,293	2,248
농업	40	61	60	45	49	54	65	43	41	42
도소매업	320	296	377	302	260	186	143	122	70	78
유흥업	82	86	128	112	112	175	193	161	64	53
서비스업	278	284	355	265	249	154	199	148	100	106
금융/증권	13	20	23	12	33	11	4	6	14	6
부동산업	21	30	28	40	21	38	20	41	21	19
노동	278	215	344	316	309	284	261	216	223	252
회사원	368	409	653	596	897	291	97	68	253	344
공업	51	66	131	601	441	341	42	49	58	51
건설	85	98	109	87	85	73	78	62	48	52
의료	112	120	172	158	160	86	115	76	101	33
운송업	104	103	129	108	72	98	112	91	68	58
가사	20	30	27	40	34	43	56	51	73	46
예술/연예	5	7	8	11	21	4	7	9	8	10
어업	13	20	26	24	20	22	26	19	26	25
학생	29	33	35	30	149	66	61	28	44	53
교원(교수)	-	-	-	-	-	-	-	-	-	-
직업미상	688	815	1,188	1,032	1,156	1,071	660	640	883	961
기타	804	913	1,356	1,184	1,435	1,395	2,525	3,308	3,514	3,684

연도 직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9,624	11,396	10,921	9,613	11,611	12,640	10,631	12,035	19,556	17,751
무직	2,836	3,400	3,245	2,996	3,744	4,268	3,981	4,038	5,133	5,708
농업	59	49	39	37	41	61	30	33	30	36
도소매업	87	100	86	51	73	41	61	55	58	38
유흥업	57	72	119	94	108	108	85	187	320	321
서비스업	124	127	128	143	157	162	152	156	256	297
금융/증권	13	17	15	17	8	25	9	11	25	28
부동산업	32	33	27	25	15	22	25	20	31	27
노동	302	386	460	335	487	543	552	643	866	748
회사원	399	395	393	403	512	667	500	616	1,007	896
공업	68	120	209	99	180	247	214	144	287	143
건설	57	62	93	70	113	103	55	40	65	42
의료	45	55	30	76	96	196	130	127	262	357
운송업	71	81	103	77	91	71	49	57	114	74
가사	91	88	81	100	100	143	113	68	84	101
예술/연예	10	7	14	16	19	13	7	15	45	43
어업	29	32	40	23	35	16	34	23	34	21
학생	77	50	66	73	140	191	203	341	1,181	570
교원(교수)	-	-	-	-	-	-	-	9	19	13
직업미상	988	1,075	932	1,140	1,300	1,376	1,024	1,218	1,629	1,406
기타	4,279	5,247	4,841	3,838	4,392	4,387	3,407	4,234	8,110	6,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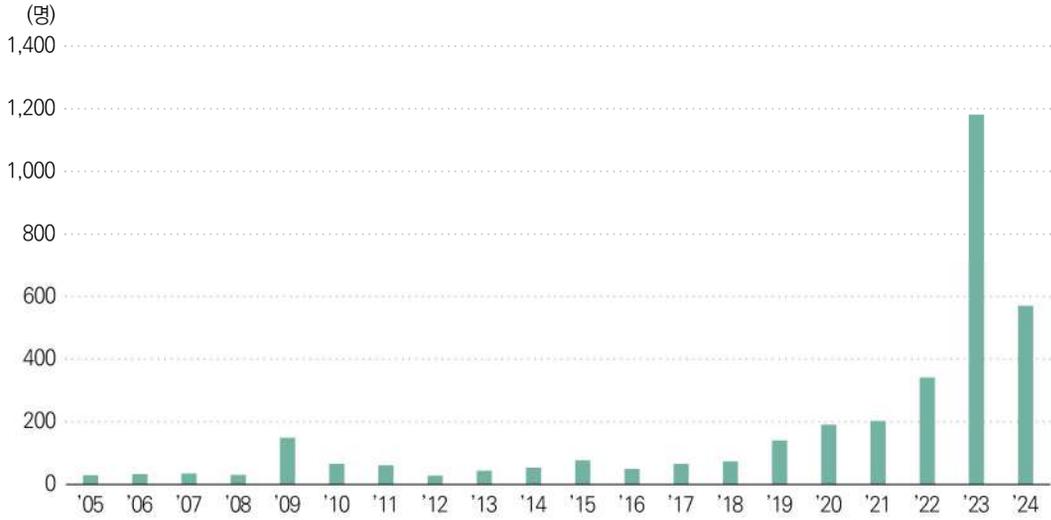
제1장 미역류의 개요

제2장 미역류 범죄 단속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그림 3-95] 연도별 행정사범 ‘학생’ 단속 현황



- 행정사범 중 ‘학생’은 2005년 29명으로 전체의 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긴 이후 급증하면서 2023년에는 1,181명(비중 6.0%)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함. 2024년에는 570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면서 감소함

## 라. 연도별 대마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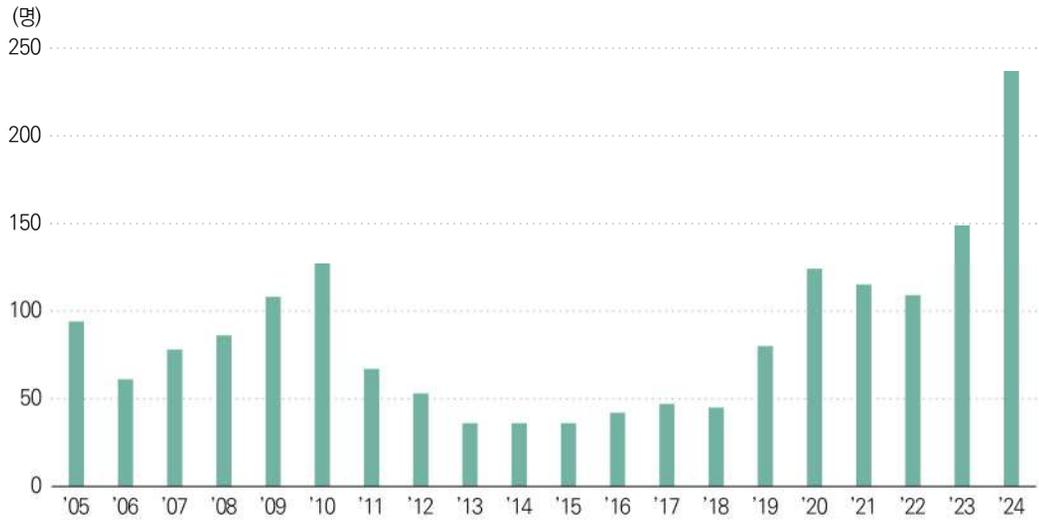
[표 3-57] 연도별 대마사범 직업별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 직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032	835	1,170	1,045	1,712	1,837	1,189	1,042	1,177	1,187
무직	281	204	271	229	325	375	242	209	209	224
농업	52	60	63	69	115	54	61	48	47	39
도소매업	48	31	31	33	51	48	21	24	2	10
유흥업	15	16	14	9	14	39	37	9	9	8
서비스업	44	43	45	57	62	47	46	30	22	22
금융/증권	1	4	2	2	1	0	0	0	2	0
부동산업	3	4	7	4	5	13	11	2	0	4
노동	94	61	78	86	108	127	67	53	36	36
회사원	98	79	164	105	193	129	15	8	67	75
공업	30	11	22	94	195	249	31	22	8	27
건설	10	10	12	17	17	18	22	12	3	6
의료	3	0	1	4	2	0	0	1	1	0
운송업	37	29	32	25	26	31	40	26	17	15
가사	1	5	8	2	12	5	10	3	1	6
예술/연예	13	13	16	6	21	38	26	10	9	13
어업	6	8	6	11	43	33	7	7	8	8
학생	21	20	30	13	53	46	31	20	39	45
교원(교수)	-	-	-	-	-	-	-	-	-	-
직업미상	123	69	177	103	174	144	103	67	117	109
기타	152	168	191	176	295	441	419	491	580	540

연도 직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139	1,435	1,727	1,533	2,629	3,212	3,777	3,809	4,085	3,317
무직	248	282	368	319	633	770	863	832	771	739
농업	28	43	42	38	29	27	13	31	31	30
도소매업	11	5	7	10	12	11	18	16	12	10
유흥업	4	8	11	10	33	18	7	12	37	36
서비스업	19	25	29	15	56	51	73	72	90	78
금융/증권	5	0	0	4	5	9	11	11	12	10
부동산업	3	3	9	5	3	3	8	23	8	5
노동	36	42	47	45	80	124	115	109	149	237
회사원	92	70	95	95	165	267	459	457	427	300
공업	18	20	20	24	20	30	26	25	46	27
건설	9	9	15	8	13	13	15	13	19	8
의료	0	1	0	0	2	4	4	12	8	2
운송업	9	13	4	11	12	9	12	10	13	10
가사	0	4	11	5	9	16	22	15	22	5
예술/연예	8	25	32	25	26	49	54	45	46	27
어업	2	3	2	3	1	6	8	2	8	6
학생	62	27	37	49	97	142	174	144	146	107
교원(교수)	-	-	-	-	-	-	-	4	10	9
직업미상	115	116	195	181	242	305	402	479	479	309
기타	470	739	803	686	1,191	1,358	1,493	1,497	1,751	1,362

[그림 3-96] 연도별 대마사범 '노동' 단속 현황



- 2024년 대마사범은 전년 대비 18.8% 감소하였으나, '노동'은 237명으로 전년(149명) 대비 59.1% 증가하였으며, '학생'은 107명으로 전년(146명) 대비 26.7%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100명대를 상회함

## 11. 연도별 지역별 단속 현황

### 가.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표 3-58]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지역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7,154 (100.0)	7,709 (100.0)	10,649 (100.0)	9,898 (100.0)	11,875 (100.0)	9,732 (100.0)	9,174 (100.0)
서울	1,230 (17.2)	1,511 (19.6)	1,886 (17.7)	1,663 (16.8)	2,482 (20.9)	1,964 (20.2)	1,879 (20.5)
인천·경기	1,763 (24.6)	1,914 (24.8)	2,672 (25.1)	2,754 (27.8)	3,485 (29.3)	3,074 (31.6)	2,478 (27.0)
부산	1,185 (16.6)	1,256 (16.3)	1,887 (17.7)	1,666 (16.8)	1,405 (11.8)	1,162 (11.9)	1,176 (12.8)
울산·경남	663 (9.3)	760 (9.9)	1,158 (10.9)	1,064 (10.7)	982 (8.3)	912 (9.4)	963 (10.5)
대구·경북	757 (10.6)	811 (10.5)	1,086 (10.2)	923 (9.3)	1,180 (9.9)	769 (7.9)	784 (8.5)
대전·충남	409 (5.7)	415 (5.4)	570 (5.4)	604 (6.1)	687 (5.8)	601 (6.2)	452 (4.9)
강원	223 (3.1)	231 (3.0)	257 (2.4)	208 (2.1)	264 (2.2)	262 (2.7)	324 (3.5)
전북	69 (1.0)	85 (1.1)	128 (1.2)	105 (1.1)	143 (1.2)	91 (0.9)	97 (1.1)
광주·전남	151 (2.1)	164 (2.1)	240 (2.3)	285 (2.9)	384 (3.2)	181 (1.9)	226 (2.5)
충북	125 (1.7)	165 (2.1)	194 (1.8)	156 (1.6)	301 (2.5)	152 (1.6)	200 (2.2)
제주	23 (0.3)	21 (0.3)	34 (0.3)	27 (0.3)	23 (0.2)	19 (0.2)	46 (0.5)
외국	20 (0.3)	16 (0.2)	34 (0.3)	27 (0.3)	64 (0.5)	32 (0.3)	33 (0.4)
불상	536 (7.5)	360 (4.7)	503 (4.7)	416 (4.2)	475 (4.0)	513 (5.3)	516 (5.6)

지역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9,255 (100.0)	9,764 (100.0)	9,984 (100.0)	11,916 (100.0)	14,214 (100.0)	14,123 (100.0)	12,613 (100.0)
서울	1,777 (19.2)	1,837 (18.8)	2,123 (21.2)	2,319 (19.4)	2,792 (19.7)	2,789 (19.8)	2,677 (21.2)
인천·경기	2,684 (29.0)	2,731 (28.0)	2,683 (26.9)	3,584 (30.0)	4,010 (28.2)	4,045 (28.6)	3,530 (28.0)
부산	1,254 (13.5)	1,159 (11.9)	1,099 (11.0)	1,127 (9.5)	1,308 (9.2)	1,380 (9.8)	1,125 (8.9)
울산·경남	1,001 (10.8)	1,098 (11.2)	937 (9.4)	937 (7.9)	1,171 (8.2)	1,308 (9.3)	1,001 (7.9)
대구·경북	803 (8.7)	909 (9.3)	873 (8.7)	967 (8.1)	1,102 (7.8)	1,133 (8.0)	977 (7.7)
대전·충남	386 (4.2)	373 (3.8)	501 (5.0)	584 (4.9)	843 (5.9)	792 (5.6)	751 (6.0)
강원	197 (2.1)	243 (2.5)	345 (3.5)	464 (3.9)	468 (3.3)	384 (2.7)	363 (2.9)
전북	105 (1.1)	167 (1.7)	115 (1.2)	105 (0.9)	167 (1.2)	150 (1.1)	140 (1.1)
광주·전남	202 (2.2)	270 (2.8)	242 (2.4)	365 (3.1)	460 (3.2)	381 (2.7)	391 (3.1)
충북	187 (2.0)	140 (1.4)	169 (1.7)	236 (2.0)	390 (2.7)	371 (2.6)	362 (2.9)
제주	45 (0.5)	40 (0.4)	37 (0.4)	72 (0.6)	66 (0.5)	81 (0.6)	56 (0.4)
외국	23 (0.2)	45 (0.5)	18 (0.2)	31 (0.3)	31 (0.2)	20 (0.1)	53 (0.4)
불상	591 (6.4)	752 (7.7)	842 (8.4)	1,125 (9.4)	1,406 (9.9)	1,289 (9.1)	1,187 (9.4)

제1장 미역류의 개요

제2장 미역류 범죄 단속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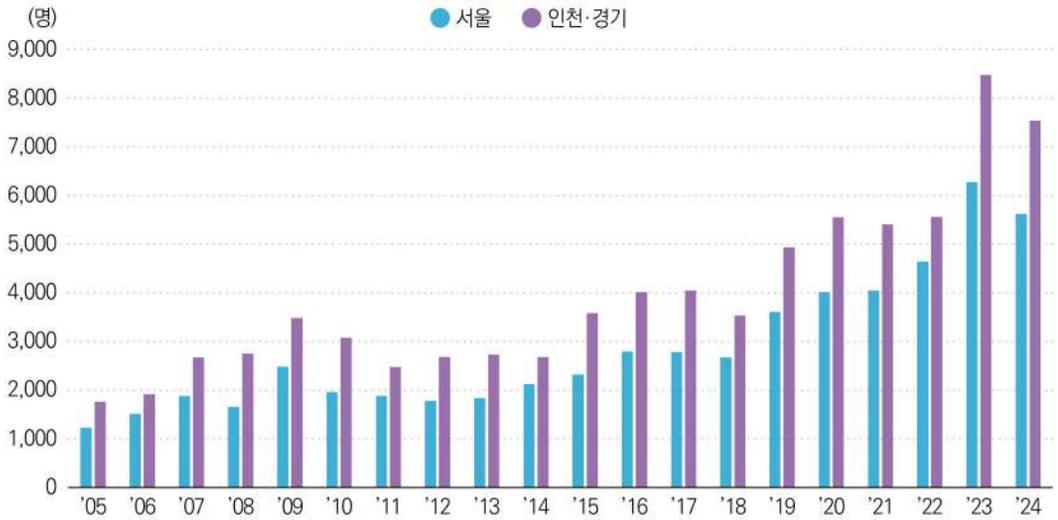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연도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6,044 (100.0)	18,050 (100.0)	16,153 (100.0)	18,395 (100.0)	27,611 (100.0)	23,022 (100.0)
서울	3,607 (22.5)	4,015 (22.2)	4,044 (25.0)	4,640 (25.2)	6,271 (22.7)	5,623 (24.4)
경기	3,607 (22.5)	4,226 (23.4)	4,345 (26.9)	4,454 (24.2)	6,678 (24.2)	5,871 (25.5)
인천	1,324 (8.3)	1,329 (7.4)	1,062 (6.6)	1,105 (6.0)	1,791 (6.5)	1,666 (7.2)
부산	935 (5.8)	1,191 (6.6)	880 (5.4)	1,159 (6.3)	1,960 (7.1)	1,427 (6.2)
울산	199 (1.2)	183 (1.0)	169 (1.0)	193 (1.0)	400 (1.4)	290 (1.3)
경남	957 (6.0)	1,095 (6.1)	819 (5.1)	1,022 (5.6)	1,460 (5.3)	1,023 (4.4)
대구	575 (3.6)	551 (3.1)	425 (2.6)	521 (2.8)	1,118 (4.0)	880 (3.8)
경북	618 (3.9)	769 (4.3)	590 (3.7)	758 (4.1)	1,137 (4.1)	836 (3.6)
대전	265 (1.7)	284 (1.6)	255 (1.6)	256 (1.4)	451 (1.6)	311 (1.4)
충남	658 (4.1)	828 (4.6)	677 (4.2)	786 (4.3)	1,068 (3.9)	987 (4.3)
강원	538 (3.4)	465 (2.6)	351 (2.2)	559 (3.0)	999 (3.6)	600 (2.6)
전북	226 (1.4)	274 (1.5)	204 (1.3)	274 (1.5)	413 (1.5)	336 (1.5)
광주	215 (1.3)	349 (1.9)	390 (2.4)	372 (2.0)	843 (3.1)	597 (2.6)
전남	253 (1.6)	402 (2.2)	325 (2.0)	406 (2.2)	662 (2.4)	448 (1.9)
충북	419 (2.6)	455 (2.5)	370 (2.3)	526 (2.9)	683 (2.5)	666 (2.9)
제주	89 (0.6)	93 (0.5)	75 (0.5)	113 (0.6)	198 (0.7)	136 (0.6)
외국	61 (0.4)	107 (0.6)	16 (0.1)	25 (0.1)	37 (0.1)	76 (0.3)
불상	1,498 (9.3)	1,434 (7.9)	1,156 (7.2)	1,226 (6.7)	1,442 (5.2)	1,249 (5.4)

※ 2019년 통계부터 지역 세분화

[그림 3-97] 연도별 마약류 사범 지역별 현황



제1장 마약류의 개요

제2장 마약류 범죄 및 단속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 나. 연도별 마약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표 3-59] 연도별 마약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지역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768	868	958	1,396	2,198	1,124	759
서울	103	86	80	121	297	62	81
인천·경기	271	375	346	565	828	435	210
부산	19	17	37	39	53	22	28
울산·경남	53	60	100	180	212	124	97
대구·경북	49	52	73	84	179	72	77
대전·충남	113	97	101	173	258	224	42
강원	19	7	13	15	43	14	24
전북	12	24	52	30	40	17	7
광주·전남	87	76	100	106	172	84	108
충북	22	46	40	64	88	51	61
제주	1	5	2	1	1	1	1
외국	5	4	1	4	10	3	0
불상	14	19	13	14	17	15	23
지역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582	685	676	1,153	1,383	1,475	1,467
서울	55	52	63	52	83	98	97
인천·경기	194	224	117	352	243	279	352
부산	32	32	34	35	45	42	41
울산·경남	55	85	53	65	139	174	148
대구·경북	55	80	88	111	153	195	181
대전·충남	21	18	44	32	172	197	136
강원	26	23	90	245	138	141	180
전북	11	17	17	14	19	30	15
광주·전남	82	98	96	127	151	112	110
충북	40	15	45	73	196	158	139
제주	2	3	1	1	2	5	1
외국	0	5	1	3	8	0	7
불상	9	33	27	43	34	44	60

지역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804	2,198	1,745	2,551	3,970	1,954
서울	161	121	128	233	289	182
경기	376	469	337	490	780	474
인천	32	30	31	40	91	48
부산	40	62	33	114	349	48
울산	6	8	12	17	38	22
경남	151	271	294	220	319	150
대구	19	39	44	41	88	56
경북	172	254	194	290	405	218
대전	12	7	30	42	43	20
충남	124	217	161	184	189	139
강원	230	212	117	193	538	117
전북	25	39	21	45	71	62
광주	16	13	16	24	148	40
전남	122	160	99	179	210	107
충북	172	215	137	218	237	167
제주	0	2	9	14	9	13
외국	2	0	5	2	4	10
불상	144	79	77	205	162	81

※ 2019년부터 지역 세분화

[그림 3-98] 연도별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 매년 경기도의 마약사범 점유율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이 상위권을 차지함
  - 마약사범에는 양귀비 재배 사범이 주를 이루고 있어 수도권보다는 도심 외곽 지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위와 같은 지역별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 다. 연도별 행정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표 3-60] 연도별 행정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지역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5,354	6,006	8,521	7,457	7,965	6,771
서울		882	1,223	1,578	1,384	1,785	1,479	1,516
인천·경기		1,144	1,262	1,898	1,858	2,006	1,803	1,917
부산		1,124	1,217	1,808	1,557	1,253	1,058	1,102
울산·경남		547	660	1,001	790	686	730	816
대구·경북		658	722	965	754	852	618	666
대전·충남		227	230	296	264	331	293	274
강원		137	146	192	154	161	111	163
전북		40	55	67	69	88	59	86
광주·전남		62	82	109	159	190	85	104
충북		73	81	126	69	148	58	90
제주		21	15	30	22	22	12	43
외국		11	10	22	17	42	24	28
불상		428	303	429	360	401	441	421

지역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7,631	7,902	8,121	9,624	11,396	10,921
서울		1,460	1,428	1,724	1,894	2,239	2,109	2,131
인천·경기		2,096	2,093	2,161	2,878	3,343	3,215	2,703
부산		1,174	1,077	1,010	1,057	1,216	1,217	973
울산·경남		899	968	806	818	976	1,072	778
대구·경북		696	764	728	793	859	853	706
대전·충남		284	292	364	478	569	517	522
강원		135	169	206	172	250	180	136
전북		91	144	89	85	134	106	111
광주·전남		109	145	136	212	276	250	250
충북		96	96	104	147	168	189	197
제주		40	37	34	66	58	67	46
외국		18	26	13	25	21	12	39
불상		533	663	746	999	1,287	1,134	1,021

지역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1,611	12,640	10,631	12,035	19,556	17,751
서울	2,401	2,746	2,466	2,957	4,519	4,342
경기	2,602	2,886	2,861	3,012	4,912	4,552
인천	1,123	1,151	816	849	1,491	1,424
부산	839	980	716	866	1,392	1,211
울산	167	138	130	139	322	236
경남	726	711	424	653	981	785
대구	481	453	312	388	946	767
경북	389	445	342	381	606	523
대전	240	247	180	175	329	243
충남	447	475	398	467	758	693
강원	236	210	175	285	373	408
전북	177	206	155	171	312	237
광주	164	257	261	275	569	486
전남	118	209	194	203	382	303
충북	205	209	181	246	370	387
제주	68	70	36	75	153	100
외국	43	45	7	11	19	40
불상	1,185	1,202	977	882	1,122	1,014

※ 2019년부터 지역 세분화

[그림 3-99] 연도별 행정사범 지역별 현황



- 향정사범은 주로 인구가 많고 도심지역 위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클럽에서 사용하는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와 GHB(일명 ‘물병’) 등에 대한 사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라. 연도별 대마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표 3-61] 연도별 대마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지역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032	835	1,170	1,045	1,712	1,837	1,189
서울	245	202	228	158	400	423	282
인천·경기	348	277	428	331	651	836	351
부산	42	22	42	70	99	82	46
울산·경남	63	40	57	94	84	58	50
대구·경북	50	37	48	85	149	79	41
대전·충남	69	88	173	167	98	84	136
강원	67	78	52	39	60	137	137
전북	17	6	9	6	15	15	4
광주·전남	2	6	31	20	22	12	14
충북	30	38	28	23	65	43	49
제주	1	1	2	4	0	6	2
외국	4	2	11	6	12	5	5
불상	94	38	61	42	57	57	72
지역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042	1,177	1,187	1,139	1,435	1,727	1,533
서울	262	357	336	373	470	582	449
인천·경기	394	414	405	354	424	551	475
부산	48	50	55	35	47	121	111
울산·경남	47	45	78	54	56	62	75
대구·경북	52	65	57	63	90	85	90
대전·충남	81	63	93	74	102	78	93
강원	36	51	49	47	80	63	47
전북	3	6	9	6	14	14	14
광주·전남	11	27	10	26	33	19	31
충북	51	29	20	16	26	24	26
제주	3	0	2	5	6	9	9
외국	5	14	4	3	2	8	7
불상	49	56	69	83	85	111	106

지역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629	3,212	3,777	3,809	4,085	3,317
서울	1,045	1,148	1,450	1,450	1,463	1,099
경기	629	871	1,147	952	986	845
인천	169	148	215	216	209	194
부산	56	149	131	179	219	168
울산	26	37	27	37	40	32
경남	80	113	101	149	160	88
대구	75	59	69	92	84	57
경북	57	70	54	87	126	95
대전	13	30	45	39	79	48
충남	87	136	118	135	121	155
강원	72	43	59	81	88	75
전북	24	29	28	58	30	37
광주	35	79	113	73	126	71
전남	13	33	32	24	70	38
충북	42	31	52	62	76	112
제주	21	21	30	24	36	23
외국	16	62	4	12	14	26
불상	169	153	102	139	158	154

※ 2019년부터 지역 세분화

[그림 3-100] 연도별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 12. 연도별 마약류 범죄수의 환수 현황

[표 3-62] 연도별 마약류 범죄수의 환수 현황

구분 연도	범죄수의 보전 건수		범죄수의 보전 결정액	
	전체범죄(건)	마약류 범죄(건)	전체범죄(원)	마약류 범죄(원)
2010	736	33	2,119억 2,827만 2,657	1억 7,902만 6,000
2011	1,300	105	2,243억 1,098만 1,478	5억 2,455만 3,367
2012	1,131	104	6,483억 8,179만 3,293	5억 2,057만 474
2013	1,308	93	7,398억 4,631만 2,856	5억 6,487만 7,344
2014	2,194	112	1조4,035억	7억 7,972만
2015	2,508	142	5,561억	9억 8,796만
2016	2,278	119	5,397억	6억 748만
2017	1,992	100	5,491억	16억 9,640만
2018	2,425	138	2조 4,390억	76억 1,261만
2019	2,875	218	1조 1,357억	89억 4,076만
2020	2,506	115	2조 9,438억	87억 6,516만
2021	2,524	150	5조 9,748억	47억 404만
2022	2,573	139	3조 4,484억	59억 7,995만
2023	3,364	228	7조 3,639억	63억 1,326만
2024	4,462	237	8조 9,879억	118억 643만

※ 자료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 마약류 몰수·추징 대상인 ‘불법수익’ 등이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 ① 마약류 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1조 제1항 제1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 ②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 ③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을 말함

- 2024년 마약류 몰수·추징보전 결정액은 118억 643만 원으로 전년(63억 1,326만 원) 대비 87.0% 증가

- 마약류 범죄 관련 주요 추징 보전 사례

### ① 2018년

- 대만 마약 조직 및 일본 야쿠자와 국내 유통조직이 관여된 필로폰 밀수 사건에서 20억여 원 보전 조치(서울중앙지검)
- 다크웹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판매상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휴대전화를 분석, 판매 내역 확인하여 범죄수익 합계 1억여 원 보전 조치(서울중앙지검)
- 필로폰 대량 밀매 사범이 사용한 가상계좌와 이에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여 50억여 원 보전 조치(수원지검)

### ② 2019년

-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 '이나가와카이'와 대만 폭력조직 '죽련방' 및 국내 조직이 합작하여 필로폰 약 22kg을 밀수하여 판매한 사건에서 7억여 원 보전 조치(서울중앙지검)
-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 게시하고, SNS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총 49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범죄수익 3억 2천여만 원 보전 조치(수원지검)
-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MDMA 등을 밀수입하여, 인터넷 및 SNS '위챗' 등에 광고하여 총 1,981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범죄수익 15억 9천여만 원 보전 조치(수원지검)

### ③ 2020년

- 베트남에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총 9.92kg(7.92kg, 2kg)을 밀수입한 사건에서 5억 2천만 원 보전 조치(부산지검)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총 44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총 359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범죄수익 4억 4천만 원 상당 보전 조치(수원지검)
-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총 711회에 걸쳐 대마 5.5kg을 판매한 범죄수익 3억 4천만 원 상당 보전 조치(서울중앙지검)

## ④ 2021년

-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이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한 범죄수익 6억 1천만 원 상당 보전 조치(대구지검)

## ⑤ 2022년

-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5kg을 밀수입하고, 해당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구입한 3억 원 상당 가상화폐 보전 조치(청주지검)
- 서울 모처에 대마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다크웹 및 SNS를 통해 판매한 범죄수익 3억 1천만 원 상당 보전 조치 및 추징 선고(수원지검)
- 대마 재배 및 판매조직을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범죄수익 2억 3천 만 원 상당 보전 조치 및 추징 선고(서울중앙지검)
-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조직에서 중간총책을 담당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범죄수익 2억 원 상당에 대하여 보전 조치 및 추징 선고(서울남부지검)

## ⑥ 2023년

-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면서 대마, LSD 등을 판매하고, 다른 마약류 판매상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화 후, 수수료를 받아 범죄수익 취득 및 은닉한 마약류 전문 판매상을 적발하여 2,829,525,406원을 추징 보전(울산지검)
- 베트남에 있는 총책과 공모하여 JWH-018 계열 합성대마, 필로폰, MDMA, 케타민 등 밀수입한 마약류를 소분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한 ‘드라퍼’ 조직원들을 적발하여 범죄수익금 259,970,000원 추징 보전(고양지청)
- 미국에서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한 범죄수익금 153,800,000원 추징 보전(부산동부지청)
-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총책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받고 소분한 필로폰을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고 판매할 필로폰을 은닉 및 보관하여 발생한 범죄수익금 148,099,651원 추징 보전(창원지검)
-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총책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수수료를 받아 약 98억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취득 및 은닉한 밀매 사범 적발하여 120,000,000원을 추징 보전(울산지검)

## ⑦ 2024년

-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면·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케타민 등을 투약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금 3,323,144,500원을 추징 보전(서울중앙지검)
-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마약 판매 단체를 조직하여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업으로 중간 판매책, 상담책, 운반책 등 조직원들과 마약류를 소지, 관리, 판매를 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1,927,961,500원을 추징 보전(대전지검)
-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면·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에게 전신마취가 불필요한 미용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창출한 수익금 852,451,700원을 추징 보전(서울중앙지검)
-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들의 의뢰를 받아 마약류 매수자들의 마약류 매수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고, 그 수수료를 약 16%씩 받는 방식 등으로 수익을 은닉한 사범에 대하여 621,790,000원을 추징 보전(울산지검)
- 태국 방콕巽 야바 25,000정을 밀수하고, 밀수한 야바 중 2,000정을 ‘던지기’ 방식으로 타인에게 교부한 밀수·밀매 사범을 적발하여 470,960,000원을 추징 보전(청주지검)

# 제4절 마약류 사범 처분 및 선고 현황

## 1. 연도별 검찰 처분현황

### 가. 2024년 검찰 마약류 사범 처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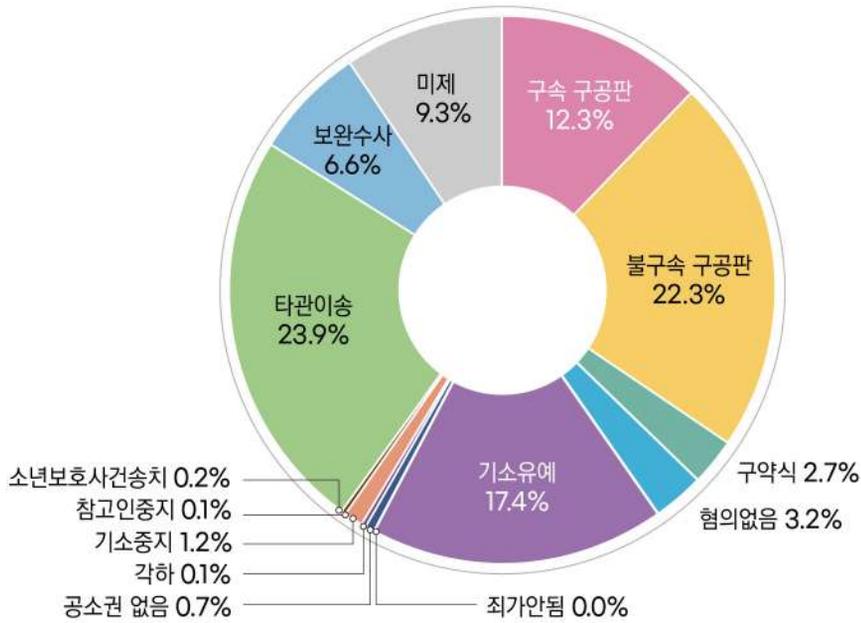
[표 3-63] 2024년 검찰 처분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구분	처리 계 <sup>42)</sup>	처분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소년 보호 사건 송치	타관 이송		보완 수사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 계	25,822 (100.0)	3,165 (12.3)	5,763 (22.3)	710 (2.7)	819 (3.2)	4,497 (17.4)	0 (0.0)	189 (0.7)	33 (0.1)	307 (1.2)	16 (0.1)	54 (0.2)	6,159 (23.9)	1,698 (6.6)	2,412 (9.3)	
마약류	마약	1,990 (100.0)	57 (2.9)	87 (4.4)	69 (3.5)	199 (10.0)	1,210 (60.8)	0 (0.0)	5 (0.3)	7 (0.4)	21 (1.1)	0 (0.0)	2 (0.1)	171 (8.6)	87 (4.4)	75 (3.8)
	향정	20,224 (100.0)	2,851 (14.1)	4,890 (24.2)	583 (2.9)	533 (2.6)	2,544 (12.6)	0 (0.0)	167 (0.8)	20 (0.1)	223 (1.1)	16 (0.1)	49 (0.2)	4,976 (24.6)	1,369 (6.8)	2,003 (9.9)
	대마	3,608 (100.0)	257 (7.1)	786 (21.8)	58 (1.6)	87 (2.4)	743 (20.6)	0 (0.0)	17 (0.5)	6 (0.2)	63 (1.7)	0 (0.0)	3 (0.1)	1,012 (28.0)	242 (6.7)	334 (9.3)

42) 처리계는 구수(2024년 이전 접수된 사건)를 포함한 수치임

[그림 3-101] 2024년 검찰 처분현황



제1장 미역류의 개요

제2장 미역류 범죄 단속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 나.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검찰 처분현황

[표 3-64]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검찰 처분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구분 연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이송	보완 수사	기타	
2005	7,336 (100.0)	4,017 (54.8)	426 (5.8)	937 (12.8)	536 (7.3)	394 (5.4)	1 (0.0)	463 (6.3)	- (-)	345 (4.7)	217 (3.0)
2006	7,942 (100.0)	4,105 (51.7)	440 (5.5)	1,183 (14.9)	587 (7.4)	458 (5.8)	3 (0.0)	656 (8.3)	- (-)	236 (3.0)	274 (3.5)
2007	10,962 (100.0)	5,396 (49.2)	528 (4.8)	1,487 (13.6)	862 (7.9)	795 (7.3)	0 (0.0)	1,132 (10.3)	- (-)	389 (3.5)	373 (3.4)
2008	10,303 (100.0)	4,370 (42.4)	466 (4.5)	1,949 (18.9)	723 (7.0)	856 (8.3)	7 (0.1)	1,166 (11.3)	- (-)	302 (2.9)	464 (4.5)
2009	12,380 (100.0)	4,175 (33.7)	767 (6.2)	3,550 (28.7)	720 (5.8)	851 (6.9)	1 (0.0)	1,157 (9.3)	- (-)	448 (3.6)	711 (5.7)
2010	10,473 (100.0)	3,954 (37.8)	396 (3.8)	2,123 (20.3)	752 (7.2)	1,050 (10.0)	1 (0.0)	1,379 (13.2)	- (-)	317 (3.0)	501 (4.8)
2011	9,595 (100.0)	4,071 (42.4)	403 (4.2)	1,233 (12.9)	870 (9.1)	868 (9.0)	0 (0.0)	1,228 (12.8)	- (-)	297 (3.1)	625 (6.5)
2012	9,908 (100.0)	4,312 (43.5)	260 (2.6)	1,230 (12.4)	1,022 (10.3)	938 (9.5)	0 (0.0)	1,334 (13.5)	- (-)	238 (2.4)	574 (5.8)
2013	10,371 (100.0)	4,286 (41.3)	335 (3.2)	1,495 (14.4)	914 (8.8)	945 (9.1)	3 (0.0)	1,723 (16.6)	- (-)	224 (2.2)	446 (4.3)
2014	10,222 (100.0)	3,949 (38.6)	266 (2.6)	1,538 (15.1)	919 (9.0)	973 (9.5)	13 (0.1)	1,808 (17.7)	- (-)	238 (2.3)	518 (5.1)
2015	12,534 (100.0)	5,024 (40.1)	404 (3.2)	2,240 (17.9)	821 (6.6)	1,181 (9.4)	2 (0.0)	2,033 (16.2)	- (-)	217 (1.7)	612 (4.9)
2016	14,897 (100.0)	5,720 (38.4)	418 (2.8)	2,327 (15.6)	913 (6.1)	1,534 (10.3)	1 (0.0)	2,799 (18.8)	- (-)	208 (1.4)	977 (6.6)
2017	15,219 (100.0)	5,883 (38.7)	354 (2.3)	2,603 (17.1)	841 (5.5)	1,607 (10.6)	6 (0.0)	2,909 (19.1)	- (-)	208 (1.4)	808 (5.3)
2018	13,483 (100.0)	4,929 (36.6)	308 (2.3)	2,430 (18.0)	764 (5.7)	1,419 (10.5)	11 (0.1)	2,714 (20.1)	- (-)	218 (1.6)	690 (5.1)

연도	구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이송	보완 수사	기타	
2019	16,829 (100.0)	5,619 (33.4)	321 (1.9)	3,278 (19.5)	864 (5.1)	1,490 (8.9)	10 (0.1)	3,716 (22.1)	- -	398 (2.4)	1,133 (6.7)
2020	19,277 (100.0)	5,429 (28.2)	400 (2.1)	3,873 (20.1)	1,214 (6.3)	1,465 (7.6)	13 (0.1)	4,093 (21.2)	- -	298 (1.5)	2,492 (12.9)
2021	18,695 (100.0)	6,205 (33.2)	315 (1.7)	3,668 (19.6)	672 (3.6)	584 (3.1)	26 (0.1)	3,861 (20.7)	1,844 (9.9)	123 (0.7)	1,397 (7.5)
2022	19,872 (100.0)	5,963 (30.0)	369 (1.9)	4,718 (23.7)	330 (1.7)	523 (2.6)	22 (0.1)	4,279 (21.5)	1,588 (8.0)	237 (1.2)	1,843 (9.3)
2023	29,613 (100.0)	8,842 (29.9)	590 (2.0)	6,710 (22.7)	360 (1.2)	739 (2.5)	78 (0.3)	6,935 (23.4)	2,492 (8.4)	221 (0.7)	2,646 (8.9)
2024	25,822 (100.0)	8,928 (34.6)	710 (2.7)	4,497 (17.4)	307 (1.2)	819 (3.2)	54 (0.2)	6,159 (23.9)	1,698 (6.6)	238 (0.9)	2,412 (9.3)

## 다. 연도별 마약사범 검찰 처분현황

[표 3-65] 연도별 마약사범 검찰 처분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이송	보완 수사	기타	
2005	765 (100.0)	80 (10.5)	150 (19.6)	460 (60.1)	15 (2.0)	40 (5.2)	0 (0.0)	3 (0.4)	- -	12 (1.6)	5 (0.7)
2006	850 (100.0)	66 (7.8)	113 (13.3)	585 (68.8)	8 (0.9)	44 (5.2)	0 (0.0)	27 (3.2)	- -	3 (0.4)	4 (0.5)
2007	950 (100.0)	57 (6.0)	142 (14.9)	688 (72.4)	11 (1.2)	24 (2.5)	0 (0.0)	14 (1.5)	- -	11 (1.2)	3 (0.3)
2008	1,381 (100.0)	43 (3.1)	169 (12.2)	1,072 (77.6)	9 (0.7)	43 (3.1)	0 (0.0)	14 (1.0)	- -	12 (0.9)	19 (1.4)
2009	2,197 (100.0)	58 (2.6)	281 (12.8)	1,718 (78.2)	13 (0.6)	60 (2.7)	0 (0.0)	19 (0.9)	- -	24 (1.1)	24 (1.1)
2010	1,143 (100.0)	58 (5.1)	113 (9.9)	708 (61.9)	19 (1.7)	24 (2.1)	0 (0.0)	197 (17.2)	- -	6 (0.5)	18 (1.6)
2011	775 (100.0)	28 (3.6)	99 (12.8)	534 (68.9)	20 (2.6)	32 (4.1)	0 (0.0)	23 (3.0)	- -	19 (2.5)	20 (2.6)
2012	590 (100.0)	36 (6.1)	55 (9.3)	419 (71.0)	10 (1.7)	38 (6.4)	0 (0.0)	19 (3.2)	- -	3 (0.5)	10 (1.7)
2013	669 (100.0)	36 (5.4)	70 (10.5)	457 (68.3)	18 (2.7)	36 (5.4)	0 (0.0)	19 (2.8)	- -	19 (2.8)	14 (2.1)
2014	677 (100.0)	49 (7.2)	59 (8.7)	441 (65.1)	18 (2.7)	54 (8.0)	0 (0.0)	18 (2.7)	- -	30 (4.4)	8 (1.2)
2015	1,111 (100.0)	49 (4.4)	100 (9.0)	852 (76.7)	14 (1.3)	36 (3.2)	0 (0.0)	19 (1.7)	- -	21 (1.9)	20 (1.8)
2016	1,354 (100.0)	46 (3.4)	117 (8.6)	1,005 (74.2)	13 (1.0)	96 (7.1)	0 (0.0)	40 (3.0)	- -	28 (2.1)	9 (0.7)
2017	1,479 (100.0)	60 (4.1)	93 (6.3)	1,094 (74.0)	29 (2.0)	90 (6.1)	0 (0.0)	48 (3.2)	- -	44 (3.0)	21 (1.4)
2018	1,452 (100.0)	70 (4.8)	55 (3.8)	1,109 (76.4)	22 (1.5)	94 (6.5)	0 (0.0)	55 (3.8)	- -	30 (2.1)	17 (1.2)

연도	구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이송	보완 수사	기타	
2019	1,745 (100.0)	67 (3.8)	38 (2.2)	1,255 (71.9)	27 (1.5)	91 (5.2)	0 (0.0)	119 (6.8)	- -	88 (5.0)	60 (3.4)
2020	2,178 (100.0)	77 (3.5)	77 (3.5)	1,623 (74.5)	34 (1.6)	93 (4.3)	0 (0.0)	167 (7.7)	- -	49 (2.2)	58 (2.7)
2021	1,702 (100.0)	101 (5.9)	64 (3.8)	985 (57.9)	90 (5.3)	46 (2.7)	4 (0.2)	178 (10.5)	142 (8.3)	5 (0.3)	87 (5.1)
2022	2,576 (100.0)	179 (6.9)	74 (2.9)	1,703 (66.1)	18 (0.7)	73 (2.8)	3 (0.1)	237 (9.2)	139 (5.4)	87 (3.4)	63 (2.4)
2023	3,959 (100.0)	139 (3.5)	130 (3.3)	2,901 (73.3)	8 (0.2)	180 (4.5)	2 (0.1)	262 (6.6)	234 (5.9)	15 (0.4)	88 (2.2)
2024	1,990 (100.0)	144 (7.2)	69 (3.5)	1,210 (60.8)	21 (1.1)	199 (10.0)	2 (0.1)	171 (8.6)	87 (4.4)	12 (0.6)	75 (3.8)

## 라. 연도별 행정사범 검찰 처분현황

[표 3-66] 연도별 행정사범 검찰 처분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구분 연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이송	보완 수사	기타	
2005	5,531 (100.0)	3,316 (60.0)	231 (4.2)	342 (6.2)	464 (8.4)	296 (5.4)	0 (0.0)	423 (7.6)	- -	278 (5.0)	181 (3.3)
2006	6,228 (100.0)	3,570 (57.3)	244 (3.9)	466 (7.5)	548 (8.8)	369 (5.9)	3 (0.0)	570 (9.2)	- -	215 (3.5)	243 (3.9)
2007	8,822 (100.0)	4,758 (53.9)	292 (3.3)	638 (7.2)	773 (8.8)	711 (8.1)	0 (0.0)	1,010 (11.4)	- -	318 (3.6)	322 (3.6)
2008	7,821 (100.0)	3,805 (48.7)	221 (2.8)	700 (9.0)	681 (8.7)	731 (9.3)	7 (0.1)	1,029 (13.2)	- -	253 (3.2)	394 (5.0)
2009	8,398 (100.0)	3,416 (40.7)	319 (3.8)	1,511 (18.0)	630 (7.5)	705 (8.4)	0 (0.0)	939 (11.2)	- -	386 (4.6)	492 (5.9)
2010	7,320 (100.0)	3,214 (43.9)	161 (2.2)	806 (11.0)	650 (8.9)	889 (12.1)	1 (0.0)	975 (13.3)	- -	272 (3.7)	352 (4.8)
2011	7,532 (100.0)	3,517 (46.7)	198 (2.6)	531 (7.0)	757 (10.1)	716 (9.5)	0 (0.0)	1,063 (14.1)	- -	239 (3.2)	511 (6.8)
2012	8,208 (100.0)	3,789 (46.2)	147 (1.8)	635 (7.7)	938 (11.4)	813 (9.9)	0 (0.0)	1,161 (14.1)	- -	207 (2.5)	518 (6.3)
2013	8,495 (100.0)	3,745 (44.1)	210 (2.5)	857 (10.1)	812 (9.6)	807 (9.5)	2 (0.0)	1,518 (17.9)	- -	172 (2.0)	372 (4.4)
2014	8,347 (100.0)	3,485 (41.8)	158 (1.9)	890 (10.7)	837 (10.0)	818 (9.8)	4 (0.0)	1,554 (18.6)	- -	180 (2.2)	421 (5.0)
2015	10,223 (100.0)	4,561 (44.6)	260 (2.5)	1,122 (11.0)	749 (7.3)	1,030 (10.1)	2 (0.0)	1,788 (17.5)	- -	168 (1.6)	543 (5.3)
2016	12,116 (100.0)	5,217 (43.1)	252 (2.1)	1,043 (8.6)	839 (6.9)	1,311 (10.8)	1 (0.0)	2,469 (20.4)	- -	150 (1.2)	834 (6.9)
2017	11,919 (100.0)	5,141 (43.1)	200 (1.7)	1,135 (9.5)	742 (6.2)	1,358 (11.4)	6 (0.1)	2,525 (21.2)	- -	146 (1.2)	666 (5.6)
2018	10,454 (100.0)	4,262 (40.8)	221 (2.1)	1,063 (10.2)	650 (6.2)	1,167 (11.2)	10 (0.1)	2,353 (22.5)	- -	166 (1.6)	562 (5.4)

연도	구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이송	보완 수사	기타	
2019	12,396	4,774	246	1,408	712	1,202	6	2,975	-	280	793
	(100.0)	(38.5)	(2.0)	(11.4)	(5.7)	(9.7)	(0.0)	(24.0)	-	(2.3)	(6.4)
2020	13,704	4,653	291	1,614	884	1,153	13	3,058	-	211	1,827
	(100.0)	(34.0)	(2.1)	(11.8)	(6.5)	(8.4)	(0.1)	(22.3)	-	(1.5)	(13.3)
2021	12,761	5,158	219	1,709	388	441	18	2,579	1,223	101	925
	(100.0)	(40.4)	(1.7)	(13.4)	(3.0)	(3.5)	(0.1)	(20.2)	(9.6)	(0.8)	(7.2)
2022	13,247	4,901	254	1,835	218	355	16	2,935	1,209	131	1,393
	(100.0)	(37.0)	(1.9)	(13.9)	(1.6)	(2.7)	(0.1)	(22.1)	(9.1)	(1.0)	(10.5)
2023	21,355	7,683	421	2,779	264	447	70	5,469	1,912	174	2,136
	(100.0)	(36.0)	(2.0)	(13.0)	(1.2)	(2.1)	(0.3)	(25.6)	(9.0)	(0.8)	(10.0)
2024	20,224	7,741	583	2,544	223	533	49	4,976	1,369	203	2,003
	(100.0)	(38.3)	(2.9)	(12.6)	(1.1)	(2.6)	(0.2)	(24.6)	(6.8)	(1.0)	(9.9)

## 마. 연도별 대마사범 검찰 처분현황

[표 3-67] 연도별 대마사범 검찰 처분현황

[단위: 명, ( )는 구성비]

구분 연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이송	보완 수사	기타	
2005	1,040 (100.0)	621 (59.7)	45 (4.3)	135 (13.0)	57 (5.5)	58 (5.6)	1 (0.1)	37 (3.6)	-	55 (5.3)	31 (3.0)
2006	864 (100.0)	469 (54.3)	83 (9.6)	132 (15.3)	31 (3.6)	45 (5.2)	0 (0.0)	59 (6.8)	-	18 (2.1)	27 (3.1)
2007	1,190 (100.0)	581 (48.8)	94 (7.9)	161 (13.5)	78 (6.6)	60 (5.0)	0 (0.0)	108 (9.1)	-	60 (5.0)	48 (4.0)
2008	1,101 (100.0)	522 (47.4)	76 (6.9)	177 (16.1)	33 (3.0)	82 (7.4)	0 (0.0)	123 (11.2)	-	37 (3.4)	51 (4.6)
2009	1,785 (100.0)	701 (39.3)	167 (9.4)	321 (18.0)	77 (4.3)	86 (4.8)	1 (0.1)	199 (11.1)	-	38 (2.1)	195 (10.9)
2010	2,010 (100.0)	682 (33.9)	122 (6.1)	609 (30.3)	83 (4.1)	137 (6.8)	0 (0.0)	207 (10.3)	-	39 (1.9)	131 (6.5)
2011	1,288 (100.0)	526 (40.8)	106 (8.2)	168 (13.0)	93 (7.2)	120 (9.3)	0 (0.0)	142 (11.0)	-	39 (3.0)	94 (7.3)
2012	1,110 (100.0)	487 (43.9)	58 (5.2)	176 (15.9)	74 (6.7)	87 (7.8)	0 (0.0)	154 (13.9)	-	28 (2.5)	46 (4.1)
2013	1,207 (100.0)	505 (41.8)	55 (4.6)	181 (15.0)	84 (7.0)	102 (8.5)	1 (0.1)	186 (15.4)	-	33 (2.7)	60 (5.0)
2014	1,198 (100.0)	415 (34.7)	49 (4.1)	207 (17.3)	64 (5.3)	101 (8.4)	9 (0.8)	236 (19.7)	-	28 (2.3)	89 (7.4)
2015	1,200 (100.0)	414 (34.5)	44 (3.7)	266 (22.2)	58 (4.8)	115 (9.6)	0 (0.0)	226 (18.8)	-	28 (2.3)	49 (4.1)
2016	1,427 (100.0)	457 (32.0)	49 (3.4)	279 (19.6)	61 (4.3)	127 (8.9)	0 (0.0)	290 (20.3)	-	30 (2.1)	134 (9.4)
2017	1,821 (100.0)	682 (37.5)	61 (3.4)	374 (20.5)	70 (3.8)	159 (8.7)	0 (0.0)	336 (18.5)	-	18 (1.0)	121 (6.6)
2018	1,577 (100.0)	597 (37.9)	32 (2.0)	258 (16.4)	92 (5.8)	158 (10.0)	1 (0.1)	306 (19.4)	-	22 (1.4)	111 (7.0)

연도	구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이송	보완 수사	기타	
2019	2,688 (100.0)	778 (28.9)	37 (1.4)	615 (22.9)	125 (4.7)	197 (7.3)	4 (0.1)	622 (23.1)	- -	30 (1.1)	280 (10.4)
2020	3,395 (100.0)	699 (20.6)	32 (0.9)	636 (18.7)	296 (8.7)	219 (6.5)	0 (0.0)	868 (25.6)	- -	38 (1.1)	607 (17.9)
2021	4,232 (100.0)	946 (22.4)	32 (0.8)	974 (23.0)	194 (4.6)	97 (2.3)	4 (0.1)	1,104 (26.1)	479 (11.3)	17 (0.4)	385 (9.1)
2022	4,049 (100.0)	883 (21.8)	41 (1.0)	1,180 (29.1)	94 (2.3)	95 (2.3)	3 (0.1)	1,107 (27.3)	240 (5.9)	19 (0.5)	387 (9.6)
2023	4,299 (100.0)	1,020 (23.7)	39 (0.9)	1,030 (24.0)	88 (2.1)	112 (2.6)	6 (0.1)	1,204 (28.0)	346 (8.0)	32 (0.7)	422 (9.8)
2024	3,608 (100.0)	1,043 (28.9)	58 (1.6)	743 (20.6)	63 (1.7)	87 (2.4)	3 (0.1)	1,012 (28.0)	242 (6.7)	23 (0.6)	334 (9.3)

## 2. 연도별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

### 가. 2024년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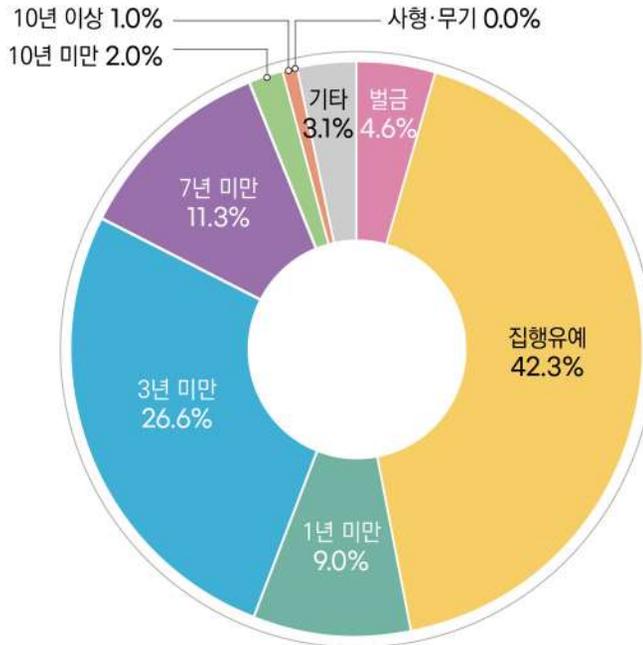
[표 3-68] 2024년 1심 재판 결과

[단위: 명, ( )는 구성비]

구분 마약류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무기	기타
전체	6,315 (100)	293 (4.6)	2,670 (42.3)	570 (9.0)	1,677 (26.6)	715 (11.3)	127 (2.0)	66 (1.0)	0 (0.0)	197 (3.1)
마약	111 (100)	11 (9.9)	53 (47.7)	3 (2.7)	13 (11.7)	15 (13.5)	1 (0.9)	4 (3.6)	0 (0.0)	11 (9.9)
향정	5,058 (100)	247 (4.9)	1,979 (39.1)	511 (10.1)	1,428 (28.2)	559 (11.1)	115 (2.3)	57 (1.1)	0 (0.0)	162 (3.2)
대마	1,146 (100)	35 (3.1)	638 (55.7)	56 (4.9)	236 (20.6)	141 (12.3)	11 (1.0)	5 (0.4)	0 (0.0)	24 (2.1)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

[그림 3-102] 2024년 1심 재판 결과



## 나.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

[표 3-69]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무기	기타
2005		3,843 (100.0)	203 (5.3)	1,220 (31.7)	806 (21.0)	1,482 (38.6)	88 (2.3)	1 (0.0)	0 (0.0)	0 (0.0)	43 (1.1)
2006		3,802 (100.0)	209 (5.5)	1,123 (29.5)	822 (21.6)	1,454 (38.2)	114 (3.0)	8 (0.2)	0 (0.0)	0 (0.0)	72 (1.9)
2007		5,051 (100.0)	216 (4.3)	1,694 (33.5)	1,102 (21.8)	1,779 (35.2)	146 (2.9)	7 (0.1)	4 (0.1)	0 (0.0)	103 (2.0)
2008		4,449 (100.0)	233 (5.2)	1,559 (35.0)	949 (21.3)	1,494 (33.6)	118 (2.7)	4 (0.1)	1 (0.0)	0 (0.0)	91 (2.0)
2009		3,844 (100.0)	250 (6.5)	1,364 (35.5)	796 (20.7)	1,193 (31.0)	114 (3.0)	7 (0.2)	0 (0.0)	0 (0.0)	120 (3.1)
2010		3,932 (100.0)	241 (6.1)	1,367 (34.8)	712 (18.1)	1,338 (34.0)	109 (2.8)	3 (0.1)	5 (0.1)	0 (0.0)	157 (4.0)
2011		3,304 (100.0)	184 (5.6)	1,138 (34.4)	435 (13.2)	1,033 (31.3)	331 (10.0)	25 (0.8)	34 (1.0)	0 (0.0)	124 (3.8)
2012		3,239 (100.0)	133 (4.1)	1,123 (34.7)	557 (17.2)	1,163 (35.9)	107 (3.3)	7 (0.2)	1 (0.0)	0 (0.0)	148 (4.6)
2013		3,357 (100.0)	160 (4.8)	1,238 (36.9)	524 (15.6)	1,198 (35.7)	108 (3.2)	6 (0.2)	3 (0.1)	0 (0.0)	120 (3.6)
2014		3,365 (100.0)	143 (4.2)	1,209 (35.9)	494 (14.7)	1,234 (36.7)	128 (3.8)	15 (0.4)	11 (0.3)	0 (0.0)	131 (3.9)
2015		3,695 (100.0)	131 (3.5)	1,331 (36.0)	600 (16.2)	1,358 (36.8)	143 (3.9)	10 (0.3)	2 (0.1)	0 (0.0)	120 (3.2)
2016		4,609 (100.0)	135 (2.9)	1,639 (35.5)	741 (16.1)	1,756 (38.1)	201 (4.4)	18 (0.4)	6 (0.1)	0 (0.0)	113 (2.5)
2017		4,681 (100.0)	169 (3.6)	1,876 (40.1)	663 (14.2)	1,633 (34.9)	213 (4.6)	12 (0.3)	2 (0.0)	0 (0.0)	113 (2.4)
2018		3,986 (100.0)	158 (4.0)	1,594 (40.0)	534 (13.4)	1,324 (33.2)	177 (4.4)	45 (1.1)	12 (0.3)	0 (0.0)	142 (3.6)

구분 연도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무기	기타
2019	4,199 (100.0)	138 (3.3)	1,723 (41.0)	571 (13.6)	1,411 (33.6)	191 (4.5)	24 (0.6)	16 (0.4)	0 (0.0)	125 (3.0)
2020	3,830 (100.0)	140 (3.7)	1,642 (42.9)	414 (10.8)	1,237 (32.3)	245 (6.4)	31 (0.8)	5 (0.1)	0 (0.0)	116 (3.0)
2021	4,747 (100.0)	205 (4.3)	2,089 (44.0)	463 (9.8)	1,410 (29.7)	351 (7.4)	32 (0.7)	20 (0.4)	0 (0.0)	177 (3.7)
2022	4,618 (100.0)	190 (4.1)	1,986 (43.0)	465 (10.0)	1,255 (27.2)	403 (8.7)	90 (1.9)	40 (0.9)	0 (0.0)	189 (4.1)
2023	6,030 (100.0)	175 (2.9)	2,446 (40.6)	502 (8.3)	1,852 (30.7)	638 (10.6)	151 (2.5)	75 (1.2)	0 (0.0)	191 (3.2)
2024	6,315 (100.0)	293 (4.6)	2,670 (42.3)	570 (9.0)	1,677 (26.6)	715 (11.3)	127 (2.0)	66 (1.0)	0 (0.0)	197 (3.1)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

## 다. 연도별 마약사범 1심 재판 결과

[표 3-70] 연도별 마약사범 1심 재판 결과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무기	기타
2005		104 (100.0)	18 (17.3)	58 (55.8)	4 (3.8)	10 (9.6)	8 (7.7)	1 (1.0)	0 (0.0)	0 (0.0)	5 (4.8)
2006		71 (100.0)	18 (25.4)	23 (32.4)	3 (4.2)	9 (12.7)	11 (15.5)	4 (5.6)	0 (0.0)	0 (0.0)	3 (4.2)
2007		72 (100.0)	15 (20.8)	37 (51.4)	6 (8.3)	2 (2.8)	5 (6.9)	0 (0.0)	0 (0.0)	0 (0.0)	7 (9.7)
2008		58 (100.0)	15 (25.9)	23 (39.7)	1 (1.7)	8 (13.8)	5 (8.6)	0 (0.0)	0 (0.0)	0 (0.0)	6 (10.3)
2009		87 (100.0)	31 (35.6)	26 (29.9)	1 (1.1)	9 (10.3)	11 (12.6)	0 (0.0)	0 (0.0)	0 (0.0)	9 (10.3)
2010		75 (100.0)	13 (17.3)	42 (56.0)	2 (2.7)	5 (6.7)	4 (5.3)	0 (0.0)	0 (0.0)	0 (0.0)	9 (12.0)
2011		48 (100.0)	23 (47.9)	16 (33.3)	0 (0.0)	1 (2.1)	0 (0.0)	0 (0.0)	1 (2.1)	0 (0.0)	7 (14.6)
2012		40 (100.0)	10 (25.0)	19 (47.5)	0 (0.0)	4 (10.0)	5 (12.5)	0 (0.0)	0 (0.0)	0 (0.0)	2 (5.0)
2013		30 (100.0)	6 (20.0)	13 (43.3)	0 (0.0)	4 (13.3)	3 (10.0)	0 (0.0)	1 (3.3)	0 (0.0)	3 (10.0)
2014		49 (100.0)	11 (22.4)	20 (40.8)	2 (4.1)	7 (14.3)	5 (10.2)	0 (0.0)	0 (0.0)	0 (0.0)	4 (8.2)
2015		43 (100.0)	8 (18.6)	13 (30.2)	2 (4.7)	7 (16.3)	4 (9.3)	1 (2.3)	0 (0.0)	0 (0.0)	8 (18.6)
2016		57 (100.0)	11 (19.3)	25 (43.9)	2 (3.5)	6 (10.5)	5 (8.8)	1 (1.8)	0 (0.0)	0 (0.0)	7 (12.3)
2017		58 (100.0)	19 (32.8)	16 (27.6)	3 (5.2)	12 (20.7)	2 (3.4)	1 (1.7)	0 (0.0)	0 (0.0)	5 (8.6)
2018		55 (100.0)	1 (1.8)	31 (56.4)	0 (0.0)	11 (20.0)	4 (7.3)	0 (0.0)	0 (0.0)	0 (0.0)	8 (14.5)

구분 연도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무기	기타
2019	53 (100.0)	2 (3.8)	27 (50.9)	2 (3.8)	5 (9.4)	12 (22.6)	1 (1.9)	0 (0.0)	0 (0.0)	4 (7.5)
2020	50 (100.0)	2 (4.0)	23 (46.0)	1 (2.0)	5 (10.0)	13 (26.0)	2 (4.0)	0 (0.0)	0 (0.0)	4 (8.0)
2021	69 (100.0)	10 (14.5)	34 (49.3)	0 (0.0)	8 (11.6)	14 (20.3)	0 (0.0)	0 (0.0)	0 (0.0)	3 (4.3)
2022	121 (100.0)	8 (6.6)	51 (42.1)	4 (3.3)	29 (24.0)	24 (19.8)	1 (0.8)	0 (0.0)	0 (0.0)	4 (3.3)
2023	108 (100.0)	10 (9.3)	43 (39.8)	3 (2.8)	21 (19.4)	16 (14.8)	0 (0)	5 (4.6)	0 (0)	10 (9.3)
2024	111 (100.0)	11 (9.9)	53 (47.7)	3 (2.7)	13 (11.7)	15 (13.5)	1 (0.9)	4 (3.6)	0 (0)	11 (9.9)

## 라. 연도별 행정사범 1심 재판 결과

【표 3-71】 연도별 행정사범 1심 재판 결과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무기	기타
2005		3,067 (100.0)	131 (4.3)	750 (24.5)	672 (21.9)	1,402 (45.7)	78 (2.5)	0 (0.0)	0 (0.0)	0 (0.0)	34 (1.1)
2006		3,281 (100.0)	133 (4.1)	827 (25.2)	742 (22.6)	1,406 (42.9)	103 (3.1)	4 (0.1)	0 (0.0)	0 (0.0)	66 (2.0)
2007		4,440 (100.0)	151 (3.4)	1,299 (29.3)	1,008 (22.7)	1,741 (39.2)	140 (3.2)	6 (0.1)	4 (0.1)	0 (0.0)	91 (2.0)
2008		3,900 (100.0)	181 (4.6)	1,206 (30.9)	880 (22.6)	1,447 (37.1)	111 (2.8)	4 (0.1)	1 (0.0)	0 (0.0)	70 (1.8)
2009		3,143 (100.0)	160 (5.1)	966 (30.7)	669 (21.3)	1,145 (36.4)	99 (3.1)	7 (0.2)	0 (0.0)	0 (0.0)	97 (3.1)
2010		3,183 (100.0)	157 (4.9)	903 (28.4)	597 (18.8)	1,280 (40.2)	104 (3.3)	3 (0.1)	5 (0.2)	0 (0.0)	134 (4.2)
2011		2,754 (100.0)	102 (3.7)	810 (29.4)	385 (14.0)	973 (35.3)	319 (11.6)	25 (0.9)	33 (1.2)	0 (0.0)	107 (3.9)
2012		2,806 (100.0)	92 (3.3)	822 (29.3)	511 (18.2)	1,133 (40.4)	100 (3.6)	7 (0.2)	1 (0.0)	0 (0.0)	140 (5.0)
2013		2,910 (100.0)	110 (3.8)	934 (32.1)	499 (17.1)	1,149 (39.5)	103 (3.5)	6 (0.2)	2 (0.1)	0 (0.0)	107 (3.7)
2014		2,952 (100.0)	103 (3.5)	920 (31.2)	462 (15.7)	1,202 (40.7)	123 (4.2)	15 (0.5)	11 (0.4)	0 (0.0)	116 (3.9)
2015		3,288 (100.0)	96 (2.9)	1,064 (32.4)	569 (17.3)	1,310 (39.8)	133 (4.0)	9 (0.3)	2 (0.1)	0 (0.0)	105 (3.2)
2016		4,170 (100.0)	95 (2.3)	1,356 (32.5)	685 (16.4)	1,719 (41.2)	192 (4.6)	17 (0.4)	6 (0.1)	0 (0.0)	100 (2.4)
2017		4,082 (100.0)	120 (2.9)	1,490 (36.5)	590 (14.5)	1,570 (38.5)	198 (4.9)	11 (0.3)	2 (0.0)	0 (0.0)	101 (2.5)
2018		3,409 (100.0)	126 (3.7)	1,197 (35.1)	492 (14.4)	1,269 (37.2)	146 (4.3)	39 (1.1)	12 (0.4)	0 (0.0)	128 (3.8)

구분 연도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무기	기타
2019	3,542 (100.0)	101 (2.9)	1,275 (36.0)	532 (15.0)	1,326 (37.4)	154 (4.3)	22 (0.6)	16 (0.5)	0 (0.0)	116 (3.3)
2020	3,237 (100.0)	103 (3.2)	1,248 (38.6)	382 (11.8)	1,163 (35.9)	205 (6.3)	29 (0.9)	5 (0.2)	0 (0.0)	102 (3.2)
2021	3,986 (100.0)	173 (4.3)	1,575 (39.5)	417 (10.5)	1,307 (32.8)	303 (7.6)	27 (0.7)	25 (0.6)	0 (0.0)	159 (4.0)
2022	3,769 (100.0)	162 (4.3)	1,444 (38.3)	416 (11.0)	1,122 (29.8)	338 (9.0)	86 (2.3)	40 (1.1)	0 (0.0)	161 (4.3)
2023	5,118 (100.0)	152 (3)	1,887 (36.9)	447 (8.7)	1,692 (33.1)	560 (10.9)	147 (2.9)	68 (1.3)	0 (0)	165 (3.2)
2024	5,058 (100.0)	247 (4.9)	1,979 (39.1)	511 (10.1)	1,428 (28.2)	559 (11.1)	115 (2.3)	57 (1.1)	0 (0.0)	162 (3.2)

## 마. 연도별 대마사범 1심 재판 결과

[표 3-72] 연도별 대마사범 1심 재판 결과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무기	기타
2005		672 (100.0)	54 (8.0)	412 (61.3)	130 (19.3)	70 (10.4)	2 (0.3)	0 (0.0)	0 (0.0)	0 (0.0)	4 (0.6)
2006		450 (100.0)	58 (12.9)	273 (60.7)	77 (17.1)	39 (8.7)	0 (0.0)	0 (0.0)	0 (0.0)	0 (0.0)	3 (0.7)
2007		539 (100.0)	50 (9.3)	358 (66.4)	88 (16.3)	36 (6.7)	1 (0.2)	1 (0.2)	0 (0.0)	0 (0.0)	5 (0.9)
2008		491 (100.0)	37 (7.5)	330 (67.2)	68 (13.8)	39 (7.9)	2 (0.4)	0 (0.0)	0 (0.0)	0 (0.0)	15 (3.1)
2009		614 (100.0)	59 (9.6)	372 (60.6)	126 (20.5)	39 (6.4)	4 (0.7)	0 (0.0)	0 (0.0)	0 (0.0)	14 (2.3)
2010		674 (100.0)	71 (10.5)	422 (62.6)	113 (16.8)	53 (7.9)	1 (0.1)	0 (0.0)	0 (0.0)	0 (0.0)	14 (2.1)
2011		502 (100.0)	59 (11.8)	312 (62.2)	50 (10.0)	59 (11.8)	12 (2.4)	0 (0.0)	0 (0.0)	0 (0.0)	10 (2.0)
2012		393 (100.0)	31 (7.9)	282 (71.8)	46 (11.7)	26 (6.6)	2 (0.5)	0 (0.0)	0 (0.0)	0 (0.0)	6 (1.5)
2013		417 (100.0)	44 (10.6)	291 (69.8)	25 (6.0)	45 (10.8)	2 (0.5)	0 (0.0)	0 (0.0)	0 (0.0)	10 (2.4)
2014		364 (100.0)	29 (8.0)	269 (73.9)	30 (8.2)	25 (6.9)	0 (0.0)	0 (0.0)	0 (0.0)	0 (0.0)	11 (3.0)
2015		364 (100.0)	27 (7.4)	254 (69.8)	29 (8.0)	41 (11.3)	6 (1.6)	0 (0.0)	0 (0.0)	0 (0.0)	7 (1.9)
2016		382 (100.0)	29 (7.6)	258 (67.6)	54 (14.1)	31 (8.1)	4 (1.0)	0 (0.0)	0 (0.0)	0 (0.0)	6 (1.6)
2017		541 (100.0)	30 (5.5)	370 (68.4)	70 (12.9)	51 (9.4)	13 (2.4)	0 (0.0)	0 (0.0)	0 (0.0)	7 (1.3)
2018		522 (100.0)	31 (5.9)	366 (70.1)	42 (8.0)	44 (8.4)	27 (5.2)	6 (1.1)	0 (0.0)	0 (0.0)	6 (1.1)

구분 연도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무기	기타
2019	604 (100.0)	35 (5.8)	421 (69.7)	37 (6.1)	80 (13.2)	25 (4.1)	1 (0.2)	0 (0.0)	0 (0.0)	5 (0.8)
2020	543 (100.0)	35 (6.4)	371 (68.3)	31 (5.7)	69 (12.7)	27 (5.0)	0 (0.0)	0 (0.0)	0 (0.0)	10 (1.8)
2021	692 (100.0)	22 (3.2)	480 (69.4)	46 (6.6)	96 (13.9)	31 (4.5)	2 (0.3)	0 (0.0)	0 (0.0)	15 (2.2)
2022	728 (100.0)	20 (2.7)	491 (67.4)	45 (6.2)	104 (14.3)	41 (5.6)	3 (0.4)	0 (0.0)	0 (0.0)	24 (3.3)
2023	804 (100.0)	13 (1.6)	516 (64.2)	52 (6.5)	139 (17.3)	62 (7.7)	4 (0.5)	2 (0.2)	0 (0)	16 (2.0)
2024	1,146 (100.0)	35 (3.1)	638 (55.7)	56 (4.9)	236 (20.6)	141 (12.3)	11 (1.0)	5 (0.4)	0 (0)	24 (2.1)

### 3. 연도별 마약류 사범 실행·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 가. 2024년 실행·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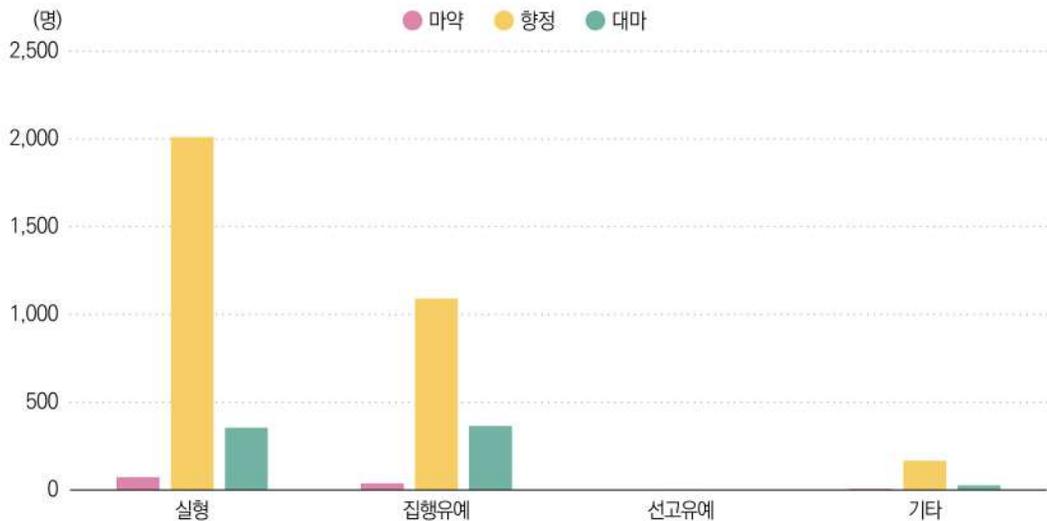
[표 3-73] 2024년 실행·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 )는 구성비]

마약류	구분	합계	실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4,127 (100.0)	2,436 (59)	1,492 (36.2)	1 (0.0)	198 (4.8)
마약		115 (100.0)	72 (62.6)	37 (32.2)	0 (0.0)	6 (5.2)
향정		3,268 (100.0)	2,010 (61.5)	1,091 (33.4)	1 (0.0)	166 (5.1)
대마		744 (100.0)	354 (47.6)	364 (48.9)	0 (0.0)	26 (3.5)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그림 3-103] 2024년 실행·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 나. 연도별 마약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표 3-74] 연도별 마약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합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2005		93 (100.0)	22 (23.7)	56 (60.2)	1 (1.1)	14 (15.1)
2006		78 (100.0)	28 (35.9)	29 (37.2)	2 (2.6)	19 (24.4)
2007		80 (100.0)	18 (22.5)	40 (50.0)	4 (5.0)	18 (22.5)
2008		79 (100.0)	17 (21.5)	31 (39.2)	3 (3.8)	28 (35.4)
2009		95 (100.0)	32 (33.7)	29 (30.5)	9 (9.5)	25 (26.3)
2010		75 (100.0)	9 (12.0)	46 (61.3)	3 (4.0)	17 (22.7)
2011		61 (100.0)	14 (23.0)	24 (39.3)	5 (8.2)	18 (29.5)
2012		55 (100.0)	23 (41.8)	22 (40.0)	2 (3.6)	8 (14.5)
2013		59 (100.0)	26 (44.1)	24 (40.7)	2 (3.4)	7 (11.9)
2014		70 (100.0)	24 (34.3)	32 (45.7)	1 (1.4)	13 (18.6)
2015		74 (100.0)	32 (43.2)	29 (39.2)	2 (2.7)	11 (14.9)
2016		85 (100.0)	39 (45.9)	28 (32.9)	3 (3.5)	15 (17.6)
2017		96 (100.0)	47 (49.0)	35 (36.5)	4 (4.2)	10 (10.4)
2018		78 (100.0)	23 (29.5)	49 (62.8)	0 (0.0)	6 (7.7)
2019		81 (100.0)	37 (45.7)	38 (46.9)	1 (1.2)	5 (6.2)
2020		92 (100.0)	47 (51.1)	41 (44.6)	0 (0.0)	4 (4.3)
2021		73 (100.0)	36 (49.3)	29 (39.7)	0 (0.0)	8 (11.0)
2022		92 (100.0)	46 (50.0)	37 (40.2)	0 (0.0)	9 (9.8)
2023		106 (100.0)	66 (62.3)	31 (29.2)	1 (0.9)	8 (7.5)
2024		115 (100.0)	72 (62.6)	37 (32.2)	0 (0.0)	6 (5.2)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다. 연도별 행정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표 3-75] 연도별 행정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합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2005		3,015 (100.0)	2,116 (70.2)	767 (25.4)	0 (0.0)	132 (4.4)
2006		3,221 (100.0)	2,224 (69.0)	841 (26.1)	4 (0.1)	152 (4.7)
2007		4,557 (100.0)	2,955 (64.8)	1,386 (30.4)	1 (0.0)	215 (4.7)
2008		3,528 (100.0)	2,184 (61.9)	1,150 (32.6)	1 (0.0)	193 (5.5)
2009		3,209 (100.0)	2,056 (64.1)	965 (30.1)	1 (0.0)	187 (5.8)
2010		2,959 (100.0)	1,886 (63.7)	870 (29.4)	0 (0.0)	203 (6.9)
2011		2,479 (100.0)	1,555 (62.7)	774 (31.2)	1 (0.0)	149 (6.0)
2012		2,744 (100.0)	1,718 (62.6)	879 (32.0)	0 (0.0)	147 (5.4)
2013		2,515 (100.0)	1,537 (61.1)	840 (33.4)	0 (0.0)	138 (5.5)
2014		2,631 (100.0)	1,633 (62.1)	859 (32.6)	0 (0.0)	139 (5.3)
2015		3,266 (100.0)	2,073 (63.5)	1,062 (32.5)	0 (0.0)	131 (4.0)
2016		3,140 (100.0)	1,991 (63.4)	1,057 (33.7)	1 (0.0)	91 (2.9)
2017		3,871 (100.0)	2,270 (58.6)	1,413 (36.5)	2 (0.1)	186 (4.8)
2018		2,425 (100.0)	1,416 (58.4)	901 (37.2)	1 (0.0)	107 (4.4)
2019		2,677 (100.0)	1,571 (58.7)	989 (36.9)	2 (0.1)	115 (4.3)
2020		2,143 (100.0)	1,219 (56.9)	840 (39.2)	0 (0.0)	83 (3.9)
2021		2,364 (100.0)	1,296 (54.8)	945 (40.0)	4 (0.2)	119 (5.0)
2022		1,901 (100.0)	1,014 (53.3)	785 (41.3)	0 (0.0)	102 (5.4)
2023		3,280 (100.0)	1,969 (60.0)	1,179 (35.9)	1 (0.0)	131 (4.0)
2024		3,268 (100.0)	2,010 (61.5)	1,091 (33.4)	1 (0.0)	166 (5.1)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

## 라. 연도별 대마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표 3-76] 연도별 대마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합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2005		710 (100.0)	243 (34.2)	404 (56.9)	3 (0.4)	60 (8.5)
2006		606 (100.0)	225 (37.1)	321 (53.0)	1 (0.2)	59 (9.7)
2007		783 (100.0)	260 (33.2)	464 (59.3)	2 (0.3)	57 (7.3)
2008		628 (100.0)	229 (36.5)	354 (56.4)	4 (0.6)	41 (6.5)
2009		886 (100.0)	305 (34.4)	504 (56.9)	2 (0.2)	75 (8.5)
2010		803 (100.0)	286 (35.6)	457 (56.9)	1 (0.1)	59 (7.3)
2011		536 (100.0)	169 (31.5)	320 (59.7)	0 (0.0)	47 (8.8)
2012		573 (100.0)	206 (36.0)	328 (57.2)	0 (0.0)	39 (6.8)
2013		549 (100.0)	194 (35.3)	321 (58.5)	0 (0.0)	34 (6.2)
2014		580 (100.0)	208 (35.9)	334 (57.6)	1 (0.2)	37 (6.4)
2015		626 (100.0)	293 (46.8)	297 (47.4)	1 (0.2)	35 (5.6)
2016		547 (100.0)	242 (44.2)	281 (51.4)	0 (0.0)	24 (4.4)
2017		869 (100.0)	316 (36.4)	510 (58.7)	1 (0.1)	42 (4.8)
2018		602 (100.0)	214 (35.5)	362 (60.1)	0 (0.0)	26 (4.3)
2019		723 (100.0)	283 (39.1)	416 (57.5)	0 (0.0)	24 (3.3)
2020		580 (100.0)	254 (43.8)	293 (50.5)	0 (0.0)	33 (5.7)
2021		680 (100.0)	306 (45.0)	349 (51.3)	0 (0.0)	25 (3.7)
2022		523 (100.0)	217 (41.5)	285 (54.5)	0 (0.0)	21 (4.0)
2023		679 (100.0)	331 (48.7)	330 (48.6)	0 (0.0)	18 (2.7)
2024		744 (100.0)	354 (47.6)	364 (48.9)	0 (0.0)	26 (3.5)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

## 4. 연도별 마약류별 실행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표 3-77] 연도별 마약류별 실행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sup>43)</sup>

[단위: 월]

연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05		13.9	25.8	15.6	26.5	41.1	28.1
2006		14.3	26.2	15.7	26.9	23.4	26.5
2007		14.1	26.5	16.4	26.7	21.2	24.9
2008		17.2	26.2	15.8	25.8	24.1	25.2
2009		14.5	26.0	16.0	26.2	41.8	26.1
2010		14.7	26.5	16.9	27.1	25.1	26.9
2011		25.2	26.6	25.8	27.5	35.1	32.5
2012		16.6	26.3	16.6	28.3	25.0	32.2
2013		16.9	28.7	17.1	28.3	26.5	31.5
2014		17.7	27.5	17.8	27.4	24.9	29.6
2015		15.8	26.1	16.7	26.1	23.2	26.9
2016		26.6	28.7	17.4	26.7	18.3	27.9
2017		19.7	28.6	18.2	28.3	21.7	31.5
2018		36.8	32.3	19.1	28.9	22.3	29.7
2019		22.2	30.9	19.8	27.4	43.7	33.5
2020		24.1	27.3	23.9	28.0	35.9	26.6
2021		27.1	28.6	24.0	27.9	29.0	35.2
2022		27.6	30.2	26.3	28.5	44.0	28.0
2023		32.3	29.7	31.2	29.1	46.1	33.7
2024		45.5	33.1	31.6	30.6	32.7	32.8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43) 실행자·집행유예자의 각 형기 합계에서 해당 인원 수를 나눈 값

## 5. 연도별 마약류 사범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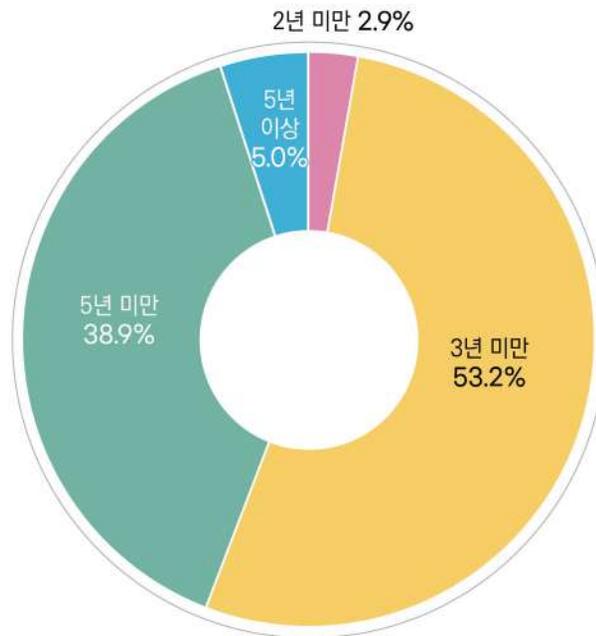
### 가. 2024년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표 3-78] 2024년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 구분	합 계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1,492 (100.0)	43 (2.9)	793 (53.2)	581 (38.9)	75 (5.0)
마약	37 (100.0)	2 (5.4)	15 (40.5)	17 (46.0)	3 (8.1)
향정	1,091 (100.0)	32 (2.9)	608 (55.7)	406 (37.2)	45 (4.1)
대마	364 (100.0)	9 (2.5)	170 (46.7)	158 (43.4)	27 (7.4)

[그림 3-104] 2024년 마약류 사범의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 나. 연도별 마약사범의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표 3-79] 연도별 마약사범의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05		4 (7.1)	33 (58.9)	19 (33.9)	0 (0.0)	56 (100.0)
2006		3 (10.3)	19 (65.5)	7 (24.1)	0 (0.0)	29 (100.0)
2007		7 (17.5)	26 (65.0)	6 (15.0)	1 (2.5)	40 (100.0)
2008		2 (6.5)	24 (77.4)	5 (16.1)	0 (0.0)	31 (100.0)
2009		3 (10.3)	21 (72.4)	5 (17.2)	0 (0.0)	29 (100.0)
2010		6 (13.0)	28 (60.9)	10 (21.7)	2 (4.4)	46 (100.0)
2011		1 (4.2)	12 (50.0)	11 (45.8)	0 (0.0)	24 (100.0)
2012		1 (4.6)	11 (50.0)	8 (36.4)	2 (9.1)	22 (100.0)
2013		1 (4.2)	11 (45.8)	12 (50.0)	0 (0.0)	24 (100.0)
2014		0 (0.0)	22 (68.8)	9 (28.1)	1 (3.1)	32 (100.0)
2015		1 (3.4)	22 (75.9)	5 (17.2)	1 (3.4)	29 (100.0)
2016		3 (10.7)	16 (57.1)	8 (28.6)	1 (3.6)	28 (100.0)
2017		3 (8.6)	20 (57.1)	8 (22.9)	4 (11.4)	35 (100.0)
2018		0 (0.0)	28 (57.1)	21 (42.9)	0 (0.0)	49 (100.0)
2019		1 (2.6)	17 (44.7)	17 (44.7)	3 (7.9)	38 (100.0)
2020		0 (0.0)	34 (82.9)	7 (17.1)	0 (0.0)	41 (100.0)
2021		0 (0.0)	12 (41.4)	14 (48.3)	3 (10.3)	29 (100.0)
2022		1 (2.7)	18 (48.7)	16 (43.2)	2 (5.4)	37 (100.0)
2023		0 (0.0)	16 (51.6)	12 (38.7)	3 (9.7)	31 (100.0)
2024		2 (5.4)	15 (40.5)	17 (46.0)	3 (8.1)	37 (100.0)

## 다. 연도별 향정사범의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표 3-80] 연도별 향정사범의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05		14 (1.8)	593 (78.0)	150 (19.7)	3 (0.4)	760 (100.0)
2006		15 (1.8)	642 (76.3)	177 (21.0)	7 (0.8)	841 (100.0)
2007		19 (1.4)	1,075 (77.6)	288 (20.8)	4 (0.3)	1,386 (100.0)
2008		27 (2.3)	953 (82.9)	166 (14.4)	4 (0.3)	1,150 (100.0)
2009		53 (5.5)	728 (75.4)	174 (18.0)	10 (1.0)	965 (100.0)
2010		22 (2.5)	636 (73.1)	209 (24.0)	3 (0.3)	870 (100.0)
2011		9 (1.2)	571 (73.8)	186 (24.0)	8 (1.0)	774 (100.0)
2012		10 (1.1)	614 (69.9)	243 (27.6)	12 (1.4)	879 (100.0)
2013		20 (2.4)	573 (68.2)	233 (27.7)	14 (1.7)	840 (100.0)
2014		12 (1.4)	653 (76.0)	182 (21.2)	12 (1.4)	859 (100.0)
2015		36 (3.4)	844 (79.5)	174 (16.4)	8 (0.8)	1,062 (100.0)
2016		26 (2.5)	807 (76.3)	217 (20.5)	7 (0.7)	1,057 (100.0)
2017		32 (2.3)	988 (69.9)	354 (25.1)	39 (2.8)	1,413 (100.0)
2018		11 (1.2)	633 (70.6)	223 (24.9)	30 (3.3)	897 (100.0)
2019		27 (2.7)	729 (73.7)	209 (21.1)	24 (2.4)	989 (100.0)
2020		23 (2.7)	571 (68.0)	242 (28.8)	4 (0.5)	840 (100.0)
2021		16 (1.7)	667 (70.6)	255 (27.0)	7 (0.7)	945 (100.0)
2022		30 (3.8)	511 (65.1)	228 (29.0)	16 (2.0)	785 (100.0)
2023		25 (2.1)	738 (62.6)	390 (33.1)	26 (2.2)	1,179 (100.0)
2024		32 (2.9)	608 (55.7)	406 (37.2)	45 (4.1)	1,091 (100.0)

## 라. 연도별 대마사범의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표 3-81] 연도별 대마사범의 집행유예 기간별 분포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05		15 (3.7)	324 (80.2)	65 (16.1)	0 (0.0)	404 (100.0)
2006		8 (2.5)	249 (77.6)	64 (19.9)	0 (0.0)	321 (100.0)
2007		19 (4.1)	354 (76.3)	86 (18.5)	5 (1.1)	464 (100.0)
2008		18 (5.1)	266 (75.1)	70 (19.8)	0 (0.0)	354 (100.0)
2009		26 (5.2)	385 (76.4)	91 (18.1)	2 (0.4)	504 (100.0)
2010		17 (3.7)	341 (74.6)	97 (21.2)	2 (0.4)	457 (100.0)
2011		6 (1.9)	247 (77.2)	67 (20.9)	0 (0.0)	320 (100.0)
2012		13 (4.0)	253 (77.1)	59 (18.0)	3 (0.9)	328 (100.0)
2013		9 (2.8)	210 (65.4)	94 (29.3)	8 (2.5)	321 (100.0)
2014		12 (3.6)	236 (70.7)	82 (24.5)	4 (1.2)	334 (100.0)
2015		14 (4.7)	226 (76.1)	57 (19.2)	0 (0.0)	297 (100.0)
2016		4 (1.4)	199 (70.8)	75 (26.7)	3 (1.1)	281 (100.0)
2017		23 (4.5)	332 (65.1)	139 (27.3)	16 (3.1)	510 (100.0)
2018		10 (2.8)	227 (62.7)	113 (31.2)	12 (3.3)	362 (100.0)
2019		10 (2.4)	229 (55.0)	160 (38.5)	17 (4.1)	416 (100.0)
2020		4 (1.4)	218 (74.4)	69 (23.5)	2 (0.7)	293 (100.0)
2021		5 (1.4)	240 (68.8)	97 (27.8)	7 (2.0)	349 (100.0)
2022		14 (4.9)	158 (55.4)	103 (36.1)	10 (3.5)	285 (100.0)
2023		16 (4.8)	195 (59.1)	105 (31.8)	14 (4.2)	330 (100.0)
2024		9 (2.5)	170 (46.7)	158 (43.4)	27 (7.4)	364 (100.0)

## 6. 연도별 마약류 사범 실행 기간별 분포

### 가. 2024년 실행 기간별 분포

[표 3-82] 2024년 실행 기간별 분포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 구분	1년 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합계	334 (13.7)	759 (31.2)	478 (19.6)	449 (18.4)	416 (17.1)	2,436 (100.0)
마약	6 (8.3)	13 (18.1)	12 (16.7)	18 (25.00)	23 (32.0)	72 (100.0)
향정	294 (14.6)	645 (32.1)	391 (19.5)	343 (17.1)	337 (16.8)	2,010 (100.0)
대마	34 (9.6)	101 (28.5)	75 (21.2)	88 (24.9)	56 (15.8)	354 (100.0)

[그림 3-105] 2024년 실행 기간별 분포



## 나. 연도별 마약사범 실행 기간별 분포

[표 3-83] 연도별 마약사범 실행 기간별 분포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05		3 (13.6)	6 (27.3)	1 (4.6)	3 (13.6)	9 (40.9)	22 (100.0)
2006		7 (25.0)	14 (50.0)	3 (10.7)	2 (7.1)	2 (7.1)	28 (100.0)
2007		6 (33.3)	7 (38.9)	3 (16.7)	1 (5.6)	1 (5.6)	18 (100.0)
2008		2 (11.8)	7 (41.2)	3 (17.7)	5 (29.4)	0 (0.0)	17 (100.0)
2009		2 (6.3)	4 (12.5)	8 (25.0)	9 (28.1)	9 (28.1)	32 (100.0)
2010		2 (22.2)	2 (22.2)	3 (33.3)	1 (11.1)	1 (11.1)	9 (100.0)
2011		1 (7.1)	7 (50.0)	2 (14.3)	1 (7.1)	3 (21.4)	14 (100.0)
2012		5 (21.7)	9 (39.1)	4 (17.4)	2 (8.7)	3 (13.0)	23 (100.0)
2013		1 (3.8)	14 (53.8)	6 (23.1)	2 (7.7)	3 (11.5)	26 (100.0)
2014		5 (20.8)	11 (45.8)	2 (8.3)	3 (12.5)	3 (12.5)	24 (100.0)
2015		11 (34.3)	12 (37.5)	4 (12.5)	3 (9.4)	2 (6.3)	32 (100.0)
2016		3 (7.7)	17 (43.6)	5 (12.8)	12 (30.8)	2 (5.1)	39 (100.0)
2017		12 (25.5)	17 (36.2)	13 (27.7)	3 (6.4)	2 (4.3)	47 (100.0)
2018		3 (13.0)	9 (39.1)	4 (17.4)	3 (13.0)	4 (17.4)	23 (100.0)
2019		7 (18.9)	8 (21.6)	10 (27.0)	5 (13.5)	7 (18.9)	37 (100.0)
2020		6 (12.8)	12 (25.5)	10 (21.3)	14 (29.8)	5 (10.6)	47 (100.0)
2021		3 (8.3)	8 (22.2)	17 (47.2)	3 (8.3)	5 (13.9)	36 (100.0)
2022		11 (23.9)	10 (21.7)	13 (28.3)	9 (19.6)	3 (6.5)	46 (100.0)
2023		4 (6.1)	15 (22.7)	14 (21.2)	14 (21.2)	19 (28.8)	66 (100.0)
2024		6 (8.3)	13 (18.1)	12 (16.7)	18 (25.0)	23 (31.9)	72 (100.0)

## 다. 연도별 행정사범 실행 기간별 분포

[표 3-84] 연도별 행정사범 실행 기간별 분포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05		640 (30.2)	1,100 (52.0)	277 (13.1)	83 (3.9)	16 (0.8)	2,116 (100.0)
2006		762 (34.3)	1,074 (48.3)	274 (12.3)	87 (3.9)	27 (1.2)	2,224 (100.0)
2007		994 (33.6)	1,394 (47.2)	370 (12.5)	137 (4.6)	60 (2.0)	2,955 (100.0)
2008		774 (35.4)	1,026 (47.0)	255 (11.7)	99 (4.5)	30 (1.4)	2,184 (100.0)
2009		684 (33.3)	1,053 (51.2)	180 (8.8)	94 (4.6)	45 (2.2)	2,056 (100.0)
2010		519 (27.6)	981 (52.2)	236 (12.5)	99 (5.3)	45 (2.4)	1,880 (100.0)
2011		283 (18.2)	657 (42.3)	282 (18.1)	214 (13.8)	119 (7.7)	1,555 (100.0)
2012		487 (28.4)	910 (53.0)	198 (11.4)	92 (5.4)	31 (1.8)	1,718 (100.0)
2013		448 (29.1)	823 (53.5)	159 (10.3)	72 (4.7)	35 (2.3)	1,537 (100.0)
2014		414 (25.3)	934 (57.2)	153 (9.4)	85 (5.2)	47 (2.9)	1,633 (100.0)
2015		587 (28.3)	1,119 (54.0)	215 (10.4)	110 (5.3)	42 (2.0)	2,073 (100.0)
2016		518 (26.1)	1,118 (56.2)	186 (9.3)	121 (6.0)	48 (2.4)	1,991 (100.0)
2017		590 (25.9)	1,173 (51.7)	280 (12.4)	171 (7.5)	56 (2.5)	2,270 (100.0)
2018		343 (24.3)	772 (54.8)	155 (11.0)	71 (5.0)	68 (4.8)	1,409 (100.0)
2019		377 (24.0)	805 (51.2)	212 (13.5)	110 (7.0)	67 (4.3)	1,571 (100.0)
2020		233 (19.1)	595 (48.8)	193 (15.8)	116 (9.5)	82 (6.7)	1,219 (100.0)
2021		237 (18.3)	579 (44.7)	230 (17.7)	138 (10.6)	112 (8.6)	1,296 (100.0)
2022		188 (18.5)	423 (41.7)	181 (17.9)	104 (10.3)	118 (11.6)	1,014 (100.0)
2023		253 (12.8)	771 (39.2)	355 (18.0)	286 (14.5)	304 (15.4)	1,969 (100.0)
2024		294 (14.6)	645 (32.1)	391 (19.5)	343 (17.1)	337 (16.8)	2,010 (100.0)

## 라. 연도별 대마사범 실행 기간별 분포

[표 3-85] 연도별 대마사범 실행 기간별 분포

(단위: 명, ( )는 구성비)

연도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05		112 (46.1)	108 (44.4)	11 (4.5)	7 (2.9)	5 (2.1)	243 (100.0)
2006		106 (47.1)	91 (40.4)	19 (8.4)	7 (3.1)	2 (0.9)	225 (100.0)
2007		133 (51.2)	105 (40.4)	10 (3.9)	6 (2.3)	6 (2.3)	260 (100.0)
2008		95 (41.5)	88 (38.4)	24 (10.5)	13 (5.7)	9 (3.9)	229 (100.0)
2009		169 (55.4)	94 (30.8)	22 (7.2)	16 (5.3)	4 (1.3)	305 (100.0)
2010		131 (45.8)	120 (42.0)	19 (6.6)	12 (4.2)	4 (1.4)	286 (100.0)
2011		43 (25.4)	62 (36.7)	28 (16.6)	22 (13.0)	14 (8.3)	169 (100.0)
2012		70 (34.0)	101 (49.0)	20 (9.7)	11 (5.3)	4 (2.0)	206 (100.0)
2013		54 (27.8)	104 (53.6)	23 (11.9)	10 (5.2)	3 (1.5)	194 (100.0)
2014		62 (29.8)	108 (51.9)	20 (9.6)	12 (5.8)	6 (2.9)	208 (100.0)
2015		79 (27.0)	163 (55.6)	35 (12.0)	13 (4.4)	3 (1.0)	293 (100.0)
2016		83 (34.3)	108 (44.6)	27 (11.2)	17 (7.0)	7 (2.9)	242 (100.0)
2017		85 (26.9)	127 (40.2)	64 (20.3)	31 (9.8)	9 (2.8)	316 (100.0)
2018		48 (22.4)	104 (48.6)	19 (8.9)	27 (12.6)	16 (7.5)	214 (100.0)
2019		49 (17.3)	123 (43.5)	64 (22.6)	37 (13.1)	10 (3.5)	283 (100.0)
2020		28 (11.0)	110 (43.3)	58 (22.8)	47 (18.5)	11 (4.3)	254 (100.0)
2021		40 (13.0)	120 (39.2)	73 (23.9)	46 (15.0)	27 (8.8)	306 (100.0)
2022		26 (12.0)	66 (30.4)	73 (33.6)	34 (15.7)	18 (8.3)	217 (100.0)
2023		32 (9.7)	96 (29.0)	83 (25.1)	74 (22.4)	46 (13.9)	331 (100.0)
2024		34 (9.6)	101 (28.5)	75 (21.2)	88 (24.9)	56 (15.8)	354 (100.0)

## 7. 연도별 마약류 사범 약식명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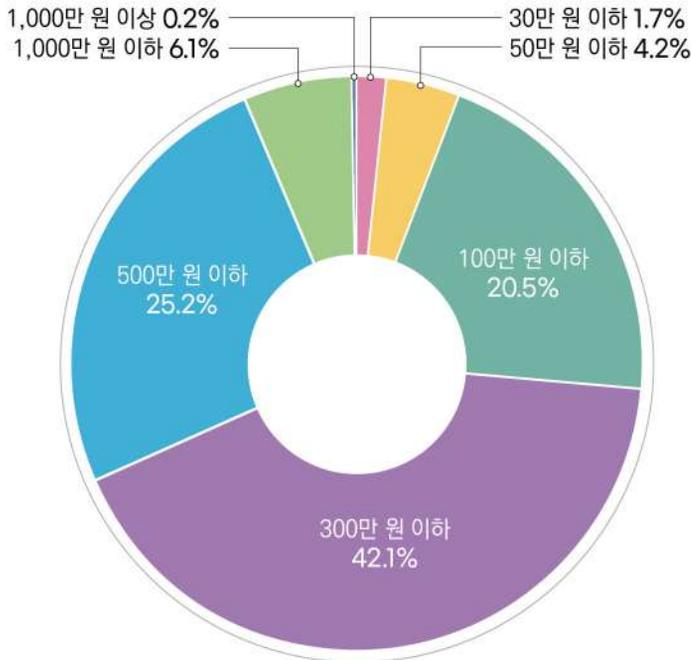
### 가. 2024년 약식명령 현황

[표 3-86] 2024년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는 분포비율]

연도	구분	3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평균 (단위:원)
합 계		7 (1.7)	18 (4.2)	87 (20.5)	179 (42.1)	107 (25.2)	26 (6.1)	1 (0.2)	-
마약		1 (1.6)	12 (19.4)	31 (50.0)	15 (24.2)	3 (4.8)	0 (0.0)	0 (0.0)	1,395,161
향정		6 (1.8)	6 (1.8)	54 (16.1)	148 (44.1)	95 (28.3)	26 (7.7)	1 (0.3)	3,396,131
대마		0 (0.0)	0 (0.0)	2 (7.4)	16 (59.3)	9 (33.3)	0 (0.0)	0 (0.0)	3,285,185

[그림 3-106] 2024년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 나.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약식명령 현황

[표 3-87] 연도별 전체 마약류 사범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 )는 분포비율]

구분 연도	3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2005	29 (7.6)	32 (8.4)	99 (26.1)	82 (21.6)	73 (19.2)	33 (8.7)	27 (7.1)	5 (1.3)
2006	24 (6.0)	54 (13.6)	68 (17.1)	91 (22.9)	79 (19.9)	56 (14.1)	22 (5.5)	3 (0.8)
2007	46 (8.9)	46 (8.9)	105 (20.4)	90 (17.5)	140 (27.2)	58 (11.3)	27 (5.2)	3 (0.6)
2008	56 (12.1)	67 (14.4)	93 (20.0)	66 (14.2)	85 (18.3)	65 (14.0)	29 (6.3)	3 (0.7)
2009	82 (10.8)	95 (12.6)	201 (26.6)	154 (20.4)	150 (19.8)	59 (7.8)	14 (1.9)	1 (0.1)
2010	27 (7.3)	42 (11.3)	81 (21.8)	59 (15.9)	85 (22.9)	61 (16.4)	14 (3.8)	2 (0.5)
2011	21 (6.0)	22 (6.3)	62 (17.6)	62 (17.6)	101 (28.7)	56 (15.9)	25 (7.1)	3 (0.9)
2012	7 (3.0)	16 (6.8)	50 (21.1)	24 (10.1)	78 (32.9)	47 (19.8)	14 (5.9)	1 (0.4)
2013	10 (3.2)	33 (10.5)	51 (16.3)	51 (16.3)	84 (26.8)	57 (18.2)	23 (7.4)	4 (1.3)
2014	11 (3.9)	29 (10.4)	46 (16.5)	47 (16.9)	72 (25.8)	50 (17.9)	23 (8.2)	1 (0.4)
2015	10 (3.1)	40 (12.2)	81 (24.8)	61 (18.7)	61 (18.7)	59 (18.0)	15 (4.6)	0 (0.0)
2016	6 (1.8)	27 (8.2)	96 (29.1)	72 (21.8)	72 (21.8)	53 (16.1)	3 (0.9)	1 (0.3)
2017	11 (3.3)	37 (11.2)	56 (16.9)	50 (15.1)	84 (25.4)	83 (25.1)	8 (2.4)	2 (0.6)
2018	12 (5.3)	25 (11.0)	44 (19.3)	34 (14.9)	65 (28.5)	39 (17.1)	9 (4.0)	0 (0.0)
2019	1 (0.4)	20 (8.4)	58 (24.3)	31 (13.0)	61 (25.5)	51 (21.3)	17 (7.1)	0 (0.0)
2020	10 (3.3)	29 (9.6)	92 (30.5)	59 (19.5)	68 (22.5)	33 (10.9)	11 (3.6)	0 (0.0)
2021	2 (0.9)	20 (9.4)	68 (31.9)	35 (16.4)	44 (20.7)	26 (12.2)	16 (7.5)	2 (0.9)
2022	8 (3.7)	40 (18.4)	46 (21.2)	32 (14.8)	50 (23.0)	26 (12.0)	15 (6.9)	0 (0.0)
2023	13 (3.8)	37 (10.7)	75 (21.7)	47 (13.6)	81 (23.5)	62 (18.0)	30 (8.7)	0 (0.0)
2024	7 (1.7)	18 (4.2)	87 (20.5)	68 (16.0)	111 (26.1)	107 (25.2)	26 (6.1)	1 (0.2)

## 다. 연도별 마약사범 약식명령 현황

[표 3-88] 연도별 마약사범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 )는 분포비율]

구분 연도	3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평균금액
2005	20 (13.4)	26 (17.5)	46 (30.9)	30 (20.1)	16 (10.7)	3 (2.0)	8 (5.4)	0 (0.0)	1,659,060
2006	16 (13.1)	37 (30.3)	39 (32.0)	24 (19.7)	4 (3.3)	1 (0.8)	1 (0.8)	0 (0.0)	1,059,016
2007	40 (26.5)	31 (20.5)	43 (28.5)	21 (13.9)	12 (8.0)	1 (0.7)	1 (0.7)	2 (1.3)	1,299,338
2008	43 (24.9)	50 (28.9)	54 (31.2)	19 (11.0)	5 (2.9)	2 (1.2)	0 (0.0)	0 (0.0)	833,526
2009	70 (24.5)	79 (27.6)	100 (35.0)	28 (9.8)	8 (2.8)	1 (0.4)	0 (0.0)	0 (0.0)	805,594
2010	25 (21.6)	33 (28.5)	37 (31.9)	8 (6.9)	7 (6.0)	6 (5.2)	0 (0.0)	0 (0.0)	1,018,966
2011	16 (19.3)	18 (21.7)	31 (37.4)	10 (12.1)	5 (6.0)	2 (2.4)	1 (1.2)	0 (0.0)	1,153,012
2012	6 (10.9)	11 (20.0)	23 (41.8)	5 (9.1)	3 (5.5)	6 (10.9)	1 (1.8)	0 (0.0)	1,490,909
2013	7 (10.0)	21 (30.0)	19 (27.1)	12 (17.1)	7 (10.0)	2 (2.9)	1 (1.4)	1 (1.4)	1,604,286
2014	7 (12.1)	14 (24.1)	18 (31.0)	13 (22.4)	3 (5.2)	1 (1.7)	2 (3.5)	0 (0.0)	1,479,310
2015	10 (10.0)	36 (36.0)	31 (31.0)	11 (11.0)	6 (6.0)	3 (3.0)	3 (3.0)	0 (0.0)	1,278,000
2016	5 (4.6)	15 (13.9)	52 (48.2)	23 (21.3)	9 (8.3)	4 (3.7)	0 (0.0)	0 (0.0)	1,346,296
2017	11 (12.1)	23 (25.3)	32 (35.2)	12 (13.2)	8 (8.8)	4 (4.4)	1 (1.1)	0 (0.0)	1,298,901
2018	11 (20.0)	14 (25.5)	20 (36.4)	4 (7.3)	3 (5.5)	3 (5.5)	0 (0.0)	0 (0.0)	1,121,818
2019	1 (2.7)	6 (16.2)	20 (54.1)	5 (13.5)	0 (0.0)	3 (8.1)	2 (5.4)	0 (0.0)	1,651,351
2020	7 (9.7)	21 (29.2)	36 (50.0)	3 (4.2)	3 (4.2)	2 (2.8)	0 (0.0)	0 (0.0)	938,889
2021	1 (1.6)	12 (19.7)	39 (63.9)	3 (4.9)	3 (4.9)	3 (4.9)	0 (0.0)	0 (0.0)	1,204,918
2022	4 (6.5)	28 (45.2)	20 (32.3)	5 (8.1)	2 (3.2)	1 (1.6)	2 (3.2)	0 (0.0)	1,180,645
2023	9 (8.9)	28 (27.7)	42 (41.6)	9 (8.9)	8 (7.9)	4 (4.0)	1 (1.0)	0 (0.0)	1,248,515
2024	1 (1.6)	12 (19.4)	31 (50.0)	8 (12.9)	7 (11.3)	3 (4.8)	0 (0.0)	0 (0.0)	1,395,161

## 라. 연도별 행정사법 약식명령 현황

[표 3-89] 연도별 행정사법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 )는 분포비율]

구분 연도	3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평균금액
2005	4 (2.1)	6 (3.2)	43 (22.9)	41 (21.8)	49 (26.1)	22 (11.7)	18 (9.6)	5 (2.7)	3,241,489
2006	6 (3.0)	12 (6.1)	23 (11.7)	44 (22.3)	51 (25.9)	43 (21.8)	15 (7.6)	3 (1.5)	3,363,452
2007	6 (2.3)	12 (4.5)	43 (16.2)	50 (18.8)	94 (35.3)	39 (14.7)	21 (7.9)	1 (0.4)	3,048,496
2008	10 (4.6)	15 (6.9)	21 (9.7)	35 (16.2)	57 (26.4)	56 (25.9)	19 (8.8)	3 (1.4)	3,543,519
2009	7 (2.4)	6 (2.1)	51 (17.5)	97 (33.3)	80 (27.5)	38 (13.1)	11 (3.8)	1 (0.3)	2,663,918
2010	2 (1.5)	4 (2.9)	28 (20.6)	22 (16.2)	40 (29.4)	30 (22.1)	9 (6.6)	1 (0.7)	3,169,853
2011	3 (1.7)	2 (1.1)	24 (13.4)	33 (18.4)	59 (33.0)	35 (19.6)	21 (11.7)	2 (1.1)	3,599,441
2012	1 (0.8)	4 (3.3)	24 (19.7)	13 (10.7)	41 (33.6)	25 (20.5)	13 (10.7)	1 (0.8)	3,422,131
2013	2 (1.1)	10 (5.5)	27 (14.8)	24 (13.1)	59 (32.2)	39 (21.3)	19 (10.4)	3 (1.6)	3,614,754
2014	2 (1.2)	14 (8.4)	24 (14.4)	22 (13.2)	49 (29.3)	42 (25.2)	13 (7.8)	1 (0.6)	3,528,144
2015	0 (0.0)	3 (1.6)	43 (22.8)	40 (21.2)	46 (24.3)	47 (24.9)	10 (5.3)	0 (0.0)	2,978,836
2016	1 (0.6)	10 (5.5)	39 (21.6)	39 (21.6)	55 (30.4)	33 (18.2)	3 (1.7)	1 (0.6)	2,709,392
2017	0 (0.0)	10 (5.6)	19 (10.7)	21 (11.8)	56 (31.5)	63 (35.4)	7 (3.9)	2 (1.1)	3,582,584
2018	1 (0.7)	10 (7.1)	24 (17.1)	21 (15.0)	48 (34.3)	27 (19.3)	9 (6.4)	0 (0.0)	2,967,143
2019	0 (0.0)	13 (8.0)	30 (18.5)	20 (12.4)	47 (29.0)	38 (23.5)	14 (8.6)	0 (0.0)	3,167,284
2020	3 (1.5)	7 (3.5)	49 (24.4)	48 (23.9)	57 (28.4)	29 (14.4)	8 (4.0)	0 (0.0)	2,604,975
2021	1 (0.8)	7 (5.5)	25 (19.5)	30 (23.4)	32 (25.0)	20 (15.6)	11 (8.6)	2 (1.6)	3,120,313
2022	4 (3.2)	10 (7.9)	23 (18.3)	23 (18.3)	38 (30.2)	19 (15.1)	9 (7.1)	0 (0.0)	2,765,079
2023	4 (1.9)	8 (3.7)	27 (12.6)	35 (16.3)	67 (31.2)	47 (21.9)	27 (12.6)	0 (0.0)	3,464,651
2024	6 (1.8)	6 (1.8)	54 (16.1)	54 (16.1)	94 (28.0)	95 (28.3)	26 (7.7)	1 (0.3)	3,396,131

## 마. 연도별 대마사범 약식명령 현황

[표 3-90] 연도별 대마사범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 )는 분포비율]

구분 연도	3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평균금액
2005	5 (11.6)	0 (0.0)	10 (23.3)	11 (25.6)	8 (18.6)	8 (18.6)	1 (2.3)	0 (0.0)	2,367,442
2006	2 (2.6)	5 (6.6)	6 (7.9)	23 (30.3)	22 (29.0)	12 (15.8)	6 (7.9)	0 (0.0)	3,023,684
2007	0 (0.0)	3 (3.2)	19 (20.0)	17 (17.9)	33 (34.7)	18 (19.0)	5 (5.3)	0 (0.0)	2,982,105
2008	3 (4.0)	2 (2.7)	18 (24.0)	12 (16.0)	23 (30.7)	7 (9.3)	10 (13.3)	0 (0.0)	2,953,333
2009	5 (2.9)	10 (5.7)	48 (27.4)	28 (16.0)	61 (34.9)	20 (11.4)	3 (1.7)	0 (0.0)	2,351,429
2010	0 (0.0)	4 (3.5)	16 (14.0)	28 (24.6)	36 (31.6)	25 (21.9)	4 (3.5)	1 (0.9)	3,045,614
2011	2 (2.2)	2 (2.2)	7 (7.8)	19 (21.1)	37 (41.1)	19 (21.1)	3 (3.3)	1 (1.1)	3,158,889
2012	0 (0.0)	1 (1.8)	3 (5.3)	6 (10.5)	32 (56.1)	15 (26.3)	0 (0.0)	0 (0.0)	3,192,982
2013	1 (1.7)	2 (3.3)	5 (8.3)	15 (25.0)	18 (30.0)	16 (26.7)	3 (5.0)	0 (0.0)	3,163,333
2014	2 (4.1)	1 (2.0)	2 (4.1)	10 (20.4)	19 (38.8)	7 (14.3)	8 (16.3)	0 (0.0)	3,716,327
2015	0 (0.0)	1 (2.6)	7 (18.4)	10 (26.3)	9 (23.7)	9 (23.7)	2 (5.3)	0 (0.0)	3,057,895
2016	0 (0.0)	2 (4.9)	5 (12.2)	10 (24.4)	8 (19.5)	16 (39.0)	0 (0.0)	0 (0.0)	3,000,000
2017	0 (0.0)	4 (6.6)	5 (8.2)	16 (26.2)	20 (32.8)	16 (26.2)	0 (0.0)	0 (0.0)	2,868,852
2018	0 (0.0)	1 (3.6)	0 (0.0)	6 (21.4)	12 (42.9)	9 (32.1)	0 (0.0)	0 (0.0)	3,303,571
2019	0 (0.0)	1 (3.5)	5 (17.2)	4 (13.8)	9 (31.0)	9 (31.0)	1 (3.5)	0 (0.0)	3,189,655
2020	0 (0.0)	1 (3.6)	7 (25.0)	7 (25.0)	8 (28.6)	2 (7.1)	3 (10.7)	0 (0.0)	2,721,429
2021	0 (0.0)	1 (4.4)	3 (13.0)	2 (8.7)	9 (39.1)	3 (13.0)	5 (21.7)	0 (0.0)	3,804,348
2022	0 (0.0)	2 (7.4)	2 (7.4)	4 (14.8)	10 (37.0)	5 (18.5)	4 (14.8)	0 (0.0)	3,914,815
2023	0 (0.0)	1 (3.5)	6 (20.7)	3 (10.3)	6 (20.7)	11 (37.9)	2 (6.9)	0 (0.0)	3,420,690
2024	0 (0.0)	0 (0.0)	2 (7.4)	6 (22.2)	10 (37.0)	9 (33.3)	0 (0.0)	0 (0.0)	3,285,185

## 8. 연도별 재범 현황

### 가. 연도별 재범 현황

[표 3-91] 연도별 재범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사범	7,154	7,709	10,649	9,898	11,875	9,732	9,174	9,255	9,764	9,984
재범인원	3,059	3,468	4,328	3,793	4,018	3,583	3,356	3,611	3,891	3,817
재범률(%)	42.8	45.0	40.6	38.3	33.8	36.8	36.6	39.0	39.8	38.2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사범	11,916	14,214	14,123	12,613	16,044	18,050	16,153	18,395	27,611	23,022
재범인원	4,499	5,285	5,131	4,622	5,710	5,933	5,916	6,436	9,058	7,941
재범률(%)	37.8	37.2	36.3	36.6	35.6	32.9	36.6	35.0	32.8	34.5

※ 재범인원은 마약류 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마약류 사범으로 다시 입건된 인원임

## 나. 연도별 마약류별 재범률

[표 3-92] 연도별 마약류별 재범률(1)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768	5,354	1,032	868	6,006	835	958	8,521	1,170	1,396	7,457	1,045	2,198	7,965	1,712
재범인원	35	2,667	357	53	3,071	344	60	3,812	456	55	3,326	412	99	3,333	586
재범률(%)	4.6	49.8	34.6	6.1	51.1	41.2	6.3	44.7	39.0	3.9	44.6	39.4	4.5	41.8	34.2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1,153	9,624	1,139	1,383	11,336	1,435	1,475	10,921	1,727	1,467	9,613	1,533	1,804	11,611	2,629
재범인원	77	4,009	413	101	4,641	543	115	4,451	565	123	3,946	553	207	4,652	851
재범률(%)	6.7	41.7	36.3	7.3	40.7	37.8	7.8	40.8	32.7	8.4	41.0	36.1	11.5	40.1	32.4

[그림 3-107] 연도별 마약류별 재범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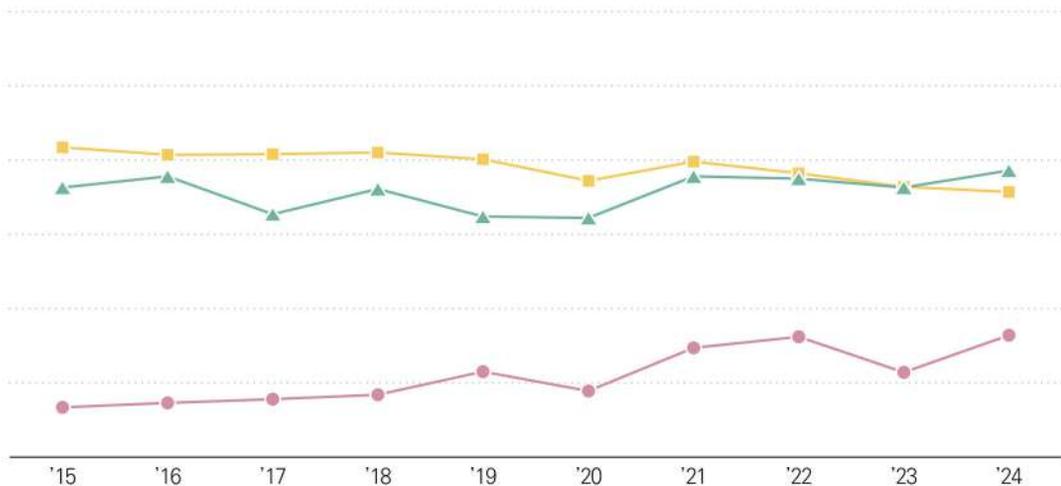


[표 3-93] 연도별 마약류별 재범률(2)

[단위: 명]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1,124	6,771	1,837	759	7,226	1,189	582	7,631	1,042	685	7,902	1,177	676	8,121	1,187
재범인원		182	2,808	593	62	2,877	417	134	3,101	376	127	3,387	377	63	3,327	427
재범률(%)		16.2	41.5	32.3	8.2	39.8	35.1	23.0	40.6	36.1	18.5	42.9	32.0	9.3	41.0	36.0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2,198	12,640	3,212	1,745	10,631	3,777	2,551	12,035	3,809	3,970	19,556	4,085	1,954	17,751	3,317
재범인원		196	4,704	1,033	256	4,233	1,427	412	4,594	1,430	452	7,122	1,484	320	6,342	1,279
재범률(%)		8.9	37.2	32.2	14.7	39.8	37.8	16.2	38.2	37.5	11.4	36.4	36.3	16.4	35.7	38.6

[그림 3-108] 연도별 마약류별 재범률



## 다. 연도별 재범의 전과내역

[표 3-94] 연도별 재범의 전과내역

[단위: 명]

구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	합계	35	2,667	357	53	3,071	344	60	3,812	456	55	3,326	412	99	3,333	586
동종 마약류	전과인원	12	2,126	234	23	2,487	198	23	3,076	293	39	2,676	255	57	2,786	329
이종 마약류	전과인원	19	118	56	21	114	60	31	141	57	13	148	59	29	110	95
복합	전과인원	4	423	67	9	470	86	6	595	106	3	502	98	13	437	162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	합계	182	2,808	593	62	2,877	417	134	3,101	376	127	3,387	377	63	3,327	427
동종 마약류	전과인원	110	2,270	360	26	2,401	283	19	2,555	212	35	2,753	236	15	2,731	257
이종 마약류	전과인원	52	98	94	28	64	45	89	89	57	64	103	53	32	92	69
복합	전과인원	20	440	139	8	412	89	26	457	107	28	531	88	16	504	101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	합계	77	4,009	413	101	4,641	543	115	4,451	565	123	3,946	553	207	4,652	851
동종 마약류	전과인원	32	3,269	242	41	3,795	328	47	3,711	372	58	3,291	342	95	3,832	592
이종 마약류	전과인원	39	90	72	52	135	87	58	106	85	51	104	73	78	137	125
복합	전과인원	6	650	99	8	711	128	10	634	108	14	551	138	34	683	134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	합계	196	4,704	1,033	256	4,233	1,427	412	4,594	1,430	452	7,122	1,484	320	6,342	1,279
동종(마약류)	전과인원	99	3,840	728	149	3,402	1,066	204	3,712	1,008	198	5,947	969	148	5,127	787
이종(마약류)	전과인원	79	145	128	65	143	135	111	163	148	177	199	208	111	195	173
복합전과	인원	18	719	177	42	688	226	97	719	274	77	976	307	61	1,020	319

※ 복합전과인원 : 마약, 대마, 향정 중 2개 이상의 전과경력이자 재범한 인원

## 9. 연도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감호 현황

### 가. 근거 법령

- 치료보호<sup>44)</sup>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35251호)
- 치료감호<sup>45)</sup>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 나. 연도별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 현황

[표 3-95] 연도별 치료보호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81	23	65	73	191	252	330	
입원	자의	59	10	50	51	90	108	
	검찰의뢰	21	12	14	15	10	3	
	기타의뢰	1	1	1	·	1	·	
외래	자의	·	·	·	6	83	209	
	검찰의뢰	·	·	·	·	7	10	
	기타의뢰	·	·	·	1	·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67	260	143	280	421	641	875	
입원	자의	87	89	48	90	81	226	237
	검찰의뢰	2	2	1	·	·	·	·
	기타의뢰	·	·	·	·	·	·	·
외래	자의	175	153	86	189	326	401	615
	검찰의뢰	3	16	8	1	14	14	23
	기타의뢰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44) 전국 31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치료 의뢰하는 조치로, 입원기간은 2개월 단위이며 최대 12개월까지임. 다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지침)에 의해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외래치료 까지 확대 시행 중에 있음

45)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됨

## 다. 연도별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기관 현황 및 실적

[표 3-96] 연도별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기관 현황 및 실적

[단위: 명]

지역	병원명	지정 병상 수	치료보호 실적(명)			
			2005	2006	2007	2008
합계			359	389	410	366
서울	국립서울병원	5	·	·	·	·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19	12	4	5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	2	·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5	·	·	·	·
	인천기독병원	10	6			
대전	한마음정신병원	70	19	15	4	11
대구	대구의료원	30	1	·	1	·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0	·	·	·	·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30	·	·	·	·
울산	큰빛병원	12	5	·	3	3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2	·	2	3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4	1	2	9
	용인정신병원	10	18	23	13	10
	계요병원	10	18	23	8	21
강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24	·	4	·	·
충북	충청북도청주의료원	10	·	·	·	·
충남	충청남도홍성의료원	6	·	·	·	1
경북	경상북도포항의료원	3	·	·	·	·
경남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	200	266	309	373	303
	경상남도진주의료원	4	·	·	·	·
전북	전라북도군산의료원	10	1	·	·	·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	·	·	·
	전라남도목포시의료원	10	·	·	·	·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10	·	·	·	·

지역	병원명	지정 병상 수	치료보호 실적(명)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284	231	81	23	65
서울	국립서울병원	2	·	·	·	·	·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4	5	3	2	2
	강남을지병원	2	·	·	·	·	·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	·	·	·	·	·
대구	대구의료원	2	·	·	1	·	3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	1	·	·	·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	·	·	·	·
대전	참다남병원	4	·	·	·	·	·
울산	큰빛병원	12	·	1	·	·	·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3	2	4	2	2
	용인정신병원	10	8	11	6	4	3
경기	계요병원	10	7	3	4	5	2
	국립춘천병원	10	·	·	·	·	·
	충북	청주의료원	2	·	·	·	·
충남	국립공주병원	10	·	·	2	1	·
전북	군산의료원	1	·	·	·	·	·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	·	·	·	·
경북	포항의료원	3	·	·	·	·	·
경남	국립부곡병원	200	262	208	61	9	53
	양산병원	2	·	·	·	·	·
제주	연강병원	2	·	·	·	·	·

제1장 미역류의 개요

제2장 미역류 범죄 단속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지역	병원명	지정 병상 수	치료보호 실적(명)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73	191	252	330	267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2	1	·	1	·	·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4	4	·	2	4
	강남을지병원	2	6	83	146	206	136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1	4	·	·	·
	참사랑병원	8	·	·	·	29	26
대전	참다남병원	4	·	1	2	·	·
대구	대구의료원	2	4	6	2	2	1
부산	부산광역시 의료원	2	1	2	5	4	1
울산	큰빛병원	12	·	·	·	1	·
	마더스병원	84	·	·	·	·	35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	·	·	·	·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	1	2	·	·
	용인정신병원	10	11	8	3	1	·
	계요병원	10	4	3	3	3	1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	·	·	1	·
충북	청주의료원	2	·	·	·	·	1
충남	국립공주병원	10	·	·	·	·	·
경북	포항의료원	3	·	·	·	·	·
경남	국립부곡병원	200	41	78	86	81	62
	양산병원	2	·	·	·	·	·
전북	원광대학교 병원	2	·	·	2	·	·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	·	·	·	·
제주	연강병원	2	·	1	·	·	·

지역	병원명	지정 병상 수	치료보호 실적(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31개 의료기관(24. 12.)	341	260	143	280	421	641	875
서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4	3	1	·	23	43
	국립정신건강센터	2	·	2	2	2	·	34
부산	부산의료원	2	5	2	1	1	·	1
	부산시립정신병원	8	·	·	·	·	·	4
대구	대구의료원	2	2	·	1	4	8	8
	대동병원	25	·	·	·	·	47	55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	·	·	·	4	9
	인천참사랑병원	50	126	71	164	276	461	509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5	·	·	·	·	·	·
대전	참다남병원	4	·	2	2	1	1	6
	마인드병원	2	·	·	·	·	·	·
울산	마더스병원	10	·	·	·	·	1	·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5	·	·	·	·	·	·
	용인정신병원	10	1	1	·	·	·	·
	경기도립정신병원	10						16
	계요병원	10	9	7	2	2	·	·
	아주편한병원	2						·
	이천소망병원	5						·
	더블유진병원	1						·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						3
	국립춘천병원	10	·	·	·	·	·	·
충북	청주의료원	2	2	1	·	·	·	·
충남	국립공주병원	2	·	·	·	·	·	3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2	1	·	·	1	·	18
	신세계병원	32	·	·	·	·	2	6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4	·	·	·	·	·	·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	·	·	·	1	6
경북	포항의료원	3	·	·	·	·	·	·
경남	국립부곡병원	90	110	54	107	134	93	141
	양산병원	2	·	·	·	·	·	·
제주	연강참병원	2	·	·	·	·	·	13

※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10. 연도별 마약류 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 가. 연도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표 3-97] 연도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14	13	10	16	3	22	14	14	11

※ 2016년부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 나. 연도별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표 3-98] 연도별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338	129	194	281	439	521

※ 2019년부터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 다. 연도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표 3-99] 연도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원	8	22	20	73	91	102	208	135	74	87	131	140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421	503	648	722	470	800	897	1,187	1,258	1,087	773	

※ 2002년부터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하고 있음

## 라. 연도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표 3-100] 연도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24
인원	148

※ '24. 4. 실시된 제도로 실무상으로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어 위 나항 통계와 중복됨

[그림 3-109] 연도별 치료보호 현황



Chapter 04.

# 국제협력 현황

**제1절**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제2절** 검찰의 국제협력  
**제3절** 검찰의 국제 공조 수사사례

# 제1절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 1. 국제협약

### 가. 마약단일협약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 마약 관리 기구를 일원화하자는 취지로 1961년 3월 30일 체결, 1964년 12월 13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36개국에 발효함(조약 제139호)
- 본 협약을 근거로 마약류 사용을 의료·학술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중점으로 하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INCB)를 설치함
-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 CND)와 함께 대표적인 마약 관리 기구로서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함

### 나.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 1971년 2월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되어, 1976년 8월 16일부터 전 세계 134개국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8년 4월 12일에 발효됨(조약 제619호)
- 기존 마약단일협약은 그 범위가 아편류, 코카류, 대마초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후 새롭게 발견된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으나, 기타 향정신성 약물(암페타민계 각성제, 진정·수면제, 환각제 등)의 남용이 성행하자 마약으로 분류된 약물은 물론 기타 향정신성 약물들도 공동으로 규제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한 협약임
- 관리대상 물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물질로 각성제·환각제·진정제 등이 있음

## 다.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1988년 12월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되어, 1990년 11월 11일 전 세계 110개국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3월 28일에 발효됨(조약 제1476호)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의 위법성을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실효적인 방지·처벌을 목적으로 함
- 각국은 불법 거래 행위 유형(생산, 제조, 추출, 제공, 분배, 판매, 발송, 운송, 수출입, 소지 등)에 대한 인식·고의·목적(객관적인 사실의 상황에 의해 확인)이 있는 행위를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각국의 의무를 강조하였음
-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6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법 정비를 완료함

## 라. 유엔 세계 마약퇴치의 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 1987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마약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 촉구하여 마약 없는 깨끗한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결의함
-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법률 제14834호,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마약퇴치의 날)



-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주관하며, 매년 국내 마약류 퇴치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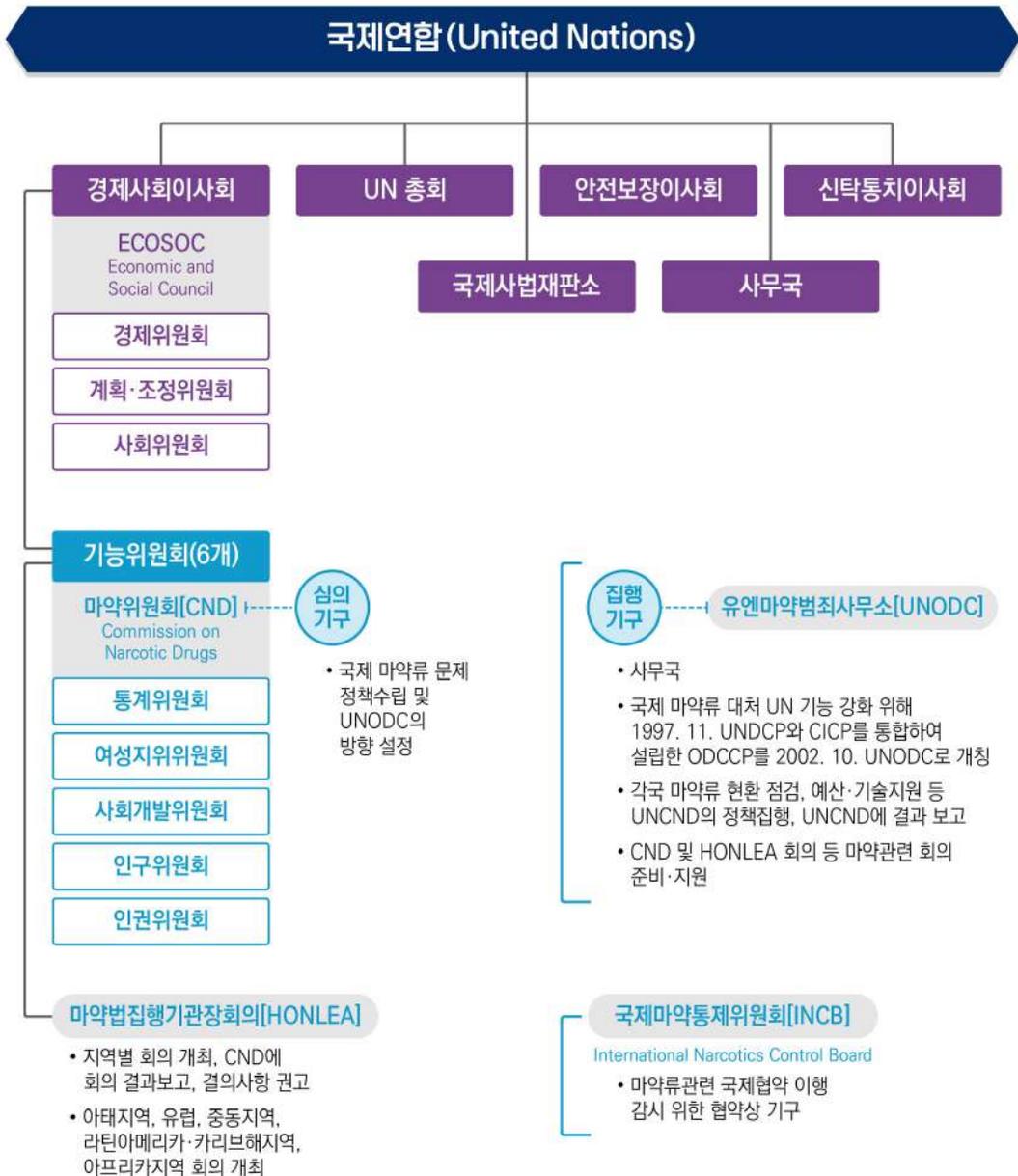
[그림 4-1]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 2. 국제기구

- 국제연합(UN) 산하 마약류 범죄 대응 국제기구

[그림 4-2] 마약류 범죄 대응 국제기구



제1장 마약류의 개요

제2장 마약류 범죄 대응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 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1997년 오스트리아 빈에 설립, 마약류 범죄를 비롯하여 테러, 부패, 인신매매 등의 파생범죄에 대해 상호협력 및 조정기능을 수행함
- 주요 기능 및 업무
  - ▷ 마약류 범죄, 일반 파생범죄에 관한 연구, 정책 분석 및 전략 수립
  - ▷ 마약류 통제, 대테러 관련 국제협약 이행 감독 및 국제 공조 지원
  - ▷ 회원국의 협약 준수를 위한 입법 조치, 기술지원
  - ▷ 마약위원회(CND),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초국가범죄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등의 사무국 역할 수행
  - ▷ 동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아시아·태평양·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사무소(Field Office) 운용
  - ▷ ‘세계 마약 보고서(World Drug Report)’ 발간<sup>46)</sup>

[그림 4-3] UNODC 로고(좌) 및 세계마약보고서(우)



46) 검색엔진에서 'World Drug Report' 입력 후 무료 다운로드 가능

## 나.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1961년 체결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해 1968년에 창설된 유엔 산하 독립기구로, 위원장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sup>47)</sup>되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보건기구(WHO)와 더불어 유엔의 마약 관련 3대 기구임
-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기체결된 마약 관련 국제협약의 각국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수출입 감독, 불법 전용 예방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
- 1988년 체결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마약위원회(CND)에 국제 마약 현황 등을 연례 보고하고 있음

[그림 4-4] INCB 로고



47) 유엔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10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3명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선출, 현재 위원 현황은 INCB 공식 홈페이지([www.incb.org](http://www.incb.org))에서 확인 가능하며 임기는 5년임

## 다. 마약위원회 (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마약전담 위원회로서 표결권을 가진 53개 위원국<sup>48)</sup>으로 구성되고, 마약위원회(CND) 회의를 통해 위원국 외에도 비위원국, 국제기구 등이 참석하여 세계 마약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
  - ▷ 우리나라가 위원국으로 활동한 기간은 ❶ 1962~1967년, ❷ 1982~1985년, ❸ 1997~2003년, ❹ 2006~2009년, ❺ 2012~2019년(1994년 제37차 회의 의장국으로 선출)이며, 2021년 재당선에 따라 2022~2025년(4년) 동안 표결권 행사 등 위원국 활동 예정(위 홈페이지 Useful resources/Current membership 참조)
- 회원국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세계보건기구(WHO) 등을 중심으로 기관 간 국제협력 공조를 강화하고, 회기별로 1개 의제를 논의한 후 관련 데이터 활용을 확대(1차 2024년 회기, 2차 2029년 회기 중 이행사항 점검)하기로 합의

[그림 4-5] CND 로고



48) 위원국에 관한 사항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결의안(1991/49)에 따라 지역별로 위원국 수(53개국)가 배정(아프리카 11개국, 아시아 11개국, 남미 10개국, 동유럽 6개국, 서유럽 및 기타지역 14개국, 1개국은 4년 주기로 지역별 순환)되어 운영 중이고, 위원국 현황 및 관련 세부사항은 마약위원회 사이트([www.unodc.org](http://www.unodc.org))에 'Fact sheet elections and membershi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라. 아·태 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HONLAP)

- CND 산하 지역(대륙)별 회의로, ❶ 아·태 지역(HONLAP), ❷ 유럽 지역(HONEUR), ❸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HONLAC), ❹ 아프리카 지역(HONLAF), ❺ 중동 지역 (Subcommission in the Near and Middle East) 회의 중 하나이며, 지역 내 마약단속기관이 참석하여 각국의 마약류 동향 및 사례 발표 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 아·태 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AP)는 매년 10~11월경 개최 희망국에서 개최함

[그림 4-6] HONLAP 로고



## 제2절 검찰의 국제협력

### 1. 국제협력 연혁

- 한국 검찰은 불법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제사회의 마약류 퇴치에 동참하기 위해 1989년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창설, 2007년 마약퇴치 지원사업 시작, 2012년 ASEAN 10개국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를 위한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 (APICC) 설립 등 국제협력관계를 꾸준히 구축하여 왔음
- 검찰은 마약 관련 주요 국제회의(UNCND, IDEC, ADEC 등) 참석, 수사관 상호파견 등 35여 년에 걸쳐 구축한 긴밀한 국제공조체계를 이용하여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수의 국외 도피 마약사범을 추적·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하는 등 수사공조하고 있음

### 2. 2024년 국제협력 활동

#### 가. 제26차 아·태마약단속회의(ADEC<sup>49)</sup>)

- 개요
  - 일본 경찰청이 1995년부터 연례적으로 주관(통상 1~2월)하는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로, 미국·중국·호주 등 아·태 지역 20개 이상 국가 및 UN·인터폴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참석하고 각국의 마약류 관련 통계, 단속현황 및 밀거래 특이동향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과 국제 공조 강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함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월 30일 ~ 31일(2일), 일본 도쿄
- 회의 규모 : 미국(DEA), 호주(연방경찰), 태국(ONCB), 멕시코(검찰), UNODC, ICPO(인터폴) 등 30개국 및 2개 국제기구에서 80여 명의 마약관계관 참석

49) Asia-Pacific Oper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 • 주요 내용

### (1) 일본 경찰청장(개회사)

- 1995년에 창설된 아·태마약단속회의(ADEC)는 지역협력 증대자 역할을 이행해 왔는데, 최근 일본 내 청년층들의 필로폰·대마·NPS 밀매 등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지고, 마약범죄 조직의 단속망 회피 수법이 첨단화됨에 따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 (2) 각국 및 국제기구 주요 발언

- **UNODC** : ① 지역 내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제조 압수량과 밀거래 최신 동향, ② 전통적 아편과 헤로인 우세 지역인 인도, 방글라데시의 필로폰 압수량 급증 현상, ③ 동남아 지역 케타민 제조·압수 증가 상황, ④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제조한 케타민의 한국 유입 급증 현황 등을 언급함
- **일본 경찰청** : 2023년 마약사범 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3,338명이며, 최근 필로폰·대마 압수량 급증하였고, 미국·멕시코·말레이시아·캐나다·태국 등 필로폰 공급원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임
- **필리핀 마약청** : 마약류 납용자 수 167만 명으로, 주로 필로폰(사부)·대마 납용, 파키스탄, 골든트라이앵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멕시코가 주요 공급원이며, 해상·항공·국제우편물 이용 밀반입과 다크웹 밀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태국 마약청** : 2021년 이후 마약류 단속·사범 수와 야바·필로폰 압수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 마약조직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생산된 마약류와 원료물질을 제조 경로를 세탁하기 위해 태국을 경유하고 있음. 2023년 한국 검찰과 공조를 통해 한국인 마약사범 6명을 체포하는 등 국제 공조 사례를 소개함
- **미국 DEA** : 펜타닐·유사마약 폐해의 심각성, 단속 현장 수사관들의 안전 우려 문제점, AI 이용 등 새로운 대응 필요성 등을 언급함
- **호주 범죄정보위원회** : 마약 수요 정보분석 관련 2016년 하수 감시프로그램(National Wastewater Drug Monitoring)을 통해 확인된 도시지역 코카인·MDMA·헤로인·케타민, 지방의 MDA·펜타닐·대마 납용 동향과 최근 납용 추이를 소개함
- **한국 검찰청** : 최근 국내 마약류 동향, 해상선박을 통한 대량의 코카인, 필로폰 밀수입 적발 사건, 아·태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의 국제 공조 활동, ADLOMICO 등을 소개함

[그림 4-7] 제26차 아·태마약단속회의(ADEC)



- 인터폴 ICPO : 대테러, 사이버범죄, 조직범죄, 경제·반부패범죄 등 4대 국제범죄에 중점 대응하고, 중대조직범죄 관련 마약팀, 조직범죄팀, 도난차량팀, 위조·보안문서팀 간 형사네트워크 구성하고 있음. 마약대응팀[INTERPOL Response Against Illicit Drugs (I-RAID)], 마약류 표면 문양 및 마크 인식 정보팀(INTERPOL Relief Database) 운영 및 코카인 2.5kg 압수, 3개 대륙 30여 명 체포 등 수사사례를 소개함

## 나. 제67차 UN 마약위원회(CND) 및 고위급 회의(High-level Segment)

### • 개요

-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매년(통상 3월) 개최하는 회의로 국제 마약류 문제 공동 대처방안 및 이행상황을 점검함
- 2019년 3월 장관급 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을 통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 위원회(INCB),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마약류 수요 및 공급 감축, 기관 간 공조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였고, 2029년 최종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전 2024년 중기점검(Mid-term Review)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함

### • 일시 및 장소

- 고위급 회의(High-level Segment) : 2024년 3월 14일 ~ 15일(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 제67차 마약위원회(CND) : 2024년 3월 18일 ~ 22일(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 • 회의 규모 : 140개 회원국 및 141개 NGO 등 2,500여 명 참석

### • 주요 내용

#### (1) 고위급 회의(High-level Segment)

- 고위급 회의(High-level Segment)는 ‘일반토의’ 및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되며, 일반토의 중 국가별 발언에서는 국제 마약통제협약 및 2019년 장관급 선언 공약의 이행, 기관 간 협력 성과 및 도전과제 등을 주로 논의함
- 자발적 공약 이니셔티브(Pledge4Action)는 장관급 선언 관련, 제67차 CND 의장(주빈 가나대사 Mr. Philbert Johnson)이 주도하여 ① 국가·지역·국제 분야의 상황, ② 이해당사자(Multi stakeholders)간 협력사항, ③ 예산 배분 및 재정적 기여 분야 공약 등을 선언하였고, 라운드테이블은 각국 및 국제기구 출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2019년 이래 진전사항 및 이후 진행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일반토의와 병행하였음
- 한국 정부의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① 대규모 마약 밀반입으로

인한 국내 마약류 유통 및 남용의 증가, ② 젊은층의 마약류 범죄 확산, ③ 범정부 수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의 성과, ④ 마약류 대량 밀반입 및 온라인 거래, ⑤ 의료용 마약 불법유통 집중단속, ⑥ 마약류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⑦ 온라인 마약범죄 인지를 위한 AI 기반의 광학문자 인식, ⑧ 키워드 자동 검출 기능을 갖춘 E-drug Monitoring System 운영 등에 대해 발표하였음

[그림 4-8] 고위급 회의(High-level Segment)에서 발언하고 있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2) 제67차 마약위원회(CND)

- 제67차 CND 의장(개회사) : 이번 중기검토(Mid-term Review)를 통해 고위급 대표들의 자발적 공약 이니셔티브를 발족함. 2029년까지 공약 이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증거에 기반한 접근방식으로 지역사회, 인간 존엄, 청년들의 미래를 보호하도록 강조하였음
- UNODC :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및 대응으로 유해 물질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합성마약류는 계속 등장하고 있어,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 조치를 보완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국가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향정신성 물질과 원료물질에 대한 조기경보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임  
회원국에 대한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코카인 250톤·헤로인 1톤 압수 등 총 20건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자금세탁 관련 프로그램으로 총 1억 4,4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압류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함
- INCB : 마약통제협약에 대한 보편적인 준수가 매우 중요한바, 아직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 각 정부가 INCB의 GRIDS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ICT 도구를 교육하고 활용하도록 권장함. 비의학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함

- **인터폴** : 최근 국제 공조 협력을 통해 300톤의 마약류 원료물질을 압수하고 7억 달러의 불법 자금을 회수한 인터폴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9개국에서 교육을 실시함.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불법 약물의 출처를 추적하고 펜타닐의 밀매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회의를 개최함. 인터폴은 합성의약품에 반대하는 글로벌 연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EU 및 UNODC와 다양한 프로젝트에 협력하여 법집행 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미국** : 2019년 이후 합성마약 과다복용 미국인 사망자 수는 74,000명으로 2배가 되었고, 바이든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마약 공급 차단보다 수요감축 분야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함. 미 정부는 ① 불법 합성마약 원료물질 규제 가속화, ② 과다복용 사망 감축 노력 증진, ③ 공중보건 전문가, 시민사회 등 민간 부문과 협력, ④ 합성마약 글로벌연대 가입 권고 등을 제시함
- **캐나다** : 2023년 10월 30일 「캐나다 의약품·물질 전략」을 시행하여 예방, 치료, 회복, 피해감소 및 약물 통제 등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채택함
- **EU** : 「EU 약물 전략 및 실행계획 2021~2025」에 따라 약물 수요 및 피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고, 인권 중심의 마약문제 해결 접근방식을 장려하며, NGO·청소년·여성·지역사회·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구함
- **중국** : 2019년 이후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됨. 교육 이니셔티브를 강화하여 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마약 중독자를 위한 재활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약 45,000명의 사회 분야 시간제 직원 고용, 마약류 모니터링 및 마약범죄 관련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등 구축하여 제도적 협력 강화를 언급함
- **태국** : 태국 정부의 치료·재활 정책에 따라 마약 남용자들은 범죄자가 아닌 환자적 접근을 채택하여 인권에 기반한 포괄적인 치료법 개발 등 국가 역량을 집중함. 태국의 자금세탁 방지 사무소는 마약, 부패, 사기, 환경, 금융 범죄, 범죄 수익금 관련된 조사 및 압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경찰, FDA, 육군, 산업, 관세, ONCB, 외교부 등이 마약 생산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통제하기 위한 긴급 계획에 참여함
- **인도네시아** : 예방·재활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중 인식 제고 등 소프트웨어 접근 방식전략을 채택하고 특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 : 2028년까지 마약방지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장기 로드맵을 마련함
- **한국 관세청** : 국경의 마약 차단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함. 특히, 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한 여행자 밀수 단속 강화, ②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한 정보역량 강화, ③ 글로벌국제 공조 강화에 더욱 집중함
- **한국 경찰청** : 정부기관 간 협력하여 마약류 범죄를 집중단속하였고, 이에 역대 최대 검거 인원을 기록함. 다크웹·가상통화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소 전 몰수 제도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마약 범죄수익을 차단하고 있음
- **한국 검찰청** : 2022년 마약위원회(UNCND) 위원국으로 재선출됨에 따라 모든 기관 간 협력 이니셔티브 이행 의지를 재확인함. 한국 검찰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매년 개최하고,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및 범죄인 강제송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함

[그림 4-9] 대검찰청 마약과장 발언



(3) 검찰 참석자 주요 활동

- 캄보디아 마약청(NACD) 양자회담

- ▷ 일시 : 2024년 3월 14일
- ▷ 상대국 주요 인사 : 캄보디아 마약청장 등 3명

[주요 논의 사항]

- 캄보디아발 마약류 국내 밀반입, 국내 캄보디아 마약사범 현황 및 대응방안
- 캄보디아 도피 마약사범 검거·송환 등 APICC를 통한 공조 활성화 등을 논의

[그림 4-10] 캄보디아 마약청(NACD) 양자회담



#### - 미 대사관 주최 합성마약 글로벌연대 관련 리셉션

- ▷ 일시 : 2024년 3월 14일, 주 비엔나 미국대사관
- ▷ 상대국 주요 인사 : 빈 국제기구 미국 대사, 백악관 국가마약통제국장, 국제마약법집행 담당 국무부 차관보

##### [주요 논의 사항]

- 2024년 7월 발족한 합성마약 글로벌연대 참여국(80개국) 대표단의 수석대표를 초청
-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주최 측 및 각국 대표들과 합성마약 대응에 관한 협력의사 재확인

#### - 키르기스스탄 마약청(CNS) 양자회담

- ▷ 일시 : 2024년 3월 15일
- ▷ 상대기관 주요 인사 : 키르기스스탄 마약청장 등 4명

##### [주요 논의 사항]

- 무인 항공 장비 운용 실태 및 포렌식·마약 탐지견 등 분야 협력 강화 방안
- CNS를 대상으로 진행 예정인 2025년도 ODA 마약 통제 역량강화 사업 관련 필수

#### - 인터폴(ICPO) 양자회담

- ▷ 일시 : 2024년 3월 15일
- ▷ 상대기관 주요 인사 : 인터폴 다자협력 국장 외 2명

**[주요 논의 사항]**

- 세계 마약문제 대응 국제협력 강화와 관련, 한-인터폴 간 협력 분야 논의
- 한국 검찰의 'E-drug Monitoring System' 등 소개, 제31차 아드로미코 개최 홍보 등

**[그림 4-11]** 키르기스스탄 마약청(CNS) 양자회담(좌), 인터폴(ICPO) 양자회담(우)



**- UNODC 고위급 인사 양자회의**

▷ 일시 : 2024년 3월 18일

▷ 상대기관 주요 인사 : UNODC 정책공보국장 및 UNODC 마약·포렌식 부장 등 3명

**[주요 논의 사항]**

- 최근 한국의 심각한 마약류 문제 관련 정보 공유, UNODC와의 긴밀한 협력 요구
- SMART(합성마약통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대응능력 향상 및 재정기여 등 상호협력 증진

**[그림 4-12]** UNODC 고위급 인사 양자회의



## 다. 미국 마약단속국(DEA) 주관 아·태지역 국제마약 단속 회의(IDEC)

### • 개요

- 국제마약단속회의(Intern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IDEC)는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1983년 미주 지역 단속기관 회의체로 창설하였고, 2002년 국제회의체로 확대하여 매년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마약단속기관 회의로 발전함
- IDEC 산하에 대륙별 지역회의(Regional Working Group Meeting)를 운영하고 연 2회 개최

### (1) Mini-IDEC

### • 회의 개요

-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이전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각 대륙별 마약류 관련 이슈를 종합하여 의제를 선정하고, 이후 본 회의 때 안건을 제출하도록 한 사전 지역회의

### •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26일 ~ 3월 27일(2일), 베트남 다낭

### • 회의 규모 :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몽골, 홍콩, 태국 및 한국 총 16개국 마약관계관 약 100여 명 참석

### • 주요 내용

- **미국 마약단속국(DEA)** : 아·태지역 내 전구물질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주로 출발하고 있고, 주요 마약 생산지인 멕시코는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전구물질을 공급받고 있음. DEA는 멕시코 카르텔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관련 정보 공유 요청을 기대함
- **베트남公安부 마약통제국(CNPD)** : 마약사범은 감소하였고, 마약류 대부분은 골든트라이앵글, 남미 등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음. 정부는 마약사범 치료재활과 교육, 전구물질 통제강화 및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대응하며, 해외 기관들과도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미국 국제마약법집행국(INL)** : 미국 국무부 산하 기관으로서 9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인프라를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음. 美 국무부 주도로 「합성마약 대응을 위한 글로벌연대」를 창설하여 약 150개국과 함께 분야별 마약범죄 대응방안 수립함

- **일본 경찰청** : 마약류 압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대마 압수량은 급증하였음. 마약류 밀수는 주로 중국, 멕시코, 서아프리카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어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일본 경찰청은 1995년부터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해외기관들과도 공조하고 있음
- **뉴질랜드 경찰청** : 뉴질랜드 내 높게 형성된 마약 거래가격으로 인해 국제마약 범죄조직의 타깃이 되어 있고, 주요 소비 마약류는 필로폰으로, 최근 소비량이 약 27% 증가함. 불법 오토바이 갱단 등 지역 범죄조직의 마약 밀수·생산, 자금세탁 등의 범죄 심각한 상황임. 2000년대 중반 이후 남미 카르텔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협업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 **한국 검찰청** : 2023년 마약사범 및 마약류 압수량 급증,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수입됨에 따라 국제 공조를 통한 밀반입 차단이 매우 중요하고, 대검 마약과는 매년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및 공적개발원조(ODA),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최를 통해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유지·강화 해오고 있음

## (2) 제38차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 **개요**
  - 2023년도 회의 의제는 「Disrupting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and their Supply Chains (초국가적 범죄조직과 공급망 차단)」
- **일시 및 장소** : 2024년 9월 25일 ~ 9월 27일(3일), 그리스
- **회의 규모** : 美 마약청 및 130개국의 마약관계관 400여 명

[그림 4-13] 미국 DEA 주관 아·태지역 국제마약 단속 회의(IDEC)



#### • 주요 내용

- **미국 마약단속국(DEA)** : 마약범죄조직은 끊임없이 마약 사업을 확장하며 인류 공영을 위협하고 있는 바, 마약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힘을 합쳐야 함을 강조
- **그리스 경찰청** : 현대 최첨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범죄 활동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의 마약범죄 확산에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 그리스는 유럽·아시아·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마약류 유통의 주요 관문이 될 수 있기에,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공조수사 등 국제협력을 통해 마약 밀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 비규제 원료물질이 전용되어 제조된 마약류의 남용을 주시해야 하는 바, 10년간 28종의 원료물질을 새롭게 규제 물질로 규정하였음. 원료물질

생산 업체와 함께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합동수사본부(JIATF, Joint Interagency Task Force)** : 각국 마약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상에서의 마약류 압수 작전을 실행함. 잠수정을 이용한 마약류 밀매가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데, 현재 2~3톤 수준이나 향후 그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기술 사용, 암호화폐, 자금세탁 등에 대한 그룹별 워크숍 실시**

## 라. 제45차 마약류 법집행기관장 회의(HONLEA)

### • 개요

- UNCND(유엔마약위원회) 산하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주관 지역회 의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약류 법집행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지역 내 마약류 동향 및 마약류 범죄 대응방안 등 논의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24일 ~ 10월 27일(4일), 인도네시아 발리
- 회의 규모 : 아시아·태평양 지역 UN 회원국 총 20여 개국

[그림 4-14] 제45차 마약류 법집행기관장 회의(HONLEA)



## • 주요 내용

- **UNODC** : 필로폰은 동남아시아(44%), 남미(45%)에 집중되어 있고, 동남아시아 내 마약 범죄조직이 생산 및 유통경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어, 마약류 압수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마약류 가격이 높은 한국, 일본 등에 유출될 것으로 우려되어 적극 대응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 :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해상으로 마약류 유입이 이루어지고, 무인도 등 감시망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드론 등의 장비를 이용한 원격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 화물에 은닉된 밀반입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차원의 재활 프로그램 제공 노력 중임

## 마.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 • 개요

- 1987년 유엔총회에서 매년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강력한 마약류 통제를 촉구하였고, 이에 한국 정부는 체계적인 마약류 대응을 위해 1989년 대검찰청에 마약과 신설함
- 대검찰청 마약과는 같은 해 각국 마약류 현황 파악 및 정보교류, 국제공조수사 강화를 위해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의 마약관계관이 참석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창설함
- ADLOMICO는 최초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 마약관계관이 참석한 회의체로 시작하여 해마다 규모를 확대하였고, 현재 UN으로부터 성공적인 마약퇴치 국제회의체로 인정받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약 관련 국제회의로 발전함
- 대검찰청이 주관하여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며, 각국 현황, 공조 강화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2019년 제29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4년만에 제31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30일 ~ 10월 31일(2일), 한국 제주
- **회의 규모**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단(INCB) 등 6개 국제기구, 북미, 아세안 10개국, 아·태, 유럽 등 28개국, 14개 국내 유관기관 등 250여 명 참석

[그림 4-15]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 • 주요 내용

### (1) 세션 I : 국제 마약류 유통 및 대응현황, 공조시스템 소개

- **한국 검찰총장(개회사)** : 최근 마약범죄는 조직화·첨단화로 인해 전 세계로 무차별 확산되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고, 한국 검찰은 ADLOMICO 회의를 통해 마약범죄 공동대응의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함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최근 5년간 지역 내 필로폰 압수량 급증 이유 및 동향을 소개하고, 정보 공유·분석 및 상호협력 등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국제마약통제단(INCB)** : INCB에서 개발·운영 중인 국제 공조 기반 마약류 신속대응 프로그램(PEN, GRID) 역할과 활용 방법을 소개함
- **세계관세기구(WCO)** : 밀수정보 분석·공유 목적 12개 지역에 정보연락사무소(RILO)를 운영하고 있음. 아태사무소(도쿄, 35개국)는 최근 동향 경계정보 발령하고 회원국의 신속대응을 지원함. 최근 펜타닐 등 합성마약의 호주·뉴질랜드 등 지역 내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태국 發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음

## (2) 세션 II : 각국의 마약류 현황 및 대책, 국제 공조수사 사례 소개

- **한국 검찰** : 한국의 마약류 범죄 통계 및 최신 동향, 태국·말레이시아 등과의 공조사례 발표함
- **태국 마약청(ONCB)** : 태국 내 마약류 일반동향 및 통제 정책,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 상황 및 주요 수사사례 공유함
- **미국 마약단속국(DEA)** : DEA 소개 및 필로폰, 펜타닐 동향 정보 공유, 마약대응 관련 기관 간 DEA를 통한 신속한 공조 방법을 소개함

## (3) 세션 III : 최근의 특이 마약류 유통 및 대응현황

- **호주 연방경찰청(AFP)** : 주요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니타젠(Nitazenes) 등 유통 현황을 소개함
- **캄보디아 마약청(NACD)** : 캄보디아의 마약류 퇴치를 위한 노력 및 대응방안을 공유함
- **주요 마약류 유입 국가 기관들과의 양자 회담 개최**
  - 주요 마약류 발송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양자 회담을 통해 2025년부터 각국 마약관계기관에 수사관을 상호 파견하여 국내 수사로 정체가 규명된 국제 마약밀수를 현지에서 적발하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실시하기로 협의

## 바.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 • 개요

- 2012년 9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마약류 범죄정보 공유 및 국제수사 등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SEAN 10개국과 함께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설립, 대검찰청 마약과에 사무국을 설치

- 회원국 11개국은 마약범죄 공조수사, 수사장비 지원사업 및 수사관 상호파견 등을 골자로 한 MOU 체결을 통해 회원국 지위를 획득, 2010년 10월 MOU 체결을 시작하여, 2017년 9월 말레이시아 회원국 가입을 마지막으로 현재의 한국+ASEAN 11개국 체제를 갖추



[그림 4-16]  
APICC

## • APICC 수사장비 지원사업

### (1) 사업 개요

- APICC 설립 이후 대검찰청은 매년 회원국 대상 마약단속장비 지원 및 초청연수 등을 통해 수원국의 마약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원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 밀반입 사전차단에 크게 기여
- 회원국과의 MOU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수행 등을 위한 한국 검찰수사관을 회원국에 파견하여 국외 도피 한국인 마약사범 검거·송환 및 공조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 역대 지원사업 실시 현황

[표 4-1] 역대 지원사업 실시 현황

연도	지원국	연도	지원국
2012	메콩강 국경사무소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2018	베트남
2013~2015 상반기	필리핀	2019, 2021~22	태국
2015 하반기	베트남	2020	코로나19로 미 실시
2016	캄보디아	2023	베트남
2017	라오스	2024	말레이시아

### (3) 2024년도 말레이시아 경찰청 마약수사국(NCID<sup>50</sup>) APICC 수사장비 지원사업

① 사업수행 기간 : 2024년 5월 ~ 8월(3개월)

② 사업수행 내용

- 2023년 국내 말레이시아 發 필로폰 밀수량 및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사범 증가로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4년도 수원국으로 말레이시아를 선정함

50) Narcotics Crimes Investigation Department

[그림 4-17] NCID 측과 미팅(상) 및 단체사진(하)



- 2024년 5월 ~ 8월, NCID에 검찰수사관 1명을 사업수행관으로 파견하고, NCID 측 지원요청 마약 단속 장비 목록을 확인하고 예산 내 집행 가능성, 실질적 장비 지원 필요성,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점검을 통해 지원사업을 착수함. 현장 수사 지원 목적으로 드론을 포함한 은닉형 영상녹화 장비, GPS 트래커 등을 지원함

[그림 4-18] 대검찰청-NCID 단체사진(상),  
장비인도식을 하고 있는 NCID 마약수사국장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하)



제1장 마약류의 개요

제2장 마약류 범죄 대응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 (4) APICC 총회 및 워크숍

##### ① 총회 및 워크숍 개요

- APICC 사무국은 회원국 마약법집행기관의 기관장(급)을 대상으로 APICC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사무국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총회(General Meeting), 각국 수사사례 및 대응방안, 공조 필요사건 등을 회원국 실무자 간 공유하는 워크숍(Workshop)을 매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여, 회원국과 공조체제 유지 및 강화를 도모

##### ② 역대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 현황

[표 4-2] 역대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 현황

정기총회		워크숍	
2012년	한국 부산	2013년	태국 방콕
2014년	한국 부산	2015년	베트남 하노이
2016년	한국 부산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8년	베트남 하노이	2019년	태국 방콕
2023년	한국 부산	2024년	한국 제주

##### ③ 2024년도 제5차 APICC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29일, 한국 제주
- 주요 참석자 : APICC 사무국장(대검 마약과장) 및 APICC 회원국 10개국 대표단 등 총 37명 참석

##### [회의 내용]

- APICC 사무국 측 발표를 통해 2024년도 사무국 주요 활동 및 향후 계획 공유, 특히 불필요한 명칭 분리로 회원국의 혼란이 있었던 총회와 워크숍을, 2025년부터 총회로 통일하여 개최 예정
- 라오스, 미얀마 및 필리핀 등 회원국 내 불법 마약류 밀매 동향, 신종 마약류 대응 및 마약범죄 대응책 등을 발표, 워크숍을 통해 회원국간 아·태지역 내 마약범죄 공동대응 의지 확인

[그림 4-19] APICC 워크숍 참석자 단체사진(상) 및 회의장 전경(하)



제1장 무역류의 개요

제2장 무역류 범죄 및 단속 규정

제3장 국내 동향

제4장 국제협력 현황

## 사. 공적개발원조(ODA<sup>51)</sup>)

### • 개요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 위원회(OECD DAC) 내 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임
- 한국은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지속적인 예산확대로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외교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

### • 관련 법에 따른 ODA의 기본정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대검찰청은 2010년부터 매년 중점협력국 1개국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단속 장비 지원, 국내 초청연수, 현지 캠페인 개최 등 마약통제 인프라 및 인적 역량 강화 지원

51)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 역대 ODA 지원국가

[표 4-3] 역대 대검찰청 ODA 마약류 퇴치 지원사업 대상 국가

역대 대검찰청 ODA 마약류 퇴치 지원사업 대상 국가					
2010년	캄보디아	2015년	타지키스탄	2020년	필리핀
2011년	라오스	2016년	키르기스스탄	2021년	라오스
2012년	필리핀	2017년	몽골	2022년	캄보디아
2013년	방글라데시	2018년	라오스	2023년	몽골
2014년	우즈베키스탄	2019년	캄보디아	2024년	인도네시아

## • 2024년 대상 국가 : 인도네시아

(1) 사업수행 기간 : 2024년 5월 27일 ~ 2024년 11월 9일(5개월)

(2) 현지 협력기관 : 인도네시아 마약청(BNN),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등

### (3) 수행업무

- 인도네시아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로 인한 범죄 증가, 자국 내 불법 대마 재배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통제 인프라 및 인적 역량이 부족하여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도네시아 마약청을 대상으로 마약류 단속 장비(수사차량 및 드론 등) 지원 및 마약관계관 초청 연수, 마약수사관 워크숍 개최, 마약류 퇴치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해 마약류 통제 역량을 강화

### (4) 주요 지원 내용

#### ① 마약류 단속 장비 지원

- 수사차량, 드론, 전술 유니폼 및 부츠를 포함한 약 4억 원 규모의 수사 장비를 지원함
- 특히 인도네시아는 국토가 넓고 많은 섬이 분포하여 대마 밀경지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마 밀경지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최신형 드론을 지원하였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아체(Ache)주에서 대마 대량 재배지를 적발하였음

[그림 4-20] 지원한 최신형 드론을 이용한 대마 단속 장면



### ② 마약관계관 한국 초청 연수 진행

- 인도네시아 마약청 대외협력국 조정관 등 마약관계관 5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마약류 동향 및 한국 검찰의 마약 단속, 국제 협력 현황 등을 소개하고,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마약류 감식실, 관세청 및 해양경찰청 유관기관을 견학하였음

### ③ 현지 마약류 퇴치 캠페인 및 몽골 마약관계관 워크숍 개최

- SMU 고등학생과 자카르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개최하고, 마약류 중독의 폐해와 마약류 중독의 원인 등에 대해 강연하여, 마약류 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전파함
- 인도네시아 마약관계관 약 50명을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춘 마약류 수사기법 및 국제 공조 수사 시스템 등을 강의하여, 인도네시아 마약수사관들의 역량을 강화하였음

### ④ 2024년 사업 종료식 개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 출장하여 사업종료식을 개최하였는바, 지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높이 평가하였고, 향후 양국 간 마약수사의 국제 공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마약청의 협조를 당부함
- 인도네시아 마약청 부청장은 지원사업 수행에 감사를 표하면서, 마약류 문제는 단일 국가의 역량으로 퇴치가 불가능하기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그림 4-21] 인도네시아 ODA 사업종료식 - 장비 인도식 장면



### ⑤ 의의

- ODA 지원사업으로 인도네시아의 마약류 통제 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마약류의 국내 유입 뿐만 아니라 공급·경유지에서의 마약류 이동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의 마약류 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

## 아. 한국 검찰-태국 마약청(ONCB) 수사관 상호파견

### • 개요

- 2019년 급증하는 태국 發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내 태국인 마약류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대검찰청과 태국 마약청(ONCB<sup>52</sup>) 간 상시적인 상호파견 체제를 구축함
- 2024년까지 총 10명(한국 5명, 태국 5명)의 수사관을 상호파견하였고, 각 파견 수사관을 통해 다수의 한국인 도피 마약류 사범 송환 및 태국 내 한국행 마약류 밀수 사전적발 등의 성과를 달성, 양국의 마약류 범죄 퇴치를 위한 노력과 역량은 지속적으로 발전 중임

52)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태국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태국 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과 마약류 통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하는 기관

• 2024년도 한국·태국 수사관 상호파견

- 근무 기간 : (한국 수사관 태국 근무) 2024년 4월 ~ 12월(8개월)  
(태국 수사관 한국 근무) 2023년 10월 ~ 2024년 4월(6개월)

- 주요 공조 실적

- ▷ 태국 파타야에 체류하며 한국인 운반책을 모집하여 6회에 걸쳐 필로폰 총 1.4kg을 밀수한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태국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태국 마약청 및 이민국과 약 10일에 걸친 잠복 및 탐문 수사로 현지에서 검거하여 송환한 사례(2024년 10월, 부산지검)
- ▷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38g을 밀수입한 한국인 1명을 계좌추적 통해 특정하고, 즉각 태국 파견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약 한 달 만에 현지에서 검거하여 국내로 강제 송환한 사례(2024년 10월, 대구지검)
- ▷ 인천지검 필로폰 20kg 통제배달 수사 현장에 동행한 대검 근무 태국 파견관이 파악한 마약류 발송지를 태국 마약청과 신속히 공유하여 태국 현지에서 헤로인 22kg을 적발하고 발송책을 검거한 사례(2024년 4월, 인천지검)
- ▷ 태국에서 필로폰 약 997g을 국내 거주 공범자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송부한 밀수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추적하던 중, SNS에서 태국인 아내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태국 현지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여 검거한 사례(2024년 2월, 청주지검)

[그림 4-22] 인천지검 헤로인 적발 사진(좌), 청주지검 피의자 태국 현지 검거당시 사진(우)



### • 향후 계획

- 국내 동남아 53) 마약류 밀수차단 및 국외 도피 마약사범 검거·송환을 위해 태국을 포함한 국내 주요 마약류 밀수출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에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sup>53</sup>)' 구축을 위한 상호파견 체제 확장을 추진 중임
- 2025년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향후 캄보디아 및 라오스까지 검찰수사관을 직접 파견하여, 아·태지역 내 촘촘한 실시간 공조망 구축 예정

53)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Striking Origin Point: 주요 마약 발송국 현지에 검찰수사관을 파견하여 마약 발송 총책 등을 검거하여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막고 마약류 유입 원인을 제거하는 시스템

## 제3절 검찰의 국제 공조 수사사례

### 1. 국제 공조 수사사례

-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후, 첫 범죄인 인수(2003년 5월 서울중앙지검)

####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02년 1월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9.3kg 밀수입

#### (2) 공조 사항

- 2003년 5월 한·중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중국 공안부와 협조해 피의자를 심양에서 인수, 국내로 송환

-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범죄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2003년 6월 서울중앙지검)

#### (1) 사건 개요

- 한국 국적 대학생 등 3명 및 미군 9명은 2003년 6월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호텔의 레이브 파티(rave party) 현장에서 MDMA 밀매·투약

#### (2) 공조 사항

- 서울중앙지검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혐의자들을 확인한 후, 2003년 6월 미국 마약단속국(DEA), 미육군 범죄수사사령부(CID), 미공군 방첩수사대(OSI)등과 공조하여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

## • 인천국제공항 경유, 아편 밀수사범 공조수사(2003년 12월 인천지검)

### (1) 사건 개요

- 미국 국적 마약운반책 등 5명은 2003년 12월 태국으로부터 아편 9.88kg을 수화물 가방에 은닉한 후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밀수출

### (2) 공조 사항

- 인천지검은 수화물 가방에서 아편 9.88kg을 발견하고, 최종 도착지가 미국 애틀랜타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즉시 상황 전파 등 공조수사 진행
- 마약단속국(DEA)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운반책 3명과 인수책 2명 등 5명을 검거하고, 아편 20kg을 압수

## • 한·중·괌 연계 필로폰 밀수사건(2006년 8월 서울중앙지검)

### (1) 사건 개요

-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06년 8월 중국 청도에서 인천항으로 필로폰 약 800g을 밀수입한 후 같은 달 그 정을 모르는 운반자 2명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 중 약 530g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밀수출

### (2) 공조 사항

- 서울중앙지검은 중국산 필로폰을 괌으로 밀수출하려는 제보를 입수하고, 관세청 및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하여 국내·괌 양측에서 수사 계획을 수립
- 인천공항에서 필로폰 530g을 압수한 후, 국외팀은 괌에서 공범 1명을, 국내팀은 은신 중이던 공범 2명을 각각 검거

-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수(2008년 9월 서울중앙지검)**

- (1) 사건 개요

- 나이지리아 국적 피의자는 2002년 5월 ~ 11월 우리나라 국적 여성 10명 등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코카인 약 33kg과 대마 약 40kg을 페루, 태국, 가나에서 우리나라,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영국으로 밀수입

- (2) 공조 사항

- 서울중앙지검은 2002년 12월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피의자는 2003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검거됨
    - 피의자는 2004년 2월 덴마크로 인도되었으나 탈옥하여 중국으로 도피, 2007년 2월 중국 선양에서 다시 체포됨
    - 법무부 및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8년 9월 중국에서 피의자를 인수해 국내로 송환

- **헤로인 원료물질 무수초산 10.64톤 압수(2009년 8월 서울중앙지검)**

-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파키스탄인 2명과 공모하여 2009년 2월 인천항에서 섬유로 위장한 무수초산 5톤을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하고, 8월 인천항에서 섬유로 위장한 무수초산 10.64톤을 중국 외항선에 선적한 후 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 (2) 공조 사항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서울세관, 미국 마약단속국(DEA) 한국지부, 파키스탄 마약 수사청과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를 통하여 무수초산을 적발하여 밀수출을 차단

## • 필로폰 1kg 밀수 시도한 동남아시아 밀수조직 적발(2010년 11월 인천지검)

### (1) 사건 개요

- 피의자 4명은 2010년 11월 대만으로부터 영양갱 및 비누로 위장한 필로폰 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말레이시아로 밀수출 하려다 적발

### (2) 공조 사항

- 2010년 11월 미국 마약단속국(DEA)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인천지검은 세관과 공조하여 인천공항에서 필로폰 1kg을 은닉한 운반총책 등 3명을 검거하고 구속하였고 이후 마약단속국(DEA) 및 인터폴과 협조해 공급총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 조치

## • 멕시코發 필로폰 밀수사범 구속(2011년 5월 서울중앙지검)

###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09년 12월 ~ 2010년 5월 멕시코에서 국제특송화물 및 국제통상우편물을 이용하여 22회에 걸쳐 우리나라로 필로폰 총 287.39g 밀수입

### (2) 공조 사항

- 2010년 1월 대검찰청은 미국 마약단속국(DEA)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피의자에 대해 적색수배 조치하였고, 피의자는 같은 해 멕시코에서 검거되어 탈주했으나, 그 다음해 5월 일본 경유 항공기 내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됨

- **한국판 국제 마약왕 범죄인 인수(2011년 5월 서울중앙지검)**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운반책 모집자 2명과 공모하여, 2004년 10월 운반책 2명에게 코카인 37kg을 남미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2005년 3월 운반책 1명에게 코카인 11.5kg을 페루에서 스페인으로 운반하도록 지시

(2) 공조 사항

- 2005년 8월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브라질 경찰은 2009년 7월 브라질에서 피의자를 검거
- 2011년 2월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인도 결정에 따라, 2011년 5월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

- **국제 공조수사를 통한 필로폰 544.9g 밀수책 검거(2012년 2월 인천지검)**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11년 11월 중국에서 필로폰 544.9g이 은닉된 전기 프라이팬을 운반책에게 건네주고, 운반책은 다음날 중국 청도 유순공항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우리나라로 입국하려다 중국세관에 적발되어 필로폰 밀수입 미수에 그침

(2) 공조 사항

- 2011년 11월 중국세관의 통보를 받은 인천지검은 국제공조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 2012년 2월 세관과 협조하여 귀국한 피의자를 검거·구속

- **운반책 이용,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3.5kg 밀수입한 총책 검거(2013년 6월 인천지검)**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공범 1명과 공모하여 2011년 12월 운반책 3명을 이용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 약 2.1kg을 밀수입하고, 다른 공범 1명과 공모하여 2012년 3월 운반책 2명을 이용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 약 1.4kg 밀수입

(2) 공조 사항

- 2011년 12월 인천지검은 필로폰 운반책 3명을 체포하고,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및 적색수배 조치
- 2013년 4월 대검 마약과는 APICCC를 통해 필리핀 마약청(PDEA) 및 이민청에 피의자 검거 협조 요청, 2013년 5월 필리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6월 우리 국적 항공기 내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송환

-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 도피 필로폰 밀수사범 검거, 구속(2014년 3월 평택지청)**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10년 11월 ~ 2011년 3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 300g 밀수입하고, 필로폰 20g 판매 및 필로폰 30g 매매 알선

(2) 공조 사항

- 2014년 1월 중국公安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였고, 2014년 3월 중국公安부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

- **베트남으로 도피 중인 마약류 밀수사범 강제송환(2014년 12월 인천지검)**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11년 10월 ~ 2012년 1월 총 18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12g, 엑스터시 20정, 케타민 50정 밀수입

(2) 공조 사항

- 2014년 12월 APICC를 통해 베트남公安부와 공조하여 12월 하노이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강제추방 형식으로 국내 송환

-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15kg 밀수사범 강제송환(2015년 5월 전주지검)**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2014년 3월 멕시코 마약 밀매조직에게 필로폰 약 15kg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 같은 달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

(2) 공조 사항

- 2014년 10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및 적색수배 후, 한·중 마약대책회의를 통해 체포·송환을 요청
- 2015년 2월 일본 경찰로부터 피의자가 일본 입국 후 홍콩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공유받아 홍콩에서 긴급인도구속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5월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

## • 인터넷으로 마약류 판매한 마약류 사범 강제송환(2015년 5월 서울중앙지검)

###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2014년 1월 ~ 3월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구매자 194명으로부터 마약류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원 상당을 송금받고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 (2) 공조 사항

- 2014년 10월 한·중 마약대책회의를 통해 중국公安부에 체포 요청, 12월 심양에서 피의자 체포 및 긴급인도 구속·인도청구 진행
- 2015년 11월 중국公安부의 강제송환 결정에 따라, 12월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

## • 캄보디아 거주 필로폰 약 1.3kg 밀수사범 2명 송환·구속(2016년 2월 대전지검)

### (1) 사건 개요

- 피의자 등 2명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2015년 8월 우리나라로 필로폰 약 1.3kg 밀수입

### (2) 공조 사항

- 2015년 9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2016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 및 APICC를 통해 캄보디아 마약청(NACD)에 검거를 요청
- 같은 달 포이펏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2016년 2월 국내로 송환

- **중국 및 캄보디아發 필로폰 약 6.8kg 밀수입한 총책 등 3명 검거  
(2016년 5월 인천, 부산지검)**

(1) 사건 개요

- 피의자 등 6명은 중국 및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2014년 10월 ~ 2016년 1월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중국 및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 약 6.8kg을 밀수입

(2) 공조 사항

- 2014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인천·부산지검 및 대검은 총책과 조직원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APICC를 통해 캄보디아 마약청(NACD)와 공조
- 포이펫·시엠립·프놈펜 등지에서 총책 E 및 조직원 A, D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하였고, 미검거 인원 3명에 대해 추가 검거를 요청

- **운반책 이용,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 밀수입한 총책 송환·구속  
(2017년 6월 고양지청)**

(1) 사건 개요

- 2013년 8월 ~ 2016년 4월까지 21회에 걸쳐 운반책으로 하여금 브래지어 또는 팬티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게 하여 필로폰 약 5,165g 밀수

(2) 공조 사항

- 2016년 7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및 적색수배 후, 중국 금독국(마약단속국) 및 국제회의 등을 통해 검거 요청을 진행하였고, 2017년 4월 중국에서 피의자 체포 후, 6월 국내로 강제송환

## • SNS 이용 마약류 판매사범 강제송환(2018년 2월 수원지검)

### (1) 사건 개요

- 피의자 등 3명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2017년 6월 ~ 8월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매수자들에게 SN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국내 판매 직원들에게 필로폰 은닉을 지시, 판매자들에게 미리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314회에 걸쳐 합계 2억여 원 상당 마약류 판매

### (2) 공조 사항

- 2017년 8월 수원지검이 SNS 마약판매조직 수사를 개시하고, 국내 직원 3명을 검거
- 2017년 10월 피의자 A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후, 피의자 A는 11월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되어 2017년 12월 강제송환되었고, 2018년 1월 캄보디아 마약청과 공조해 피의자 B, C를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2018년 2월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

## • 대만에서 필로폰 약 4kg 밀수한 국제마약조직원 2명 송환·구속 (2019년 11월 인천지검)

### (1) 사건 개요

- 피의자 2명은 한국을 국제마약 밀거래의 경유지로 삼아 대량의 마약류를 제3국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 11월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만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 약 4kg을 밀수입

### (2) 공조 사항

- 2016년 11월 피의자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 적색수배 후, 피의자들은 2017년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검거되었고, 2019년 9월 범죄인인도 결정에 따라 11월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

- **미국에서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한 일명 ‘마약여왕 아이리스’ 송환·구속 (2020년 4월 서울중앙지검)**

(1) 사건 개요

- 2015년 1월 ~ 10월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젯(대화명: IRIS)을 이용하여 국내 매수자들과 거래 협상을 한 다음, 국제우편을 통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 약 95g 및 대마 약 6g 합계 2,3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발송하여 이를 밀수입

(2) 공조 사항

- 2015년 11월 ‘아이리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및 적색수배 후, 2016년 6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피의자를 검거
- 긴급인도구속 및 인도청구를 거쳐, 2020년 3월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졌고, 4월 LA공항에서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송환

- **캄보디아·태국 도피 아시아 마약왕 송환·구속(2020년 6월 인천지검)**

(1) 사건 개요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태국에서 대학생과 가정주부 등을 운반책으로 활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필로폰 약 18.3kg을 밀수, 관련자 30여 명 체포 또는 기소중지

(2) 공조 사항

- 2016년 3월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되고, 피의자는 2018년 1월 캄보디아 마약청과 공조해 체포되었으나 2월 현지 수감기관에서 탈출
- 2019년 4월 태국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12월 태국 방콕에서 피의자 및 공범을 검거한 뒤, 2020년 6월 국내로 송환 및 구속

- 미국 ICE, DEA와 국제공조로 필로폰 2kg 밀수사건 총책 검거 및 국내송환  
(2021년 8월 인천지검)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20년 4월 미국에서 필로폰 2kg을 밀수, 관련자 2명 구속 기소

(2) 공조 사항

- 2020년 5월 공범 2명을 검거·기소한 후, 6월 피의자에 대해 적색수배 및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마약단속국(DEA)와 공조해 소재를 추적
- 2021년 5월 피의자를 미국 현지에서 검거하고, 피의자는 2021년 8월 강제추방되어 인천공항에서 검거

- 국제마약범죄조직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 필로폰을 밀수, 호주로 밀수출한 주범 국내송환(2022년 3월 부산지검)

(1) 사건 개요

- 2019년 12월, 2020년 7월 2회에 걸쳐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을 밀수하고, 그 중 필로폰 498kg을 2021년 1월, 2021년 4월 2회에 걸쳐 호주로 수출한 호주 국적 피의자 베트남에서 국내 강제송환

(2) 공조 사항

- 2021년 7월~8월 공범 1명을 검거·기소하고, 피의자에 대해 호주·멕시코·베트남에 형사사범공조를 요청하였고, 2022년 2월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피의자 신병을 인수해 체포하여 구속

- **태국 마약청과 국제공조로 마약류 밀수 총책 검거 및 국내송환(2023년 5월 부산지검)**

(1) 사건 개요

- 피의자들은 2022년 12월 ~ 2023년 3월 총 11회에 걸쳐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케타민 등 다종의 마약류 약 6.5kg를 국내로 밀반입

(2) 공조 사항

- 부산지검은 2023년 3월 필로폰 운반책 2명을 검거한 뒤, 태국 마약청과 공조하여 마약밀수총책을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하고 7월 국내로 강제송환

- **태국 마약청과 공조하여 태국에 은신 중인 필로폰 밀수 사범 국내 송환 (2023년 6월 대구지검)**

(1) 사건 개요

- 피의자들은 2023년 3월 필로폰 172g을 유아용품으로 위장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

(2) 공조 사항

- 대구지검은 위 필로폰 국내수령책 3명을 검거한 뒤, 태국에 체류중인 공범 2명에 대하여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태국 마약청과 공조하여 태국 방콕에 은신중인 위 공범 2명을 체포한 뒤, 2023년 11월 국내로 강제송환

## 2. 2024년 국제 공조 수사사례

- **캄보디아 發 필로폰 밀수입 피의자 베트남에서 강제송환(2024년 4월 인천지검)**

###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23년 12월 ~ 2024년 2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4kg을 복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밀수입

### (2) 공조 사항

- 인천지검은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캄보디아 마약청 및 베트남公安부 마약통제국과 공조 수사를 전개하여, 2024년 5월 피의자를 국내로 강제송환

- **스피커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밀수입한 피의자 태국에서 국내송환 (2024년 9월 부산지검)**

### (1) 사건 개요

- 피의자들은 2024년 7월 스피커 내부에 필로폰 약 1.4kg을 은닉하여 국내로 밀수입

### (2) 공조 사항

- 부산지검은 필로폰을 밀반입한 피의자 1명을 체포한 후 공범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태국에 은신중인 또 다른 피의자를 특정한 뒤, 태국 마약청 및 이민국과 공조하여 태국 현지에서 체포하고 2024년 10월 국내로 강제송환

- **필로폰을 배낭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피의자 필리핀에서 국내송환  
(2024년 9월 부산지검)**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24년 8월 필로폰 480g을 배낭에 은닉하여 필리핀에서 김해공항으로 밀수

(2) 공조 사항

- 대검찰청은 필리핀 마약청 및 이민국에 피의자의 범죄사실 및 인터폴 적색수배 정보 등을 제공하였고, 필리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파악한 후 마닐라에서 체포하여 2024년 12월 국내로 강제송환

- **아프가니스탄 發 필로폰 밀수입 피의자 검거(2024년 12월 인천지검)**

(1) 사건 개요

- 아프가니스탄 發 필로폰 12kg을 2024년 12월 국내에서 통제배달, 일본인 수거책을 검거

(2) 공조 사항

- 2024년 9월 카자흐스탄 수사기관은 한국행 필로폰 12kg을 적발한 뒤 한국에 통제배달을 요청하였고, 인천지검은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이를 수거하는 일본인을 긴급체포



### 발행인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노만석
----------------	-----

### 기획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신준호
대검찰청 마약과장	이태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한나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윤신명

### 편집

---

대검찰청 마약과	이병록	박재열
	안민석	한태환
	김정옥	박하늘
	홍종무	한가은
	손유정	이재현

### 감수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송형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거량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오승식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신석규

## 2024 마약류 범죄백서

---

2025년 5월 30일 인쇄

2025년 6월 16일 발행

발행 : 대검찰청 02-3480-2292~5

인쇄 :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2024  
**마약류  
범죄백서**



**검찰**

PROSECUTION SERVICE